



제7회 아시아 태권도선수권 대회를 마치고

고른기량으로 종합우승 차지



한국남자대표팀 코치 김 우 규

주 제7회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대회가 지난 4월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호주 등 18개국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호주의 다윈시에서 개최되었다.

18개국에서 총 95명의 인원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 한국대표 선수단은 황호순 중고연맹회장을 단장으로 하여 황춘성 협회전무사, 김경지 감독, 김우규 코치, 윤종욱 트레이너 등의 임원진과 선수들로 구성되었는데, 핀급에서 헤비급에 이르기까지 8체급에 걸쳐 유망한 선수들이 보여준 기량에 힘입어 종합우승이라는 성과를 낳았다.

그러면 3일간의 대회기간 동안 빛어졌던 크고 작은 이야기를 경기전적 중심으로 소개해 보기로 한다.

일 시 : 1986. 4. 18~20 (3일간)

장 소 : 호주 다윈

참 가 국 :

- | | | |
|--------------|--------------|----------------|
| ① AUSTRALIA, | ② BAHRAIN, | ③ BHUTAN, |
| ④ CH TAIPEI, | ⑤ FIGI, | ⑥ HONG KONG, |
| ⑦ INDIA, | ⑧ INDONESIA, | ⑨ IRAN, |
| ⑩ JAPAN, | ⑪ JORDAN, | ⑫ KOREA, |
| ⑬ MALAYSIA, | ⑭ NEPAL, | ⑮ NEW ZEALAND, |
| ⑯ SINGAPORE, | ⑰ THAILAND, | ⑱ GUAM |

이상 18개국

참가인원 : 남자 95명

● 한국 선수단 명단

단 장 : 황호순 / 중고연맹회장

회의대표 : 황춘성 / 협회전무이사

감독 : 김경지 / 경희대태권도학과장

코치 : 김우규 / 동아대태권도코치

트레이너 : 윤종욱 / 경북협회총무이사

남자선수 : 핀 급 / 김영주

플라이급 / 이해진

밴텀급 / 지용석

페더급 / 정승환

라이트급 / 이창건

웰터급 / 윤순철

미들급 / 장필환

헤비급 / 이정진 (이상 8명)

제7회 아시아 태권도선수권 대회에 출전하는 우리 선수단 일행은 지난 86년 4월15일 김포공항 출국에 앞서 엄운규 부회장, 홍중수 부원장의 『열심히 싸워달라』는 격려의 말을 저마다의 가슴에 깊이 간직한 채, 싱가포르 에어라인 소속 SQ 053기 편으로 12시40분 이륙했다. 타이페이, 싱가포르를 경유, 다음날인 16일 오전 4시 20분, (한국시간 오전 3시50분) 호주 노던테리토리주다윈 공항에 도착했다.

대회조직 위원장 JAMES KYONG-SIK PARK(박경식 사범)의 영접을 받고, 현지에서 먼저 도착해 있던 이규석(유도대 교수) 아시아 연맹 사무총장과 조직위원회의 안내로 숙소인 다윈시 SMITH STREET의 PENINSULAR에 여장을 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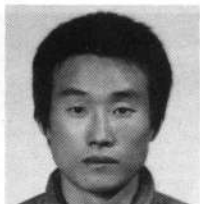
다음날 15:20, 이진수 사범의 안내로 숙소에서 약 20km 떨어진 부시(울창한 숲이 아닌 풀과 작은 나무가 섞인 숲을 호주에서 부르는 말) 속에 자리 잡은 좌



◇핀 금 / 김영주선수



◇플라이금 / 이해진선수



◇벤 텀 금 / 지용석선수



◇페 더 금 / 정승환선수



◇라이트금 / 이창권선수



◇헬 터 금 / 윤순철선수



◇미 들 금 / 장길환선수



◇헤 비 금 / 이정진선수

「헤드기어」는 선수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국제규모 대회에서는 이미 착용되고 있기에 국내경기 때에도 착용하여 적응훈련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다.

석 수 1,500여개의 시합장 「MARRARA INTERNATIONAL INDOOR SPORTS STADIUM」에 도착하여 체계량을 체크하고, 조직위원회 경기부장 오영열 사범의 배려로 이번 시합에 사용한다는 「헤드기어」를 빌려 현지적응 훈련을 했다. 「헤드기어」는 선수를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국제규모 대회에서는 이미 착용되고 있기에 국내경기 때에도 착용하여 적응훈련이 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었다.

저녁식사 때에는 박사범의 부인이 김치, 된장국 등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고 그곳의 계절은 아직도 초겨울이었는데 32~35℃ 정도로 한국의 한 여름 날씨와 같았고 집집마다 수영장이 갖추어져 있어 우리를 일행을 당황하게 하였다.

대회 전날인 17일, 숙소로부터 30분정도 거리에 있

는 호텔 피닉스에서 다음 대회 개최국을 내팔로정하고 대진추첨이 끝난 후 다인시 공관에서 다인시장 초청 만찬회에 임원 및 선수모두 참석하여 각국 선수단과 어울려 즐거운 한 때를 가졌다.

제 1 일 경기(4. 18) 시합선수 : 페더금—정승환
헤비금—이정진

페더금 정승환 선수는 팔의 선수를 뒷차기로 2회 K.O 승, 대만 선수를 찍기 등으로 쉽게 승리하고, 준결승시 이란의 M.I GHADERI 주먹의 얼굴공격에 콧등을 맞고 다운, 대단히 걱정했으나 정신력으로 이를 극복하여 고비를 넘긴 후 기세가 당당한 홈팀 호주 선수에게 다양한 기술로 쉽게 판정승, 많은 박수를 받았다. 첫번째 금메달로 태기가 시상대에 필적이며, 애국가가 울려 퍼지니 새삼 짜릿한 흥분이 감돌았다.



◆ 필리핀의 경량급선수, 쿠웨이트와 카타르의 기량좋은 선수가 출전하지 않은 본 대회는 충분한 전력분석을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헤비급 이정진 선수는 이란선수를 3회전에서 찍기로 다운, 쉽게 승리. 뉴질랜드 선수는 2회 초반 접근전 연속공격 중 원반 얼굴차기로 K.O 승하여 들것에 실려 나가도록 하고 준결시에는 바레인 선수에게 뒤후리기로 K.O 승을 장식하는 등 연속 다운뎀 K.O 승을 거두고 결승전에 진출했다. 오후 8시 시합장 내 입주의 여지없는 관중 앞에서 싱가포르의 TCH SOON KOK 에게 찍기, 뒤후리기 등 다양한 기술로 두번째 금메달을 차지, 순조롭게 첫날을 보냈다.

제 2 일경기 (86. 4. 19) 시합선수 : 핀 급-김영주
웰터급-윤순철
밴텀급-지용석

핀급의 김영주 선수가 대진추첨에서 1회 부전승으로 2회에 진출, 이란과의 첫 경기를 쉽게 이기고 준결승 호주 선수에게 많은 기술을 시도했으나 효력이 없어 고전하던 중 3회전에서 점프하여 찍기 공격을 한 것이 적중, 다운시켜 판정승을 거두었다. 결승전에는 6회대 때 한국의 김지태 선수에게 이긴 바 있는 JANG JUNG SAN (자유중국) 선수와 스피디한 공격으로 밀고 밀리는 공격을 주고 받았으나 결국 판정패 했으며, 핀급에서 6회, 7회 연패하여 참으로 애석한 결과를 낳았다.

밴텀의 지용석 선수는 1차, 차 싱가포르에 판정승, 준준결승에서 태국 선수에 K.O 승, 준결승에서 네팔에 K.O 승, 결승에서는 요르단의 TAREGA LABBIDI 를 두드러진 배짱과 다양한 기술로 제압, 세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웰터급의 윤순철 선수는 1차 부전승, 준준결승은 싱가포르에, 준결은 괌의 한국계 LEE 선수에게 쉽게 승리했으며, 결승도 호주의 ZORAN 선수와 윙등한 기량차이를 보여 네번째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종합우승을 확정지었다.

제 3 일경기 (86. 4. 20) 시합선수 : 플라이급-이해진
미 들 급-장질환
라이트급-이창건

플라이급 이해진 선수의 대만과의 경기는 공격 패턴 등 스타일이 같아 기술이 먹히지 않아 고전했으나 판정승했고, 이후 인도네시아 기대주 JEFFY TRIAJI 의 공격에 받아차기로 득점을 뽑아 승리, 말레시아 선수를 가볍게 이기고 결승전에 진출하여 이란 선수를 점프, 몸돌려차기(턴) 등으로 제압, 다섯번째의 금메달을 얻어 냈다.

라이트급 이창건 선수는 다양한 경기운영으로 네팔, 싱가포르, 이란 등을 쉽게 이기고 결승에서 호주의 기대

주 한국계 조진호에게 판정승하여 여섯번째의 애국가 가 경기장안에 정엄하게 울려 퍼졌다.

미들급 정지환 선수는 주장답게 여유를 가지고 1차전, 겁을 잔뜩 먹은 인도네시아 선수를 갖고 놀다시피하였고, 대만 선수에게도 월등한 기량차이로 승리하여 준결승전에 진출하였으나 홈팀 호주 JIM FASSOLIS 선수의 도망가기 작전에 말려 멋진 기량을 제대로 발휘해 보지도 못하고 판정패, 동메달에 머물렀는데, 저마다 「억울한 한판」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로써 남자선수의 시합이 모두 끝나 금6, 은1, 동1의 종합우승으로 제7회 대회를 마무리 지었다. 쉽게만 생각했던 우리 코칭스태프의 예견은 빗나갔고 힘과 기술을 겸비한 중량급의 중등 팀, 대만, 호주 팀의 경량급은 한국과 실력 차이가 별로 없었으며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은 받아차기를 구사하나 우리나라의 한수 아래였으며 그 외 나라는 별로 걱정할 것이 못 된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제7회 대회에는 필리핀의 경량급 선수, 쿠웨이트, 카타르의 기량좋은 선수가 출전하지 않아 충분한 전력분석은 되지 못했던 것 같다.

20일 오후 5시30분에는 열전 3일만에 걸쳐 펼쳐졌던 시합의 종합성적발표, 종합 시상, 공로감사패 전달, 다음 개최국인 네팸의 대회기 인수식 등의 순으로 폐막식을 마치고 대회조직 위원회가 준비한 바베큐와 디스크 파티로 각 나라 선수, 임원과의 친목을 이루고간

단한 기념품 교환 등으로 우의를 더욱 다지며 10시30분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장도를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 열심히 싸워 이긴 우리 선수들, 사고없이 잘 이끌어주신 황천무님과 단장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체급별 입상자 명단

체 급	등위	선 수 명	국 가 명	
FIN	1	CHANG JUNG-SAN	CHINESE TAIPEI	
	2	KIM YOUNG-JOO	KOREA	
	3	PAUL LYONS	AUSTRALIA	
	3	BUDI SETIAWAN	INDONESIA	
FLY	1	LEE HAE-JIN	KOREA	
	2	AKBAR BAKRANI BALANI	IRAN	
	3	R. SELVAMUTHU	MALAYSIA	
BANTAM	3	KIKUTA YOSHIMITU	JAPAN	
	1	CHI YONG-SUK	KOREA	
	2	TAREG A. LABBIDI	JORDAN	
	3	RAMESH KUMAR RAI	NEPAL	
	3	ANTHONY GIBB	AUSTRALIA	
	FEATHER	1	CHUNG SEUNG-HUAN	KOREA
2		PO NHU LI	AUSTRALIA	
3		SAMER B. KAMAL	JORDAN	
3		M. I GHADERI	IRAN	
LIGHT	1	LEE CHANG-KUN	KOREA	
	2	JINHO-JO	AUSTRALIA	
	3	ALI HAJIPOR KASHKESARI	IRAN	
	3	AGUS PAKPAN	INDONESIA	
	WELTER	1	YOON SOON CHEOL	KOREA
		2	ZORAN DIMOSKI	AUSTRALIA
3		HYONG HO LEE	GUAM	
3		S. H ZAHEDI	IRAN	
MIDDLE	1	JIM FASSOLIS	AUSTRALIA	
	2	WALEED	BAHRAIN	
	3	CHANG JIL HWAN	KOREA	
	3	LEE YOKE KEONG	MALAYSIA	
	HEAVY	1	LEE JUNG JIN	KOREA
		2	TCH SOON KOK	SINGAPORE
3		YOSEPH HUNGAN	INDONESIA	
3		RASHID, HASSAN	BAHRAIN	

각국의 메달획득 상황 (남자부)

국 가 명	금	은	동
KOREA	6	1	1
AUSTRALIA	1	3	2
CHINESE TAIPEI	1	.	.
IRAN	.	1	3
BAHRAIN	.	1	1
JORDAN	.	1	1
SINGAPORE	.	1	.
INDONESIA	.	.	3
MALAYSIA	.	.	2
GUAM U.S.A	.	.	1
JAPAN	.	.	1
NEPAL	.	.	1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가장 강조되는 가운데 대회를 마쳤다.

제7회 아시아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마치고

한국여자대표팀 코치 김 영 인

여자 대표 팀은 사상 처음으로 원정 경기를 갖게 되었다.

여자 선수로서 얼마나 기다리던 기회였던가./그 것도 제 7회 아시아 선수권 대회였으니

이제는 국내에서만 자생하던 단계를 벗어나 남자 선수들과 같은 여건하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대표 선수단이라는 자부심에 앞서 근심스럽고 염려스러운 며칠을 보내야 했다. 말로만 듣던 외국 여자 선수들에 대한 호기심과 중추 국민 한국 여자 선수들은 그들과 어떤 각오로 맞서야 할까 하는 의문점을 갖고 우리는 김포공항을 출발하였다.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대회 주최국인 호주의 다윈시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제일먼저 놀라게 한 것은 살인적인 더위였다.

대표 선수로 참가한 각 나라의 선수들은 똑같은 조건 속에서 4일간의 경기에 임하였으며 제각기 국가의 명예를 위하여 열심히 뛰었다. 우리 여자 대표 선수단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저조한 실력을 보여 대표 코치로서 실망감과 수치심을 맛보아야만 했다. 시합기간 중 가장 절실한 것은 선수들의 여유있는 마음의 자세였으며 또한 경기에 임하는 적극적인 자세였다. 여유있는 마음의 자세란 정신적인 안정감을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안정감과 자신감을 갖게하기 위해서는 평소의 책임 훈련량과 체중 조절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국가대표 선발전만 끝나면 연습과 체중 조절에 소홀히하는 습관은 국가의 명예나 개인의 명예 그리고 중추국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일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여자선

수가 6kg~7kg의 체중을 그것도 단 7일에 감량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신중히 생각 해야될 문제인 것 같다. 7일간의 6~7kg의 감량은 선수들에게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으며 체력과 신장에서 월등한 외국 선수들과의 시합에서 자멸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의 하나이다. 체력이 약한 선수에게는 어떠한 기술이나 정신력도 기대하기 어려웠으며 따라서 결과는 최악의 상태일 수밖에 없었고 결국 스스로 자존심만 상한 결과를 가져왔다. 국내 시합도 아닌 국제 경기에서 임하는 정신 상태는 확



◆핀 금 / 신숙 선수



◆플라이급 / 오명화선수



◆벤 팀 금 / 박선영선수



◆페 더 급 / 이은영선수



고한 신념과 승부욕에 가득차 있어야 하며 평소에 꾸준히 연습한 자기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 할 수 있도록 안정감이 있어야 한다. 여자 선수단이 가져온 결과는 누구의 책임도 아닌 우리 모두의 책임이었으며 따라서 일선에서 지도하는 각 학교의 선생님들과 선수들은 평소에 더욱 더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우리 여자 대표선수들의 확실한 실력과 현 위치를 평가하고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본 대회를 통하여 마련되었으며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확실해졌다. 이제 우리의 위치를 확

고히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의 비등있는 경기를 많이 가져야 하겠고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남자 선수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기술과 여성에 알맞는 새로운 기술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관중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과감한 동작에 의한 공격과 난이도가 높은 기술개발을 통하여 흥미있고 재미있는 경기를 개발해 나아가야 하겠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표 선수란 선택된 사람이 책임의식과 사명감이 결여되어서는 안 되겠다. 한 번 주어진 기회를 놓쳐서도 안되며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줄 아는 선수가 되어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다. 주어진 기회를 무의미하게 버린다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둘 수 없는 일이며, 오직 자기 자신만이 책임져야 하리라 생각한다. 또 다시 이러한 좋지못한 결과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며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가능하다면 대표 선발은 1~2차와 최종 선발전을 거쳐 2원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상대자 없이는 경쟁심도 유발할 수 없으며 따라서 경기력 향상과 새로운 개인기술 개발에 큰 도움이 안되기 때문이다. 또한 선수들에 대한 투자와 더욱 많은 시간 할애가 절실하게 필요하며 이것만이 여자 선수들의 기량을 높이기 위한 조건이라 생각한다.

그 동안 많은 격려 주시고 도와주신 황호순단장님, 김경지 감독님, 협회 임원 여러분께 이 지면을 통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성 태권도 발전에 많은 지도 편달 있기를 기대해 본다.



◆라이트급 / 김지숙선수



◆웰 터 급 / 전오순선수



◆미 들 급 / 김현희선수



◆헤 비 급 / 장윤정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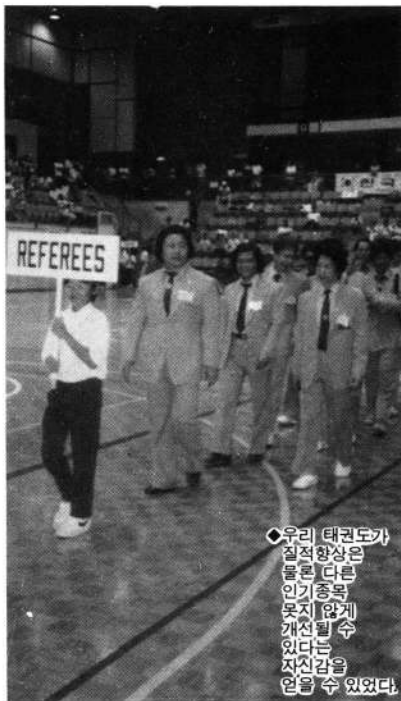


제7회 아시아태권도 선수권대회를 마치고

국제심판으로서 가능성 재확인

세계태권도연맹국제심판
대한태권도협회국제분과위원장

박현섭



◆ 우리의 태권도가
질적 향상은
다른 다른
다른 다른
인기 증폭
못지 않게
개선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얼굴 수 있었다.

국제 심판 자격으로, 한편으론 태권도를 위한 조그 마한 외교 사절의 임무를 띠고 제7회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치르기 위해 선수단 일행은 호주 '다윈'이란 낯 설은 고장을 향해 지난 4월 17일 출국했다.

대회 전날 경기 장소에 도착해 곳곳을 둘러보며 눈에 익혔다. 막연히 인식해 온 관념과 직접 보고 깨달은 사실과의 현격한 차이를 스스로에게 지적해가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가령, 호주를 떠올릴 때마다 천혜의 자연 경관은 말할 것도 없고 매우 온화한 기후 조건을 가진 나라라는 소견을 가졌지만, 한 나라에 이처럼 기후 차며 시차가 현격한 줄은 몰랐다. 경기장소인 「다윈」과 수도인 「캔버라」, 세계 3대 미항 중의 하나인 「시드니」는 너무나 편이했다.

우리나라의 4월이라면 초봄이자 날씨 또한 운동하기에 가장 알맞은 시기인데 그곳 「다윈」의 기후는 마치 적도 부근의 열사지대라도 같았다. 때문에 우선적으로 염려되는 것은 선수들의 시차 적응은 물론, 갑작스런 기후 변화에 따른 건강 관리와 컨디션 조절이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본 대회를 무사히 치를 수 있었다는 사실에 누구보다도 기쁨을 느낀다. 뿐만 아니라 심판으로서 본인이 피부로 느끼고 체험하면서 얻어낸 사실은, 우리 태권도가 질적 향상은 물론 다른 인기 종목 못지 않게 개선될 수 있다는 신념, 세계적인 스포츠라는 각광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 등이다.

국제 심판이라는 임무와 책임도 물론 막중했지만, 이보다 더욱 심하게 나를 채찍질하는 것은 「국제심판 위원장」이라는 중차대한 역할이었다. 그러한 책임의식이 나로 하여금 본 대회를 그 어느 대회보다도 뜻깊고 의미있는 대회로 만들게끔 한 것은 사실이다.

본인 외에도 태권도를 사랑하는 여러 관계자들이 태권도를 연구하여 양적 보급보다는 질적 향상을 추구할 것을 지금까지 주장해 왔지만, 본 대회를 지켜보면서 다시 한 번 절고 넘어가야 할 새로운 사실들을 몇 가지

발견했다.

첫째, 관중의 흥미를 감안한 「물」의 개선이다.

물론 「물」이라는 것이 모든 경기나 무술에있어 기본 요소겠지만, 그것이 때로는 「제한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듯하다. 그렇다고 해서 무술이 흥미만을 추구한다면 허위와 과장이 그 본래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말 것이다. 그러나 國技로서 세계적인 무술 운동으로서의 태권도를 질적·양적으로 보급시켜야할 중주국으로서 힘써야 할 근본문제라면, 흥미를 상실하거나 상대적으로 흥미가 적은 시합이나 경쟁은 태권도 보급에 만족한 성과를 초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가령, 지나친 득점 위주의 경기운영 방식이나 손·족기술의 제한이다. 본인 소견으로는 경기 운영 방식의 철저한 준수도 중요하지만, 규칙을 보다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족기술의 점수 차등제」 등이 융통성 있게 도입되어야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제한된 부위의 점수 외에 얼굴이나 상단 등을 가격했을 경우에는 보너스 점수제를, 선수 보호적 측면에서 급소 부위를 가격할 경우에는 감점제를 각각 적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다.

둘째, 선수의 처우는 물론 심판의 처우도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심판의 처우 개선은 관련 협회나 연맹 차원에서 다루어질 문제이겠지만, 86 공식 종목·88시범 종목으로 부상한 상황이라면 일시적인 미봉책을 초월, 정책적인 처우개선을 적극화함으로써 그야말로 질적 향상을 꾀하자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선수도 마음 놓고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책이 수반되어야 하리라 본다.

세째, 여자 선수 양성 of 극대화를 제의하고 싶다.

무술이라는 면에서 여성의 참여가 아직도 봉건적 사고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우리의 실정을 감안할때 다소 곤란이 뒤따르겠지만, 이번 제 7회 아시아 태권도 대회에서 처음으로 시도해 본 결과,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할 수 있다.

관중 동원은 물론 흥미나 호응도 기대 이상이었으며 여성 자신의 실력 향상에 더 나아가 국위 선양에도 큰 몫을 담당했다고 자신한다.

제 7회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심판으로 참가한 입장에서 쓴 이 글을 「문체의 제기」에서 그치고자 한다. 우리의 태권도가 오늘 이후 進一步하는데 조금이라도 조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명상의 시간

복은 깨끗한 마음 겸손한 생활에서 생기고, 덕은 자신을 낮추는 겸양에서 생기고, 도는 편안한 마음에서 생기고, 건강은 화창한 마음에서 생긴다.

그러나 욕심이 많으면 근심이 많고, 많이 탐내면 재앙이 돌아오고, 경솔하고 거만하면 잘못을 저지르고, 마음이 어질지 못하면 죄악을 짓게 된다.

눈으로 남의 잘못을 보지 말고, 입으로 남의 잘못을 말하지 말라.

탐내고 화내지 않도록 마음을 조심히고, 악한 친구를 사귀지 말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고,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말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존경하고, 덕이 있는 사람을 따르고,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을 용서하라.

정당한 방법으로 돌아오는 올바른 재물은 내치지 말고, 가버린 재물은 억지로 쫓아가지 말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거든 바라지 말고, 지나간 일을 후회하지 말라.

충명한 사람도 어리석음 때 가 많고, 게성이 빠른 사람도 시기를 놓치는 수가 많다.

남을 해치려 하지 말라, 당신이 해를 당한다. 권세에 아부하지 말라. 재앙이 뒤따른다.

항상 마음이 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정의를 지켜라. 남비하면 집안이 망하고, 부정을 저지르면 지위를 잃는다.

위에는 하늘이 내려다보고 있고, 아래는 사람의 이목이 살피고 있고,

사회에는 밝은 법률이 있으니, 두렵지 않은가? 오직 올바른 도리를 지킬 일이요,

무엇보다도 당신의 양심을 속이지 말도록 조심하라. 일생 동안 스스로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

〈참석자〉 단장: 황호순 / 중·고연맹회장
 감독: 김경지 / 경희대학교 체육과학대학 태권도학과장
 코치: 김우규 / 동아대학교 태권도코치
 윤종욱 / 경북태권도협회 총무이사
 김영인 / 성신여대 태권도코치·청산여상 교사
 선수: 신 숙 / 권 급
 오명화 / 플라이급
 박선영 / 밴 텡급
 이은영 / 페 더급
 김지숙 / 라이트급
 전오순 / 웰 티급



단 장 황 호 순

☎ : 1986. 5. 3. 14 : 00

제7회 아시아 태권도

사 회 —반갑습니다. 한국 태권도 선수단 해외파견 사상 남자선수 8명, 여자선수 8명, 감독 1명과 코치 3명 등 20명의 선수가 출전한 제7회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한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많은 식구를 인솔하고 다녀오신 단장님의 소감을 우선 들어보겠습니다.

황단장 제7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는 국내에서 개최되었으나, 본 대회는 호주에서 치르게 되어 많은 선수들이 참가함에 따라 염려를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여자 선수가 참가하여 선수들 간의 화합과 융화가 어느 대회보다도 잘 되어서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특히, 우리 선수단의 복장이 두드러지게 세련되었으며, 태권도 중주국 선수답게 시합장에서나 일상 생활면에서 보여준 훌륭한 「매너」는 자부심을 갖게하는 좋은 결실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사회: 실제적인 사령탑인 김경지 감독의 소감은 어떻습니까?

김감독 아시아지역 선수들에 대한 사전 정보에서 알 수 있었던듯이, 타국의 선수들 기량이 날로 향상되어 우리 선수들을 위협하고 있음이 사실이며, 본 대회에서 K.O로 승패를 가린 게임이 6개나 나왔음은 그만큼 위협도가 높은 경기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수보호 측면에서 「헤드기어」는 물론 각종 보호구 착용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은 「헤드기어」를 처음 사용하여 처음엔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사회: 김우규 남자 코치의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우규코치 저는 전력면과 그 밖의 모든면에 자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란·요르단·대만 선수들의 기술은 우리와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이 좀 미숙하다면 게임운영 및 연속공격이 우리보다 약간 뒤진다는 사실입니다.

싱가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은 1~2년전 우리의 기술과 비슷한 반면, 호주는 경량급에서 우리를 충분히 위협할 만합니다.

그리고 필리핀·쿠웨이트 등이 불참하여 아시안 게임의 확실한 전력을 세우기는 어렵겠지만,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8개를 확보하기가 쉽다는 판단은 서지 않습니다.

사회: 여자 코치로 수고하신 김영인 코치의 소감은 어떻습니까?

김영인코치 자유중국·호주가 강적으로 우리 선수들보다 신장·체력이 우세하며 강한 단발공격은 남자선수를 방불케 했습니다. 특히, 금번 출전

김현희 / 미 들 급
 장운정 / 해 비 급 (이상여자선수단)
 김영주 / 핀 급
 이해진 / 플라이급
 지용석 / 밴 텀 급
 정승환 / 캐 더 급
 이창건 / 라이트급
 윤순철 / 웰 더 급
 장질환 / 미 들 급
 이정진 / 해 비 급 (이상남자선수단)
 사회: 한규인 / 대한태권도협회 홍보실장



감독 김 경 지

장소: 국기원 식당

선수권 대회를 마치고

한 우리 여자 선수들은 대부분, 체중조절에 고전을 겪었는데, 이는 평소의 훈련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지속적인 훈련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사회: 남자 코치로 수고하신 윤종욱 코치의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윤종욱코치 경기를 승리로 이끄는 데 있어서 부담스러운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중주국 선수로서의 태권도 기본 정신을 위배하지 않는다는 데에 주력했습니다.

따라서 기량의 차이가 있는 선수와의 게임에서는 상대 선수에게 부상을 입히지 않도록 유념하며, 태권도의 묘기발차기를 시도하는 등, 태권도 중주국 「이미지」 관리에 신경을 썼고 남자선수는 비교적 여유있는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사회: 여자선수는 7개국이 출전하였다고 하는데, 선수들에게 가장 어려웠던 점들을 들어 보도록 하죠.

금메달 장운정선수: 저는 한 번 치른 경기로 금메달을 땀으니까 어려운 점을 느낄 수가 없었지요. (장내 웃음)
 체중조절 또한 신경 쓸 필요가 없었고요.

금메달 오명화선수: 저는 인도네시아·호주·싱

가폴 선수들과 경기를 가졌습니다.

첫 경기가 인도네시아 선수였는데 체중 조절에 특히 고생을 하여 결국 체력에 밀리는 바람에 가장 고전을 했지요. 실력면에 있어서는 결승에서 만난 싱가포르 선수가 저의 선수와 비슷한 기량을 가졌다고 봐요.

금메달 전오순선수: 무더운 일기 때문인지 체중 조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로가 엄습하여 컨디션 조절을 할 수 없었고, 게다가 음식이 맞지 않아서 고생을 했어요.

사회: 이와 같은 제약들을 극복하고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들에게 다시 한 번 축하합니다.

김지숙 선수는 동메달에 머물렀는데, 그 敗因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동메달 김지숙선수: 저는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는 것부터가 힘들었지요. (장내 웃음)

일기가 더워서 적응하기가 무척 어려운데다가 체중조절을 하느라 애를 썼으니 체력의 열세는 물론이고, 특히 한 가지 특징만 가지고 경기를 하겠다고 생각한 것이 잘못이라고 봐요.

이번 대회를 계기로 다양한 기술개발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동메달 박선영선수: 국내에서는 제 체급으로서



남자코치 김 우 규



◆국기원 식당에서 좌담회

저보다 큰 선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본 대회에는 키 큰 선수가 많아, 평소 그런 선수들과 경기를 해 보지 못한 저로서는 당황했고 또한 체력의 열세에 밀리게 되었어요.

사회: 은메달에 머문 선수들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지요.

은메달 신숙선수: 다른 선수들과 같은 환경이었으니까 앞에서 말한 사실과 같습니다. 특히 저는 체중을 줄이다 보니, 체력이 약해지고 자신감이 떨어져 세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것이 조금은 후회스럽습니다.

은메달 김현희선수: 우선 해외경기 경험부족에서 오는 긴장감에다 다른 선수들처럼 체중 조절에 애를 먹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운동량 부족으로 볼 수 있지요.

오명화선수: 자책하는 얘기인데요. 대표 선수로 선발된 후 시합에 나가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은 선수 개개인의 잘못이 큼니다. 시합을 위한 적응훈련 등을 1주일간의 합숙훈련을 통해 마친다는 것이 무리였습니다.

사회: 본 대회를 통해自省할 점은自省하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최소한 체중 문제를 敗因으로 돌리는 사례는 없애 나가야 하겠으며, 특히 여자 선수들은 88서울 올림픽에 시범 종목으로 채택되었으니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남자 선수들의 성적은 금메달 6개, 은메달 2개로 비교적 성적이 좋은 데 가장 어려웠던 일과 가장 즐거웠던 일을 얘기해 보기로 하지요.

헤비급 이정진선수: 들뜬 기분으로 도착되어 피로가 누적된 데다가 일기마저 무더워 컨디션 회복이 어렵다 보니 첫 경기에서 이란 선수에게 고전했습니다. 다행히 다음 경기부터는 자신있게 경기를 치러 금메달을 목에 걸었지요.

한편 즐거웠던 일로 기억되는 것은 시합이 끝나고 출전국 선수들과 「메인 스타디움」에서 같이 어울려 가졌던 여흥이 아닐까 해요.

웰터급 윤순철선수: 저는 그런대로 견딜만 했습니다. 결승전에서 호주 선수와 만났는데, 코치석으로부터 1회전에 확실한 득점을 하고 2~3회전은 묘기로 태권도의 진수를 보이라고 주문을 받았으나 호주 선수의 맹렬한 공격으로 인해 코치석의 요구만큼 잘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3회초에도 혼전을 하다가 3회 중반이 넘어서야 「앞발 들어찍기」와 「오른발 뒷차기」가 격중쇄 한시름 놓기도 했습니다. 또 또한 즐거운 일로 남는 것은 「메인 스타디움」에서 공감대를 갖고 「We are the World」를 합창했던 일이지요. (일동 웃음)

라이트급 이장근선수: 경기에는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16일 새벽에도 착하여 환영 일정에 참석하다 보니 피로를 풀 시간이 없었던 거죠. 2~3일 더 여유있게 현지에도 착하여 컨디션 회복을 할 수 있었다면 보다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코치와 선수가 함께 하는 시간이 적어 경기장에서의 합일화된 경기가 이루어질 수 없었음이 아쉽군요. 그리고 한국과 달리 관중들의 응원



여자코치 김 영 인



트레이너 윤 종 옥

과 함성이 선수들을 오히려 긴장 또는 흥분시켜 한국에서처럼 게임이 침착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플라이급 이해진선수: 해외경기가 처음이라서 모든 것이 생소했고, 특히 적응하는 과정이 어려웠습니다.

대만 선수와의 경기에서는 체력의 열세로 제 자신의 실력을 10%도 발휘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군요.

핀급 김영주선수: 별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첫 게임을 이란 선수와 치렀는데 날씨가 무척 무더워서 애를 먹었지요. 그런데 대만 선수와의 결승 대결에서 대만 선수가 받아차기에 능숙함을 의식하여 소극적으로 경기를 운영한 것이 결정적인 敗因으로 지적됩니다.

그러다 보니 게임이 잘 풀리지가 않아서 서두르다가 경고를 두 번이나 받기도 했지요.

사회: 재미있던 일은 묻지 않아도 되겠지요? (일동 웃음)

격의없이 웃으며 할 얘기들을 해 보았습니다. 정리하는 뜻에서 특별히 건의하고 싶은 일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어 보도록 하지요.

황단장: 지도자와 선수들이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최소한 2주정도 합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평소 선수들(특히 여자선수)의 체중관리를 완전하게 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김우규코치: 지도자와 선수들의 호흡이 맞지 않음은 함께하는 시간이 적었으므로 어쩔 수 없었다고 봅니다. 게다가 중주국의 체면 때문에 판정에

승복해야 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예로서 장질환 선수의 호주 게임과 이은영 선수의 대만 게임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지요.

윤종옥코치: 게임이 모두 끝나는 날 숙소에서의 평가모임을 갖기로 하였으나 전원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이 아직까지 계속되는군요.

김경지감독: 아시아 지역에서도 우리의 태권도는 안심할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기량의 평준화는 물론, 준비도 만만치 않았읍니다.

그리고 팀웍보다는 개인에 신경을 씀으로써 「콘트롤」에 어려움이 따르는 건 사실이지요. 이정진·지용석·이창건·정승환 등은 특히 K.O로 상대를 제압, 한국 태권도의 위력을 아시아 지역에 확고히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황단장: 전체 심판원 21명 중 우리 심판이 9명으로 거의 절반이 되었으나 한편 중주국이라는 체면 때문에 항의도 제대로 못한 사례가 빈번했읍니다.

심판의 공정성은 어떤 경우이든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깐요.

사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찬석상에서 김운용 회장의 격려말씀도 있었고 태권도 내일의 청사진도 익히 하셨으니 더욱 분발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말씀드리면, 본 협회에서는 불편함 없이 지원을 하여야 하는데 큰 대회의 중북으로 소홀했음을 반성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의 토론을 거울삼아 개선할 점들을 상호 보완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장 시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리한 신체여건 극복에 주력해야



청산여성태권도감독
김영인

- '88서울올림픽 여자 태권도 시범종목체택에 즈음하여 -

88서울올림픽에 여자 태권도 종목이 시범종목으로 채택된 것에 대하여 여자 선수들 지도, 육성하는 일선지도자로서 무한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우리 스스로가 좋아서 시작했고 어떠한 동기로 어떻게 시작했든지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 아닌 생활의 전 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태권도. 그냥 좋아서 열심히 하다보니 88올림픽에 시범종목으로 채택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올림픽 시범 종목이 되었다고해서 그냥 좋아만 하고 만족 할 수는 없으며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발전이 있고, 더 많은 여성 태권도 인구의 저변확대를 꾀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국가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그야말로 중대한 시기에 서 있는 것이다.

본인은 85년도 제 7회 세계 선수권 대회와 86년 제 7회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통한 경험을 토대로 한국 여성 태권도의 저변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과 아울러 한국 여자선수들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자 한다.

첫째, 저변확대의 방안에 대해서 말하자면, 76년의 한국 여자 태권도는 몇몇 여교부(청산여성, 인천체고, 은광여고, 성암여성 등 4개 학교)로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당시에는 보잘 것없는 인원과 수준이었다. 10년이 지난 86년 현재 역시 여자 태권도는 중학교 16개팀, 고등학교 27개팀이 중고연맹에 가입되어 날이 갈수록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86년에 신생팀으로 중학교 8개팀, 고등학교 5개팀이

신설되었다.

또한, 5개 대학에서도 태권도부를 자체 육성하고 있는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도표참고>

여중부 중고연맹 단체등록팀 및 미등록팀 (25개팀)

번호	학교명	주 소	비고
1	연광여중	성북구장위 3동31-6	중고연맹 단체등록
2	용곡중	성동구곡곡 4동산11-3	"
3	서초중	강남구서초동산1115	"
4	영일여중	강서구내방산동169-1	"
5	창덕여중	중구정동 8번지	"
6	전농여중	동대문구전농동60-1	"
7	당곡중	관악구봉천 1동산682	"
8	한강여중	영등포구양평동315	"
9	역삼중	강남구역삼동	"
10	신화여중	인천시남구도화동235	"
11	삼인천여중	인천시남구간석 1동304	"
12	신홍여중	인천시남구신홍동 3가 7-211	"
13	삼원여중	경기성남시단체동4649	"
14	문산여중	경기파주군파주읍봉서3리산2번지	"
15	고양여중	경기고양군인산읍인산리	"
16	영복여중	경기포천군영복면운천리	"
17	양덕여중	경남마산시합성 2동14-2	"
18	중앙여중	전남여수시연동동26번지	計18개팀
1	충남동여중	충남천안시	중고연맹
2	부천동여중	부천시시역북동	단체
3	단현중	경기도	미등록팀
4	경민여중	경기의정부시가랑 3동562-1	"
5	보명여중	경기도파주군봉무천	"
6	의여중	경기도의정부시	"
7	낙생중	경기도성남시	計7개팀

여고부 중고연맹단체등록팀 및 미등록팀 30개팀

번호	학교명	주소	비고
1	청산여상	서울도봉구중계동118	중고연맹 단체등록
2	덕원여고	강서구내발산동산59-2	
3	성암여상	도봉구미아동327	
4	은광여고	강남구역삼동138-1	
5	배성여상	종로구창신동13	
6	정난여상	종로구사직동311-10	
7	상일여고	강동구상일동316-1	
8	한양여고	성동구사근동산33번지	
9	상명사대부고	종로구홍익동1	
10	인천체육고	인천시남구도화235	
11	더여고	경기의정부시가늘1동	
12	광동여고	경기의정부시가늘1동110-2	
13	성남여고	경기성남시성남동산22	
14	문성여상	인천시남구간석동209	
15	고양종고	경기고양군인삼읍일산리	
16	경민여상	경기의정부시가늘3동562-1	
17	한광여고	경기평택시비전동111	
18	문산여중고	경기파주군파주읍봉서리산2번지	
19	창원여고	경남창원시삼동12	
20	배영여고	대구시북구대전동산6-1	
21	에덕실고	충남예산군예산읍신례원리300	
22	동래여상	부산시동래구사직2동591-1	
23	부안여고	전북부안군부안읍봉덕리657-1	
24	시온고	경기부천시역곡동	
1	적성종고	경기도	중고연맹 미등록
2	보영여고	경기도파주군동두천읍	
3	전곡고	경기도	
4	동남고	경기도의정부시	
5	청원실고	충남천안시	
6	파주여상	경기도파주군파주읍	

여대부 등록팀 (6개팀)

번호	학교명	주소	비고
1	성신여자대학	서울성북구돈암동	대학연맹 등록
2	경희대학교	경기도용인군기흥면	
3	이화여자대학	서울서대문구대현동	
4	명지대학	서울남구과동	
5	유도대학	경기도용인군	
6	인천체육전문	인천시남구도화동	

여자 선수들은 양적으로는 팽창하고 있으나 아직도 남자와 비교하여 볼 때 질적, 양적인 면에서는 10년 정도의 수준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로는 우선, 여자 선수가 뛸 수 있는 시합이 충분치 마련되어 있지 못한다. 특히 대학 선수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합의 횟수는 더욱 적어 대학 선수로서의 기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실정인 것이다. 여자 선수로서 참

어 할 수 있는 시합으로는 다음과 같은 시합이 있을 뿐이다. (도표 참고)

● 국내여자선수가 참가할 수 있는 시합

주최	시합명	비고
대한태권도협회	국가대표선발전 한국 여자개인선수권대회	중·고·대 참가
중·고태권도연맹	춘계 중고등학교 회장기쟁탈전 (개인 및 단체대항)	중·고 참가
대학태권도연맹	춘계 대학연맹전 (개인 선수권대회)	대학참가
연세대학	추계 대학연맹전 (개인 및 단체대항)	
연세대학	연세대총장기(개인 및 단체전)	고교참가

- 여중부 4회출진가능
- 여고부 5회출진가능
- 여대부 4회출진가능

따라서 1년에 고교 5개 대회, 대학 4개 대회, 중학 4개 대회로는 질적, 양적으로 남자 선수들의 발전 속도에 맞출 수 없어, 열세를 면치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된다. 좀더 비중있는 경기를 자주 개최하며 욕심 같아서는 남자 선수들과 동일시하여 많은 경기에 참가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둘째,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는 미래 지향적인 면에 있어서는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하나, 현실면에 있어서는 중·고·대학의 교육기관으로부터 여자 태권도가 외면을 당하는 실정이며,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중·고·대학의 교육기관으로부터 외면 당하는 비인기 종목의 스포츠는 발전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루빨리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야 하며, 또한 그것을 실현 가능케 하는 것이 우리 지도자들의 당면과제인 것이다.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에 채택될 경우 각 시도의 경쟁은 물론 각 중·고·대학의 교육기관에서도 관심있는 종목으로서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며, 선수들의 양적팽창은 물론 질적인 수준도 단시일내에 끌어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자 태권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있으



여자태권도가 빠른 시일내에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에 정식종목으로 추가되어야만 한다. 조직적이면서도 체계적인 훈련과 과감한 투자가 뒤따를 때 우리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새로운 마음의 자세와 각오로서 어느 때 보다도 충실하게 노력해야 할 때다.

며,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여자 태권도가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의 정식종목으로 추가되는 것은 여성 태권도 발전에 있어서 충분조건이 아닌 필요조건이라고 생각된다. 한국여성 태권도의 발전, 그 자체를 논하는 것이 어찌면 「난센스」인지도 모르지만 반대로 백지 위에 앞으로 바람직한 대로의 설계를 할 수 있으므로 계획을 규모있게 세우고 협회의 정책적인 뒷받침만 잘 이루어 진다면 오히려 좋은 조건이 될 수도 있다. 매년 수 많은 여중, 여고선수들이 배출되지만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진학과 취업이 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물론 여기에 지역별 문제들이 어제 오늘 사이에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며, 어찌면 여성 태권도 발전단계에서 불가피하게 제시된 것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제반 사회구조에 내재된 모순과 문제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적절한 대응책에 의해 조금씩이나마 개선되는 방향으로 고쳐 나아가야 할 것이며, 고칠 것은 고치고 시정할 수 없는 것들은 이유를 설명하여 납득시켜 나가는 성의있는 자세가 정말 필요하다. 획기적인 선수보호 육성대책과 질적·양적으로 높은 수준의 선수가 확보되지 않으면 여자 태권도는 국내에서는 물론 세계에서도 외면당하는 불리한 상황에 놓여질런

지도 모른다. 태권도를 아끼는 일선지도자는 물론이고 선수들도 이점에 대하여 냉정하게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세세, 여자선수들의 현 위치는 어떠한가?

여자선수들을 지도하는 일선 지도자들이 볼 때 10년 전의 기량이나 근래의 선수들 기량은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정신적인 면에서는 퇴보되어가는 역현상이 일어나는 듯한 인상을 지을 수가 없다. 선수층이 얇은 가운데 몇몇 선수들에게만 의존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밖에 없는 것이 곧 현실이며, 85년 세계대회 86년 아시아 선수권 대회를 통하여 우리 스스로가 직접 피부로 느끼고 보아서 익히 아는 사실은 중주국이라고 자부하기가 부끄러운 상태라는 점과 신체적인 조건, 기술적인면, 정신력 또한 외국 선수들보다 우위라고 자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모든 점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을 우리 스스로 정확히 인식해야 하지 않을까? 그 원인으로 몇 가지의 예를 들어보면, 여성 태권도 1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것을 너무 경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의 것이라 자신하며 중주국이라는 자부심만 키워왔을 뿐, 우리 스스로 내실을 기하지 못한 점이 오늘의 우리의 위치를 불확실하게 만든 원인 중에 하나

이제 새로이 한국여성 태권도의 확고한 위치를 세우기 위해서는 외국선수들에 비해 불리한 신체적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알맞은 체력 훈련과 독특한 기술 동작을 개발함은 물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보다 많은 국내경기 및 국제경기에도 참여하여야 하며 국내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경기인을 육성시켜야 한다.

라고 본다. 또 한 가지는 적은 인원수에서 선발된 선수들이나마 충분한 정신적·물질적 투자를 하여 충분한 훈련을 하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며칠 안되는 시간 동안 정신적 육체적 피로감만 더한 상태에서 85년 세계대회, 86년 아시아 선수권 대회출전은 무리일 수 밖에 없었으며, 그로 인한 부진한 성적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성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만으로 실망할 필요는 없다. 엄밀히 말해 현 우리 선수들의 위치란 외국선수들에 비하여 우위도 아니고 그렇다고 절망스러운 것 또한 아니다. 다만 선발된 선수들의 관리 및 훈련에 무관심한 것이 오늘의 현실로 나타난 것일 뿐이다. 몇 가지 사항만 해결이 된다면 발전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판단된다.

남자 선수들은 조기의 입문과 더불어 초·중·고·대학, 일반으로 이어지는 연계, 넓은 선수층의 형성과 함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는 각종대회, 선발전 및 여러 면에서의 지원, 체계적인 훈련과 장학제도, 체육연금, 포상제도 등 보다나은 체계적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만 여

자 태권도 선수들에게는 위와 같은 사항이 거의 미치지 못하며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국내시합마저도 연간 4회~5회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제 새로이 한국여성 태권도의 확고한 위치를 세우기 위해서는 외국 선수들에 비해 불리한 신체적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알맞은 체력 훈련과 독특한 기술 동작을 개발함은 물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보다 많은 국내 경기 및 국제 경기에도 참여하여야 하며 국내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경기인을 육성시켜야 한다.

아울러 여자태권도가 빠른 시일내에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에 정식 종목으로 추가되어야만 된다. 조직적이면서도 체계적인 훈련과 과감한 투자가 뒤따를 때 우리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새로운 마음의 자세와 각오로서 어느 때보다도 충실하게 노력해야 할 때다.

그리고 여성태권도가 88서울올림픽 시범종목으로 채택되도록 적극도와 주신 김운용 협회장께 여성태권도인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리고 싶다.

여자 대표선수
신상 및 특기

체급	성명	소속	신장	체중	특기
핀급	신숙	청산여성	162cm	43kg	원알차기, 오른뒷차기
플라이급	오명화	경희대	160cm	47kg	오른알차기, 발들어내려차기
밴텀급	박선영	청산여성	166cm	50kg	원옆차기, 오른반달차기
페더급	이은영	경희대	163cm	55kg	알차기, 물들려차기
라이트급	김지숙	"	165cm	60kg	알들어내려차기, 오른주먹저르기
웰터급	전오순	"	165cm	63kg	오른발뛰어뺏차기, 옆차기
미들급	김현희	"	170cm	69kg	원알차기, 뺏차기
헤비급	장윤정	명지대	175cm	75kg	오른알차기, 발들어내려차기

여자태권도에 청신호 울려줄

「86년 전국여자

개인선수권 대회」결산

보다 나은 여성 태권도의 방향을 정립하고 활성화를 다지기 위해 본 회에서는 지난 5월 22일과 23일 양일간 국가원에서 86년도 전국 여자 개인선수권 대회를 개최하였다. 참

가자 가격은 1986년도 선수 등록을 필한 자로서 중학교 재학이상의 여자로 국가원 단(품) 증을 소지한 자로 제한하였으며 체급과 중량은 경기규정 제12조를 준해서 이루어졌다.

〈경기규정 제12조 및 13조〉

제12조(체급과 중량) 각 부별 체급과 중량은 다음과 같다.

다만, 외국인부는 별도로 할 수 있다.

체급	부 별	고등·대학 및 일반부	중학교부	국민학교부	여 자 부
핀	급	50kg까지	31kg까지	26kg까지	43kg까지
플라	이 급	50초과-54까지	31초과-34까지	26초과-28까지	43초과-47까지
밴	텀 급	54kg-58kg	34kg-38kg	28kg-30kg	47kg-51kg
페	더 급	58kg-64kg	38kg-42kg	30kg-32kg	51kg-55kg
라	이 트 급	64kg-70kg	42kg-46kg	32kg-34kg	55kg-60kg
라	이 트 웰 터 급		46kg-50kg		
웰	터 급	70kg-76kg	50kg-54kg	34kg-37kg	60kg-65kg
라	이 트 미 들 급		54kg-58kg		
미	들 급	76kg-83kg	58kg-63kg	37kg-41kg	65kg-70kg
라	이 트 헤 비 급		63kg-68kg		
헤	비 급	83kg초과	68kg초과	41kg초과	70kg초과

제13조(경기시간)

1. 고등, 대학 및 일반부는 3분 3회전 중간휴식 1분으로 한다.
2. 중등, 국민학교 및 여자부는 2분 3회전 중간휴식 1분으로 한다.
3. 본회 또는 대표자회의에서 필요에 따라 1, 2 항의 경기시간을 조정.

오전 11시에 시작된 개회식에서 김윤용 회장은 본 대회는 여성체육 인구의 저변확대를 도모함은 물론 여성 태권도의 활성화를 꾀함에 있어 개척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강

조하고 88서울 올림픽에 남·녀 태권도가 공히 시범 종목으로 채택되어 남자 16개국, 여자 8개국이 출전하게 되었다고 새롭게 의의를 밝혔다.

이와 함께 『본 대회는 앞으로 다가올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우수선수를 발굴 육성하는데 깊은 의도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따라서, 지도자와 선수들은 이제부터 여성이라는 소극적이고 안이한 사고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고로 임하여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성신여대 김소영 선수의 대표 선수 선서를 끝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곧 경기에 들어갔다. 처음으로 실시하는 전국 개인 선수권 대회라 인식과 흥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서인지 총 145명 선수가 참가하는데다가 국가대표급 선수가 참석치 못한 까닭으로 신인선수권 대회를 방불케 하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전한 선수들은 모처럼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시종 유지했다.

부천중동의 방상자 선수와 인천체고의 김현숙 선수의 경기가 시작된 예선경기는 밴텀급이 29명, 페터급이 25명 출전하여 가장 어려운 접전이 예상되었으며 중량급인 미들급은 9명, 헤비급은 6명이 각각 출전해 대진운이 좋으면 두 번째 금메달에 안착하며 경기를 치르지 않고 3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청산여성, 인천체고, 성신여대의 각축장이 되리라는 당초의 예상대로 치열한 예선전이 전개되었다.

대진번호 62번 페티급 예선 2차전 경기에서 인천체고의 최보순 선수가 충남 동여중의 김은숙 선수를 맞아 3회 28초에 뒷차기로 몸통을 강타하면서 K.O 승을 거두었다.

또한 동급 예선 2차전 65번 경기에서도 청산여상의 권란희 선수가

정란여상의 김은영 선수를 1회 1분 20초에 들어찍기 공격으로 얼굴을 강타함으로써 K.O를 시켜 페티급에서 2개의 K.O승이 나오는 결과를 빚었다.

대진번호 69번 라이트급 경기에서도 청산여상의 남정동 선수가 배성여상의 권연미 선수를 맞아 1회 1분에 앞돌려차기로 얼굴을 공격, K.O를 시키는 등 中量級에서 K.O가 속출하였다.

한편, 경기진행에 있어서는 전광판을 사용함으로써 관정에 관한 이의 제기없이 결승전까지 순조로운 경기가 진행되기도 했다.

핀 급 결승전에서 성신여대의 도재선 선수와 청산여상의 신숙 선수가 펼친 경기의 특색이라면 지도 사범이 김영인 선생이었고 두 선수가 청산여상의 선후배 지간인 탓에 경기가 마치 후배에게 승리를 양보하기로 작정한 듯이 애매모호하게 전개된 끝에 신숙 선수가 판정승을 장식했다.

플라이급 청산여상의 배은정(3학년) 선수와 강경숙(2학년) 선수의 경기는 핀급의 결승전보다 더 노골적으로 정실에 치우친 경기로 진행, 배은정 선수의 판정승으로 매듭지어졌다.

밴텀급 선수 29명이 출전하여 8체급 중 가장 치열한 접전을 벌인 경기로 주목받았다. 청산여상의 박성영 선수와 인천체고의 박동선 선수의 경기는 승패를 의도적으로 이끌어 정당성이 결여된 두 경기를 관전하다 보니 진지하고 새로운 기분이 들 정도로 적극적인 것이었다. 1회전에서는 노력기를 자랑하는 청



◆ 새로운 유망주의 탄생을 잇달아 여성 경기인의 활성화를 향해 '진일보합'을 위한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산여상의 박성영 선수가 경기를 우세하게 이끌었으나, 2회전에 접어들면서부터는 패기를 앞세워 공격하는 박동선 선수의 공격에 말려들다가 3회에서도 계속 템포를 늦추지 않은 박동선 선수가 주도권을 놓지 않아 박동선 선수가 판정승을 거두었다.

페티급 인천체고의 최보순 선수는 예선에서 K.O승을 장식하는 등 고교생 특유의 패기와 힘을 유감없이 발휘해와 우승을 기대할 수 있는 유망주로 부상했으나 성신여대의 노련한 김소영 선수에게는 그 특유의 기술이 심분 발휘되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1~2회전을 줄곧 유리하게 이끈 김소영 선수는 3회전 초반에 몸통 앞돌려차기를 성공시키고 후반에 얼굴내려차기로 다시 한 번 승리의 분위기를 굳힌 결과 확실한 고지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라이트급 청산여상의 남정동 선수는 배성여상의 권연미, 문성여상의 윤은일, 인천체고의 홍상희 선

수 등을 차례로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했고, 인천체고 안경숙 선수또한 배성여상의 석소정, 인천체고의 박진경, 청산여상의 최경미 선수들을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 두 선수 서로가 상대교의 선수를 제압한 아이러니한 대면이었다. 그러다보니 뛰는 선수보다 외치는 응원이 더 뜨겁게 느껴지기도 했다. 앞을 다투는 선전끝에 인천체고의 안선수에게 판정승이 주어졌다.

웰터급 문성여상의 양인덕 선수는 강호 성신여대 김유숙 선수를 준준결승에서, 충남동여중 정남숙 선수를 준결승에서 각각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했고, 인천체고의 박애란 선수는 강적 청산여상을 예선에서, 동교 김미화를 준준결승에서, 배성여상의 권지연을 준결승에서 차례로 누르고 결승에도 진입했다.

문성여상의 양인덕 선수가 일방적인 공격으로 주도권을 잡은 반면 체고의 박선수는 1회전과 2회전에서 경고조치를 받는 등 고전하다가 3회전에서는 결국 기권하고 말았

다. 이로써 문성여상의 양선수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이는 선수로 새롭게 부상하게 되었다.

미들급 성신여대의 허혜숙 선수와 인천체고 이진희 선수의 대진은 마치 청산여상, 성신여대와 인천체고의 대결장라도 같았다. 그러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인천체고의 기백과 기량이 상대를 쉽게 허락하지 않아 성신여대의 허혜숙 선수를 무색하게 만들고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헤비급 성신여대의 정완숙 선수와 청산여상의 고현정 선수는 청산여상에서 함께 호흡했던 선후배 기간인데다가 지도사범 또한 동일하여 처음부터 다이내믹한 경기를 예상치 않았다고도 말할 수 있다.

정완숙 선수의 판정승으로 조용히 경기를 마쳤다. 전 경기를 끝내고 노우중 운영부장의 사회로 이루어진 시상식은 김봉기 경기위원장의 성적발표에 이어 시작됐다.

특히, 이 시상식에는 김운용회장이 참석, 상장·메달·상품을 직접 수여하여 그 의의를 확대시켰다. 1위 입상자에게는 주식회사 서광에서 제공한 화장품세트, 2위에게는 주식회사 논노에서 제공한 여성용품, 3위에 입상한 우수선수 5명에게도 부상을 수여하는 등 여성 대회사상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해 준 호못한 배려였다.

본 대회를 크게 평가할 수 있는 이유는 국가 대표 선발전에서 우승한 선수들이 대거 참여하지 않아서 새로운 유망주의 탄생을 잇달았으며, 또한 여성 경기인의 활성화를

향해 진일보할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것 때문이다. 본 대회를 계기로 여성태권도에 활로가 열려지리라 확신한다.

입상자명단

체급	등위	성명	소속
핀	1위	신숙	청산여상
	2위	도재선	성신여대
	3위	추나률	상원여중
급	3위	장이숙	청산여상
	1위	배은정	청산여상
	2위	강경숙	청산여상
플라이급	3위	이영	시온고
	3위	강인숙	청산여상
	1위	박동선	인천체고
밴텀급	2위	박선영	청산여상
	3위	한광미	인천체고
	3위	조상희	문성여상
페더급	1위	김소영	성신여대
	2위	최보순	인천체고
	3위	김현하	인천체고
더미급	3위	권난희	청산여상
	1위	안경숙	인천체고
	2위	남정동	청산여상
라이트급	3위	홍상희	인천체고
	3위	최경미	청산여상
	1위	양인덕	문성여상
웰터급	2위	박애란	인천체고
	3위	정남숙	충남동여중
	3위	권지연	배성여상
미들급	1위	이진희	인천체고
	2위	허혜숙	성신여대
	3위	방경애	청산여상
헤비급	3위	박양미	문성여상
	1위	정완숙	성신여대
	2위	고현정	청산여상
비급	3위	백영미	인천체고
	3위	손지희	성신여대



◆이제 여성 태권도는 종래의 인식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안될 요구를 안고 있다.

“심판교육을 받고 나서”



“청노체육관”/ 서훈희 (4단)

■ 편집자註

세살난 딸의 어머니로서 현재도 도복을 입고 땀을 흘리는 태권도인이 있다. 국교 6년 강원도 삼척에서 장식주 사범에게서 태권도를 배우면서부터 그 의지의 인생이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할까? 고교 졸업 후 종로구 청운동 소재 자하문 체육관을 3년간 자임하면서 77년 주한 외국인 대회 중량급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선수 생활 3년의 경력 또한 돋보인다. 58년생으로 83년에 김진희 (토목기사)씨와 결혼, 오늘에 이르기까지 태권도와 그의 인생을 아무지개 엮어온 서훈희씨의 육고를 여기에 소개한다.

유난히 지루하고 길게 느껴지던 겨울이 지나고 푸르름이 살포시 익어가는 4월.

참으로 싱그럽고 희망찬 계절이다.

임을 흠모하는 마음으로 에타계 심판교육을 기다렸던 탓도 있으리라.

영동 태해란로변 높은 곳에 우뚝 솟은 국기원. 나에겐 아니 태권도인들에게 언제나 자랑스러운 터전이며 애뜻한 곳이기도 하다. 교육 첫날은 유독 화창하고 생동감 넘치는 날이었다. 양쪽에 늘어선 빌딩을 지나 경사진 길을 오르노라면 믿음직한 국기원 깃말이 우리를 반긴다.

국기원 주위에 푸르름이 적당히 연출되고 곳곳에서는 예쁜 꽃들이 자태를 과시하며, 내가 찾는곳엔 태권도에 뜻을 같이한 교육생들이 함께 숨쉬니 어찌 좋은 날이라 하지 않겠는가!

복도를 지날 때 스치는 얼굴들. 전혀 생소하지 않은 그들을 점하고 가벼운 목례로 대신한다.

9시. 경기장에 집결한 교육생이 300명에 육박하는 것을 보고, 태권

도의 저변 확대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심판교육을 위해 지방에서도 대거 참석 하였고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여성교육생이 3명이라는 사실이었다. 매번 심판교육 때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던터라 여성 참석자의 소극성에 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아마, 이렇게 「태권도」誌에 나의 소견을 비추어줄 지면 몇쪽을 할애받게 된 것도 여성교육생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쉽게 선택받지 않았나 생각된다.

나는 태권도에 대한 애착이 남다른 듯 싶다. 특히 여성 태권도라면 더욱 더 몸을 불사르고 싶음을 억제 할 수 없다. 이번 교육 기간 동안 두 후배와 많은 대화를 가질 수 있었다. 믿음이 가는 사랑스런 후배들이었다.

하나의 밀알이 썩어 열매를 맺을 수 있듯, 고귀하고 귀중한 한국여성 태권도의 주춧돌임을 알고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교육에 임하였다.

한편, 남자 교육생의 조소(?)를 받는 고충도 겪어야 했다. 그들에



게 「여성태권도」를 내 나름대로 열심히 피력해 보았으나 그들의 고 정관념 속에는 넘겨다 볼 수 없는 크나큰 벽이 있음을 깨닫고 몹시 안타까웠다. 우선 일선 사범님들의 인식이 달라지지 않고서는 결코 성장될 수 없으므로 국내, 국외에 계신 사범님들께 지면을 빌어 부탁드리고 싶다.

한국은 물론 세계 여성태권도 보급을 위해 여성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윤희유 역할을 하면서 중지를 모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우리 여성 태권도인은 항상 배우는 자세로 몸은 젊은 사람과 같이 푸르고 굳세게, 마음은 노인과 같이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성이 되고자 끊임없이 노력을 하여야 하겠다.

교육반단 중 호주에서 개최한 제 7회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여 경기를 마치고 돌아온 선수들을 접할 기회를 가졌다. 여자 선수들이 출전 선수의 3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여성 임원도

없이 해외 원정경기를 치르고 돌아온 여자 선수들을 보면서 측은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숨길수 없었다. 그들의 사기를 위해 또, 여성 태권도의 저변 확대를 위해 여성들을 많이 기용할 수 있는 대응문이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희망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항상 관전하던 입장을 떠나 직접 몸으로 뛰는 것은 힘이 들고 어려운 작업이었다. 행동은 마음을 따라 주지 않았으므로 실수의 연속으로 경기장은 온통 폭소로 가득찼다.

가까이에서 심판을 대하다보니 현역 심판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거듭되어지는 연습 동작으로 처음 보다는 좀 나은 듯 싶은 「사인모션」이었지만 여전히 어색하고 어딘지 모르게 부족함을 느꼈다.

이번 심판 교육을 받으면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심판원으로서 경기 운영은 물론 코치로 참가 하였을 때에도, 심판 관정에 순응 할 수 있으며, 경기의 흐름을 빨리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

는 지혜를 터득하였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4일이라는 기간이 짧지 않았던가 하는 점이다. 심판원으로서의 내적인 소양을 가다듬을 수 있는 교양 프로그램을 참가함으로써 지도자의 자질향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면 더욱 더 좋은 교육의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다.

태권도가 「86 아시안 게임」에 정식 종목으로 승인, 「88서울올림픽」에 시범 경기로 확정 발표된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김운용 회장을 비롯, 태권도 발전에 애쓰시는 분들의 노고와 태권도인들의 땀의 움직임이 이 귀중한 금자탑을 이루는 원동력이었으리라. 많은 종목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 종목승인에 앞뒀다 두루었지만, 우리 국기태권도는 결국 해내고 말았다. 아낌없는 찬사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훌륭한 인재를 발굴하여 올바르게 가르침은 물론, 그들의 진로를 분명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터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범님들의 해외 진출도 물론 중요하지만, 유능한 사범, 코치들을 국내에서 소화하고 육성함으로써 중주국으로서의 체모와 이미지를 계속 유지 발전시켜야 되리라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숙제가 남아 있으므로 그 해답을 위하여 분투노력 하여야겠다.

끝으로 이번 심판 교육을 위하여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애쓰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 태권도 발전에 미려한 능력이거나 최선을 다해 노력 할 것을 다짐해 본다.

'86년도

전국 춘계종별 선수권대회 결산

● 때 : 86.3.24~29 (6일간) ● 장소 : 국기원



◆ 중등부에서 일반부에 이르기까지 총 1190명이 출전해 기량을 펼쳤다.

종별 선수권 대회는 국기원에서 발급한 1품(단) 이상자로서 86년도 선수등록을 필한자에게 출전자격이 주어진다. 그 중 중등부는 85년 12월 31일 이전 본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한 전국 규모 대회에서 입상하지 아니한 자, 고등부·대학부·일반부는 85년 12월 31일 이전 본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한 전국 규모 대회 고등부 이상에서 입상하지 아니한 자에게 각각 출전자격이 주어진다.

중등부 11체급, 고등부이상의 경기는 8체급으로 구분하며, 각 체급별 토너먼트식 개인전으로 중등부는 1분 3회전 중간 휴식은 30초, 고등부 이상은 1분 30초 3회전 중간 휴식 30초로 경기를 진행한다. 참가 선수의 부별 현황은 중등부가 309명, 고등부 692명, 대학부 86명, 일반부 103명으로 총 1190명이 출전하였다.

이 중 체제에서 178명이 실격함으로써 1012명이 경기를 치렀다.

각 부별 체제 실격자 수를 보면, 중등부 체제실격이 48명으로 15.5%, 고등부 체제실격이 86명으로 12.4%, 대학부 체제실격이 17명으로 19.8%, 일반부 체제실격이 27명으로 26.2%를 차지했는데, 이들은 본대회 출전자격을 잃었다.

이는 참가 선수들의 체중 관리의 소홀은 물론 평소 지도자들의 선수 관리에 있어서의 관리소홀과 종합적인 대책을 절실히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비교적 선수들의 기량은 출전한 선수의 수에 비해 저조하였다.

대진번호 1번 편급 조창식(원일고) 대 창달수(만경고)의 인사로서 작된 경기는 조창식의 판정승으로, 대진번호 2번 이만섭(문산중고) 대 이정현(부산체고)의 경기는 부산체고 이정현의 판정승으로 경기가 마무리 되었다.

대진번호 114번 플라이급 윤익환(협성고) 대 김석현(서울고등기술)의 대전은 막중한 경기를 치르는 가운데 3회 1분 15초에 김석현 선수의 앞돌려차기가 윤선수의 얼굴을 강타, 첫 K.O.승을 거두었다. 첫날인 24일은 대진번호 219번 경기를 끝으로 마쳤다.

대진번호 220번 페터급 이준석(승실고) 대 김병철(송도공고)의 경기로 시작된 2일 째 경기는 서울의 태권도 명문고교를 위협하는 지방고교생의 추적을 뿌리치려는 안타까운 몸부림이 보이는 듯 하였다.



서울과 지방 선수들간에 평준화된 기량이 눈에 보인 본 대회는 특별한 상황이 없는 가운데 진행되다가 대진번호 423번 라이트급 최병호(동대문상고) 선수가 1차전에서 심상일(한성고) 선수를 제치고 올라와 경남공고의 김진철 선수를 맞았는데 3회 1분 17초에 뒤돌려차기로 얼굴을 공격, K.O승을 거두었다.

또한 대진번호 428번 라이트급 최중국(리라공고) 선수도 허승만(안성고교) 선수를 2회 1분 6초에 뒤돌려차기로 얼굴을 강타, K.O승을 거두었다.

경기 3일 째인 26일은 중등부 예선전으로 222게임을 치르고 나머지 경기는 29일부터 치르기로 하였다.

금년들어 처음 활용하는 전광판 채점은 경기를 진행하는 심판, 코치, 선수와 관중에게 매회 채점을 공개함으로써 중등부 경기사상 선수, 코치, 심판, 관중의 4위 1체를 이루는 경기로 호응이 매우 좋았다.

전광판 사용에 관한 선수들의 의견을 간추려 보았다. 전국대회에서는 처음으로 출전하여 2회전에 진출한 김선수는, 매회마다 자신의 득점 상황이 전광판에 표시 됨으로써 경기 운영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하며,

삼척중학교 김남선 선수는 6살에 태권도를 시작, 국고 4학년 때부터 시합에 출전하여 10년간 태권도를 한 선수로 전광판에 자신의 경기성적이 신속하게 기록되는 것을 보니 사기가 높아지고 신뢰감이 생겨 더 잘하게 됐다고 하며 모든 경기에 전광판을 사용했으면 하는 소망을 전했다.

풍생중학교 장대진 선수는 유치원 시절부터 태권도를 시작, 경기도



◆ 새롭게 부상한 부산체고의 입상자들.

내의 경기출전 30여 회, 전국 대회 16회의 출전경력을 보유한 의지의 선수로서 전광판 사용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1. 전광판에 자신의 경기성적이 표시되니 실력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어 좋고,
2. 이기고 있는 동안 점수를 지키면서 경기 운영을 할 수 있고,
3. 반면 지고 있을 때는 공격을 하여야겠다는 의욕을 불러 일으킬 수 있어 좋으나,

또 한편으로는

1. 승패를 미리 알고있음으로 인해 이기고 있을 때는 기분이 좋으나 지고 있을 때는 기대감을 가질 수 없는 게 흠(?)이며,
2. 2회전까지 이겼다고 한 선수가 판정되면 점수 지키기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진전수는 공격을 가세하게 되므로 1~2회전을 이기고도 마음 놓을 수가 없다고 유머섞인 불평(?)을 하기도 하였다.

경기장기에 10여 년을 왕래하며 아들 양현석군(동성고 2년)과 양동일군(동성중 3년)의 뒷바라지를 한 김순희(43세) 여사는

①본인의 경기실력을 알 수 있어 공격의 기회를 만들 수 있으며, 자신의 경기의 승패를 선수 자신이 가늠할 수 있다는 것과,

②관객과 심판의 판정 일치로 심판에 대한 불신이 없어질 수 있으며,

③매회 채점표를 제출함으로써 심판원이 채점표에 즉시 채점을 하게 되어 공정성이 보이며,

④태권도 경기가 과학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견해가 생긴다고 말했다.

중등부 선수 8명을 출전시킨 김중기(전국가대표선수 은강 수혜자) 코치는 첫째, 과학적으로 발전한 모습이 우선 좋고 둘째, 심판에 대한 신뢰도 회복의 강점을 들었다.

한편, 인천구월중학교의 이화현 코치는

첫째, 작전지시 둘째, 선수와 코치가 판정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으며, 셋째, 일반 관중에게 경기의 흐름이나 득점에 대한 확인을 돕고 넷째, 판정결과에 응하며 심판이 코치나 관중에게 즉시 인정을 받을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배심을 맡은 김대연(심사분과 부위원장) 사범은

첫째, 판정에 대한 코치들의 항의가 없어 좋으며 둘째, 코치들은 작전 세우기가 용이하고

셋째, 선수들 자신의 상황 판단을 해 경기에 입하는 자세가 좋아졌고 넷째, 태권도 경기의 이미지 쇄신에 큰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인 표현을 아끼지 않았다.

심판으로 10여 년을 전국체전, 소년체전, 대통령기, 국가대표선발전 등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심판활동을 한 장용갑(2급) 심판은

첫째, 채점이 즉시 공개됨으로써 항의 사례가 줄고 몇몇한 느낌이 들며, 둘째, 심판의 입장에서 전체의 승패에 신경을 쓰지 않으므로 심적 부담이 크게 줄었으며,

셋째, 심판 자신이 내린 판정의 기준에 일치감을 느낄 수 있으며, 넷째, 우세승에 있어서도 심판 상호간의 일치감을 느낄 수 있고, 다섯째, 라운드별 판정이 즉시 확인됨으로써 정확성이 높아 결과적으로 전광판 사용은 심판, 선수, 코치, 관중 모두가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 노우승 운영 부장은 전광판이 1분, 2분, 3분으로 구분 사용토록 제작이 되어있기 때문에 금번 고등부 이상 경기시간이 1분 30초인 관계로 전광판 사용을 하지못할 운영면에서 시인하며, 앞으로 전광판을 1분 30초든, 2분30초든 모든 경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광판을 개조하여 국기원에서 진행하는 모든 경기는 전광판을 사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4일째, 라이트급이상의 경기는 선수들의 체구가 우람하여 경

기가 비좁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미들급 이상은 심판원이 왜소해 보일 정도로 고교생들의 체위가 크게 향상되었음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 와 대조적으로 일반 체육관에서 출전한 선수들로 이루어진 일반부는 체력, 체격, 기술 측면에서 고교선수들과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었으며,

게다가 서울과 서울 근교에서 10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하였음은 태권도 수련 인구의 성인과감을 입증하는 듯 하였다. 일반부에서 특기할 만한 상황으로는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에서 비상계획과 요원중 태권도 선수를 선발, 출전시킨 일이며, 김동준 사장이 경



◆김동준 사장이 경기장에 직접 나와 선수를 격려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기장에 나와 선수를 격려하는 등의 사례는 실업 팀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시사한 바람직한 일이었다.

경기 5일째인 29일은 고등부 16강에 진입한 선수들과 예선 1차전 경기를 치를 선수들이 체제를 하였다. 16강에 진입한 고교 선수들 중 2명이 체제에 실패했다는 사실은 경기 중에도 계속해서 체중 관리를 하여야 하는 체급경기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보였다. 또한 대학부에서 고교재학시 전적이 있는 선수가 출전한 사실은 상아탑에 몸담은 학생의 신분으로서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대학부 역시 고교출전 선수에 비하면 약세(기량 및 출전선수 숫자)였다.

서울에 분포된 대학보다는 지방 대학의 출전인원이 압도적이었음은

태권도가 이제 전국 대학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바람직한 일로 평가되나, 고교생 692명 출전과 대학생 86명 출전은 8 : 1의 비율로 나타나 각 대학의 태권도 인구가 가일층 확산되고 있음을 느꼈다.

고등부는 메달권 집임을 가름하는 경기로 경기장의 열기가 고조되었고, 특히 부산체고의 선수들이 6명이나 8강에 진입하는 등 서울의 태권도 명문고 강호를 제압하는 저력을 과시해 돋보였다.

중등부에서도 동성·풍성 등 서울의 태권도 명문 중학을 위협하는 각급 학교의 출현은 바람직한 현상이나 고교선수 692명에 중등부 309명이라는 상황은 고등부의 태권도 열기와 인기를 나타내는 이정표로써 중등부 태권도 인구 확산을 요하는



증거이기도 하다.

중등부·고등부·대학부·일반부 등 전국 태권도 신인선수들의 동용문인 종별 선수권 대회는 어느 대회보다도 태권도 선수들의 관심이 큰 대회이다.

중등부 선수들에게 고교진학의 진로가 개척되고 고교 선수들은 대학진학의 여부와 진로가 결정되는 계기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경기장의 분위기는 유난히 뜨겁다. 특히 고교선수는 700여 명중 32명이 영광을 안게 된다. 즉, 약22:1의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결론이다. 특히 플라잉급은 36:1의 경쟁을 보이는 데 6~7회의 대전으로 메달권

에 진입하며, 7~8회의 대전의 승리에서 1~2위에 진입하게 된다.

얼마나 어려운 고비를 넘겨야 되는지 가히 짐작이 간다.

그러나 중·고등부 선수들이 경기가 끝난 후 쓰라린 패배의 아픔을 느낄 때, 쓰다듬는 코치가 없으면 안타까운 일이다.

경기에 임하여 패배에 관대한 선수가 어디있겠는가?

코치의 작전대로 기량이 탁월한 선수라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작전대로 실천하지 못했다고 경기장 밖에서 타인이 보는 가운데 패한 선수에게 심한언동을 할 수는 없지 않은가?

한 번쯤 코치들이 생각해 볼 일

이다.

그리고, 선수들의 경기 운영이 너무 득점위주로 흘러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켓트 발 사용의 빈도가 높고, 차고 붙잡는(교묘히 몸을 꺾어안고 부딪치는 방법 등) 등의 경기 운영으로 기량에 의한 연속 공격 등이 부족하며, 기본을 익히기 전 기교를 터득하는 경향이 두드러짐은 지도자로서 깊이 반성해 볼 일이다.

이제, 이러한 경기의 흐름을 빠르게 인식, 경기를 운영하는 심판의 입장에서라도 중지를 모아 다이나믹하고 화이팅 넘치는 태권도 경기로 만드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전광판 사용은—

본인의 경기실력을 알수 있어 공격의 기회를 만들수 있으며, 자신의 경기의 승패를 선수자신이 가늠 할 수 있다는 것과, 관객과 심판의 판정 일치로 심판에 대한 불신이 없어질 수 있으며, 매회 채점표를 제출함으로써 심판원이 채점표를 즉시 채점을 하게되어 공정성이 보이며, 태권도 경기가 과학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견해가 생긴다고 …….

중등부 입상자명단

배급	등위	성명	소속	
핀	1	진승태	완산중학교	
	2	박창희	구월중학교	
	3	이무현	성남동중학교	
급	3	도권혁	영남중학교	
	플라이급	1	맹성재	동성중학교
		2	박중섭	충대부속중학교
3		장대순	동성중학교	
밴텀	3	김홍욱	성남동중학교	
	팀	1	김현용	배명중학교
		2	손영록	영남동중학교
3		이화진	풍생중학교	
급	3	김홍식	풍생중학교	

페더	1	이승구	쌍문중학교	
	2	송치광	청주중학교	
	3	윤정섭	선인중학교	
급	3	조진근	부친동중학교	
	라이트급	1	강봉석	고려중학교
		2	박재완	해동중학교
3		이신영	풍생중학교	
급	3	최무신	구암중학교	
	라벨터급	1	박재성	영남중학교
		2	임영일	성사중학교
3		송용석	동성중학교	
급	3	장태형	풍생중학교	
	웰터	1	이동희	청주중학교
		2	김정도	구암중학교
3		임용배	서귀포중학교	
급	3	추재영	영남중학교	

라미들급	1	김동수	부친동중학교	
	2	김승범	영훈중학교	
	3	백철선	울산대현중학교	
급	3	황재호	강남중학교	
	미들급	1	강소철	영남중학교
		2	김경득	구월중학교
3		이경철	동성중학교	
급	3	김한주	제주서귀포중학	
	라헤비급	1	이현석	동성중학교
		2	박정중	영남중학교
3		정원영	문의중학교	
급	3	강병삼	한성중학교	
	헤비급	1	박정학	동성중학교
		2	강승수	남제주중학교
3		박일환	청주남중학교	
급	3	연재홍	배명중학교	

고등부 입상자명단

배급	등위	성명	소속	
핀	1	신재덕	동성고등학교	
	2	임창섭	풍생고등학교	
	3	강운석	풍생고등학교	
급	3	박세금	대구오성고교	
	플라이	1	허병무	동대문상업고교
		2	안성환	한성고등학교
3		김남곤	청주신흥고교	
급	3	김홍석	부산체육고교	
	밴	1	최효석	성동고등학교
		2	김휘배	부산체육고교
3		김형규	성동상업고교	
급	3	이창근	동대문상업고교	
	페더	1	이광로	동성고등학교
		2	김종엽	군산중앙고교
3		오병철	부산체육고교	
급	3	전재길	전북체육고교	
	라이트	1	고진수	풍생고등학교
		2	이정태	인천체육고교
3		최병호	동대문상업고교	
급	3	김해상	선인고등학교	
	웰터	1	진정우	부산체육고교
		2	김홍철	문산종합고교
3		이화윤	문산종합고교	
급	3	이홍수	한성고등학교	
	미들	1	김봉근	부산체육고교
		2	윤장석	부산체육고교
3		강대용	동성고등학교	
급	3	조병식	인천체육고교	
	헤비	1	유재형	리라공업고교
		2	김동기	대원외국어학교
3		배영태	전북체육고교	
급	3	윤현식	동대문상업고교	

대학부 입상자명단

배급	등위	성명	소속	
핀	1	김명린	인천전문대	
	2	이천희	인천전문대	
	3	김은태	수원대학	
급	3	김지연	인천전문대	
	플라이	1	한상근	수원대학
		2	박도용	동명전문대
3		김종연	인천전문대	
급	3	장석무	인천전문대	
	밴	1	권오준	유도대학
		2	황영식	인천전문대
3		이광재	인천전문대	
급	3	방제정	유도대학	
	페더	1	김태균	유도대학
		2	김승모	인천전문대
3		이운성	인천전문대	
급	3	정인동	동명전문대	
	라이트	1	황금식	인천전문대
		2	권오득	인천전문대
3		박의중	인천전문대	
급	3	이진형	경희대학교	
	웰터	1	박은석	유도대학
		2	민찬기	유도대학
3		박원호	수원대학	
급	3	나영주	동명전문대	
	미들	1	박현수	인천전문대
		2	천봉재	동명전문대
3		이서중	유도대학	
급	3	전형극	인하대학	
	헤비	1	김현일	유도대학
		2	오재혁	인천전문대
3		김기운	인천전문대	
급	3			

일반부 입상자명단

배급	등위	성명	소속	
핀	1	오대한	구의체육관	
	2	전동준	인천체·OB	
	3	김동연	동양체육관	
급	3	추삼영	거제체육관	
	플라이	1	오욱재	와룡체육관
		2	안의환	신강종합체육관
3		한상일	건민체육관	
급	3	서명훈	독산체육관	
	밴	1	노현우	농수산도대시장
		2	유대원	한남체육관
3		최진호	남일체육관	
급	3	박지현	동아체육관	
	페더	1	최영만	송산체육관
		2	조철휘	일도체육관
3		배용구	경기도협회	
급	3	전재영	독산체육관	
	라이트	1	김진도	충효체육관
		2	박세룡	농수산도대시장
3		김희철	신광체육관	
급	3	박도성	봉화체육관	
	웰터	1	김기중	수북체육관
		2	김옥성	청성체육관
3		임요근	세심체육관	
급	3	홍용표	평택체육관	
	미들	1	김곤	거제체육관
		2	서대원	동아체육관
3		김종우	전북협회	
급	3	김진선	한렐루야체육관	
	헤비	1	조규덕	양지체육관
		2	김포서	부체육관
3		김용식	가야체육관	
급	3	이병하	후통체육관	

적절한 체중 관리가 최대 의과제로 대 두

제21회 대통령하사기생탈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 결산



김 봉 기 (경기분과위원장)

마련하는 모범적인 대회를 치르겠다는 사명감과 보람으로 대회를 준비하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적인 관광도시인 제주의 풍물과 인정을 마음껏 즐기고 좋은 추억을 간직할 것을 청하였다. 김운용 회장을 대신해 엄윤규 부회장은 대회사에서 관광의 보고인 제주에서 성년을 맞이한 본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치하하고, 태권도는 세계인의 공유 「스포츠」로서 86아시안게임의 정식종목, 88서울올림픽의 시범종목 등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본 대회를 준비한 제주지역 태권도 유지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으며, 격려사에서 장병구 제주도지사는 전통 무예로서 튼튼한 뿌리를 갖고 있는 태권도는 세계인이 즐기는 운동으로 성장하였으며, 각종 국제경기에서도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여 한국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제주도의 풍물과 아름다운 낭만을 친절히 소개해 줄 것을 부탁하고, 제주도에서의 대회개최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선전분투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리에는 제주도 내의 蔣炳九도지사, 卞在日감사장, 高奉湜교육감, 朴煥仁해역사령관, 申周鉉도경국장, 한국방송공사 鄭斗鎭 제주지국장, 제주문화방송 千濊政 사장, 李相用 제주도 태권도협회 명예회장 등 제주도내의 기관장이 모두 참석하여 자리를 더욱 빛내주었다. 오현교, 남주교, 태권도를 하는 국민학교 등 4000여명의 관중이 지켜

異國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제주도에 개최한 제21회 대통령 하사기생탈 전국 단체대항 태권도 대회는 국군체육부대 상무 팀을 비롯한 일반부 8개「팀」 54명, 경희대학교 태권도「팀」의 12개「팀」 92명, 서울체육고등학교「팀」의 39개「팀」의 268명 등 총 415명의 전국선수들이 모인 가운데,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열려 태권도의 합성을 한층 고조시켰다.

12시 경기를 잠시 멈추고 실시한 개회식에는 400여명의 선수가 도열한 가운데 제주 오현교의 우렁찬 밴드가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본회 노우중 운영부장의 사회로 시작된 개회식에서 황춘성 전무이사의 개회선언에 이어 제주 태권도협회 정룡사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라산의 정기어린 삼다(三多), 삼무(三無)의 고장 제주에서 본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견제하고, 국내 단일대회로서는 가장 규모가 큰 대회라는 의미를 살려, 전국 태권도 인구 저변확대는 물론 태권도 경기의 질적향상의 전기를



◆성년을 맞이한 본 대회는 국내 단일대회로서는 가장 규모가 큰 대회라는 의미를 살리는데 힘을 쏟았다.



◆정통사 제주협회장에게 감사패가 전달되고 있다.

보는 가운데 제주도 일반회비급 오 훈중 선수의 대표선수 선서에 이어 서울에서 내려온 한국대표 어린이 시범단인 미동국교 시범단 56명이 펼치는 절도있는 행동과 묘기의 연 출 속에 갈채와 함성이 이어져, 대회의 열기를 고조시켰다.

오전 9시 15분 김봉기경기위원장 으로부터 경기시작을 전해 들은 후, 코치는 리본을 달고 경기장뒤 코치석에 질서정연한 자세로 경기를 지켜보며 경기가 시작되었다.

경기는 A. B 코트로 나누어 고등부 경기로 시작되었다. A 코트에서는 경남체고 이정표 대 덕원고 손용구의 경기가 심판구 심판원을 중심으로 진행돼 호너니 손영구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B 코트에서는 배영고 남경우 대 광영고 우호진의 대진으로 장웅감 심판원이 주심을 맡아 경기를 진행, 청코너 남경우의 판정승으로 각 코트의 첫 경기를 치렀다.

대진번호 8번 밴텀급의 서울체고

양춘열 대 삼천포고 오세경의 경기는 1회 1분55초경에 오세경 선수가 오른발 전진스텝으로 공격을 시도 하려는 찰나 양춘열 선수가 오른발 뒤후러차기로 공격하면서 얼굴을 강타, 대회 첫 K.O 승을 거두었다. 이로써 서울체고는 20회 고등부 패권에 이어 2연패의 영광을 향해 쾌조의 출발을 하였다.

본 대회를 유치 주관한 제주도팀 중 라이트급 남주고 양민철 대 삼천포공고 송철천의 경기는 제주도로서는 첫 경기로 제주임원들의 관심이 총집중되는 가운데 진행되었으나, 이렇다 할 득점없이 제주에 판정승이 내려졌다.

고등부 판급 43번 경기는 85년도 체전 우승자 부산체고 김태형 대 제주남주고 양승관의 대전으로 김태형이 가볍게 승리했다. 그러나 판급은 서울체고의 정한수, 동성고의 권태호, 학다리고의 함식 선수 등 최강팀으로 대진이 짜여져 있어 모든 경기가 사실상 결승전을 방불케하

는 「빅게임」으로 펼쳐지며 파란이 예상되기도 했다.

플라이급 58번 부산체고 김용석 대 강원사대부고 박상찬의 경기에서 3회 1분에 김용석 선수가 앞돌러차기로 박선수의 몸통을 공격, K.O 승을 거두었다.

70번 경기는 고등부 밴텀급으로 전북체고 김동욱 대 한성고 안성환의 대결로 3회전 동안 대등한 경기를 펼쳐, 판정을 내리는데 1분가량 진통을 겪는 등 예선중반부터 열기를 고조시켰다.

백중세가 예상되었던 핀급 148번 동성고 권태호 대 학다리고 함식의 대전은 시각적으로도 차이를 느낄 정도로 우세한 경기를 보여준 권선수의 판정승으로 돌아갔다.

149번 서울체고 정한 대 부산체고 김태형의 경기는 백중세로 배심석에서도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울 듯 심판원을 불러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끝에 정한 선수의 신승을 선언, 서울체고에 청신호를 울렸다. 특기할 사항으로는 고등부미들급 한성고의 이홍수 선수는 강팀으로 부상하는 선동고교의 이명호 선수를 맞아 큰 키를 이용, 얼굴앞 돌려차기, 몸통공격 등의 다양한 공격으로 완봉승을 거두었다.

신장 1m 90cm 이상의 이선수는 순발력 있는 기량으로 긴 리치를 잘 이용하는 무한한 가능성의 선수로 평가되어 왔으며, 코치들이 군침을 흘리는(?) 재목인데 본 대회를 통해 유망선수로 새롭게 등장하였다.

한편, 대회 3일째를 맞는 5월 17일에 일반부 경기를 모두 마치고, 대학부는 준결승까지, 고등부 역시 밴텀급 준결승까지 마쳤다.

준결승 223번 라이트급 동래상고 김윤길 대 배영고 강철규의 대전



◆고등부 우승의 얼굴들

에서는 강철규 선수는 1회전 50초에 앞돌려 몸통공격을 시도하는 김선수를 앞들어찍기로 얼굴을 강타, 「다운」을 빼앗는 등 우세한 경기를 펼쳐 준결승에 진출하였다.

또한, 고등부 웰티급 227번 경기한성고 김하곤 대 성동고 공두환의 경기에서는 1회전 50초만에 성동고 공선수의 뒤후리기가 김선수의 얼굴을 강타, K.O됨으로써 가볍게 동메달에 진출하였다.

고등부 준결승

핀급 상동고 조기현 대 성동상고 최지호의 대전은 시종 백중 한 경기로 진행되어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동고에 승리의 화살을 겨냥한 예상을 뒤엎고 최지호의 판정승이 선언되었다.

풍생고 박진영 대 동성고 권태호의 경기는 경기의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리드한 권태호 선수의 판정승으로 매듭지어져 성동상고의 최선수와 핀급의 자웅을 겨루게 되었다.

플라이급 학다리고 채희준과 성동고 이종현의 경기에서는 1회전을 우세하게 이끈 이선수가 2회전에서는 쉬는 듯 소강상태를 유지했고 3회전에 맹공을 퍼부어 무난히 결승전에 진출하였다.

풍생고 김기환과 전남체고 심무진의 경기에서는 1회전에서 확실하게 득점한 심무진 선수를 성급히 쫓던 김기환은 2~3회전에 이렇다할 득점없이 혼전만 거듭하다가 판정패 당하고 말았다.

밴텀급 전 대학의 우승팀인 서울체고의 양춘열과 태권도명문고인 동성고의 정홍주의 대결이 펼쳐졌다. 1회전에서 정선수가 확실한 득점을 따내자 코치석에서 미소를 지었으나 2회전에서는 강공으로 나오는 양선수에게 맞서 대등한 공방전을 펼치는가하면, 3회전에서는 더욱 강력히 밀어 붙이는 양선수에게 경기 주도권을 빼앗겨 아깝게도 판정패당하고 말았다.

경기도의 강팀인 풍생고 윤두환과 전통을 자랑하는 성동상고의 대전도 1회전에서 확실한 득점을 한

윤두환이 2~3회에서는 혼전을 거듭, 승패를 가리기 어려운 접전이 이어졌으나 결국 빼기를 막는 역할을 하여 판정승함으로써 결승에는 서울체고를 맞이하게 되었다.

일반부 결승

핀급 강력한 우승 후보인 강원도의 송영섭 선수의 부상으로 기권당한 탐라체육관 김훈근은 부진승으로 올라온 제주협회 이창환을 누르고 금나무체육관 천성태, 상무 편세형을 누르고 결승에 오른와룡체육관 오대환은 1회전에서 확실한 득점을 하고 2회전에서 밀리는 듯 하더니 3회전에서는 주고 받는 접전을 벌였다. 결과적으로 1회전에서 의 확실한 득점이 영향력을 과시, 오선수를 금메달로 안내하여 대회 첫번째 금메달 선수가 되었다.

플라이급 상무의 김기호는 와룡체육관의 오육제 선수를 맞아 국가대표선수 등을 역임한 화려한 전적을 대변하듯 일방적인 공격을 가해 판정승, 플라이급 왕자가 되었다.

밴텀급 대구의 박종창, 제주의 김두수를 이기고 올라온 부산상무체육관 김재호는, 금나무 체육관 김영일, 설악케이블카 박창현을 이기고 올라온 상무의 정범수를 맞아 득점없이 공방전을 펼치던 중 상무에 판정승이 돌아가 2번째 금메달을 상무에게 안겨주었다.

페더급 설악케이블카의 양희석과 상무의 허현배와의 경기에서는 허현배 선수가 앞돌려차기로 공격을 시도하는 양선수를 점프 뒷차기로 맞받아 찬 발이 얼굴을 강타하자 양선수가 경기장 바닥에 뒤로 넘어지며 받은 충격으로 실신, 경련

이 일어나 잠시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으나 경기진행서 김용남사범의 재빠른 응급조치로 회복되었다. 그러나, 양희석 선수는 1회 30초만에 K.O패함으로써 상무에 3번째 금메달을 선사하였다.

라이트급 강호 상무의 오상운선수를 제압한 제주협회 유성룡은 설악케이블카의 김진도를 제치고 결승에 붙인, 대구시협회의 윤만철을 만나 1회전에서 확실한 득점을 하

고, 2~3회전 혼전을 했으나 최후의 판정에서 유선수에게로 승자선언됨으로써 제주에 첫 금메달을 안겨주었다.

웰터급 대구시협회 김동섭은 제주협회 최영철을 제압하고 올라온 상무의 김찬구를 맞아 1회에는 선전하였으나 2회 47초에 앞돌려차기로 얼굴을 강타당해 K.O패함으로써 상무에 4번째 금메달을 안겨주는 결과를 빚었다.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성동의 공두환 선수에게 밀려 소극전법을 써가며 점수를 관리, 어렵게 신승하였다.

동대문상고 박대성과 승실고 김상근의 경기는 박대성이 경기의 주도권을 잡고 계속 공격하여 깨끗하게 판정승하였다.

미들급 준결승전은 심관원이 왜소해 보이는 중랑급으로 특히 한성고의 이홍수는 1m90cm가 넘는 키로 1m84cm의 신장을 가진 성동상고 성필용 선수가 상대적으로 왜소해 보이는 장면이었으며, 이홍수선수에게로 판정승이 돌아갔다.

협성상고의 신동열과 강원사대부고 박경철의 경기. 신동열은 득점을 빼내는 기술은 돋보이나 기량면에서 단조로운 반면, 박경철은 기량과 파워면에서 월등해 경기를 리드하였고 3회전에서는 앞돌려차기, 주먹공격 등으로 밀어붙이며 키의 열세를 극복, 결승에 안착하였다.

레비급 준결승에서는 서울체고 김동욱이 경성상고 김진우를 제력, 체격으로 강하게 밀어붙여 판정승하였고, 성동고의 강대웅과 동대문상고의 윤현식도 현저한 체력, 체격차이에서 오는 힘에 밀려 결승진출을 성동고에 내주고 말았다.

대학부 결승

핀 **급** 본 대회 19회 우승팀인 한국체대 김철호와 20회 우승팀인 경희대 최현의 한판이 벌어졌다. 1회전은 탄막 및 공방으로 소강상태를 유지했으나, 2회에 들어서며 최현선수가 앞돌려차기, 밀어차기등으로 김철호 선수에게 공격을 퍼부으면서 게임이 리드하였는데 3회에 이르자 실점을 만회하려 맹공을 가



◆일반부 우승팀

미들급 상무 임종남과 설악케이블카의 박우진의 경기에서는 1,2회전에서 줄곧 게임의 주도권을 잡았던 임선수가 3회들어 체력전에 밀리면서 다량실점을 함에따라 판정패를 당해, 상무에 또 금메달을 선사하였다.

헤비급 탐라체육관 최내인의 신장과 기량이 앞선 상무의 김병수 선수를 맞아 선전하였으나 역부족으로 밀려 상무를 6체급의 왕자로 탄생시켜 주었다.

승 페더급 경기에서는 강력한 우승 후보인 동성고의 이광로를 서울체고 박기도가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했으며, 인천광성고 김병철이 한성고 장치용을 누르고 결승에 진출했다.

라이트급 준결승에서는 배영고의 강철규 선수가 동성고의 김해국 선수를 제압했고, 제주도에서는「제2의 장승화」라고 불리는 김태형 선수가 경남체고의 조필규를 제압하고 결승에 안착하였다.

웰터급 준결승에서 부산의 진정우는 성동의 공두환을 맞아 다양한 기량으로 공격하는 공선수를 받아 차기 등으로 역습하였으나 3회에

1986. 5. 18.

첫 게임으로 시작한 고등부 준결

하는 김철호의 얼굴을 주먹 공격으로 강타, 경고를 받으며 경기는 다시 소강상태를 이루기도 했다. 혼전 끝에 게임은 끝나, 최천선수의 판정승으로 경희대에 첫 금메달을 선사하는 결과를 낳았다.

플라이급 계명대, 경상대, 성균관대 선수를 차례로 제압하고 결승에 오른 제주대의 이현태 선수는 한국체대, 송원실업전문대, 관동대를 제치고 올라온 경희대 이인재를 맞았다. 키는 작으나 아무진 공격에 주춤하는 이현태를 이인재 선수는 선제 주먹공격으로 기선을 잡으며 경기를 리드하였고, 앞돌려 차기에 이어 곧바로 가한 주먹 몸통공격은 상대의 머리가 흔들릴 정도로 일품(?)이었다. 경희대 이인재 선수의 판정승으로 경희대에 두 번째 금메달을 선사했다.

밴텀급 성대 전용환과 한국체대 함준의 한판이 끝 경희대와 한국체대의 우승을 가늠하는 한판이다. 경희대에서는 성대 선수가 한국체대 선수를 잡아주기를 바랬고 한국체대로서는 꼭 이겨야 할 경기였다. 노련한 전용환 선수가 뒷차기, 몸통공격 등으로 1회전 경기의 흐름을 컨트롤 2회에도 계속 몰아붙였으나 이렇다할 특징이 없었고 3회에는 함준 선수가 주먹공격을 잘못하여 경고를 받는 등 계속수세에 몰렸으나 3회말 4부심쪽에서 뒤로 빠지면서 받아찬 공격이 유효하여 함준 선수는 악전고투 끝에 신승을 하여 한국체대에 첫 금메달을 안겨 주었다.

페더급 최강택끼리의 한판이다. 경희대 김경환과 한국체대 정승환은 1회의 탐색전 이후 2회에는 2부심쪽에서 정승환의 공격이 유효했으며, 3회초에는 1부심쪽에서 다



◆대학부 우승을 차지한 얼굴들

시 퍼붓는 정승환의 공격소리가 장내를 울리면서 승세를 굳혀 판정승 함으로써 한국체대와 경희대의 금메달 수를 상쇄시켰다.

라이트급 한국체대 이창건과 동아대 김용수의 경기는 1회 시작을 알리자마자 전광석처럼 달려들어 혼전을 예상케 했다. 3~4회의 몸통공격을 성공시킨 이창건, 이를 만회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김용수. 역공을 다시 맞받아 공격하는 이창건의 경기는 관적으로 하여금 손에 땀을 쥐게하는 정도로 박진감과 긴장감이 넘쳤다. 그러나 2~3회에서는 이창건의 페이스에서 벗어나지 못한 김용수가 은메달에 머물고 한국체대는 패권을 향해 무뎠다.

웰터급 계명대 전광기 선수와 동아대 이화상 선수의 대전에서 1회는 탐색전으로 일관하였으나 2회에서는 적은 신장을 만회라도 하려는 듯 전선수의 뒤후리기공격이 이 선수의 목에 걸리는 등 과감한 공

격을 시도하였고 3회에서는 이화상 선수가 긴 킨를 이용, 앞돌려차기를 강하게 또는 약하게 시도한 후 소강상태가 계속되었다. 결국 동아대 이화상 선수의 판정승으로 끝나 동아대에게 첫 금메달을 선사하였다.

미들급 백전 노장이라는 표현을 써도 좋을 원광대 김종석 선수와 동의대 이성우 선수의 대전. 1회가 시작되자마자 기선을 제압하려는 듯 이성우의 맹공을 노련하게 선방하며 1회 종료직전 유효한 공격을 한 김종석은 2~3회전에서도 투지와 패기를 앞세워 공격하는 이성우 선수를 차분히 공략한 결과, 김종석 선수는 원광대에 금메달을 안겨주는 공로를 세웠다.

헤비급 본 대회에서 헤비급의 유망주로 손꼽히던 계명대 윤윤균 선수와 경상대 박성휘 선수의 대전에서는 예상대로 윤윤균 선수가 긴 리치를 이용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며 경기를 리드한 끝에 판정승, 헤

비급 왕자가 되었다.

윤선수는 1m 93cm 장신으로 기본기를 갖춘 선수로 기대를 한 몸에 모으고 있다. 키에 비급가도록 체중을 증가시키고 순발력, 민첩성을 배가시킨다면 외국의 장신선수들과의 대결에서도 전혀 손색이 없는 재목으로서 87년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의 새로운 헤비급 강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코치들은 입을 모았다.

고등부 결승전

본 대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고등부 결승은 서울체고, 동성고, 신에성고교 등이 패권을 놓고 겨루게 되었다.

핀 금 성동상고 최치호와 동성고 권태호의 경기는 바로 직전의 대학부 헤비급 결승전에 뒤이은 경기라 보는이로 하여금 느낌이 새로웠다. 대학부 헤비급 경기를 볼드저의 우둔한 움직임이라고 한다면 고등부 핀금은 스포츠카의 경기를 보는 듯 하였다. 1회에서 앞돌러차기, 들어찍기 등 다양한 공격을 시도한 권태호가 경기를 주도, 2회에서 역공을 가하는 최선수를 물러나면서도 한치의 쉬임없이 받아차는 양선수의 민첩성은 멋진 한판을 장식하기에 충분했다. 3회에서도 1회처럼 부지런히 움직이며 한치도 공격을 늦추지 않은 동성고의 권태호에게 판정승이 돌아가 동성고에 금메달을 안겨주었다.

플라이트 금 성동고 이종현과 전남체고 심무진의 경기는 1회 탐색으로 중반을 넘기고 간헐적인 공격을 시도했으며 2회에서도 경량급답지 않게 기호보처럼 기다리는 소극적

인 전법으로 진행, 3회에서 단발선공을 한 심선수가 차고 빠지는 약삭빠른 경기를 운영했으나, 3회말에서는 이종현 선수가 들어 찍기로 심선수의 얼굴을 스치는 공격을 시도하면서 미미한 작속전을 벌였다. 두 선수가 3회 통산 20회미만의 발차기 공격을 한 경기로 경량급 최고 졸작 경기로 기록될만한 한판이었다. 그러나 승패는 가려져야 하므로 고심 끝에 성동고 이종현의 판정승으로 매듭지었다.

백 텀 금 서울체고 양춘열 대풍생고 윤두환의 경기. 백텀금은 선수층이 가장 두터워 39명의 선수가 출전한 체급이라 4~5회의 경기를 치르고서야 결승에 오르게 되었다. 두 선수는 1회를 탐색적으로 일관하고 2회에 들어서자 윤두환선수가 앞돌러차기 공격을 시도하는 양성을 들어찍기로 얼굴을 공격하는 데 이어 뒷차기 등으로 연속 공격을 시도하는 등 백중중한 경기를 계속했으며 3회에서는 이렇다할 공격없이 공방전을 벌였으나 파워를 앞세워 공격을 시도한 양선수에게 판정승이 내려져 선명한 윤두환은 아깝게 은메달에 머물렀다.

페더 금 동래고, 전남체고, 리라체고, 동성고 선수들을 차례로 제압하고 결승에 안착한 서울체고 박기도 선수와 부산체고, 전북체고, 송도상고, 현성고선수를 제치고 결승에 진출한 인천광성고 김병철 선수의 한판. 김선수는 강호 박기도를 맞아 1회전엔 다소 물리는 듯 하였으나 2~3회전에 계속 경기의 주도권을 잡고 리드하여 인천 광성고에 금메달을 안겨주었다.

라이트 금 배영고의 강길규와 제주오현고 김태형의 경기는 제주협회 임원은 물론, 주관협회의 관심

있는 경기인 만큼 경기임원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진행되었다. 1회전에서는 김태형 선수가 경기의 주도권을 잡고 우세하게 이끈 반면, 2회전에서는 대등한 경기를 보았다. 3회에서도 이렇다할 득점없이 주고받으며 선전한 끝에 김태형이 판정승을 거두면서 「제2의 장승화」의 체면을 유지하였다.

웰터 금 부산체고 전정우와 동대문상고 박대성의 경기에서는 전정우 선수의 받아차기 등의 다양한 공격이 눈에 띄어 경기의 주도권을 잡아 무난히 판정승 함으로써 부산체고에 금메달을 선사하였다.

미 들 금 한성고의 이홍수 대 강원사대부고 박병철의 경기는 예선전부터 큰 신장으로 주목을 받으며 승승장구한 이선수가 대회마다 착실히 득점을 하여 판정승을 거두었음은 물론 장래 태권도의 꿈나무로서의 가능성이 확실히 보여 주었다.

헤비 금 서울체고 김동욱과 성동고 박희석의 게임은 체격조건부터 백중세였다. 또한 이 경기의 승패에 따라 고등부의 패권이 가름나기 때문에 분위기는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었다.

1·2·3회전 모두 헤비급 경기답지 않게 많은 공격을 주고 받았다. 모든 것에 있어 결과가 중요하듯 특히, 경기의 결과는 전적으로 판정에 의해 결정된다.

상단공격을 많이 한 성동고 박희석 선수가 외양으로는 공격의 주도권을 잡은 것 같으나 실제의 득점능력에서는 서울체고의 김동욱선수의 받아차나리 열구리 공격이 유효한 듯 판정은 서울체고 김동욱선수에게 승자선언이 되었다.

이에 성동고 코치와 감독이 판정



에 불만을 표시, 좀 심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강한 「어필」을 하였고 시상식에도 나타나지 않는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지금까지의 양상으로 보아 대체적으로 종합 우승을 한 팀은 금메달 3~4개로 고등부 캐권이 가름이 났는데 본 대회에서는 서울세교가 금메달 2개로 종합우승을 하였고 서울의 동성고, 성동고, 한양고교가 각 금메달 1개씩, 지방고교중 부산세교, 인천광성고, 제주우현고교 등이 금메달 1개씩을 확보하는 등 분산되었는데 이는 태권도 경기의 기량평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87년도의 우승예측을 불허하는 단면이기도 하다. 또한 대학부도 종래 한국세대가 우승하면서 5~6개의 휩쓸던 관습에서 벗어나, 금메달을 한국세대가 3개, 경희대가 2개, 그 밖에 동아대, 원광대, 계명대등으로 분산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인다.

다만 일반부는 「극소수의 실업팀」라는 결점으로 인해 상무팀이 독주하는가 하면, 태권도 수련 인구의 연령 저하에서 오는 위기가 날로 심각해져 일반부의 선수 참가율 저조 현상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이 놓이게 되었다.

태권도 경기는 체급경기이며 개인 경기이다. 체급경기에서는 선수가 체중관리를 적절히하는 것이 제 1의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대회, 심지어 많은 경비를 치출하면서 제주까지 원정출전 선수들이 체중관리를 못해 경기장에서 서보지도 못하고 체체에서 실격을 당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특히 고교 선수들은 학교에서 감독, 코치 등의 그룹지도를 받고 있으므로 체



◎점차 선수들의 기량이 평준화되고 있음이 본 대회를 통해 입증되어, 87년도 대회에서의 우승후보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체의 실격은 지도자들로서 각성해야 될 일이다. 268명 출전에 35명의 체체 실격은 약 20%에 육박하는 것이며 10명에 2명 꼴이 선수자격이 없다함은 결과적으로 각 팀의 지도자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방향으로 귀결된다.

끝으로 체육도장 20여 개소와 태

권도를 하는 학교 중 다섯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제주도에서 전국대회를 유치, 성공적으로 마칠수 있도록 전력투구한 제주도 협회 정몽사 회장님이하 전임원계 전 참가선수단을 대신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고등부 입상자명단

체급	등위	성명	소속
핀	1	권태호	동성고
	2	최지호	성동상업고
	3	조기현	성동고
급	3	박진영	봉생고
플라이	1	이종현	성동고
	2	심무진	전남체육고
	3	채희준	학당리고
급	3	김기환	풍서고
벤텀	1	양춘열	서울체육고
	2	윤두환	풍생고
	3	정홍주	동성고
급	3	박상용	성동상업고
페더	1	김병철	인천광성고
	2	박기도	서울체육고
	3	이광로	동성고
급	3	장치용	한성고
라이트	1	김태형	제주호연고
	2	강철규	배영고
	3	김혜국	성동고
급	3	조필규	경남체육고
웰터	1	진정우	부산체육고
	2	박대성	동대문상고
	3	공두환	성동고
급	3	김상근	송실고
미들	1	이홍수	한성고
	2	박경철	강원사대부고
	3	성필용	성동상업고
급	3	신동열	협성상업고
헤비	1	김동욱	서울체육고
	2	박희석	성동고
	3	김진우	경성공업고
급	3	윤현식	동대문상고

대학부 입상자명단

체급	등위	성명	소속
핀	1	최천	경희대학교
	2	김철호	한국체육대
	3	정재관	관동대학교
급	3	한동수	동의대학교
플라이	1	이인재	경희대학교
	2	이현태	제주대학교
	3	허인구	관동대학교
급	3	우대훈	성균관대학
벤텀	1	함준	한국체육대
	2	전용환	성균관대학
	3	이광욱	송원실전문
급	3	김우창	조선대학교
페더	1	정승환	한국체육대
	2	김경환	경희대학교
	3	이우선	동아대학교
급	3	김재욱	경성대학교
라이트	1	이창진	한국체육대
	2	김용수	동아대학교
	3	신진철	계명대학교
급	3	최상진	경희대학교
웰터	1	이화상	동아대학교
	2	전광기	계명대학교
	3	배병태	관동대학교
급	3	김윤태	한국체육대
미들	1	김종석	원광대학교
	2	이성우	동의대학교
	3	김양기	조선대학교
급	3	김진욱	계명대학교
헤비	1	윤을관	계명대학교
	2	박성휘	경성대학교
	3	박종일	동아대학교
급	3	안병덕	한국체육대

일반부 입상자명단

체급	등위	성명	소속
핀	1	오대환	와룡체육관
	2	김훈건	탐라체육관
	3	이창현	제주시협회
급	3	권세영	상무
플라이	1	김기호	상무
	2	오욱제	와룡체육관
	3	김완택	제주시협회
급	3	김태룡	대구시협회
벤텀	1	정범수	상무
	2	김재호	서부체육관
	3	김두수	제주시협회
급	3	박창현	설악케이블
페더	1	허현배	상무
	2	양희석	설악케이블
	3	한상호	서부체육관
급	3	고대균	금나무도장
라이트	1	유성룡	제주시협회
	2	유만철	대구시협회
	3	김진도	설악케이블
급	3	민중철	탐라체육관
웰터	1	김찬구	상무
	2	김동섭	대구시협회
	3	최철영	제주시협회
급	3	고영기	탐라체육관
미들	1	임종남	상무
	2	박우진	설악케이블
	3	김대식	제주시협회
급	3	안재홍	서부체육관
헤비	1	김병수	상무
	2	최내인	탐라체육관
	3	정대현	금나무도장
급	3	우동수	설악케이블

고등합부 순위

- 1 위: 서울체육고교
 - 2 위: 성동고등학교
 - 3 위: 동성고등학교
- 갑 투 상: 한성고등학교
 장려 상: 남주고등학교
 지도 상: 강원사대부고
 박창덕
 최우수상: 김동욱

대학합부 순위

- 1 위: 한국체육대학
 - 2 위: 경희대학교
 - 3 위: 계명대학교
- 갑 투 상: 동아대학교
 장려 상: 원광대학교
 지도 상: 하용성
 최우수상: 정승환

일반합부 순위

- 1 위: 제 8688부대
 - 2 위: 와룡체육관
 - 3 위: 제주도협회
- 갑 투 상: 설악케이블카
 장려 상: 금나무체육관
 지도 상: 황영갑
 최우수상: 정범수



제15회 전국

[86. 5. 5 ~ 9]



◀정국 선수들의 기량이 처음 평가되어 겨우도 있어 내일이 많다

15돌을 맞는 전국소년 체육 대회는 각종 스포츠 행사를 대비한 경비절감의 일환으로써 이례적으로 각 시도에 종목별 분산 개최하였다. 태권도와 배구는 경남 마산시에서 개최되었는데, 태권도 경기는 마산시 교육단지 내에 새로 단장한 양덕여중 실내 체육관에서 거행되었다.

오전 7시 계체를 마치고 오전 10시 김용휘 사무국장의 사회로 대표자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황춘성 전무이사는 6월 전국체전 및 9월 아시안 게임 등 태권도 전반에 관한 밝은 계획의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소년체전의 경기일정 및 경기 운영

에 관한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경기장 질서 대책에 관해 권경욱 기술심의회의장, 경기진행 및 주의사항에 관해 김봉기 경기위원장, 심판으로서 공정을 기하겠다고 다짐하는 안영택 심판위원장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경남협회 장춘식 부회장의 안내말씀을 끝으로 대표자회의를 마쳤다. 5일 9시30분 마산에 도착한 김운용 회장과 내빈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후 1시에 경기가 시작되었다.

필급 대전번호 1번 서울

소년체육대회 태권도 경기 결산

장소 : 경남 마산시 양덕여중 체육관

의 김건일 대 충북 신동원의 대진으로 시작된 경기
는 서울의 김건일 선수가 첫 승리를 장식하였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경기에서는 전국의
선수들 기량이 평준화되어 심판원의 재점표를 배
심이 판정 내리는 데 3~4 회의 재점검을 하거나
심판원을 불러 재확인율 하는 등 판정에 신중을 기
하는 모습을 보면서 태권도 경기 판정의 각종 잡음
을 해소시켜 밝은 내일을 예고하는 호모한 분위기
를 읽을 수 있었다.

대진번호 5번째인 플라이급 첫 경기는 전북 이
주현 대 경기 이화진의 대진으로 이주현선수가 경
기도에 첫 승리를 안겨주었고, 대진번호 6번 게임
인 플라이급 전남 한지환 대 강원 이원준의 경기
는 게임을 우세하게 이끈 이원준이 실점하여 객관
적으로는 우세한 반면 득점상으로는 진 경기로 강
원도 팀을 안타깝게 했다.

한편, 7번 게임은 제주 현석훈 대 대구 김준영
의 대진으로 제주에 두 번째 승리를 안겨 주는 판
정승이었다. 또한 페더급 16번째 게임에서 충북의
이은휴 선수 대 제주의 강운만 선수의 대진에서는
장외의 열기가 특히 눈길을 끌었다. 마치 충북 임
원 정해열씨와 제주 좌봉택 부회장의

응원전 이랄까? 선수가 듣는지 못
듣는지 불문가지로 응원에 열중하

는 정해열 충북 임
원의 응원은 가히
열광적이며, 우
승 판정이 제주로

내려진 후 호모해하는 제주협회
좌봉택 부회장과 석패한 충북 정
해열 임원의 표정에서 희비가 엇갈



렸다.

대진번호 17번 경기도의 조영국 대 전남의 이창한
의 대결은 1회전에서 막상마하로, 2회전에서는
조영국 선수가 다운을 빼이는 등 일방적인 공격
을 하였으나 3회에 이창한 선수가 볼사조처럼 기
사회생, 땅공을 퍼부어 전세를 뒤엎고 판정승 하
였다.

대회 첫날 대진번호 33번까지의 전적은 서울이
7 체급에서 6체급, 전남이 6체급, 부산·전북·경
기가 4체급, 경남·제주가 3체급, 그리고 대구·인
천·충북·충남·경북이 2체급씩 진출한 가운데 5
일 경기를 마무리지었다.

5. 6.

경기 이틀째 날의 첫 경기는 대진번호 34번 전북
의 윤남식 대 부산 정일권의 경기로 부산에 판정
승함으로써 부산이 소체의 강적으로 부상하기 시
작하였다.

대진번호 36번 서울의 최정복 선수는 인천의 김
종훈 선수를 맞아 연속 공격으로 1회전을 무차별
공략, 2회전에는 판목 부상으로 의무 담당으로부
터 경기불능의 판정을 받아 최선수 기권승을 얻어
냈으며, 서울의 라이트 웰터급 박동용 선수를
제외한 전 체급에서 서울 팀이 강세를 보이며,
한편 뒤를 바짝 쫓으며 추격하는 전남과 부산이
동메달을 향해 치열한 경쟁을 보였다.

6일의 전적은 서울 8체급 동메달 확보, 전남·
부산 5체급, 경남·충남 4체급, 충북·전북 3체급,
강원·대구·제주 2체급, 그리고 인천 1체급 등인
데 경기도는 한 체급도 준준결승에 진입하지 못했



다. 이는 물론 실력의 차이로 패하였음이 사실이나 본 대회에의 강팀인 서울·전남 등과 대진이 되어 초반에 고배를 마신 대전 운에도 큰 작용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5. 7.

경기 3일째이자 결승을 치르는 날이다. 등위 다툼에서 서울은 이미 1등의 고지탈환이 확정된 상태와 다름 없고 특별한 이변이 없는한 전남과 부산이 2~3위를 가름하는 분위기 속에 96년 경남의 이호근 대 경기 이상근의 대결로 이 경기는 예비급에서 유일하게 남은 메달권 진입 찬스였다.

헤비급 선수를 담지 않게 많은 공격을 주고받았다. 2회전에서 경남 선수의 얼굴 공격을 성공시킨 이상근 선수가 계속 공격을 시도하다 경남 이호근 선수의 옆받아차기에 다운되는 실수를 범했고, 3회전에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공방전을 펼쳤으나, 1회전의 실점으로 판정패 경기도는 「No 메달」의 훈장(?)을 달게 되었다.

준결승전

대전번호 100번 게임부터는 은메달을 놓고 겨루는 한 판이다.

원급 서울의 김건일 대 전북 진승태의 대결. 1회전에 몸통·얼굴 등을 다양하게 공격한 서울의 김건일 선수는 2회전에서는 보는 이로 하여금 공격이 득점과 연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를 정도로 빠른 몸놀림으로 손에 땀을 쥐는 공방전을 펼쳤다.

3회 역시 서로 주고 받는 막상막하의 게임을 전개하였으나 1회에서의 실점이 패인이 되어 전북 진승태 선수는 아깝게 동메달에 머물고 말았다.



◆중합우승을 차지

101번 게임은 2체급이 남은 제주와 4체급이 남은 경남의 대결이었다.

1회전 제주의 고성권 선수가 몸통 공격을 하다 경남 장현술 선수의 맞받아차기가 얼굴에 맞아 실점했으나 2회전에 이르러서는 맹공을 퍼부어 우세하게 경기를 운영하고 3회에서도 막상막하의 공방전을 벌였으나 확실한 득점이 없어 제주의 메달은 동메달에 머물렀다.

102번 플라이급 서울의 박진영 과 충남의 유성호의 대결은 1회, 탐색전을 하듯 이렇다 할 공격없이 초반을 보내고 중반에 공방전 2회, 유성호 선수의 앞돌려차기가 대포 소리를 내며 박선수의 몸통에 적중하여 박선수는 역습의 기회를 잡으려 3회 맹공을 하였으나 득점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판정패함으로써 충남에 결승 진출권을 양보했다.

103번 경기는 부산의 심성구 과 충북 광석근의 대결이었는데, 1회전에는 부산의 심성구 선수가 경기의 주도권을 잡고 리드하였으나, 2~3회 충북의 맹공을 막지 못하고 경기의 주도권을 상실, 판정패함으로써 전남과의 등위 다툼에 췌기가 박혔다.

104번 경기는 밴텀급 충북의 송치광 대 강원 김용화 선수의 대결로서 두 선수가 첫 대전을 무전승으로 예선을 통과, 준준결승에서 승리한 선수로 1, 2, 3회전에서 주도권을 잡은 강원의 김용화



서울 선수단이 환호하고 있다.



자답게 시종 우세한 경기를 치러 판정승으로 안정되게 은메달에 안착하였다.

108번 경기는 라이트급 부산의 박재완 대 서울의 권영수의 대결이었는데, 부산의 박재완 선수는 거칠게 몰아 붙이는 서울의 권영수 선수의 공격을 선방하면서 매회 득점과 연결되는 공격을 하여 강호 서울을 판정승으로 제치고 은메달권에 진입하였다.

109번 전남의 조현식과 경남의 최무신의 경기는 1회전에 기선을 잡은 전남에게 2~3회전에서 맹공을 퍼부었으나 이에 맞선 전남의 반격을 물리치지 못하고 경남의 판정패로 끝났다.

110번 라이트 웰터급 전북의 정을진 대 전남의 김남희 선수의 대결에서는 1회전에 정을진 선수의 선공이 득점과 연결되는 듯하였으나 전남의 반격에 밀려 경기의 주도권을 빼앗겼고, 2회전에들어 전북의 정선수의 공격의 베이스에 밀려 전남의 김남희 선수는 몸통·얼굴 등 아슬아슬한 공격을 당하였다. 2회의 여세를 몰아 맹공을 퍼붓는 전북 선수와 맞서 득점을 주고 받는 공방전을 전개하였으나 2~3회 경기의 주도권을 잡았던 정을진 선수에게 판정승이 선언되어, 정선수는 전북에 첫 은메달을 선사하였다.

111번 부산의 박재성 대 강원도의 이철우의 경기에서는 1회에 몸통 공격 등 경기를 깨끗하게 운영하며 부산의 박재성 선수가 주도권을 잡고 2회에는 몸통공격을 주고 받으면서 득점을 하였으나 얼굴공격 등으로 우세하게 경기를 리드한 박선수는 3회에서 전세를 만회하려는 이철우 선수의 공격을 선방, 판정승하여 부산에 두 번째 은메달을 선사하였다.

112번 웰터급 전남의 정유석 대 제주도의

선수가 판정승을 거두었다.

105번 경기는 서울의 정광재 와 전남의 김문남 선수의 대결로 이른바 강팀 대 강팀의 대결이었는데, 어느 경기보다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경기가 진행되었다.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공방전으로 3회전을 끝내고 판정은 서울의 승리로 돌아갔다.

그러나 전남이 판정에 불복 소청을 제기, 이에 서울이 승복함으로써 전남의 김문남 선수가 결승에 진출하였다.

106번 경기는 페더급 서울의 김성남 대 부산의 신호동 선수의 대결로서 부산 팀에게는 결사적인 판이었다. 1회전에는 경기의 주도권을 서울에 빼앗겨 코치석의 표정이 매우 침울해 보였다.

그러나 2회에 들어서면서 맹공을 퍼부어 비슷한 상황을 만들고 3회에서 몸통 공격을 정확히하여 자신을 얻은 신선수는 위협적인 일꾼 공격 등 우세한 경기를 운영, 판정승을 거두었다.

107번 경기는 전남 이창환 대 경남의 황봉환 선수의 대결로서, 경남의 황봉환 선수는 3대의 세계 태권도 챔피언을 지낸 코치의 제





도 이에맞서 팽팽한 열전을 펼쳐, 결국 2회전에서 실점이 패인이 되어 이태훈 선수는 아깝게 동메달에 머물고 말았다.

116번 미들급 경기는 전북의 이상한 대 총

남의 김인태의 경기로 1~2회전에서는 우열을 가리기 어렵게 공방전을 벌였으나 3회전에 들어서면서 총남의 김인태 선수의 기량이 돋보이기 시작, 뒷차기 앞돌려차기 등 다양한 공격을 하여 판정승으로 연결시켰다. 이로써 총남에 2번째 결승권을 안겨주게 되었다.

117번 서울의 박진석 대 경남의 노영민의 경기 1회전에는 박진석 선수가 몸통공격에 성공, 기선잡는 듯 하였고, 2회전에서는 서로 몸통 공격을 주고 받으며 공방전을 펼쳤으나 무엇보다도 노영민 선수의 상단공격이 위협적으로 돋보이는 경기였다. 3회 또한 2회전과 흡사한 경기로 배심석에서의 긴장과 심사숙고 분위기에 미루어 흥미있던 경기로 관측되는 데, 판정승은 경남으로 돌아갔다.

118번 라이트 헤비급 충남의 신경수 대 충북의 정원영의 경기는 1회전에서 충북의 정선수가 승세를 잡았으나 2회전에 접어들면서 충남의 맹공을 받아 약간 수세에 몰리는 듯했다. 3회에서는 이렇다 할 득점은 없었으나 공격을 주고 받는 팽팽한 경기를 펼쳐 선전했는데, 판정은 충남 신경수 선수의 승리로 돌아가 충남에 은메달 3개를 확보시켜 주었다.

119번 서울의 박세진 대 인천의 장운주가 펼친 경기에서 유일한 동메달 선수인 장선수에게 거는 인천의 기대는 가히 짐작 할 만했다. 그러나 강팀 서울의 선수에게 판정패, 결승 진출권을 서울에 넘겨주고 동메달에 머물렀다.

120번 헤비급 경기는 경남의 이호근 대 서울의 이기정의 대결이었다. 이 경기에서는 헤비급 선수 담지 않은 몸놀림으로 다양한 공격을 주고받아서 득점을 빼내는 공방전이 전개되었다. 1~2회전을 우세하게 이끈 이호근 선수가 강호 서울을 누르고 판정승을 장식했다.

임용배의 경기에서는 대전군이 좋아 부전승으로 예선을 통과하여 경기의 최기훈을 누르고 준준결승에 오른 임용배는 강팀 전남을 만났다. 1회전에서 주도권을 빼앗기고 밀리다 2회전에서 만회하려는 듯 공격을 시도하였으나 3회전에서는 몸통 공격을 당하는 등 주도권을 빼앗겨 동메달에 머물고 말았다.

113번 대구의 윤성목 대 서울의 오상명의 경기에서 승승장구하는 강팀 서울과 겨루게 된 윤성목 선수는 기선을 제압당한 듯 소극적인 경기를 진행, 1회전을 마쳤고 2회전에서 윤성목은 득점과 연결은 시키지 못했으나 공격적인 동작으로 백중한 경기를 운영하였다. 결국 3회에 이르러 체력의 열세와 경기 운영 미숙으로 서울에게 판정패, 동메달에 머물고 말았다.

114번 라이트 미들급 부산의 정일권 대 서울의 최정복의 대결은 1, 2, 3회전 줄곧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막상막하의 경기로 관중들의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백중한 경기였다. 특히 전천후 강세를 자랑하는 서울 팀과의 대결로서 판정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아닌게 아니라 판정은 서울의 승리로 매듭지어졌으며, 다만 아쉬운 점은 승리한 선수가 보여주는 환희와 패배한 선수가 보여주는 좌절 사이에서 빛어지는 스포츠맨십의 不在였다. 승자와 패자의 공존을 위해 최후의 판정대에서 보아야 할 선수들의 행동에 결코 이질감이 조성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115번 대구의 이태훈 대 충남의 안보현의 경기는 1회전에서 몸통공격으로 득점을 뽑은 이태훈 선수가 2회전에서는 그 득점을 지키지 못하고 2~3차례의 득점공격을 당하는 등 난항이 계속됐다. 한편 3회전에서 만회하려고 맹공을 시도했으나 안보현선수

결승전

121번 전남의 박윤석 대 제주의 강승수선수의 대결이 펼쳐지는 경기장은 마치 해비급 결승전을 판전하듯 신중한 분위기였다. 우선 강승수선수는 제주에서 금메달을 기대하는 유망주이고 전남의 박윤석 선수 또한 대구의 정상대 선수를 누르고 올라온 유망한 선수가기 때문이다. 강팀 전남의 박선수를 맞은 제주의 강선수는 1회전에 여유를 보이는 듯 침착하게 공격 주도권을 잡았고 2회전과 3회전을 줄곧 우세하게 이끌어 판정승함으로써 제주의 유일한 금메달 유망주로 시선을 모았다.

■ 코치의 자세 중에서 생각해볼 몇가지를 나열하면

1. 선수가 경기를 마치고 난후 승패에 관계없이 상대 선수가 예의를 갖추는 때 코치의 자세는 어떠하여야 하겠는가?
2. 힘들게 3회전을 마친 선수에게 물컵, 물수건 등을 들려서 퇴장시키는 코치의 모습은 스승(어버이)다운 모습일까?
3. 판정에 대한 불만을 선수 앞에서 토로하며 경기장을 나서는 코치의 모습은 어떠한가?



대진번호 122번 핀급 결승전은 강팀인 부산·전남을 이긴 전북 선수를 물리치고 올라온 서울의 김진일 선수와 경북·제주를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한 경남의 장현술 선수의 대전으로 시작되었다. 빠른 몸놀림과 공방으로 판정승에서는 어느 공격이 유효한지를 모를 정도였으나, 노련한 서울의 김선수가 경기의 주도권을 잡아 판정승, 서울에 첫 금메달을 선사하였다.

123번 플라이트급 결승전에 오른 충남의 유성호선수는 예선을 부전승으로 올라 준준결승에서 전남의 한지환 선수를 제치고 준결승에서 강호 서울의 박진영을 이긴 우수한 선수로 그의 상대는 경남, 경북을 제치고 강호 부산을 이긴 충북의곽석근 선수였다. 1회전에서는 이렇다 할 득점없이 빠른템포의 공격을 주고 받았고 2회전에 들어서자 빠른 몸통공격을 시도, 득점을 빼내는 등 확실한 게임을 운영하였으며, 3회 역승의 기회를 만들고자 충북의곽석근 선수가 맹공하였으나 득점하지 못하고 판정패하여 충남으로 첫 금메달이 돌아갔다.

124번 밴텀급 결승. 예선을 부전승으로 오른 강원 김용화는 전북의 이용재, 충북의 송치광을 제치고 결승에 안착하였고, 역시 예선을 부전승으로 올라 강력한 우승 후보인 부산의 김태호를 준준결승에서 눌렀다. 역시 강팀인 서울을 준결승에서 이기고 결승에 진출하여 1, 2, 3회전 계속 경기의 주도권을 잡는 등 공략 일변도로 결국 원봉승을 거두어 전남에 첫 금메달을 안겨주었다.

125번 페더급 결승전에 진출한 부산의 신동우선수는 강원·대구·서울을 누르고 결승에 진출하였고, 경남의 황몽환 선수는 충남·경북·전남을 누르고 결승에 진출하였다. 1회전에 기선을 빼앗긴 부산의 신동우 선수는 2회전에서도 득점을 빼앗겼고 3회전에서 만회하려는 듯 맹공을 하였으나 경남 황몽환 선수의 선방에 무위로 그쳐 금메달을 경남에게 안겨주었다.

126번 라이트급 결승. 부산의 쌍둥이 형제 선수로 나란히 결승에 진출한 박재완 선수는 전북·경기·서울을 차례로 제압하였고 전남의 조현식 선수는 경북·대구·경남을 이기고 결승에서 두선수가



대면했다. 두 선수는 1, 2, 3회전 고루 주고 받는 공방전으로 일관, 승패를 가리기 힘들 정도로 혼전이 계속되었다. 결국 전남의 조선수가 승리의 미소를 지음으로써 전남에 두 번째 금메달이 선사되었다.

127번 라이트 웰터급 결승에 진출한 전북의 정을진 선수는 예선을 부전승으로 통과, 대구·전남을 제치고 결승에 안착했으며 부산의 쌍동이 형제 박재성 선수는 경남·서울·강원을 차례로 제치고 결승에 진출했다.

바로 앞 게임에서 석패한 동생(박재완)의 전적을 만회하려는 듯 1회전부터 맹공을 가하며 주도권을 장악하였고 2~3회전은 주고 받는 공방전으로 혼전하였으나 1회전 공격이 주효한 듯 판정으로 부산에 첫 금메달을 안겨 주었다.

128번 웰터급 결승전 경기에서는 경남·경북·제주를 차례로 이기고 올라온 전남의 장유석 선수는 충남·부산·대구를 제압한 서울의 오상명 선수와 결승에서 맞섰다.

금메달을 2개나 확보한 전남과의 대결에 서울로서도 긴장이 되는 듯 열기가 고조되었다. 1회전은 공방전으로 혼전을 겪었고 2회전에 몸통 공격에 성공한 서울의 오선수는 여세를 몰아 3회전에도

역시 주도권을 잡아 두 번째 금메달을 서울에 안겨주었다.

129번 라이트 미들급 결승. 서울의 최정복 선수는 인천·경남·부산의 선수들을 앞질렀고 충남의 안보현 선수는 전남·경기·대구의 선수들을 제치고 결승에 안착했다. 1~2회전에서는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운 공방전이 계속됐으나 3회전에 체력의 열세를 보인 충남 선수가 밀리는 등 주도권을 잃어 판정패했다. 이로써 세 번째 금메달을 서울에 선사하였다.

130번 미들급 결승전. 예선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충남의 김인태 선수는 경기·전북을 제압하고 결승에 안착, 제주·경북·서울을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한 경남의 노영민 선수를 맞이하였다. 1회전에서 기선을 잡은 듯 맹공을 가하던 경남의 노선수는 2회전에서 반격하는 김선수의 공격을 맞받아 공격하는 등 3회도 우열을 가리기 어렵게 공방전을 펼쳤으나 1회의 우세한 경기가 판정에 도움이 된 듯 경남 노영민 선수의 판정승으로 매듭지어졌다. 이로써 두 번째 금메달을 경남에 선사하였다.

131번 라이트헤비급 결승에서는. 심판원의 체격이 왜소해 보이는 분위기 속에 라이트 헤비급 결승전이 신경수 선수와 박세진 선수 간에 시작됐다. 강원·경기·충북을 제압하고 올라온 충남의 신경수 선수는 전북·경남·인천을 이기고 올라온 서울의 박세진 선수와 겨루게 되었다. 선수층이 두터운 서울팀의 실력은 경기운영의 테크닉이나 체력면에서도 한 수 위였다.

충남의 끈질긴 추격을 뿌리친 서울은 중량급에서도 판정승을 거두어 네 번째 금메달을 얻게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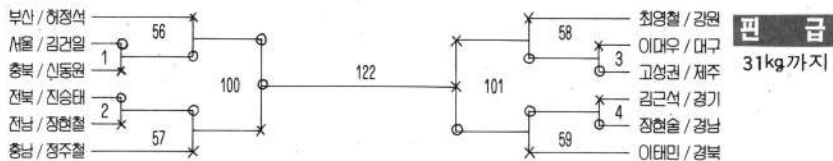
132번 헤비급 결승전대결에서 경남의 이호근 선수는 예선을 부전승으로 통과하여 경기·서울을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하였고, 제주의 강승주는 예선전부터 헤비급 답지 않은 몸놀림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더니 제일동포를 판정승으로 여유있게 누르고 강호 전남을 제압한 후 결승에 안착했다. 경남의 이호근 선수와의 대전에서도 제주의 강승주 선수는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운영, 판정승을 거둬

이로써 제주에 첫 금메달을 선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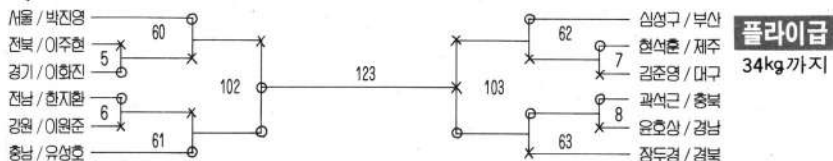


대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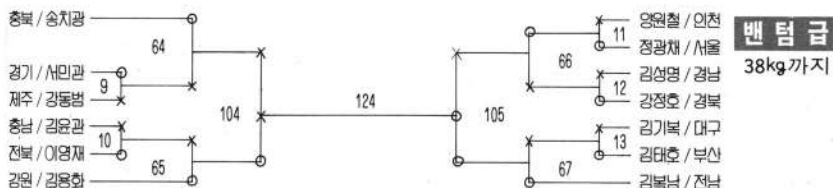
• 장소 : 양덕여중 체육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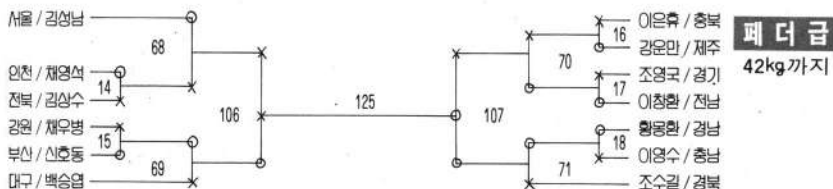
편 급
31kg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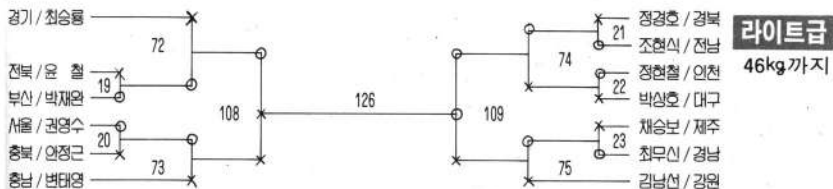
플라이급
34kg까지



밴텀 급
38kg까지



페더 급
42kg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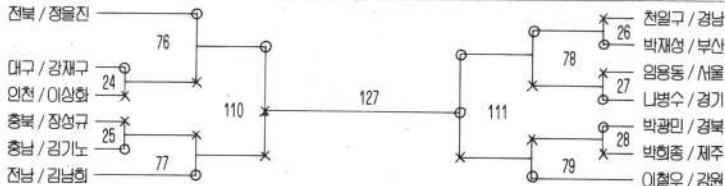
라이트급
46kg까지



태권도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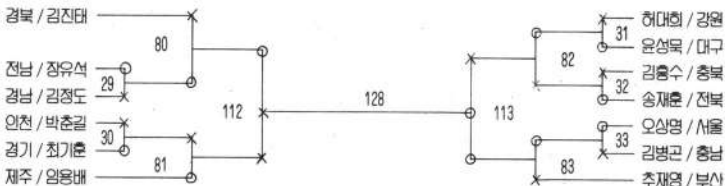
라·웰터급

50kg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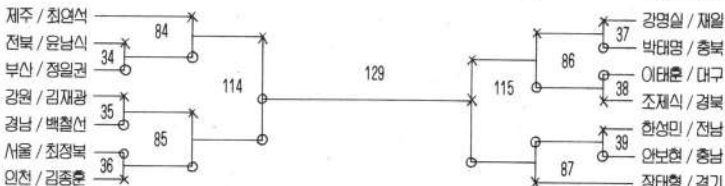
웰터급

54kg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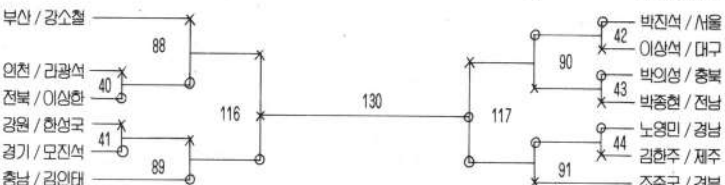
라·미들급

58kg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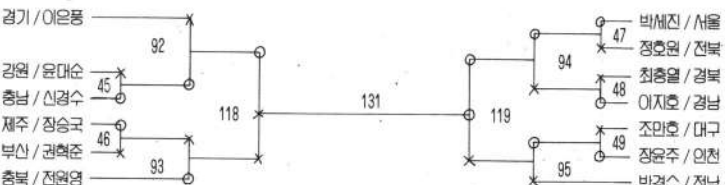
미들급

63kg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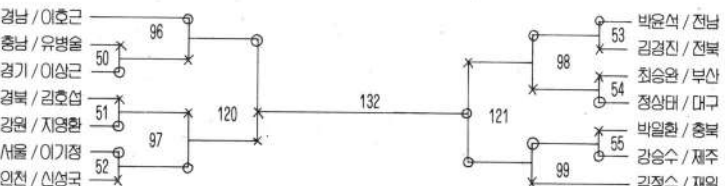
라·헤비급

68kg까지



헤비급

68kg 초과



입상자명단

체급	등위	성	명	소	속
핀	1	김건일	서	울	울
	2	장현술	경	남	남
	3	진승태	전	북	북
급	3	고성권	세	주	주
	1	유성호	충	남	남
	2	곽석근	충	북	북
플라이급	3	박진성	영	울	울
	3	심성구	부	산	산
	1	김문남	전	남	남
밴텀급	2	김용화	강	원	원
	3	송치광	광	충	충
	3	정광채	서	울	울

페더급	1	황홍환	경	남	남
	2	신성남	동	울	울
	3	김창환	서	전	전
라이트급	1	조현식	전	남	남
	2	박재완	부	산	산
	3	권영수	서	울	울
라·웰터급	3	최무신	경	남	남
	1	박재성	부	산	산
	2	정우진	전	북	북
웰터급	3	김철우	강	원	원
	1	오상명	서	울	울
	2	장유석	전	남	남
헤비급	3	임용성	배	제	제
	3	윤운	대	대	대
	3				

라·미들급	1	최정복	서	울	울
	2	안보현	충	남	남
	3	정일태	부	산	산
미들급	3	이훈대	대	구	구
	1	노영민	경	남	남
	2	김인태	충	북	북
급	3	이상진	서	울	울
	3	박진석	서	울	울
	1	박세진	서	울	울
라·헤비급	2	신경수	충	남	남
	3	정원영	충	북	북
	3	장윤주	인	천	천
헤비급	1	강승수	제	주	주
	2	이호근	경	서	서
	3	이기운	전	남	남
3	박운	전	남	남	

소년체전 태권도경기 시도별 득점 현황

시·도명	종합득점 (A)	메달득점 (B)	총 득 점 (A+B)	순	위
서울	1,458	340	1,798	1	위
부산	991	180	1,171	3	위
대구	524	40	564	8	위
인천	297	20	317	13	위
경기	566	—	566	7	위
강원	495	60	555	9	위

총	북	453	40	493	11	위
충	남	736	120	856	5	위
전	남	495	60	555	9	위
전	남	1,189	260	1,449	2	위
경	남	354	—	354	12	위
경	남	948	220	1,168	4	위
제	남	594	100	694	6	위
계		9,100	1,440	10,540	—	



태권도홍보용

V. T. R. 테이프보급

본회는 '86아시아 경기대회, '88서울올림픽 등 각종 국제대회를 앞두고 태권도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 VTR테이프를 보급합니다.

태권도 역사 및 발전사, 시범 등을 20분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소개한 이 테이프는 체육관 심사시 홍보자료로

활용하기에 적합합니다. <※ 테이프 규격을 명시하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버마·태국·인도·스리랑카·
파키스탄·
인도네시아·일본-



◆인도네시아
「보르네루」 사원

동남아 7개국 순회시범및 한·일수교 20주년 기념 시범을 마치고



국기원 시범분과위원 구정희

동남아 시범단명단

- 단 장: 홍중수 (국기원부원장)
- 집 독: 강정구 (국기원기술심의회의장)
- 감 의: 김병운 (세계연맹사무차장)
- 시범단원: 김영작 · 윤준철 · 이규형 · 장 권
박덕규 · 이상현 · 이종관 · 최광근
최봉호 · 구정희 · 김현성 · 김충석

◆ 거듭되는 다짐으로 출발

기대와 흥분이 엇갈렸던 3월 6일 오전 10시 30분. 태권도계 인사들과 여러 친지들의 기대어린 환송 속에 KAL기(135) 편으로 대 강도에 올랐다.

이번 동남아 순회 시범단의 구성은 I.T.F(국제연맹)과 소위 「가라데의 본토」라는 지역의 특수성에 비추어 임원진과 선수단 전원은 해외 시범 및 경기 경력을 지닌 자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다가 오는 86 아시아게임, 88 서울올림픽에 대비하여 스포츠 취약지구 및 비동맹국가에 대한 홍보활동, 그리고 태권도의 국제적 스포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는데 뜻이 깊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에 대비한 시범단은 근 한달 동안 시범 및 경기 훈련을 받아야했고, 특히 태권도 중구에서 과전되는 것이므로 태권도인의 긍지와 품위를 유지하고 국제경기연맹 본부의 대표자로서 그 명예를 증시하라는 관계자들의 지시를 줄곧 받아왔다. 이를 상기하면서 홍중수 단장(국기원 부원장)과 김병운 감독(세계연맹 차장), 강정구 감독(국기원 기술심의회의 부의장)과 김영작 시범위원장의 11명은 김포공항을 출발한 것이다.

◆ 「버마」에는 처음으로 소개돼

대만 정중공항을 거쳐 방콕에 도착하여 1박하고 3월 7일 주 태국 버마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3월 8일 오후 1시 30분 TG 303편으로 버마의 랭군공항에 도착했다.

현지 주재 이상렬 대사와 버마의 체육국장 우앙-딘(Mr. U. Aung Din), 그리고 치안국장 Mr. U. Pe.Kyi, 보건부 차관 Mr. Tun Hlapre 및 군·경 간부와 각 무술협회 회장들의 성의있는 대영접은 우리의 긴장감을 해소시켜 주었다. 공항 귀빈실에서 간단한 환영식을 마친 우리 팀은 경찰 싸이카의 호위를 받으며 Nyalake

호텔로 향했다. 랭군 중심지를 달리는 중 지나던 각종 차량들과 버마 시민들은 잠시 멈춰 예의를 표하기도 했다.

랭군 중심지는 어느 책자에서 본 그대로 밀림 속의 통나무 2층집들이 대부분이었고 현지인들은 통상 남, 여 구별없이 「몬지」라는 통치마를 두르고 슬리퍼를 신은 복장을 취하고 있었다. 차량은 보통 낡고 불결하게 보였으며 만원을 이루어 뒤에 매달려 가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사회주의 국가인 버마는 인도네시아 반도의 북서쪽에 위치하여 동으로는 태국, 서쪽으로는 인도와 방글라데시, 북으로는 중공과 경계를 이루고 있고 면적이 68만km² 국토는 북부가 장글 및 산악지대, 남부가 농업지대로 되어 있다. 국민의 85% 이상이 불교도일 정도로 신앙심이 매우 깊어 남성이자면 일생에 한 번쯤 꼭 불문(佛門)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사회적인 관습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3월 9일 오전 9시 우리 시범단은 체육성 체육국장을 예방, 버마의 태권도 발전을 위한 담화를 나누고 시범에 관한 모든 준비사항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했으며 이어 시범 장소인 아웅산 체육관을 둘러 보았다. 시설은 미비했지만 이번 행사를 진지하게 치르려는 의도에 서인지 체육관 부근은 질서있게 정렬되어 있었으며 체육관 앞과 거리 요소요소에는 경기 장면을 그린 대형 간판이 붙어 있었다.

오후 5시 시범 시작을 전후해 입장권을 미처 구하지 못한 시민들이 소란을 빚어 군·경들이 애로를 겪는 광경도 볼 수 있었다.

제 1차 시범이 선보이는 개회식에서 버마의 체육국장은 「이 나라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태권도」라고 명명하면서 멋진 시범을 부탁했고 각계 인사 및 군·경간부들은 호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시범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경기장을 가득메운 4천의 관중들 역시 긴장감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양국의 國歌와 버마 여학생들의 꽃다발 증정으로 시범이 시작되었고 김병운 감독의 영어 해설은 관중들의 흥미와 이해를 도왔다. 강도 높은 벽돌이 두 동강나는 묘기랄지, 갈라져서 공중에 떠오르는 송편쪽, 허공을 가르는 기합 소리 등은 관중들을 흥분해 빠져뜨리기에 충분했다. 시범이 끝난 후 버마의 체육국장은 깨어진 두통한 송편을 들고와 우리 팀 전체의 싸인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 싸인된 송편을 버마 체육성에 영원히 보



관하겠다고 하여 한 때 관심을 끌었다.

3월10일 오후 2시의 제2차 시범 또한 성황리에 마친 우리 선수단에게 홍중수 단장은 「버마에서의 시범은 어떠한 무술보다도 훨씬 이론적이고 다양한 인식을 심었다」며 우리의 사기를 높여주었다.

3월 11일 그곳 버마의 가장 큰 사원인 「웨다곤 파고다」를 관광하고 4시 30분 UBA항공편으로 버마를 떠났다. 한국 대사관의 이상렬 대사와 직원들, 특히 우리의 일거일동을 뒷바라지 해 준 장두우 서기관과 배영길 영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 태국... 학교 등에서 성행 일로 一路

3월 11일 소위 「동남아 제2의 관문」이라는 신비와 미소의 나라, 그리고 킥복싱(Kick Boxing)의 나라인 태국의 방콕에 도착하니 환영 인사들이 우리 선수단을 기다리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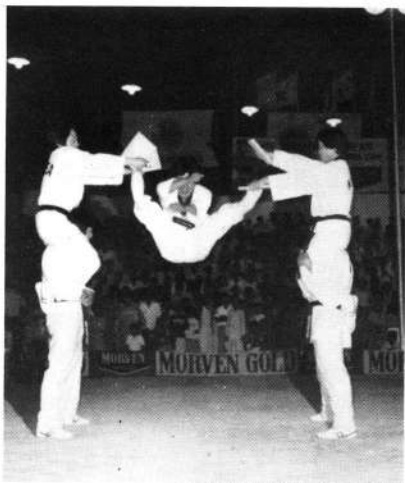
태국 협회장인 Mr. Anudhai와 부회장 Mrs. Muulika, 그리고 송기영 사범 등 협회 임원의 꽃다발 증정과 함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곧장 숙소인 「말리카(Mualika)」 부회장 자택으로 향했다. 빌딩과 빌딩 사이에 우뚝 서 있는 야자수들과 신형 차량부터 세 발 달린 픽업에 강한 덜개를 한 택시까지 그야말로 현재와 과거의 혼합체로 되어 있는 방콕시내는 과연 불교국답게 곳곳에서 불당과 탁발 승려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우리 팀의 숙소로 지정된 「말리카」 여사의 자택은 천연여평의 대지에 실내의 수련장을 겸비했으며 태권도 학교도 운영하고 있었다. 여장을 풀 뒤, 태국협회주최 저녁만찬이 있었는데 김치 및 한국음식이 준비되어 우리들을 놀라게 했는데,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말리카」 여사가 한국을 몇 차례 다녀갔고 자신도 한국의 김치 맛에 매력을 느껴 종종 손수 만들어 먹는다고 했다.

저녁 식사 후 앞으로의 일정을 협회장으로부터 듣고 난 다음 홍중수 단장은 「태국 사람들은 불교적인 신앙심이 매우 깊어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예의 범절이 엄격하며 또 이곳은 무술 킥복싱(Kick Boxing)과 중국의 무술 묘기단 등 각종 무술단체가 존재하고 있는 만큼 태권도의 우월성을 재확인 시키고 동시에 중중국 시범단의 기량을 빈틈없이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3월 12일 오후 4시30분 「Nimibutra」체육관에서 4천

명의 관중과 태국의 총무처 장관, 수산청 장관및 올림픽 위원장, 그리고 태국주재 김보수 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및 제4차 시범을 보였다. 이날 시범에서 태국에는 킥복싱과 여러 종류의 무술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인식을 느낀 우리 팀은 일격필살의 동작을 연출하라는 김영작 위원장의 지시를 받고 일처 단결로 시범을 전개해 나갔다. 특히 시합 「밋차기」가 관중의 박수갈채와 환호를 받았으며 86·88대회 종목으로서의 태권도의 규칙을 인식시키기 위해 시범도중 심판 복으로 갈아 입으면서까지 형식을 준수하며 성의있는 경기 시범을 펼쳐 보였다.



◆파키스탄에서의 제10차 시범

13일 오전 10시에는 그곳 태권도 스쿨에서 태국선수 및 수련생들과 합동 수련 및 품세 겨루기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오후에는 친선 게임을 갖기로 되어 있었는데 「탄넛(Taned)」이라는 핀급선수는 윤준철 선수와의 연습게임에서 오른 발 뒷차기와 왼발 뒤후리기 상대를 맞고는 자신을 잃었는지 오후의 정식게임은 포기했다. 이들 태국선수들은 몸놀림이나 발차기 기술에서는 우수함을 보였으나 그 이면에는 한국 선수들에 대한 열등의식이 감추어져 있는 것 같았다.

오후 7시에는 방콕의 「Rang Sik G. Y. M.」킥복싱 경기장에서 경기 중간에 태권도 시합이 있었는데, 우리

팀의 최광근 선수와 태국의 대표선수 타나(Tana)가 마주했다. 이 태국 선수는 현재 영화배우라서 특히 대단한 인기를 모았다. 3분 3회전, 시작부터 킥 복싱의 열렬한 팬들 앞에서 멋진 태권도 묘기를 보여줄 기회로 만들고자 우리 팀 모두는 의욕이 가득했는데, 킥복싱 경기장 바닥의 쿠션이 익숙치 못한 최광근은 기대만큼의 플레이를 보이지 못했다고 안타까와 했다.

이 경기는 무승부로 결정되었는데, 사실상 태국선수가 패했음을 깨달은 관중들은 기분 좋은 야유(?)를 퍼붓기도 했다.

오후 9시에 가진 태국협회 주최 만찬에서 협회장 Mr. Anudchai는 「태권도 시범단의 방문으로 이루어진 한, 태국간의 우호증진과 태국 내의 태권도 붐 조성은 물론 86아시아 게임 참여 결정을 정부 차원에서 고맙게 생각한다」며, 한국의 모든 태권도 관계자들에게 감사사를 표했다. 14일 오전 식사를 마친 시범단 전원은 말리카(Mualika) 여사가 배려하는 버스로 관광에 나섰다.

시아의 서쪽으로 감돌아 흐르는 「차오프라야」 강과 미로처럼 펼쳐진 운하의 흐름, 황금색으로 빛나는 파고다의 첨탑과 색채감이 넘치는 사원의 건축미, 눈에 미치는 풍물들이 이처럼 뜨겁게 가슴에 와 닿는 대도시의 모습들은 정말 신비에 가까웠다.

일년 내내 어지럽게 다투어 피는 꽃들의 천국, 장미가든에는 매일처럼 태국 복식·민속무용·소년의 출가의식(出家儀式) 등의 고유행사가 배풀어져 태국의 생활과 문화를 한 눈에 볼 수 있었으며 왕국의 북쪽에는 「에메랄드 사원」이 자리잡고 있었다. 본존(本尊)을 비취우 같은 푸른 돌로 만든 까닭에 에메랄드 사원이라고 불리운다. 본존의 높이 61m에 불상은 금빛 옷을 걸치고 있는데, 이 옷은 1년에 세 번 국왕이 손수 갈아입히는 것이므로 그 누구도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추억에 남을 관광을 끝내고 다음 방문국인 인도로 출발하기 직전, 이별을 아쉬워 하는 송기영 사범과 짧은 대화를 나누었다.

「10년 전 처음 이곳에서 킥 복싱과 타 무술인들의 방해 공격을 받으면서도 이에 굴하지 않고 나무판자와 벽돌 격파 등 수 많은 시범을 통해 태권도의 위력을 보이고자 두 주먹에선 상처가 그칠 날이 없었다」고 회상하면서 지금은 그 고생의 댓가로 태국 체육회에 정식 가입되었으며, 각 학교에서도 태권도 지도가 성행한다고 자랑을 서슴지 않았다. 우리 선수단은 태국 태권도의 장래와 송기영 사범의 건승을 빌면서 태국과 작별했다.



◆태권도를 통한 한국의 성장을 기리면서...

◆인도... 과감한 동작에 간디수상 감탄.

3월 15일 방콕을 출발한 지 4시간만인 새벽 2시 10분에 인도의 뉴델리 공항에 도착하니 대사관의 김청훈, 양병호 영사가 환영 나와 있었는데 이 두 영사는 가장 먼저 걱정을 토로했다. 즉, 예정에 없던 인도 수상 방문 시범 때문에 뉴델리 대학의 시범이 앞당겨 졌다는 것이다. 그것도 오전 10시로.

넓은 뉴델리 대학교 캠퍼스의 한 코너에 마련된 시범 장소는 우리 시범단의 도착만을 손꼽아 기다렸다는 듯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고 있었다. 이 중에는 한국에서 유학 온 여학생이 있었는데 자랑스런 표정으로 태권도와 한국을 알려려는 그 행동은 우리의 마음에 뿌듯함을 더해 주었다.

사실, 우리는 계속되는 시범과 여력으로 피로가 겹쳐 있었고 게다가 시범 장소마저 미끄러운 잔디에 직사광선이 내리쬐어 이산만한 장소에서의 시범은 좀 불리하리라 우려되었는데 격파되는 순간마다 호응이 잇달아 멋진 시범을 치를 수 있었다. 이어 기자 회견 장소로 안내되었는데 25명의 기자 및 체육관계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선수단의 시범과 86·88경기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기자-태권도는 어떠한 대회가 있습니까?

김병운감독-세계 선수권대회가 현재 7회까지 열렸으며, 2년에 걸쳐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대회, 세계 대학 선수권대회, 월드컵대회 및 군인 시즌 대회가 있으며 그 외 각 지역 대회가 있습니다.

기자-지금 동남아를 순회하는 팀이 내쇼날 팀입니까?



김감독—태권도의 모체인 국가원에 소속해 있는 시범단으로서 태권도를 올바르게 인식시키기 위한 경기방법 등 모든 전반적인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자—순방 경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김감독—체육부 예산에서 나옵니다.

기자—태권도를 수련하는 국가는 몇 나라가 됩니까?

김감독—112개국이며 공산권 국가도 여러 나라 속해 있습니다.

기자—여자들도 태권도를 배웁니까?

김감독—학교 및 일반 체육관에서 호신술 및 체육으로 많이 배우지만 현재는 여자 선수권 대회도 있어 점차 다양해지고 있지요.

기자—우리 인도가 원한다면 한국은 교치를 보내 줄 수 있습니까?

김감독—그것은 아마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기자—86아시아 게임에서는 한국이 8체급 전부를 석권했는데 너무 문턱이 높지 않습니까?

김감독—아닙니다. 필리핀에서 필급 챔피언이 나왔습니다. 아시아에서의 경쟁 또한 치열할 것입니다.

오후 8시 한국 대사측 만찬이 '오베로이 호텔'에서 열렸는데 그곳 협회장 Mr. Jimmy씨는 '이번 시범은 인도 정부의 체육성에서 정식 허가됨에 따라 실시됐다'고 그 경위를 설명하며 '인도N.O.C에도 정식으로 가입했으며 금년부터는 전국체육대회에도 참가한다'고 밝히며 밝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뉴델리 호텔에서 1박을 하고 16일 오전 8시 '루크나우' 공항에 도착하니 루크나우 대학의 태권도부 학생

이 환영을 나와 한 때 싸인 공세가 펼쳐지기도 했다.

이어 보건성 장관 「트리파티」의 오찬에 초대되어 그곳 주지사 및 보건장관 등 유력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호 증진 방안을 다지고 오후 4시 「상바부」체육관에서 3천 여명의 관중과 도지사 및 3개부처 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 7차 시범을 보였다.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뉴델리로 돌아온 우리 선수단은 또 한 격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즉, 인도의 라지브간디(Rajiv Gandhi) 수상이 우리의 태권도 시범을 직접 보기를 희망하여 내일 아침 9시에 시범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 임원들은 간략하면서도 효과적인 시범을 보일 방법을 강구하도록 지시했고, 김영작 위원장과 박덕규, 이규형 부위원장 및 몇명은 궁리를 거듭했다.

17일 오전 수상 관저에 들어가 간단히 몸을 풀고 20여분을 대기했을 때 수상이 모습을 나타냈다. 푸른 잔디 위에는 좌석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는데 홍종수 단장과 김병용 감독 사이에 수상이 자리하고 다음으로 강정구 감독과 인도 올림픽 위원장 등이 자리를 잡았다.

현장서 구입한 벽돌의 강도를 미처 파악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있게 두 동강으로 날려 버리는 김영작 위원장과 부어오른 손가락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정없이 공격하는 이종관 사범과 박덕규 부위원장, 하늘 높이 날며 공중 회축에 신명나는 최봉호 사범 모두들 최선의 기량을 보이고자 노력하는 모습들이었다. 생방송 고축 및 뛰어난 고축의 김현성 사범과 김충석 사범, 가위 3방 차기의 이규형 부위원장과 본인의 3방 알차기 등의 묘기를 신기한 듯 바라보던 간디 수상은 격려의 만찬한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그라푸단」 체육관에서 열린 시범. 1만여명의 관중이 운집했다.

이어 터지는 이상현, 장권의 360°회측 사과 격파와 최광근, 윤준철의 일격격파 및 고공격파는 정말 어디 서 나오는 힘과 묘기인지 처음 보는 간디 수상은 물론, 심지어 우리 역시 새로운 매력을 느낄 정도였다. 기쁜 촬영을 끝낸 간디 수상은 태권도에 대한 격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비서실장에게 『우리의 군·경들과 경호원들도 태권도를 수련할 방법을 연구하라』고 간곡히 지시했다. 태권도는 이미 국경을 떠난 지 오래라고 한마디 새삼 생각나는 순간이었다.

오후 7시 인도 올림픽 위원장 주최 만찬을 지난 9회 아시아인 게임 개최 장소에서 가진 후 광대한 메인스타디움을 둘러 보니 이제 곧 우리도 86·88 양대회를 기점으로 세계의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일었다.

세계 총 인구의 1/6인 약 7억의 인구를 가진 인도는 대부분이 백색 인종의 힌두족이지만 그 밖의 수 많은 소수 인종은 언어만도 1,600종 이상에 달하며 뿐만 아니라 심각한 빈부차이와 계급주의, 그리고 70%가 넘는 문맹률과 여성의 초혼 경향 등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있다.

반면, 세계 4대 문명의 하나라는 인더스 문명은 3천 년 전에 이미 역사의 여명을 고했고 광대한 국토는 뉴델리를 중심으로 펼쳐 있으며, 세계적인 건물 「타지마할」이 있는 「아그라」 및 핑크색 건물로 된 마을 「샤아플」, 그리고 「봄베이」, 「마드래스」 등 유서깊은 관광지는 인도의 장래를 밝게 비추어 줄 것이다.

◆ 유능한 사범 확보가 시급한 파키스탄.

이러한 찬란하고 오랜 역사의 문명을 뒤로하고 18일, 파키스탄의 수도 「카라치」에 첫 발을 딛었다.

이상훈 총영사의 환영 만찬에 이어 그곳 라자비 사무총장으로부터 파키스탄의 태권도 현황을 전해 들었다. 「이곳에는 1년전 한국인 사범이 체류하다 임기를 마치고 귀국했으며 현 25개 도장에서 유단자 77명, 유급자 1,745명이 수련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파키스탄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 한국 측에서 사범을 파견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3월 19일 오후 7시 30분에는 제10차 시범을, 20일에는 제11차 시범을 각각 가졌다. 관중 6,500여명과 「카라치」 국회의원 및 체육계 인사들이 자리한 가운데 열전으로 치러졌으며 다음날인 21일 오전에는 특별 시범 및 세미나를 갖는가 하면 강정구 감독의 심사로 기분

동작 폼세 및 거구기 등을 상세히 지도했다.

파키스탄은 우리나라 면적의 3배에 달하며, 쌀·면·화 등 관세 농업이 발달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회교법 때문인지 그 넓은 황토를 개발하지 못하고 지금도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는 실정에 놓여있어서 아쉬움을 자아냈다.

◆ 스리랑카… 조용하고 진지한 경기진행

3월 22일 오전 6시.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에 도착하니 30°C를 오르내리는 고온, 뜨거운 햇살이 우리를 맞았다. 그러나 다행히도 습기가 없어 견딜만 했다. 깨끗한 거리와 끝없이 이어지는 야자수 나무가 또 다른 이국적 향수를 자아냈다.

잠시 후 그곳 협회장 「안토니」(전에 국제연맹 소속이었으나 현재는 재교육을 통해 우리 세계연맹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음)의 안내로 한국 대사관을 예방했고 이어 12시 30분에는 「한·스리랑카 민간 친선협회」 주최 오찬에 참석했는데 86아시아인 게임, 88서울올림픽과 관련된 태권도에 대해 기자회견도 함께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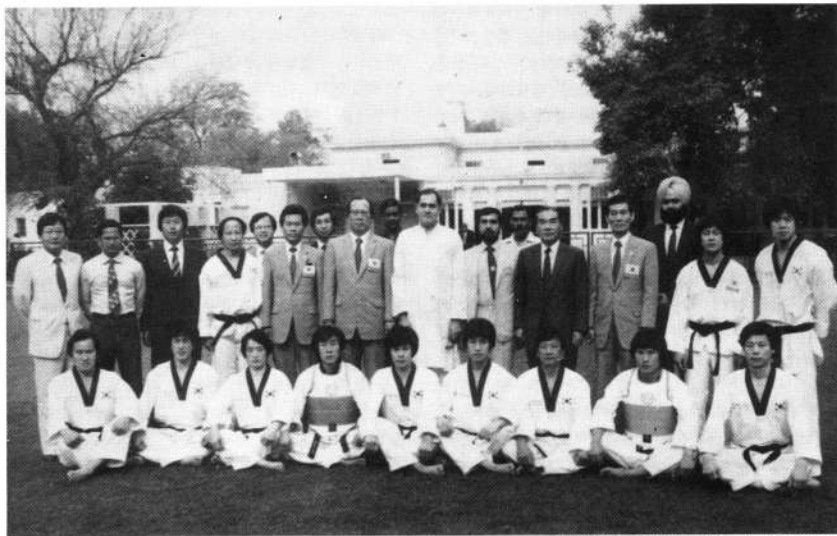
오후 6시 「콜롬보」시(B.M.I.C.H) 기념관에서 가진 제12차 시범. 조용하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시범으로 「보디나고다」 체육부 장관 및 관중 2,500여명이 지켜 보았다.

스리랑카는 자연의 혜택을 받았는지 신선한 어패류와 갖가지 과일이 풍부했다. 특히 야자수가 많아 그것 하나만을 처리하는 부처(部婁)가 있다고 하니 이 또한 하늘이 선사하는 복이 아닐까 싶다.

3월 23일에는 차량편으로 왕복 5시간 소요되는 제13차 시범 지역 「쿠르네칼라시」를 다녀오으로써 스리랑카의 여정을 정리했다.

◆ 인도네시아… 「세계연맹」으로 각종 무술 통합 가담시켜.

3월 24일 동남아 여행에서 들리지 않을 수 없다는 세계적 유명향 휴양지 「발리」섬이 있는 인도네시아에 도착했다. 적도를 중심으로 북위 17°에서 남위 12° 동경 95°에서 서경 142° 사이에 위치하며 크고 작은 1만 1천 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인도네시아. 중요한 섬으로는 최후의 낙원이라 불리우는 「발리」섬 외에 「자바」섬, 「수마트라」 등 서너 개의 섬들이 있는데 무성한 정글과 광대한 고원, 웅대한 화산군이 지나가는 이



◆인도의 「라지브 간디」 수상과 함께.

의 시선을 이끈다.

연간 기후적 변화는 없는 편이지만 5~9월이 건기, 10~4월이 우기이며, 24~32℃ 안팎의 높은 기온을 가졌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꼽히는 인구 1억 5천만을 소유한 적도의 나라에 역시 우리의 태권도는 광적으로 번지고 있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에 주한대사를 역임하고 퇴역한 「Mr. Sarwo」에 의해 무술들이 「W. T. F」(세계연맹)으로 통합 가입됨에 따라 태권도가 인기 상승세를 달리는 상황에 놓여 있다.

3월 25일 오전 8시 30분 태권도협회장을 방문하고 이어 10시 체육회장 겸 I.O.C 위원인 「스프라요기(Mr. Suparayogi)」를 방문하여 환담했는데, 체육회장의 첫마디는 「우리 인도네시아는 「세계연맹」과 「국제연맹」이 서로 병존해 왔는데 현 협회장 「Mr. Sarwo」의 힘으로 「세계연맹(W. T. F)」 쪽으로 통합시켰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통합시키는 과정에서의 애로를 하나하나 전했다.

12시 30분 그곳 협회주최 오찬을 마치고 시범 장소를 시찰했다.

「자카르타」시 중심부에 있는 「그라푸란」 체육관은 실

내가 타원형으로 꾸며져 있어 시범 장소로는 더없이 적합한 곳이었다. 우리 선수단은 숙소에서 두 시간 휴식을 취한 후 오후 7시 시범 장소에 도착했는데 5천석의 자리에 약 2백인 1만 여명이 운집해 체육관 실내의 계단과 로얄박스, 심지어 경기장 마룻바닥에까지 둘러앉게 되자 시범 주행거리마저 1/2로 줄이지 않을 수 없었다.

정치안정 조정장관(Mr. Surmo), 체육부장관(Abdul Gaburo), 군·전략 사령관(Suripto소장), 그리고 체육회장과 협회장 및 교민회장등이 참석했는데, 우리의 시범을 관찰한 후 「태권도는 신비스럽고 어떠한 철학이 내재하는 스포츠」라고 높이 평가했다. 과연 그곳의 태권도 열기는 대단한 것이었다.

26일 오전 8시 40분 비행기 편으로 다음 시범장소인 「자바섬」의 중심지 「시메랑(Semerang)」에 도착했다. 비스로 세계 최대의 불교 유적지인 「보르부도르」 사원을 돌아봤는데 이 유적지는 8세기 중엽 「자바」에서 그 융성이 극에 달했던 「사일렌드라」 왕조에 의해 세워졌다가 황폐된 후 1841년에 발굴되었다고 전한다. 유적의 구조는 거대한 피라미팅형을 하고 있으며 건물 내부

는 돌로 쌓여 있었다. 1층에서 6층까지는 정방형의 단대(段台)이고 기부(基部)의 자연석은 120m에 달했으며 7층에서 9층까지는 원형의 단대로 되어 있었다. 또한 성벽에는 갖가지 신화가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고 일년에 한 번 건기(乾期)의 보름달 밤에는 성대한 축제가 펼쳐지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다.

오후 7시에 열린 제15회 「시메람」 시범은 2만 5천 명이 운집한 대성황으로 극에 달했고 27일 「자카르타」에 되돌아와 군·경을 위해 펼친 특별 시범을 끝으로 인도네시아에서의 공식 일정을 마쳤다. 정말 거대한 조직력으로 이끌어 나가는 인도네시아의 태권도는 성실·성의, 그리고 충분한 자질과 의지력을 토대로하여 장차 아시아의 태권도 강국으로 부상하리라 예측된다.

◆ 지구 결성등 일본에서의 성과 좋아

인도네시아에서 일본까지 비행기만 9시간을 달렸다. 이제 마지막 일정은 한·일 수교 20주년 기념행사로서 우리 시범단은 「가라데」의 본토인 일본에서 공식적인 시범을 보이게 됐다. 우리보다 먼저 세계에 뿌리 내린 「가라데」를 피와 땀의 결집으로 알릴러 이제 세계는 「가라데」가 아닌 태권도의 열풍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는 뒤늦게 시작된 일본의 태권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해야할지, 또 일본은 미래의 태권도에 「가라데」에 관해 어떻게 대응할지 끊임 없는 연구와 분석을 해야할 것이다.

그렇다!

세계는 지금 우리 말로 태권도를 배우고 있다. 따라서 태권도 속에 숨어 있는 「한국의魂」, 그리고 강인한 백의민족의 우월성을 일본에 심으려는 의지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3월 28일 오전 6시 30분 동경 공항을 거쳐 12시 20분 「삿포로」에 도착. 오후 7시 프린스 호텔에서 NHK-TV중계로 시범대회 및 환영 파티를 가졌다. 5백여명의 체육계 간부급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마련된 자리에서는 지구 결성 등도 논의되었다.

3월 29일 「동경」으로 돌아와 「동경기시 기념관」에서 각계 인사 400여명을 초청, 제18차 시범을 보였고 제19차 시범은 오후 6시 30분에 우리 선수단이 묵고있는 「Imperial Hotel (동경 제국호텔)」에서 「아베」의상과 주일 이기주 공사, 그 밖에 체육계 간부 및 유지 약 1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펼쳐졌다. 「아베」의상은 축사를 통해 「한·일 20주년 수교를 기념한 체육 교류에서

일본의 제조와 한국의 태권도를 통해 양국의 우호친선을 더욱 더 증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리고 「태권도가 제10회 아시안 게임에 정식 경기 종목으로 채택되고 88서울올림픽에서 시범 경기로 결정된 것은 그야말로 한국의 큰 수확」이라고 전했다.

다음 날인 30일 「동경」에서 가장 빠른 「신칸센」열차를 타고 「오사카」에 도착했다. 「오사카」시 의원 「카즈오(Kazuo)」와 체육계 인사 등 6백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마지막 시범을 장식했다.

일본에서의 성과라면 우선 한·일 20주년 기념행사로서 양국의 우호 증진과 일본 내 태권도 협회의 NO-C가입 등을 위한 지구 결성을 했다는 것과 일본 내 「가라데」 출신이 태권도로 전향할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라 하겠다.

◆ 정상을 향한 아시아의 노력 기대.

이번 동남아 시범에서 괄목할 만한 사실은 각 국가마다에 큰 활력을 마련해 주었고 그 결과 그들에게 체계적인 지도 방법만 전이시킨다면 빠른 시일 안에 아시아의 정상으로 달리리라는 것을 확인 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 시범단 모두는 뚜렷한 사명감과 국가관으로 태권도를 통한 한국의 성장에 더욱 더 정진할 것을 약속했다. □



◆ 「한·일수교 20주년기념행사」를 마치고



- 멕시코, 미국, 캐나다, 일본을 다녀와서 -

중·고연맹 선수단 해외친선 원정기



한국중고연맹경기위원장
윤 태 곤

가. 일반사항

- 기 간: 1986년 1월 8일-2월 6일 (29일간)
- 대 상 국: 멕시코, 미국, 캐나다, 일본 (4개국)
- 파견인원: 13명 (임원 6명, 선수 7명)
- 주관부서: 한국 중·고등학교 태권도연맹
- 내 용:
 - 경 기
 - 선수 트레이닝 세미나
 - 태권도 시범

나. 임원명단

단 장 / 활	호	순
한국 중·고등학교태권도연맹회장	규	성
부단장 / 이	광	훈
한국 중·고 태권도연맹 부회장	재	두
섭 외 / 광	인	수
한국 중·고 태권도연맹 부회장	태	곤
주 무 / 오	태	곤
한국 중·고태권도연맹 일반이사	태	곤
감 / 독김	태	곤
한국 중·고태권도연맹 전무이사	태	곤
코 치 / 윤	태	곤
한국 중·고태권도연맹경기위원장	태	곤

다. 선수명단

- 핀 급: 신재현 / 청주신흥고교
- 플라이급: 양춘열 / 서울체육고교
- 밴텀 급: 이희영 / 경북체육고교
- 페 더 급: 윤정욱 / 서울동성고교
- 라이트급: 양대승 / 서울체육고교
- 미 들 급: 남영희 / 충남병천고교
- 헤 비 급: 이권원 / 경북체육고교

지난 85년 제12회 회장기 대회에서 멕시코와의 친선경기에 파견될 선수 8명이 결정되었다.

선수는 지방에서 4명, 서울에서 4명이 각각 선발되었으며 9월에는 멕시코 오리바리스 태권도 협회 임원 및 선수 15명이 서울에 도착하여 국기원에서 야간경기를 가졌다. 전적은 5:3으로 우리 팀이 승리했으나 그리 흔쾌한 경기는 아니었다.

그 후 연맹에서는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멕시코 원정경기를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중고 연맹으로서의 처음으로 시도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책임의 막중함을 느끼면서 경기 구상으로 들어갔다. 특히 중주국과 중고연맹의 대표선수라는 책임감이 어깨를 무겁게 하였다.

* 1986. 1. 8.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멕시코·로스앤젤레스·캐나다·일본 등 4개국을 순회하면서 친선 경기 및 경

문을 넓히기 위해 장도에 올랐다.

한국 주니어 대표라는 차원에서 태권도의 선구적 역할을 한다는 자오 아태 황호순 단장, 이규성 부단장, 곽광훈 섭외, 오재두 주무, 김인수 감독, 윤태곤 코치 등의 임원진과 선수 7명이 탑승했다.

우리 선수단은 현태단을 건너「나리따 공항」에서 다시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출발하였다. 숨처럼 하얀 뭉개구름 밑으로 태평양이 시야에 들어왔다.

우리는 멕시코행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 에어라인 멕시코 탑승구로 이동했다. 탑승구에 도착하니멕시코 「오리바리스」 협회 임원「알렉산드로」가 우리를 반겨주었다. 「알렉산드로」의 안내로 우리 선수단은 멕시코 에어라인에 올랐다.

약 2시간 30분 후에 멕시코 중북부지방인 해발 700m의 도시 「몬테레이」공항에 도착하였다. 공항밖엔 원 및 선수 15명이 서울에 도착하여 국기원에서 야간경기를 가졌다. 전적은 5:3으로 우리 팀이 승리했으나 그리 흔쾌한 경기는 아니었다.

우리 선수단은 휴식을 취할 시간도 없이 TV방송국에 도착하여 약 15분간 이석원 사범의 통역으로 우리 선수단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우선 멕시코에 온 소감을 물었고 멕시코 일정을 뒤 이어 물었다. 선수단의 경기에 대한 전망 및 선수단의 구성 (고등학교 선발선수) 등의 의견을 교환했다. 방송국을 나오면서 무엇인가 어깨를 짓누르는 압박감을 느끼면서 이제 우리는 한국의 태권도 선수단이라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오리바리스」 초청의 만찬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만찬장에는 협회 임원과 그 지방의 체육회장 등 많은 인사들이 참석했다. 잠시 후 멕시코의 첫 식사가 나왔다. 그 중 우리나라의 밀떡과 유사한 음식이 있었는데 식생활 습관이 현저히 다르다보니 잘 먹을 수가 없었다.

우리 선수단의 일거리들이 모두 그 곳 방송국측에 담겨져 다소 행동의 제약이 뒤따랐다.

* 1. 9.

동이 텅는데도 우리 선수단은 긴 여정 탓인지 시차 때문인지 규정된 시간에 기상하는 사람들이 적어 처음 맞은 아침에 애를 먹었다.

그러나 우리는 아침 식사 후 체육관에서 오전 운동을 마치고 역시 그 곳에서 오후 운동까지 끝냈다. 왜냐하면 내일 멕시코 선수와 첫 대전을 갖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차분한 마음으로 훈련에 열중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선수들의 빠른 피로회복을 바라면서...

* 1. 10.

저녁에 벌여질 경기를 위하여 오전에는 휴식을 취하며 푸근한 마음을 가졌다.

저녁 6시 30분에 출발하여 20분 후 '뉴 레온' 체육관에 들어섰을 때 많은 관중들은 벌써부터 자리를 잡고 있었다.

양국 선수단 입장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기세 당당히 태극기를 앞세우고 박수갈채를 받으며 입장했다. 잠시 후에 애국가가 멕시코 하늘에 울려 퍼졌다. 나도 모르게 상기된 마음에 심장이 뜨거워지는 감동을 느꼈다.



◆멕시코 대사관 앞에서 대사와 우리 선수단

외국 땅에 있을 때야 비로소 조국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과연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조국에의 향수일까?

경기가 시작되었다.

원금부터 순조로운 승리를 거두기 시작하여 마지막 해비급 이견원까지 K.O.승을 거두어 전 체급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게 했다.

경기가 끝난 후 관중들의 사인공세에 한 동안 행복한 고초(?)를 겪기도 했다.

사람들이 군데 군데 양을 몰고 차도에 나와, 길 가는 사람의 시선을 멈추게 하였다.

또 하나 경이스러웠던 것은 차였다. 앞과 뒤가 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긴 열차였다. 보통 60~70량의 열차를 달고 다니기 때문이 라고 궁금해 하는 우리들에게 안내인이 친절히 설명했다. 너무나 큰 땅이기에 내륙을 횡단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한 번에 많은 량의 열차로 화물을 운송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차창 밖에는 모두가 새로운 것들 뿐이었다.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특유한 멕시코만도에 모자 차림의 말을 몰고 가는 사람, 집 주위(담)를 선인장으로 장식한 집, 사람이 살다가 떠나버려 버려진 빈 집 (이곳은 기후가 계속 덥기 때문에 살다가 버려놓고 이주한 상상한 집들이 허다하다) 등이 눈에 띄었는데, 우리와는 대조적으로 집에대한 개념의 차이를 발견했다.

흔들리는 버스로 약 5시간만에 도착한 곳이 산투이포티시 '라프사다' 호텔이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여장을 풀 후 체육센터에서 주선하는

* 1. 11.

조건 신문을 펼쳐 보니, 그 곳 선수들을 무차별하게 공격하는 기사가 눈에 들어 왔다. 내용은 최선을 다하지 않고 대견하는 자세는 선수로서의 자질이 없는 것이라 단정하면서 국제적인 명예를 생각할 것을 권유했다.

우리는 다시 산투이포티시로 출발하였다. 몬테레이시는 내 시야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새로운 도시를 향하고 있었다.

창 밖으로 펼쳐진 그림에는 너무나 웅망한 산야만이 있었으며 그곳



만찬에 참석하게 되었다. 우리가 도착하자 플래카드를 들고 멕시코 고유의 악대를 동원하여 만찬장까지 인도하였다. 악사들은 60세 가량의 노인들로 구성되어있으며, 악기는 트럼펫과 아코디온을 닮은 것으로서 우리에게는 처음 보고 듣는 것이었다.

서로 간의 인사가 끝나고 만찬의 열기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우리 선수단의 「아리랑」이 시작되었고 그에 맞선 그곳 사람들의 고전음악이 선보였다. 라콤파르시타의 음악에 「탱고춤」이 시작되어 분위기는 극도로 고조되었다.

우리의 귀에 익은 「라쿠카라차」, 「베썬메우쵸」 등의 노래로 양국 사람들은 국적을 초월해 모두가 한 덩어리가 되어 춤을 추며 여흥을 즐겼다. 우리는 만찬을 마치고 시내 관광을 했다. 시내 곳곳에는 버려진 비닐봉지, 깨진 병, 오물들이 어지럽게 뒹굴고 있었다. 시내에서 약 20분 거리에 위치한 저수지로 향했다. 이 저수지는 약 3백년 전에 만들어진 유명한 저수지로 이곳 시민의 젖줄이라한다. 저수지가 아니라 마치 어느 옛 성터에 와 있는 것으로 착각할 만큼 고전적인 조각들로 만들어져 있었다. 이곳의 물을 식수로 사용한다는 말에 의아했다. 마치 오염된 양 새까만 물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는 1년 중 5월과 6월에만 비가 내린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물이 귀해 증류수로 만들어진 물을 시민들이 사 마실정도라며 그곳 특유의 사정을 전했다.

*** 1. 12.**

오늘은 멕시코에서의 2차전을 갖는 날이다. 우리는 몬테레이에서의

전승을 생각하며 「미겔 바라칸」 실내체육관에 도착했다. 생각보다 아담한 체육관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역시 1차전과 같이 태극기를 앞세우고 입장이 시작되었다.

앞에서 비추는 눈부신 플래시에 어리둥절해 하면서 양국 선수가 입장한 뒤 약 30분간 이곳의 화려한 민속시민 바레이단의 춤이 공개 행사로 마련되었다. 멕시코 춤 처럼 율동적인 춤도 없겠다 여겨진다.



공개 행사 후 TV 생방송 중계가 시작되어 라이트를 바라보는 불리한 위치에서 경기가 시작되었다.

핀, 플라이급에서 승리를 거두고 밴텀급, 페더급이 연속으로 패하자 불안한 마음을 안고 2회전에 들어갔다.

라이트급의 양대승이 뒤쫓러차기로 2회전에서 K.O 승을 거두면서 관중은 응원의 함성을 지르며 우리 선수들을 격려해 주었다.

다음 미들급에선 승리를 거두었으나 헤비급에선 아깝게도 패하고

말았다. 아마도 1차전에서 전패한것을 계기로 멕시코의 선수가 보강되었고 많은 질책이 무엇보다도 크게 작용한 것이리라. 우리는 위축된 기분으로 경기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오늘의 경기에 대한 반성 평가를 가졌다.

*** 1. 13.**

오후 2시, 그곳 지방 방송국에 출연하여 10분간의 인터뷰를 가졌다.

*** 1. 14.**

이제 「포토시」와도 이별을 해야 할 아침이다. 9시가 되자 「과달라하라」로 출발했다.

남쪽으로 내려온 탓일까?

이곳 산야는 「몬테레이」에서 볼 때와는 달리 제법 땅도 비옥해 보이고 곳곳에 초지가 형성돼 방목하는 소들이 많이 눈에 띈었다. 약 6시간에 걸쳐 멕시코 제2의 도시인 「과달라하라」에 도착하여「알란자즈」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곧 바로 이곳 TV방송국에 출연하여 약 15분간 인터뷰를 하고 내일의 경기를 대비해 「알렉한드로」체육관에서 연습시간을 가졌다.

*** 1. 15.**

오랫만에 민속공예품이 전시된 상가에 나가 관광을 했다. 거리에는 스페인이 통치했던 흔적이 잔존해있으며, 길거리(골목)에는 돌로 잘라 만들어진 보도블럭이 옛날을 상징하는 표정으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었다.

저녁 7시 경기는 호텔 안에 있는 특설 경기장에서 열렸다. 경기장은 북성경기장과 같이 약 1m 20cm정도 넓이의 마루를 깔아 설치하였다.



◆「멕시코 시티」
방송국 출연 광경

1500여명의 관중이 장내를 가득 메웠다. 우리 선수들은 여유있는 경기를 풀어나갔다.

페더급이 패하고, 라이트급 양대승 선수의 차례가 왔다. 2회전이 약 1분 경과될 즈음 양선수가 몸둘러 뒤차기로 멕시코 진영 좌측코너 부분에서 강타를 하였다. 멕시코선수는 양선수의 일격에 경기장 밑으로 휘청하면서 굴러 떨어졌다. 관중들의 우뢰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잠시 후 침묵이 흘렀다. 떨어진 선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멕시코 선수를 향해 격려를 표하듯 관중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시종일관 여유있게 싸우는 우리 선수들이었다.

마지막 헤비급선수가 경기 중에 불행하게도 손가락부분을 약 2cm정도 찢기었다. 그러나 걱정과는 달리 치료를 받고 경기를 가법게 이겨 우리를 또 한번 기쁘게 해주었다.

이렇게 해서 1명만이 패하고 전원이 모두 승리해 우리선수들은 관중들에게 통쾌한 경기를 보여준 결과가 되었으며 다시 한번 「코리아」의 이미지를 멕시코인의 가슴속에

심어주는 뜻깊은 결과를 낳았다.

* 1. 16.

오전 10시 45분 우리 선수단은 「멕시코시티」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방목하는 소와 말들이 시야에 들어 오는 가운데 버스는 오르막길을 달리고 있었다. 「멕시코시티」는 해발 2700m의 고지에 자리잡은 도시이기 때문에 계속 오르막길을 지났다.

* 1. 17.

아침 식사 후 우리는 멕시코주재 한국대사관 초청으로 「차플텍」공원 안에 자리잡은 대사관을 찾았다. 대사관에서 반가이 맞아주셨으며, 잠시 후 임원진과 대사간의 진지한 대화가 시작되었다.

태권도가 국위를 선양하는데 있어 어느 경기보다 앞서 있으며 세계 요소소소에 우리 사범들의 활약이 뛰어나다고 찬사를 보내 왔다.

멕시코에서 우리 선수단에게 가장 큰 불편을 주었던 「高地」에 적응하기 위해 「오리바리스」씨가 직

접 지도하는 체육관으로 가서 간단한 훈련을 하였다.

* 1. 18.

아침 일찍 우리 선수단 일행은 아침프로에 출연키 위해 TV방송국으로 출발했다.

인터뷰가 시작되었다.

선수 소개가 끝난 후, 그 동안 멕시코에 와서 생활한 소감, 경기 전적, 우리가 보는 멕시코선수들의 기량,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하여 약 15분간 대화를 나누었다.

오후 4시 30분, 우리는 「울림픽」경기장으로 출발했다. 제법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체육관으로 7천여명을 즉히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았다.

6시 정각에 입장식이 끝나고 식전 공개행사로 국민학교 학생들의 태권도 시범이 있었다. 다른 지방에서도 그러했듯이 모든 구령은 우리말로 이루어졌으며, 시범 내용 또한 이적되었다. 이렇듯 태권도의 열이 이어 만리 멕시코의 땅에 심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며, 우리 태권도 사범들의 노고에 깊은 사의를 표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경기가 시작되었다. 약 5천명의 관중들이 흥분한 가운데, 핀급의 신재현 선수와 플라이급의 양춘열 선수가 차례로 승리하여 쾌재를 불렀다.

그러나 밴텀급, 페더급, 미들급은 어렵게도 패하고 말았으나 라이트급의 양대승 선수와 헤비급의 이진원 선수가 이틀 만회, 승리를 안겨 주었다.

멕시코에 와서 치른 경기 중 가장 힘든 경기였다. 수 많은 관중의 열기, 대서관측의 관심, 高地 부적응 등의 주변 상황들로 인해 무리한 경기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선수단은 이와 같은 불리한 조건하에서도 4대 3으로 승리를 장식, 멕시코 시민의 가슴 속에 「코리아」를 심어 주었다는 자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 1. 19.**

TV방송 출연 요청이 들어와 우리 선수단은 다시 한 번 방송국을 찾았다. 이번에는 인터뷰가 아니고 우리 선수들의 실제적인 기량을 보고자 하는 방송국측의 요청이라서 그런지 책임감이 느껴졌다. 방송국측에서는 특히 우리 선수들의 뛰어난 기량인 「발차기」의 종류, 응용 및 훈련방법을 원했다. 역시 공지를 갖고 열심히 해내 주목을 끌었다.

우리들은 다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는 「차폴텍」 공원으로 향했다. 먼저 독립탑을 찾아 독립궁으로 올라갔다. 독립궁은 가파른 언덕 위에 자리잡고 있었는데 멕시코가 스페인의 지배를 받을 당시, 항거하는 젊은이들이 궁위에서 (약 70~80m 절벽) 뛰어내려 독립투쟁을 한 곳으로 유명한데, 현재는 떨어진

부분에 독립탑을 세워 그들의 뜻을 기리고 있었다.

다시 시내로 나와 지난번 극심했던 지진이 남기고 간 참상의 흔적을 바라보며 당시를 회상하기도 했다.

*** 1. 20, 21, 22.**

국제적인 피서지로 이름 난 「아카폴코」로 가 더위를 식혔다.

*** 1. 23.**

우리는 3일간 피서지에서 피로를 말끔히 씻고 「아카폴코」 공항을 떠나 다시 「과달라하라」 공항에 착륙했다. 이곳에 다시 오게 된 것은 「알리한사」 멕시코협회측의 초청으로 경기가 있기 때문이었는데, 우리는 「리카르도」씨의 영접을 받으며 시내를 향했다.

◆「멕시코 시티」에서 경기를 마치고



이식원 사범이 경영하는 도장에 서 며칠 동안 쉬었던 몸을 풀며 다음 경기를 준비했다.

* 1. 24.

오전 9시, 과달라하라의 위성도시인 「삿판」 시장을 방문하여 시장이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을 받고 광장에 나가 약 4백년 전에 지은성당 등을 관람하였다.

* 1. 25.

아침 식사 후 「과달라 하라」국회의사당을 방문하여 국회의장 초청으로 오찬을 나눈 뒤 의사당 내부를 구경했다.

* 1. 26.

이곳 「과달라 하라」시에서 두 번째 경기를 갖는 날이다. 또한 멕시코에서의 마지막 경기이기에 그의 미가 컸다.

오후 5시, 「올림픽」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 벌써 많은 관중들이 스탠드를 메우고 있었다.

마지막 경기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마음의 각오를 하며 입장하였다.

상대 선수는 「일리한사」협회대표 선수들이었다.

여기서의 전적은 5대 2로 우리 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 1. 27, 28, 29.

「과달라 하라」 공항을 떠나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향했다. 여정을 풀고 「버몬드」 가에서 오랫동안에 해장국을 먹으며 잠시 향수에 젖었다.

허리웃가, 디즈니랜드, 유니버살 프로덕션 (영화제작소), 돌고래쇼 등을 접하면서 바쁜 일정을 보내기도

했다.

이 곳에서의 훈련은 김용길 사범의 배려로 도산체육관을 이용하였다.

* 1. 30.

로스앤젤레스를 뒤로 하고 캐나다의 「에드몬톤」으로 출발, 중간에 「솔트레이크」 공항을 경유하고 70년의 역사를 지닌 신흥도시 「도몬톤」 공항에 도착했다.

현지 민형근 사범의 안내로 우리 한국 사범이 운영하는 박용체육관을 방문하고 훈련에 주력했다. 생각보다 상당한 시설을 갖춘 체육관이었다.

* 1. 31.

현지에서 이대일 사범이 운영하는 도산체육관과 최사범이 운영하는 체육관을 각각 방문, 훈련했다.

* 2. 1.

오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난 뒤, 간단한 순환운동을 하고 오후 게임에 출전했다. 4시에 그 곳 「웨스트 에니얼」 대학 실내체육관에서 경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선수단은 3시경, 체육관에 도착하였다. 4백m 트랙과 각종 구기 경기장이 갖추어진 대규모의 체육관이라서 그런지 태권도와 같은 실내경기를 가지려나까 어색한(?) 분위기마저 감돌았다.

4시 정각에 입장식을 가진데 이어 시범이 펼쳐졌는데 민형근 사범의 격파술과 호신술이 특히 캐나다 관중의 많은 호응을 얻어 박수소리가 쇄도했다.

이례적으로 그 곳 시장이 참석하여 명예유단증을 증정하였으며, 이

색적이었던 것은 도복을 직접 입고 본부석에 앉아 관람하는 모습이였다.

관중은 약 7백명으로 멕시코 군 중처럼 열광적이지는 않았지만, 우리 선수들은 핀급부터 차레로 승리를 거두어 진승하는 쾌거를 올렸다.

* 2. 2.

오늘은 태권도 세미나가 있어 일찍부터 서둘렀다. 다울타운 안에있는 중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는데 캐나다 선수 65명과 현지 사범, 체육관 학생 등 많은 참석자가 있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주로 선수트레이닝법에 대한 이론과 실제에 관해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

* 2. 3, 4, 5.

그 간 현지 사범들의 따뜻한 대접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캐나다를 떠나 로스앤젤레스를 경유, 일본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다.

신주우, 황궁, 메이지 신궁, 동경타워, 긴자 등 동경 시내 관광을 하며 이번 해외 원정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 2. 6.

김포에 도착했다.

29일간의 긴 여행이었다. 다시 한 번 각국의 경기 진행 및 현지 생활에 협조해 주신 사범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한다.

아울러 경기 준비와 선수 지도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한국 중·고연맹이 명실공히 태권도 중추국이 주춧돌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잃지 않을 것이다.

다같이



대한태권도협회 홍보실
한 규 인

1986년도 벌써 반(半)이 지나갔다.

우리 태권도는 6개월 동안 많은 대회를 치렀었다. 협회 사상 유례없는 3개팀, 24명의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한 대표선발 대회가 지난 2월 정동에 있는 문화체육관에서 거행되었다.

본 대회는 제10회 아시아 경기 대회에 태권도가 정식경기 종목으로 채택됨으로써 태권도 경기사상 최고의 「빅 카드」가 걸린 대회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우리는 큰 대회일수록 과열현상이 생기고 잡음이 많은 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잡음의 발단은 심판의 판정과 관계가 있다. 주위에서, 「심판도 사람이기에 실수가 있고, 잘못도 있을 수 있다」고 혼한 일로 넘기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심판의 판정은 절대로 공명정대하여야 하므로 판정을 내리는데 있어 조금이라도 정실에 움직인다면, 실수였다는 얘기는 성립될 수 없는 일이다.

판정에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신상필벌의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하게 대처하며, 경기장 질서 대책위원들을 경기장에 상주시키고 있으나, 결과는 억울하게 패했다고 울분을 터뜨리는 코치나 과격한 행동을 한 팀 관계자들만 경기장 난동으로 처벌을 받게되고, 항의와 경기장 난동을 야기시키는 근원은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혹,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있어서는 안될 흥정(?)을 나는 사람들은 뒤에서 조소(?)하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어떤 경기이든 경기가 있는 곳에는 심판이 있다. 야구, 축구, 농구 등의 단체경기에도 심판원들의 편파적인 경기운영으로 심심치 않게 화제를 뿌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 태권도 경기처럼 뒷말이 많은 경기도 흔치 않은 것 같다. 이런 원인은, 경기 “물”이 판정의 시비를 가리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심판원의 양심이 바르지 못하여서인지-, 또 아니면 「고슴도치도 재새끼는 함함하다」고 하는 코치들의 지나친 승부욕에서 기인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태권도는 이제 아시아 경기대회의 정식 경기 종목이 되었고, 88서울 올림픽의 시범종목으로 채택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은 세계 어느 곳을 가나 「태권도」하면 KOREA를 대명사처럼 사용할 정도로 세계속에 대한민국의 국위를 드높이고 있음이다.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즐겨보는 축구, 야구, 농구, 프로 복싱 등의 발상지가 어느 나라인지 자세히도 알고 보고 있으나, 태권도는 반드시 「KOREA」라는 국적을 분명히 세계속에 심고있다. 이렇게 세계속에 한 국을 심으며 112개 국가로 뻗어나간 자랑스러운 우리의 것이 아닌가?

우리는 28억의 아시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상의 얼과 기백이 담긴 태권도 경기를 마음껏 펼쳐 「동방의 별」의 무한한 가능성을 과시하여야 할 시점에 서 있다.

이렇게 중차대한 시점에 몇몇 후안무치한 심판원이나, 코치나, 부형들의 지나친 승부욕으로 인하여 전 태권도인의 얼굴에 먹칠을 해서야 되겠느냐고 질문해 보고 싶다.

심판원, 코치님들이여!

선수, 학부모님들이여!

「良心」이란 귀한 두 글자를 생각해 봅시다.

良心이란, 남에게 알리는 것도 아니고, 또 남이 알이주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며, 또 남들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처럼 「良心」은 남들을 의식하거나, 무엇을 어떻게 하고 안하고를 남들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남들에게 숨긴 내재적(內在的) 문제인 것입니다.

다같이 생각해 봅시다.

내 아들을 우승시키기 위하여 심판원을 찾아 다닌다거나, 팀을 우승시키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위를 서슴지 않든가, 어느 팀, 어느 선수의 사주를 받아 정실에 흔들렸든가의 행위들에 대하여... 「맑은 연못물 속의 미꾸라지 한 마리」가 전 태권도인에게 미치는 영향, 아니 경기를 관람하는 관객, 선수로 경기장에서 뛰는 나이 어린 후배에게 미치는 영향을...良心이란 두 글자를 가슴에 간직하고 정진하도록 합시다.

86년 올해는 여러 스포츠인 중에도 태권도인의 해이며, 이 기회에 태권도 발전에 확고한 주춧돌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전 태권도인에게 있음을 명심하시길.....

'86 아시안게임 ...



◇8분30초의 공가 속에서 힘과 스피드 교두의 기술이 심취일체되어야 할 것이다.



金8의 기대와 성원

일치해야



대한태권도협회 사무국장

김 옹 휘

1. 카운트 다운은 시작되었다.

앞으로 70여일.

1986년 9월 20일부터 10월 5일까지 16일 동안 서울에서 개최될 아시안 게임의 경기일정과 경기내용이 이미 확정되었다.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OCA) 회원국 36개국에서 모여드는 젊은이들이 2백 61개의 금메달을 놓고 선의의 경쟁과 스포츠 외교를 통한 친목을 다지게 된다.

전체 25개 종목 중에서 태권도 경기는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4일간에 걸쳐 성균관대학교 체육관에서 남자 8체급에 8개의 금메달을 놓고 3분 3회전 1분간 휴식의 경기방식에 따라 시합이 진행된다.

정부나 체육 관계자들은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종합 2위를 목표로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견인차 역할을 86아시안 게임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태권도에서 금메달 8개를 석권한다는 전세아래 기대를 걸고 있다.

세계적 추세로 볼 때 태권도가 세계적인 스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음에 비해 국내에서는 태권도가 비인기 종목으로 외면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방송매체 등 언론기관에서는 우리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풍토가 아쉽다고 볼 수 있다. 스포츠를 통한 한국의 이미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는 태권도에 대한 적극적인 풍토가 조성되어야만 우리 선수들이 국위선양에 앞장서고 아울러 태권도의 자질향상을 꾀할 수 있는 역동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 본다.

2. "우리의 태권도"가 "세계의 태권도"로

우리 나라에서 태권도가 경기종목으로 출발한 것은 1961년도이다. 우리 민족 고유의 무예인 태권도가 國技로서 "우리의 태권도"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1972년도에는 國技院이 설립되어 태권도의 분수령을 이루며 점차 일반인들에게 태권도의 인식을 심어왔다.

1983년에 모스크바에서 열린 IOC회의에서는 태권도를 아시아 게임에서 정식경기종목으로 승인하였고 88서울올림픽 대회에서 시범종목으로 채택함으로써 우리의 무도가 세계의 스포츠로서 확고한 위치를 굳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아시아 게임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기까지는 1973년도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7차례에 걸쳐 시행되었고 74년도부터는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또한 7차례 실시되었다. 또한 2회의 월드컵대회와 2회의 세계 대학 태권도 대회가 개최되었고 금년 7월에는 제 1회 월드컵 대회가 미국 콜로라도주 스프링스시에서 개최된다. 그리고 팬암게임, 아프리카게임, 남미게임 등 각종 국제 경기대회에도 태권도가 정식종목으로 채택이 되었으며 세계 태권도 연맹에 가입한 회원국 수 만도 112개국에 달할 만큼 전 세계인들은 흰 도복을 입고 한민족의 기상을 얼을 배우고 있다.

바야흐로 "우리의 태권도"가 "세계의 태권도"로 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우리만의 무도가 아니고 전 세계인의 스포츠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평가내릴 수 있다고 본다.

이처럼 세계인의 스포츠가 되기까지 한국은 태권도의 종주국으로서 경기 기술이나 태권도 정신, 경기운영 방법 등 전반에 걸쳐서 선구자 역할을 해왔음도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국경과 인종을 초

월하는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태권도 경기를 가지게됨은 태권도가 세계의 스포츠 역사의 장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 믿는다.

3. 태권도 경기력 점검

—우리는 과연 8개의 금메달을 석권할 수 있겠는가?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치나 지금까지의 국내의 크고 작은 각종 태권도 대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우리 나라로서는 당연히 8개의 금메달을 석권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만가지고는 8개의 금메달을 확보하기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님을 태권도인이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현실이다.

그 동안 7차례에 걸친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 대회와 세계 선수권 대회를 점검해 보면 우리의 경기력이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쉽게 파악해 볼 수 있으리라 본다.

양대회에서 우리 나라는 모두 7연패의 위용을 펼쳐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사기와 기백을 전세계인들에게 유감없이 발휘해 왔음은 가히 기념비적인 업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계속적인 단체 1위에도 불구하고 경기내적인 면에서 살펴 볼 때 점차 위기감을 맛보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봉착해 있음은 대회과정 중에 살펴 볼 수가 있다.

우선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그 횡수대로 살펴 보기로 하자.

제 1회 대회에서는 전체급을 석권하여 종주국의 위용을 유감없이 발휘했으며 2회 대회에도 전체급을 석권하면서 2연패를 달성했다. 그러나 1회 때와는 달리 한국에서 우수한 선수로 활약하던 홍성천(필리핀), 오

영열(호주) 사범이 파견되어 지도한 필리핀과 호주 선수들이 한국선수들을 위협하는 실력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제 3회 대회에서도 3연패를 석권하면서 우리의 기량을 떨쳤으나 호주, 이란, 태국 선수들의 적극적인 도전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을만큼 외국선수들의 기량은 급격히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제 4회 대회에서는 8체급 중 7체급을 석권하면서 4연패를 달성했으나 미들급에서 대만선수에게 패권을 빼앗기면서 우리의 독무대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어 제 5회 대회에서는 웰터급의 패권을 대만선수에게 넘겨줌으로 해서 중량급에 대한 위기가 표면화 되었다.

제 6회 대회에서는 25개국 전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은 6연패의 위용을 떨쳤으나 핀급에서 예선 탈락의 고배를 마시며 필리핀에게 패권을 넘겨주고 말았다.

근년 호주 다윈시에서 개최된 제 7회 대회에서는 7연패를 달성하긴 했으나 핀급은 대만에게, 미들급은 호주에게 넘겨주어야 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우리 나라는 7연패라는 좋은 기록으로 중주국으로서의 위위를 떨치고 있으나 그 내적인 면에서 초기 1·2·3회에서는 전체급을 석권 하였으나 4회에서 미들급, 5회에서 웰터급, 6회에서 핀급, 7회에서 핀급과 미들급의 패권을 빼앗김으로 해서 핀급에서 헤비급에 이르는 전체급에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우려를 간과할 수 없는 입장이다.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참가한 나라들이 대개 이번 86아시아 게임에 참가한다고 볼 때 우리 나라가 8개의 금메달을 모두 따내는데 있어서는 이와같이 위협적인 요소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이다.

필리핀, 이란, 크메르, 요르단, 태국 등이 2·3위에 입상하면서 꾸준히 실력을 쌓아오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필리핀은 금메달을 획득하는 쾌자로 사기 충천해 있으며 86아시아 경기대회의 태권도 종목에서 금메달 획득을 목표로 집념을 불태우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중동지역에서는 전예 한국 대표로 세계 선수권 대회나 아시아 선수권 대회 등 각종 국제 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바 있는 우수한 선수들이 좋은 조건과 함께 코치로 초빙되어 장기적이고도 강도높은 훈련을 해오고 있다. 또한, 필리핀의 흥성현, 카타르의 나중열, 쿠웨이트의 주상현, 바레인의 김현덕 사범 등도 전

한국대표급 선수 출신으로 이들은 한국 선수들의 기량과 기법 및 지도자들의 작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수립한 각종 대회에서의 우승으로 자만에서 머물고 만다면 이들의 위협에 적잖이 당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본 듯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는 1973년도부터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다. 우리 나라는 7연패의 위업을 세우면서 세계 속에 한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온 국민에게 심어 주었다.

1회대회부터 7회대회까지의 기록을 보면 제 1회 대회에서 한국은 단체 1위를 차지했고 제 2회 대회에서는 8체급을 석권하였으며 2·3위를 자유중급과 멕시코가 뒤따르고 있고 그 뒤를 서독, 호주, 팔미 맹추격을 했다.

제 3회 대회에서는 라이트급에서 자유중급이 패권을 차지, 제 4회 대회에서는 10체급(라이트미들급, 라이트헤비급 추가)에서 7개의 금메달을 따냈고 웰터급은 멕시코에, 라이트급은 서독에, 헤비급은 네덜란드에 금메달 한개씩이 돌아갔다.

제 5회 대회에서는 8체급을 석권했으며 핀급은 에쿠아도르에게, 헤비급은 서독에게 패권이 넘겨졌다.

제 6회 대회에서는 8체급을 석권, 스페인이 라이트헤비급을, 터키가 웰터급에서 패권을 차지했다. 7회 대회 또한 7체급을 석권했으나 헤비급에서 네덜란드에 패권을 빼앗겼다.

이와같이 세계 선수권 대회의 기록을 살펴 볼 때 7연패의 좋은 기록을 내고 있으나 전체급 석권이 점점 위협을 받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월등한 신장과 체격조건을 갖추고 있는 외국 선수들이 한국 선수들의 기량과 기술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비함으로써 중주국의 아성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외국 선수들의 위협을 어떻게 물리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시급히 연구 검토 되어야 한다는 것이 태권도인들의 중론이며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태권도계에서는 이미 우리 선수들의 기술과 게임운영의 기법들을 비디오 등 각종 자료를 통해 면밀히 분석하고 새로운 방어 및 공격력을 구사하는 세계의 수많은 도전자들에게 역습을 받을 공산이 너무도 크다는 것을 경기를 치러 본 선수

들의 자각에서도 알 수 있다.

아시아 게임을 대비하는 우리 대표선수들은 무엇보다도 기초체력을 단련하는데 노력해야 하며 기술화, 전문화를 위한 공격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8개의 금메달은 쉽게 주어지지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 온 바탕위에 새로운 힘과 지혜와 기술의 밸런스를 갖출 때 가능하다고 본다.

4. 금메달 8개의 기대에 따른 성원이 뒤따라야 한다.

우리의 國技인 태권도가 86아시아 게임에서 조국의 명예를 드높이고 앞으로 있을 88서울 올림픽을 향하여 장도를 걷는 태권도 선수들에게 국민들과 더불어 체육관련기관 및 체육계 인사들이 갖는 태권도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 종목보다도 우선한다. 그러나 기대에 비해 태권도인들에게 얼마만큼의 성원을 보내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재고해 볼 여지가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태권도 중추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승하지 않겠느냐는 안일한 생각이 지배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적 추세로 볼 때 태권도가 세계인의 스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음에 비해 국내에서는 태권도가 비인기종목으로 여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방송매체 등 언론기관에서는 우리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풍토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스포츠를 통한 한국의 이미지를 가중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는 태권도에 대한 적극적인 통토가 조성되어야만 우리 선수들이 국위선양에 앞장서고 아울러 태권도의 자질향상을 꾀할 수 있는 역동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 본다.

무엇보다도 경기에 임하는 태권도 선수들 자신이 자기의 실력을 쌓고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발전이 있겠으나 체육지도자들도 아울러 태권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 부단한 성원과 협조를 보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다방면에서 선수들의 여건조성을 마련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여왔으며 따라서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앞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노력이 필수불가결한 것임을 또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우선 제도적인 보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① 각급 학교에서 태권도를 집중적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자원이 확보 되어야 한다.

② 유능한 국가대표 선수가 계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무대, 즉 실업팀 등을 만들어 선수들에게 안정된 생활 환경을 조성해 주고 꾸준히 태권도에 열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그 동안 우리나라 선수들의 문제점으로는 조기 은퇴 경향을 들 수 있다. 이에따른 문제점 때문에 우리나라 선수들의 국제대회 경험부족 현상을 낳아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신인발굴이라는 좋은 점도 있으나 선수들이 폭넓은 경험에서 오는 완숙한 기량과 기술이 담겨져야 하는데 생활터전을 마련해야만 하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조기에 은퇴하게 됨으로써 그만큼 큰 규모의 대회에서는 늘 위험요소를 내포하게 되는 것이다.

③ 선수 자신들이 태권도 중추국 선수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태권도 정신의 연마와 기술개발에 힘써야 한다. 그동안 국내 선수들의 기량과 기술이 획일적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장 및 체력면에서 우위를 갖고 기술을 습득한 외국 선수들을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앞으로 3분 3회의 공간 속에서 힘과 스피드를 갖고 고도의 기술개발이 삼위일체가 되어야만 우리가 우리의 굳건한 중추국으로서의 우위를 계속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강인한 정신력과 의지력음바탕으로한 정정당당한 시함으로 세계인들에게 무도정신을 심어주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음도 잊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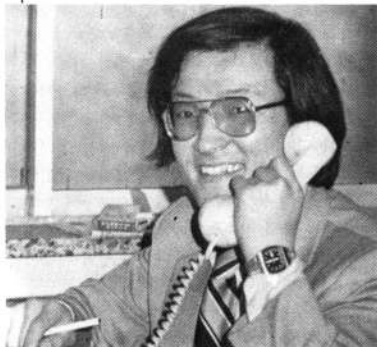
경쟁자는 바로 등뒤에서 바짝 따라오고 있다. 우리가 어제의 정상임을 자랑하고 있을 때 그들은 우리의 기술을 익히고 약점을 파악하고 공격태세를 갖추으로써 금메달을 겨냥하고 있음을 바로 인식해야 한다.

앞으로 70 여일.

금메달을 목에 걸고 태극기가 휘날리고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마다 우리의 태권도는 우리 국민의 가슴속에 감격을 안겨다 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정당당한 경기로 세계인들에게 우리의 정신을 심어주고 경기력 향상을 기록으로 보여주어야만 한다. 그리하여 장차 올림픽 정식종목으로의 채택에 초석이 되도록 하며 더 나아가 88올림픽에서 우리의 태권도가 꽃이 될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와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할 것이다.

기
자
가
본

세계속의 태권韓國



京郷新聞 体育部記者/姜 琪 錫

한 번 만이라도 해외에서 벌어지는 국제 태권도대회를 참관해 본 한국인이려면 누구나 태권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수 천명의 관중들이 「코리아, 코리아」를 외치며 응원에 열을 올리고 중국국의 대표선수들을 畏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과연 저 만큼 많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존경하게 만들수 있는 다른 무엇이 또 있을까고 반문해 보게 된다.

그리고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 에 대해 세상 뿌듯한 긍지를 느끼는 것이다. 10년도 채 미치지 못하는 짧은 체육기가 생활을 해 오면서도 참으로 많은 해외취재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때로는 직접 국제 태권도대회를 취재하기도 했으나, 때로는 올림픽이나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같은 국제종합대회, 때로는 농구나 탁구와 같은 다른 종류의 국제대회를 취재하기도 했다.

그런데 어디를 가서 무엇을 취재하든 나의 해외여행에는 항상 태권도와와의 인연이 깊게 배어있다. 비교적 오랫동안 태권도 담당기자를 해온 까닭에 적지않은 태권도인들을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혀 얼굴이나 이름조차 알지 못했던 사범들이 때로는 현지 한국대사관의

소개로, 때로는 스스로 자원하여 한국대표팀을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었던 것이다.

지금이야 사정이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한국 사람이 어찌다 외국여행이나 할라치면 체격 좋고 코크고 눈이 파란 저쪽 사람들에게 까닭없이 주눅들어 해야만 했던 때가 있다.

그런데 일단 태권도 사범의 안내를 받게되는 순간부터는 가히 외국인 공포증이라 불려도 좋을만한 그런 불안감이 간데없이 사라지고 가슴을 활짝 펴고 의기양양하게 활개치던 기억은 비단 나만의 것이 아닐것이다. 운동하는 사람이라 허우대가 그럴듯하고 「벤츠」나 「캐딜락」 같은 그 쪽에서도 알아주는 굉장한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일까.

그렇지는 않다. 비록 옷차림은 남루하고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차를 타고 다닐지라도 태권도인들은 야망에 불타는 눈동자와 자신만만한 미소로 그쪽 사람들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곁에 있는 사람까지 덩달아 우물할 수 있는 것이다.

영원한 이방인일 수 밖에 없는 낯설고 물설은 미국 땅에서 이처럼 영향력 있는 東洋人으로 단단히 자리를 굳힐 때까지 온갖 난관을 뚫고 나온 태권도 사범들의 파란만장한 경험담을 들을 때마다 나는 그네들의 용기와 武道精神에 마음 속으로 머리를 숙이게 된다.

지금은 호주 시드니에서 여러 개의 도장을 경영하며 수 백명의 수련생을 거느리고 있는 Y 사범. 그는 10여 년전 단돈 50달러를 들고 비행기에 올랐다. 비행기 샅에는 비행 중의 식사비, 술값은 물론, 비행기를 바꿔 타기 위해 하루를 묵어야 하는 경우, 호텔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Y 사범은 현지 에 도착할때 까지 3일을 꼬박 굶었으며 호텔에서는 로비에서 새우잠을 잤다고 한다.

배가 고틀 때마다 화장실에 가서 물을 너무 많이 마셨기 때문에 나중에는 땀뽀이처럼 튀어나온 배를 누गत 특 건드리기만 해도 물이 넘어올 것 같더라고 했다.

빈손으로 신천지를 개척하기 위해 비행기에 오른 태권도 사범이라면 적어도 그 정도의 고생담 씬은 약과라고 여길 것이다.

뉴욕에서 활약하는 L 사범은 초창기에 자동차에다「세계의 주먹왕」이라는 큰 간판을 걸고 가두선전에 나섰다가 2m가 넘는 흑인거한이 「당신이 정말 주먹왕이나?」며 난데없이 한 방 갈기는 통에 그 자리에서 기절 한 적도 있다고 한다.

중동의 한 국가에서 국왕 경호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한 사범은 면접시험 때 도저히 격차가 불가능한 차돌같은 벽돌을 「죽기살기식」으로 내리쳐 조각낸 것까지는 통했으나 자신의 주먹까지 부숴버리는 통에 몇달간 내색도 못하고 아파서 혼났다는 경험담을 털어놓기도 한다.

태권도의 실력을 믿지 않는 흑인에게 어린아이 머리 통만한 돌을 가슴께에 받쳐들고 서 있으라해놓고 돌이 아닌 흑인의 배에 번개같은 일격을 놓아 KO 시킴으로써 제자들의 신뢰를 회복했다는 LA의 K 사범,

대련(겨루기)을 하다가 상처를 입은 수련생이 손해배상을 청구해 오는 통에 몇달 동안 큰 고통을 당했던 미국 덴버시의 O 사범의 경우 등은 지금에야 한바탕 웃어넘길 수 있는 에피소드에 불과하겠지만 당사자의 당시 입장이야말로 등골에 식은땀이 흐르는 절박한 순간이 아닐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이처럼 매도 없이 몰아다친 온갖 괴로움을 굳은 결심으로 싸워 이긴 결과 해외에 파견된 대부분의 태권도인들은 그 지역의 한인 이민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때로는 현지 지역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유력한 유지로 행세하게 된 것이다.

H 일본의 한 동료기자는 서독에서 활약하는 C 사범의 집을 방문했다가 아름다운 서독인 부인의 극진한 환대를 받고는 C 사범의 소매를 붙들고 「당신이야말로 한국 남자의 체면을 살려 주었군요!」하며 크게 감격했다.

서독에 취업기간 많은 간호원들이 서독 사람들의 부인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자존심이 크게 상해있던 이 기자는 그 후 「태권도인 이야말로 진짜 한국남자!」라고 말할 정도로 태권도 찬양론자가 되었다.

나 역시 미국에 갔을 때 태권도 사범의 미국인부인이 말끝마다 「씨(Sir)」를 붙이는데 한편 당황하면서도 흐뭇한 기분을 감출수 없었던 기억이 있다.

「미스터」라는 호칭이 일반화된 서구사회에서 태권도 사범들만이 유일하게 「씨(Sir)」 혹은 「매스터(master)」라는 경칭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태권도 수련생들이나 태권도인의 부인들은 「남편의 친구는 남편과 마찬가지로 선생의 친구 역시 선생과 마찬가지로」라는 동양적 사고방식을 깊이 체득하고 있었던 것이다.

해외사범들의 본령이 도장경영이라는 것은 두말할나위도 없지만 태권도를 발판으로 큰 기업을 일으켜 성공한 사례도 많다.

최근 약간 고전하고 있다는 우울한 소식이 들리기도 하지만 멕시코의 문대원 사범은 멕시코 전국을 연결하는 수십개의 도장을 경영하고 있으며 스페인에 진출한 양영관 사범은 젊은나이에도 불구하고 세계대회 우승자라는 휘광(輝光)을 업고 「바르셀로나시」한복판에 엄청난 규모의 도장을 보유, 선배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3백여평 규모에 헬스클럽, 「스쿼시」장, 탁구장, 휴게실에 수영장까지 갖춘 「깜빠온(캄피언)梁」의 도장처럼 쾌적하고 호사스런 태권도장을 아직 보지 못했다.

역시 「바르셀로나」의 이영우 사범은 「월드태권도」라는 월간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원일 사범은 침구업(鍼灸業)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또 파리의 최정림 사범은 무역업에도 손을 대는 등 많은 사범들이 식당업, 관광업, 무역업에 영화제작 등 연예계에서까지 크게 재능을 떨치고 있다. 한 가지 섭섭한 것은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존경을 받을만한 훌륭한 태권도인들이 때로는 서로 반목하여 현지인들에게 이용당하거나 교민사회에 갈등을 일으키는 일을 여러 번 목격했다는 것이다.

태권도 정신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결코 동료사이에 반목하라고 가르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도 출신관이 다르다해서, 누구는 대표선수 출신이고 누구는 아니라해서 서로 배척하고 이간하는 풍토는 한시바빠 사라져야 할 문제로 본다.

또 한가지 오랫동안 타향생활을 하게되면 고향을 잊듯이 국기원에 대한 인식은 물론 조국관까지 흐려져버려 국적없는 태권도인으로 전락한 사람들도 꽤 있다는 점 역시 문제가 아닐수 없다.

누구든 국기원에 대한 불만은 어느정도 있을줄 안다. 그러나 국기원이 태권도의 정신적 지주가 되도록 태권도인들 스스로가 지켜야하고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태권도를 「세계로 뻗어가는 태권도」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태권도 본질의 망각이나 상실」이라는 문제에 부딪치게 될 때마다 이를 주시하는 기자로서 일관성 있는 태권도인의 자세가 미흡함을 느낀다. 태권도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당시마다 주어지는 갈등을 풀어나가는 진지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붕이 샌다고 기둥을 도끼질해서 무너뜨리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는 없지 않은가.

제12회 전미 태권도 선수권대회에 레이건 대통령 격려의 글 보내와

(註) 레이건대통령의 글을 번역하여 실는다.

제12회全美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참가한 선수, 준비위원 및 팬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이제 태권도는 단순한 대중 스포츠로서 뿐만 아니라 2,0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전통있는 스포츠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흥미있고 바람직한 무예 스포츠인 태권도가 88올림픽의 시범경기 종목으로 채택 됨으로써 국제적인 경기종목 중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대회에 참가한 선수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심신양면의 향상을 추구함으로써 작게는 여러분의 일, 크게는 여러분의 인생에 유익함을 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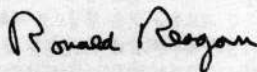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참가자 여러분은 각자의 도덕적·기술적 탁월성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공동이익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기여해야만 한다는 점을 더욱 중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회 준비에 수고하신 후원 기구와 코치, 그리고 임원 여러분께 축하를 보내면서 성공적이고 기억에 남을 만한 경기를 위해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1986. 2. 26

• 미합중국대통령로널드레이건



미국뉴욕

김대현 사범



• 김대현(金大鉉) 사범 주소
DAVID, D. H. KIM
MASTERS, INC
1250 B' WAY NEW YORK
N. Y 10001, SUIT 3000
TEL. 212-868-1919.

1967년 渡美하여 15년간 태권도 사범으로 활동하는 동안 3개의 체육관을 운영하며, 유단자 100여명을 배출하였고, 관원 1만여명이 태권도장을 거쳐나갔을 것이라고 회상에 젖는 김대현 사범.

Long Island대학교, C.W.Post 대학 등에서 태권도 강사를 지냈고, 8년전부터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하여 6년전부터는 후배들에게 체육관을 물려주고 본격적으로 사업 무대에 뛰어 들었다.

뉴욕 한국인 실업인 협회 2대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이사장에 재임 중이며, 또한 미주 상공인 단체 총연합회를 창설하고 초대 회장으로

취임, 상공인들의 단합을 도모하였으며 현재는 명예 회장으로 일선에서 물러나 있다.

주요 업종은 신발업으로 한국에서 생산되는 각종 신발류를 미국으로 수입, 판매함으로써 국산신발을 널리 소개하는 데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이제 김사범은 김사장으로서 변신, 사업 관계로 年 3~4회의 한국 방문을 한다.

또한 태권도화(신발)를 개발하여 미국내에서 보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태권도 사범님께서 사장님으로 전직하여 부지런히 사업 활동을 하는 김 사범의 내일에 대성을 기원해 본다.

캐나다

에드먼트주 엘버타주립대학 태권도부 내한

4년전 연세대와 자매결연을 맺은 엘버타주립대학 태권도부원이 5월 9일 내한, 지난 6월 5일 협회에 인사차 방문했다.

금번 한국을 방문한 5명중 RON DZIWENKA는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했으며, 태권도가 생활전반에 정신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전공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몇 개월 후 연세대 외국어학당에 강사로 출강하며 태권도 수련을 계속하겠다고 계획을 밝히며 태권도 수련 4년에 초단을 뒀다고 최근한 자랑을 곁들인다.

LINDA KWAN은 4번째로 한국을 방문했는데 제 7회 세계 태권도선수권 대회에 캐나다 여자 대표 선수로 출전한 바 있는 그녀는 태권도 수련 8년에 초단을 보유했으며,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배우는 한국을 배우려고 노력한다.

조그만 회사를 경영하는 ART-HUR POELEN씨는 1년 6개월간의 태권도 수련을 통해 초록 띠를

세계태권도연맹 — 김운용총재

아이보리코스트 최고체육훈장 수훈

세계 태권도연맹 김운용 총재는 ANOC회의 기간중인 지난 1986년 4월 25일 아이보리 코스트 국가체육진흥 발전 및 국제스포츠 발전에 이바지 한 공로로 아이보리 코스트 지휘 체육 최고훈장을 수훈하였다. 이 훈장은 아이보리코스트 국가 최고의 스포츠훈장이며 훈장수여는 IOC 부위원장 및 주 캐나다 아이보리코스트 대사를 역임한 현IOC 의전장인 Louis Guirandow-N'diaye 씨가 아이보리코스트 대통령을 대신하여 수여하였다.

안았으며, 「비즈니스」를 전공했는데 태권도의 개척정신을 전공과 연계시켜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만족한 웃음을 띠다.

또한 물리학을 전공한 JEFF CANDY는 선수들에게 생체역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 본인이 좀더 수련을 하여 태권도에 필요한 역학적 부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힌다.

JAMES PILIPCHUK는 4년간의 수련으로 초단에 올랐으며 지도사법과의 대화부족으로 동양무도의 깊은 심층은 모르나 재미있게 배우고 있다며 동양무도의 의의를 중시하며 중국 방문에서 찾겠다고 하였다.

이들은 연세대 태권도부원의 가정에서 민박을 하며 한국의 생활, 풍물, 유적지 등을 두루익히면서 5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체류했다.



◆생활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태권도, 개척정신을 가르쳐주는 태권도, 동양무도의 진수를 지닌 태권도라고 각각 견해를 표명하며 중주국방문의 의의를 다지고 있다.



박종삼 쿠웨이트 대사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받는 이사범

쿠웨이트

이해운 사범



국인으로서의 처음으로 한국정부로부터 태권도를 통한 국위선양을 한 공과로 지난 85년 11월 대통령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사범은 매년 1회씩 전쿠웨이트 태권도 친선경기를 개최하여 85년도에는 6회의 대회를 치르기도 했다.

이 대회에는 한국대사는 물론, 폴란드, 시리아대사도 참석하였으며, 한인회 회장, 교민회임원들이 다수 참석하여 한국인 단결의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또한 각 스포츠 계통의 신문에서도 본 대회 기사를 대서특필하여 태권도를 통한 한국인의 긍지를 한층 높이고 있다.

현재 쿠웨이트에는 김봉근(국방성지도)사범, 구영춘(경비대지도)사범, 주상현(경찰지도)사범 등이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으며, 주상현 사범은 쿠웨이트 정부로부터 월급을 받을 정도로 태권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다.

쿠웨이트는 중립국으로 한국대사관, 북한영사관이 공존하고 있다. 북한영사관에서도 태권도 사범파견을 시도한 적이 있으나 확고히 자리한 우리 사범들이 있어 실패하였

다.

그곳에는 1년중 「남하단 무슬림」이라는 특별한 기간이 있는데 이기간(5월 9일부터 6월 10일까지) 새벽 4시부터 오후 7시까지 금식을 하고 오후 7시부터는 자유롭게 보내게 된다.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만 근무를 하며 모든 국민은 금연, 금주, 금식을 해야하며, 때로는 경찰이 협조하여 제재를 가하기도 한다. 기후가 오전 11시부터 4시까지지는 48~49℃를 오르내리므로 12시에서 4시까지의 오수 시간이다.

쿠웨이트는 지난 83년, 태권도협회를 설립하였고 이제는 명실공히 스포츠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사범은 제 7회 아시아선수권대회에 국제 심판으로 참가하고 업무 관계로 귀국하였다가 인사차 협회를 내방하였다. 이사범은 10여년간 쿠웨이트에 태권도를 보급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공이 인정되어 곧 다른 나라로 태권도 보급개척을 위해 파견될 예정이다.

같은 이사범의 건강과 태권도 보급 발전을 함께 기원해 본다.

77년 1월 출국한 이해운사범. 그해 8월부터 「알팔미야」 스포츠클럽에서 3년간 태권도 사범으로 근무하며 78년에는 경찰사관학교 생도들에게 2년간 태권도 지도를 했고 그 후 두 곳을 한인사범에게 인계하여 지금은 Hilton Club, Olympic Club, Sporting palace Club 등에서 150여 명을 지도하는데 전념하고 있다.

쿠웨이트는 외국인에게 개인사설 도장 인가를 해 주지 않으므로 매년 계약체결을 해야만 한다.

이사범은 쿠웨이트에 거주하는 한



◆ 쿠웨이트 제자들과 함께



재독 태권도협회



◆70년대 초반부터 한국사범이 진출하기 시작. 이제는 안정세를 유지하며 발전하고 있다.



이유환회장

독일에는 지난 1965년 6월 최홍희씨를 단장으로 4~5명의 사범이 진출하여 지금까지 태권도 보급을 계속해 오고 있다.

197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인 한국사범이 진출하여 74~75년경에는 세계 태권도연맹(W.T.F)이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계속 발전하는가 하면 이제는 40여명의 우리 사범이 개인 도장을 보유할 정도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이유환 사범은 남보를 전했다.

그러나 자기 개인 생활들로 바빠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어려우므로 대면할 기회를 만들기는 물론 태권도 경기보급 및 세계화된 태권도의 진면목을 과시할것 주독대사관을 창설키로 합의된 바 있다.

또한 86년 2월 22일에는 제 1회 교육관배검제 3회 한인 2세 태권도대회를 본(BONN)대학 실내체육

관에서 실시한 바 있다.

본 대회에는 9개 도시에서 사범 15명(백진건, 조명구, 이강현, 차용길, 김우선, 김강우, 유병도, 박길도, 박창호, 최영부, 이유환, 장광명, 신부영, 김철환, 김만금 등)이 참가하였고 내빈으로 이완희 재독 한인연합회 회장, 이석인 대한체육회 서독지부회장, 김희일 본한인회 회장, 정창석 그릭아우트회장, 박석봉 평동사무원, 88올림픽 교포후원회 회장 외에 대사관에서 임대영 교육관, 윤종현 참서관, 황금주 서기관 등과 학부모들이 참석함으로써 한인들의 단결화합의 장이 되었다고 전인.

이유환 회장은 1969년부터 72년까지 주한 미 1군단 사령부(C.R.C) 사범으로 근무하였으며 72년부터 77년까지는 강원도 태백시에서 체육관을 운영한 바 있는데 지난 77년 8월 도독(渡独), 78년 2월 서독

함(HAMM)에서李大권도장을 개설하여 태권도 보급에 전념해 왔는데 지금은 도르트문트(DORTMUNDT), 카스트로프 라우셀(CASTROP RAUXEL), 레크링 하우스(RECRING HAUSE), 뮌헨(MUNCHEEN), 보우쿰(BOCHUM)시 등에서 도장을 운영하며 700여명의 수련생을 키워내고 있다.

이유환 사범은 또한 85년 9월 21일 총회에서 제 5대 회장(2년임기)으로 피선되어 독일 태권도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다. 한편, 재독 태권도협회는 서울특별시 태권도협회와 지난 86년 3월 25일 자매결연을 맺고 태권도를 통하여 우의를 돈독히 함은 물론 필요시에는 상호 임원 및 선수들 교환 및 초청하여 새로운 기술교환을 이룰것을 약속하였다.



◀좌로부터 이영복, 김운용회장, 이영국, 김명환사범 및 수련생들

美 워싱턴주
태권도협회

이영국회장

협회 발족 3주년을 맞아 사범 20여명이 태권도 발전을 위해 합심, 3개 대회를 개최하여 그 수입금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86년까지 1만불을 적립하겠다고 소박하게 말하는 이영국 사범.

워싱턴주에서는 협회주최대회 2회, 개인주최대회 2회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협회 주최대회를 1개쯤 늘릴 계획이다.

또, 86년 10월에는 전미국 내에서 유명한 사범들을 초청, 시범대회를 개최하여 태권도의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해 보고자 부심하고 있다.

금번 한국을 방문한 이영국, 이영복, 이영호, 김명환 사범등과 태권도 수련생 8명은 워싱턴 태권도협회 사업의 일환으로 초단에서 2단으로 승

단하려는 수련생들에게 종주국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으며, 동시에 실제수련을 통해 기량을 연마하고 우의를 돈독히 하는데 주력했다. 미국의 태권도 수련생들은 한국을 발원지로써 있는 나라로 평가하며 모든 면에서 좋은 방향으로 관심이 지대하다고 입을 모은다.

영국, 영복, 영호 3형제는 16년 전에 나란히 출국하여 태권도에만 열중해 온 덕분에 워싱턴주내에 7개의 도장을 경영하는 형제 그룹도장群을 형성할 수 있었다.

워싱턴주내의 KENT, AURBUN, RENTON, DES MOXIIIES, OLYMPIA, YAKIMA, RICULAND 등에서 약 1200여명이 수련하고 있으며, 점은 떠난 120여명을 배출하여 이제 는 완전히 자리가 잡혔다고 자신한다. 또한 캘리포니아 롱비치의 Y.I.B 체육관에도 100여명의 수련생이 있어 설 사이 없이 체육관을 다니며 운동을 하여야 한다.

3형제와 같이 방문한 김명환 사범은 78년 11월에 미국에 이주, 현

재 「레인저」(공수특공부대) 주둔지역에서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다. 군인 주둔지역이라 수련생들이 평균 6개월에서 1년을 수련하는데 항상 120~30명이 꾸준한 가운데 운동을 하고 있었다. 아울러, 협회 운영이 잘되므로 장차는 국내의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신인 사범을 지원하는 등 일련의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이영국 협회장과 같이 열심히 뛰겠다고 힘주어 말한다.

사범 4명 모두가 당당한 체구에 근육형이라 「요즈음에도 계속 운동을 하는 모양입니다.」라는 말에 미국의 태권도 사범은 운동을 계속하지 않으면 체육관 운영을 할 수 없게끔 구조가 되어 있다고 말하며 「운동을 통해 미국에 간 사람이 운동을 하지 않으면 무엇을 하겠느냐?」고 오히려 반문했다.

워싱턴주 상공회의소 이사이기도 한 이영국 사범의 건강한 체력과 미소에서 밝은 워싱턴주 협회를 보는 듯 했다.

박군석 사범 등 4명의 사범이 수행



美태권도
수련생
종주국
방문

「Coral Spring」의 박군석 사범을 비롯, 「Atlanta, GA」의 김두한 사범, 「Birm Ala」의 정상복 사범 「Fort Lod Fla」의 임상용 사범 등 4명의 사범이 미 태권도 수련생들을 수행하고 지난 6월 16일 귀국했다.

『美 태권도 수련생의 종주국방문은 N.T.F (미 태권도연맹)에서 처음 실시한 사업으로, 수련생들의관

심이 지대하다』라고 이번방문의 의의를 밝히는 박군석 사범은 이러한 방문 교류가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75년도 제 2회 세계대회 때 임원으로 참석했을 때는 국기원 주변에 나무가 자라있지 않아 건물만 우뚝 서있는 것이 쓸쓸해 보였는데 다시 와 보니 녹음이 우거져 아주 보기 좋다』고 방문 소감을 밝힌다.

이들은 17일 국기원에서 품새, 겨루기 등 실기를 골고루 익히고 국내외의 여러 곳을 관광한 후 21일 출국했다. 박군석 사범은 지난 70년 출국해 「시카고」와 「마이애미」북부 두 곳에 태권도장을 개설하여 11년째 운영해 오고 있다.

75년 모국 방문 시 결혼을 했다. 박사범은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제 7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참석하려 했으나 이뤄지지 못해 11주년인 올해 오게 되었다고. 미연방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부인 양인주 (미국명 박인주) 여사와 아들 박봉수 (Chris Park), 딸 박 제니퍼 (Jennifer Park) 등 한 가족이 고국방문을 밟은 것이다.

USTU (미국태권도협회) 「후로리다」주 부회장이기도 한 박사범은 모국방문을 기억하기 위해 아들의 승품심사를 보고 출국하겠다고 해 자상함을 보이기도 했다.

제3회 월드컵 게임 개최지 확정

지난 2월24일에 서독 「칼스루에」에서 열린 월드컵 게임 집행 위원회에서는 오는 89년의 제 3회 월드컵 게임을 「칼스루에」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김운용 회장이 주최한 동(同) 회의에서는 프로그램 종목으로 태권도를 비롯, 총22개 종목을 실시키로 했다.

제 1회 월드컵 게임은 1981년 미국 「샌타-클라라」에서, 제 2회 월드컵 게임은 1985년 「런던」에서 각각 개최된 바 있다.

(GAISF (국제경기연맹연합회) 뉴스中에서)

美 오하이오주

「태권도의 날」 제정

「美 오하이오 태권도의 날」이 새로 제정됐다.全美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개최되는 기간을 맞춰 86년 4월 4일과 5일로 정해졌으며, 이는 사실은 지난 3월 13일 「리처드 셀레스트」 오하이오 주지사에게 공포되었다.

선언 내용을 여기에 소개한다. 『태권도는 일찌기 지적, 도덕적 균형형을 위한 육체적 단련의 유익함을 이해하고, 이와 같은 이상 아래 다양한 표현을 가져다 준 유구한 역사에 빛나는 인간정신의 표현 방법입니다.

또한, 태권도는 88년 서울올림픽 대회의 시범 경기 종목으로 채택되었으며, 美 올림픽 위원회에서 「A급 종목」으로 승인되었습니다.

1986년 4월 2일부터 5일까지 데이톤 컨벤션 센터 (Dayton Convention Center)에서 열리는 유명한 전국 태권도 선수권 대회는 올림픽, 또는 다른 국제경기에 출전하기 위한 탁월한 미국대표선수 선발과정의 한 부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하이오 주지사인 본인은 86년 4월 4일과 5일을 「오하이오 태권도의 날」로 선언합니다.」

국기원



◆「태권도 타임즈」지 주선으로 국기원을 방문한 미 수련생들(下)과 격월간 「타임즈」지 표지(上)

재정비 다지는 「태권도 타임즈」誌, 美 태권도 수련생 종주국 방문 주선

격월간으로 발간되는 美 「태권도 타임즈」誌 주관으로 지난 6월 16일부터 22일까지 1주일간 태권도 수련생 1백 20명, 학부모 18명, 사범 5명 등 총 1백43명이 우리 나라를 방문했다.

이 방문단은 「힐튼 호텔」에 여장을 풀고 국기원을 비롯, 경희대, 유도대학 등을 방문하고 우이동 도선사에 들러 동양무술의 진수인 단천호흡, 선(禪) 등을 새롭게 익혔다.

미국 내에 「태권도 타임즈」誌가 창간되기까지 산파역을 한 김정은 사범은 2년간 고군분투하며 기반을 닦아왔다. 혼자 힘으로는 어렵다

고 판단한 김사범은 우선 뜻 있는 사범들과 규합한 뒤, 지난 80년 4월에 창간호를 발간, 현재는 격월간에 발행부수 10~11만부를 상회하는 세계적인 잡지로 성장하였다.

미국의 도서관에 대행업체의 하나인 「케이블 뉴스사(Cable News Co.)」를 통하여 65개국에 보급되고 있다고 정우진 부회장은 그 현황을 밝혔다.

정부회장은 또한 체제를 강화, 안양박사를 회장으로 추대하고 발행인을 김정은 사범으로, 편집 책임을 심상규·이정남 사범 등에게 맡겼으며 기자 5명이 취재 일선에서 뛰

고 있다. 「이제는 2년간 전봉을 이어온 美 「블랙 벨트」誌를 6년만에 창간가랑 따라 왔으니 앞으로 2~3년 노력을 기울이면 「블랙 벨트」誌와 대등한 위치에 서지 않겠는가.」고 자신있는 웃음을 짓는다.

당우진 부회장은 지난 71년 출국, 태권도 사범으로 출발하여 「이제는 헬스클럽을 세 곳이나 운영하는 사업가로 대성했으며, 김정은 사범 또한 71년 출국한 이래 도장 운영은 물론 잡지에도 진력하여 캐도에 올라 있다. 또한 이정남 사범은 1천여평 규모의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동시에 「타임즈」 편집을 맡고 있다.

일본인이 운영하는 「가라데」잡지인 「블랙 벨트」의 방해로 고전했을 당시를 회상하며 「더욱 분발하고 정진하여 「블랙 벨트」를 능가하는 세계적인 잡지로 전환시키겠다」고 말하는 모습에 믿음과 의지가 역력했다.



방영권 계약체결

- '88서울올림픽대회 -

SLOOC와 I.O.C 측은 미국 N.B.C와 계약을 통해 이번 88년 서울에서 거행하는 제24회 올림픽 대회와 관련된 미국지역의 방영권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스위스 로잔」에 있는 I.O.C본부에서 진행 되었는데, 체결 장소에는 I.O.C위원장, Comte de Beaumont 재정위원장, 그리고 I.O.C를 대신하여 협상을 진행시킨 Richard Po-und 집행위원이 참석하였다.

SLOOC측에서는 김운용 부위원장, son 스포츠 위원장이 각각 대표로 참석하였다.



◆NBC 대표, IOC 재정위원장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김운용회장

서울특별시험회



전무이사 송 봉 십

제5회 서울특별시 시장기대회 및 제6회 전국체전서울대표선발대회

서울특별시 태권도협회는 제5회 서울특별시 시장기 대회 및 제6회 전국체전 서울대표 선발전대회를 지난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거행했다. 국민학교부 163명, 중학교부 211명, 고등학교부 261명, 대하부 35명, 일반부 30명 등 700여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그 어느 대회보다도 관심과 흥미가 컸던 경기

였다.

본 대회를 마친 후 서울시체육회는 각 부별로 우수선수 2명을 선발, 8명의 선수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선수들에 대한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장학금 지급 내역

성명	학년	학 교	장학금
천 창 영	6	교동국민학교	20만원
김 봉 석	6	개포국민학교	20만원
신 성 수	2	한영중학교	25만원
이 경 철	3	동성중학교	25만원
이 중 현	3	상동고등학교	30만원
김 동 옥	3	서울체육고교	30만원
전 용 환	4	성균관대학교	40만원
박 해 영	2	한국체육대학	40만원

제6회 서울특별시 초·중·고 개인선수권 대회

서울시 태권도 협회는 1986년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국기원에서 초·중·고 개인 선수권 대회를 거행

하였다.

국교부 45개교에서 171명, 중등부 73개교에서 280명, 고등부 40개교에서 125명 등 총 576명이 참가한 본 대회는 86년을 태권도 가족 모두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해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듯 경기장에서는 질서가 정착되었고 공정한 판정을 위해 심판원이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 등 태권도 발전을 위해 정진하는 모습이 역력하였다.

대회장인 분회 엄운규 회장은 개회식에서 '86아시안 게임에서 태권도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길은 곧 지도자들이 화합 단결하는 길이 라고 강조하고, 태권도의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개발 노력을 촉구 하였다.

또한 본 협회에서는 제5회 대회의 각부 우승자들을 제6회 전국체전 서울대표 선수로 선정, 선수와 코치 전원이 합숙훈련에 임하도록 배려했다.



◆「집행부를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시켜 아마투어 단체로서의 사명감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하는 부산시협회 회장단.

부산직할시대권도협회

- 기대되는 집행부 활동 -

부산시 태권도협회에서는 지난 85년 7월 16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 권오현(權五賢) 체육회 부회장을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권회장은 신문사 기자 재직시 태권도 사범들과의 유대가 깊밀하였을 뿐 아니라 도(道)의 측면에서 태권도의 매력을 느껴 현재 회장의 중책을 맡게 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7월 26일 거행한 취임식에서 권회장은 「체육회 부회장으로서 태권도협회가 사고단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가슴 아프게 생각했다」, 그

리고 「새 출발을 하는 시점에서 회장의 중책을 맡게되니 책임감 만이 나의 앞에 선다」고 소신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집행부를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시켜서 아마투어 단체로서의 사명감을 다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훌륭한 단체를 만들기 위한 태권도인의 협조와 편달을 잊지 않고 당부하였다.

한편, 대의원총회에서는 집행부를 회장에게 위임하여 구성하였다. 85년 7월부터 권오현회장을 정점

으로 협회의 내실을 다지고 태권도인들이 단합을 위해 노력한 결과, 84년도 전국체전 11위에서 당당 5위로 부상하는 등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하였고 올 86년 또한 3~4위를 목표로 전 임원이 합심, 정진하고 있다.

본 협회에서는 현재를 심기일전의 기회로 삼고자 85년 11월21일부터 23일까지 부산 구덕 운동장에서 2급 12명, 3급 122명이 참가하여 심판강습회 및 보수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중앙협회에서는 황춘성 전무이사, 권경옥 기술심의회 의장, 김용희 사무국장, 안영택 심판위원장, 김대연 심판분과 부위원장 등이 강사로 파견되었었다.

부산시협회의 집행부 구성은 다음과 같다.



회 장
권 오 현



부 회 장
최 용 수



부 회 장
김 입 시



부 회 장
도 증 이



부 회 장
이 재 태



전 무 이사
이 근 우



총 무 이사
최 정 권

職 位	姓 名	所 屬 및 職 位	TEL
會 長	權五賢	부산산도시가스회 장	事623-9886 自204-6155
副 會 長	崔龍洙	대아케미칼공업 總대표이사	事 93-1771 自 29-3553
"	金立時	대 성 건 설 總전무이사	事 98-0181 自553-4988
"	李載泰	대 경 남 유 지대표이사	事462-8834 自332-1434
"	鄒鍾伊	대도고속운수 總 회 장	事804-5008 自 92-0945
專務理事	李埴雨	전 일 체 육 관 관 장	事802-2768 自802-0687
總務理事	崔貞權	웅일천무체육관 관 장	事 22-6000 自463-3663
理 事	金祐圭	동아대학교태권도 감 독	事 29-6111 自204-6418
"	金成根	동래종합체육관 관 장	事 53-3342 自 56-6080
"	金健一	초 원 화 원 대 표	事 22-8541 自 23-1403
"	王武昌	남성여자고등학교 교 사	事 44-7967 自 25-0884
"	鄭寅容	부산직할시체육회사무차장	事462-9874 自 28-2305
"	全禎求	동림정밀상사 소 장	事 88-6982 自 87-8059
"	盧台培	복구생약공관장 장 장	事332-6893 自332-0258
"	具宰聲	總진 주 화 학전무이사	事 92-3090 自 93-3097
"	洪應杓	總원 건 업 대 표	事462-2970 自 28-5780
"	尹炳甲	삼 보 아 민 감 사	事 27-0182 自 28-6574
"	申奉雨	성 원 화 학 대 표	事805-9995 自753-6776
"	金相泰	삼 덕 수 산 대 표	事242-5112 自242-5111
"	金且鎭	대 기 섬 유 대 표	事864-5556 自203-2378
監 事	金一熙	동명공업고등학교 교 장	事624-9971 自623-5445
"	金華浩	괴 정 체 육 관 관 장	事202-5871 自202-5871



◆85년 42·3급 심판강습회 및 보수교육(85.11.21~23. 부산구덕운동장)

이대규회장



부회장
조현일



부회장
홍석용



부회장
허재봉



이사
안승환



이사
문철동



이사
허옥중



이사
서영호

86년 3월 20일 경남협회 회장에 취임한 이래 전국 소년체육 대회를 주관하는 등 경남 태권도의 사명탑 역할을 해온 이대규 회장.

건광기계공업사를 운영하는 기업인이기도 한 이대규 회장은 김선규 전무이사의 권유로 회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다고 회고한다. 이회장은 고교시절에 태권도를 배웠었고 대학재학 시절에는 태권도를 하는 친구들과 친하게 사귀면서 태권도를 더욱 가까이에서 이해하게 되었다.

이회장은 태권도 세계화에 부응함은 물론, 출생지인 마산 태권도 발전이 더욱 시급한 일로써 받아들여진다면서 경남협회 태권도 발전이 곧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최대의 봉사정신으로 일하겠다곤 굳은 소견을 밝혔다.

구체적인 계획을 묻자, 이회장은 우선해야 될 일은 이사회및 임원들과 협의하여 태권도 전반에 걸쳐필요한 사업을 찾아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1. 선수들의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해 기술향상으로 전국 하위권으로부터의 탈피를 이루며,
2. 일선사범들의 필수 교양 강좌를 개최하여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향상할 것을 강조했다.

경남협회는 이도제(대륙산업대표) 회장과 이순달 회장이 3년으로 임기를 마쳐 명예퇴진 한 후 협회 고문으로 추대돼, 그 후 더욱 더 협회 일에 협조하여 전직 회장단이 이끌고 밀어주는 역할을 충분히 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조성, 인화단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회장은 취임후 임원개편 없이 제정담당 부회장 3명(조현일/서경섭유대표, 허재봉/거제의원원장, 홍석용/덕성수산대표)을 보선하고, 재정이사 문철동(샘벚학원원장), 허옥중(어정궁대표), 안승환(아동복대표), 서영호(창도제지사무이사)씨등을 선임하여 제정을 확보하는 등 협회운영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김선규(코카콜라마산소장)전무이사는 신임회장을 정점으로 뭉친 경남협회의 힘을 전태권도인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겠다고, 행정체제 신속과 선수육성, 일선도장 교육 등의 면에서 적극적으로 심부름을 하겠다고.....

소년체전 주관으로 모였던 힘이 계속 발휘되어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이번 포상은 85년 월드컵 및 세계대회의 유공자에게 수여되었다.

'85년 국제대회 유공자 포상

- 총 1백 11명에 -

1985년 한 해 동안 각종 국제대회에서 입상하거나 이를 유지하는데 공로가 큰 선수 및 임원들에 대한 포상 수여식이 지난 6월 2일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개최되었다.

85 월드컵 (8월 개최) 및 세계대회 (9월 개최)에서 성과를 높인 태권도인들을 위해 행해진 이번 포상수여는 체육포장 이상의 수상 대상으로 한정된 가운데 총 1백 11명이 그 영예를 안았다.

한편, 수여식 종료 후 포상자 가족, 배석자, 그 밖의 관계자를 한 자리에 초청, 다과회를 베풀었다. 포상을 수여받은 선수 및 임원진 명단은 다음과 같다.

월드게임 포상자 명단

대회 및 소속	직위	성명	훈격포장의종류
제 2회 월드컵태권도선수권대회	선수	김영주	체육훈장기린장
제 2회 월드컵태권도선수권대회	선수	인해진	체육훈장기린장
제 2회 월드컵태권도선수권대회	선수	홍중만	체육훈장기린장
제 2회 월드컵태권도선수권대회	선수	정승환	체육훈장기린장
제 2회 월드컵태권도선수권대회	선수	이제환	체육훈장기린장
제 2회 월드컵태권도선수권대회	단장	황춘성	체육포장
제 2회 월드컵태권도선수권대회	감독	권경옥	체육포장
제 2회 월드컵태권도선수권대회	코치	유형환	체육포장
표창			
제 2회 월드컵태권도선수권대회	트레이너	진중수	대통령표창
제 2회 월드컵태권도선수권대회	선수	이준명	대통령표창
제 2회 월드컵태권도선수권대회	선수	문중국	대통령표창

세계대회 포상자 명단

대회	직위	성명	훈격포장의종류
제 7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선수	이선장	체육훈장장려상장
제 7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선수	김영식	체육훈장장려상장
제 7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선수	유명식	체육훈장장려상장
제 7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선수	박봉권	체육훈장장려상장
제 7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단장	황경로	체육훈장장려상장
제 7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감독	박현섭	체육훈장장려상장
제 7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코치	박현중	체육훈장장려상장
제 7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트레이너	김세혁	체육훈장장려상장
제 7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선수	강승우	체육훈장장려상장
표창			
제 7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선수	한재구	대통령표창
제 7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선수	정국현	대통령표창
제 7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선수	이동준	대통령표창
제 7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임원	노우중	대통령표창
제 7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임원	이봉	체육부장관표창

제4기 지도자교육 2급과정실시

국기원 아카데미 연수원에서는 지난 3월17일부터 4월 4일까지 19일간 지도자 2급과정 교육을 실시하였다. 4단이상 자로서 3급 지도자 교육을 이수한 사범 100명이 참가한 이 교육에서는 국사, 국민윤리, 영어, 특강, 의식개혁, 체육사회학개론, 운동생리 기초, 체육심리학개론, 생체역학기초, 체력측정 및 평가,

트레이닝원리, 스포츠 맛사지, 수기법, 단전호흡법, 논문지도, 실기지도 등 16개의 교과 과목을 128시간에 걸쳐 이수하고, 체육부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국가가 인정하는 2급 코치의 자격을 얻게 된다.

5월 3일 실시된 수료식에서 우등상은 강훈기(체육부장관상), 김두희(대한체육회장상), 이종호(연수원장상) 사범 등이 수상했고 모범상은 고철성, 최준환 사범이 차지해 연수원장상을 안았다.

수료자 91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백남진 · 이동필 · 김영국 · 안홍기
김장현 · 안정규 · 윤성모 · 윤명길
김동섭 · 정송인 · 이재설 · 김종설
임택중 · 임현장 · 김광일 · 김교환

이상민 · 최원범 · 박종만 · 김동진
정무신 · 이영수 · 김준배 · 김윤호
윤익암 · 전일수 · 이광규 · 윤성기
진용수 · 김병숙 · 김기상 · 김기만
안해옥 · 남병우 · 소정섭 · 박석암
이병관 · 안형준 · 김영식 · 이호열
음노용 · 안용근 · 이광표 · 송기화
조성건 · 정상호 · 정준호 · 우명열
조성진 · 유세종 · 윤호열 · 이계승
한상진 · 정일환 · 양희종 · 김재화
이재성 · 유진형 · 박경호 · 김복수
김 호 · 임동균 · 조명호 · 변영환
정 찬 · 유수용 · 이영근 · 최준환
이충근 · 강훈기 · 홍구식 · 손영호
이명형 · 정복교 · 김형원 · 강진원
이명철 · 임영택 · 정진우 · 임광수
김영관 · 박선양 · 김두희 · 이종호
고철성 · 서철호 · 박인권 · 임관인
장원익 · 조병일 · 박창식



제 4 기 태권도지도자 2급 연수과정 수료기념
1986. 5. 3

국기원 아카데미 연수원에서는, 제 50기 태권도 3급 지도자 교육을 86년 5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다. 28개 교과목에 70시간의 강의로 진행된 이 교육에는 129명이 교육에 참가하였으나 19명이 탈락하고 110명이 합격하였다.

수료식에서 우등상은 민연기, 이태교, 김승근, 한총구, 김종관, 이순영 사범이 수상하였고 임한성, 오장규 사범이 표창장을 받았다.

수료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성진 · 조성시 · 이승언 · 권오진
김기섭 · 신종원 · 권보석 · 이장섭
김순걸 · 박의건 · 홍성권 · 유준영
김진욱 · 한두수 · 조선래 · 기기호
김기만 · 권영내 · 김용재 · 진종삼
박종태 · 김영식 · 황정길 · 송종만
이인환 · 박은필 · 양만홍 · 강두광
이태희 · 박종부 · 박태현 · 최두혁
김창식 · 한수석 · 김승근 · 이인재

이재환 · 김형수 · 김종관 · 이성호
서인수 · 민연기 · 박삼길 · 이순영
오장규 · 오연수 · 백운기 · 김동수
안재연 · 정중래 · 김유걸 · 고충성
남승일 · 황도식 · 박종만 · 남승호
최철성 · 이해준 · 정연욱 · 박효원
임교룡 · 정영길 · 박수용 · 전태조
이덕주 · 이동진 · 김윤호 · 이태교
이주근 · 전영주 · 임한조 · 정기인
조현도 · 한총구 · 이현조 · 김동화
백창학 · 이덕수 · 김판희 · 김정완
김원용 · 곽윤길 · 김용성 · 최호성
임한성 · 김승근 · 김민근 · 김영권
박행용 · 이재갑 · 김준수 · 김석현
황충현 · 양근영 · 최기술 · 김영식
이성식 · 김근수 · 홍재훈 · 최진영
우종필 · 배병기 · 성갑용 · 강은수
정계동 · 문점훈 · 이해권 · 정용산
이용우 · 임창배

제50기 지도자교육 3급과정실시



제50기 지도자교육 입교기념 1986. 5. 6



◀ 선수생활을 마친 후 스포츠 행정가로서의 자질을 키워나가는 합의 새삼 강조되는 시점이다.



선수, 임원 해단식

- 제 7회 아시아선수권대회 -

● 때 : 1986. 5. 3. 12:00

● 곳 : 국기원

제 7회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여 7연패의 위업을 달성한 남자 선수단과 첫 해외원정경기를 가졌던 여자 선수단의 합동해단식이 국기원에서 개최되었다.

해단식 후 「만보장」(중국음식점)에서 김운용 회장이 배운 오찬에는 이상주 아시아연맹회장, 이종우 새계연맹 부총재, 홍중수 부원장을 비롯, 본회 임운규 부회장과 전임원, 각 신문사 기자 등 40여 명이 자리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운용 회장은 선수단의 노고를 치하하고,

1. 태권도 경기하기에 편한 용구개발의 시급성을 제시하고 수영복의 "에"를 들며 간편하고 편리한 용구개발을 강조하였고,

2. 중추국의 책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에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야 하며,

3. 도장에서 건강을 위한 평생수련의 태권도 수련의 중요성도 스포츠 경기 태권도와 병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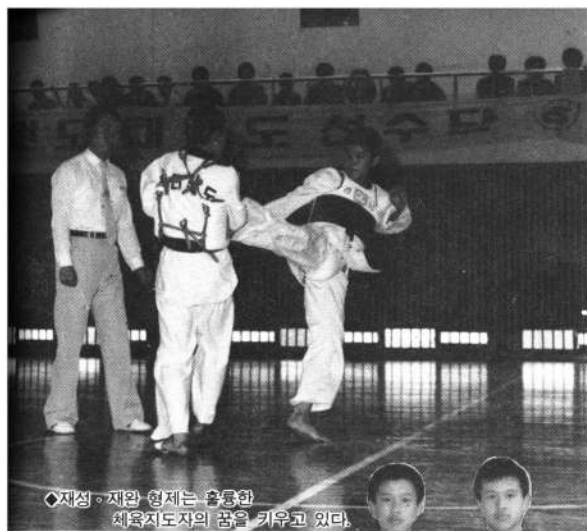
그리고 태권도 선수들은 선수 생활을 마친 후에도 스포츠 행정가로서의 자질을 키워 장차 이 나라 스포츠계의 중심인물이 되어야 한다고 피력하고, 올림픽현장과 같이

태권도도 현장에 준한 철학을 정립하여야 하겠으며, 아시안 게임전에 학술 대회를 실시하여 태권도의 학문적 체계를 다지고 사건 전시회도 개최함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피력하였다.

특히 여성 태권도 8개 팀이 88서울 올림픽에 시범 종목으로 채택되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여자선수단을 격려했다.



◀ 올림픽 현장과 같이 태권도도 현장에 준한 철학을 정립할 과제를 안고있다.



◆재성·재완 형제는 훌륭한 체육지도자의 꿈을 키우고 있다.

소년체전에서 금메달, 은메달로 나란히 입상을 한 쌍둥이 형제가 있어 주목을 끌었다.

라이트 웰터급의 형 박재성(금메달)과 라이트급의 동생 박재완(은메달)이 그들이다. 두 선수는 71년 3월 9일생으로 1시간 차의 쌍둥이 형제.

부친 박기태(외항선기관장) 씨와 모친 김달연 여사의 2남2녀중의 두 아들은 모두 7살 때 태권도를 시작, 10년간 태권도 수련을 한 고참들이다.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부산에서 실시한 태권왕 겨루기 대회, 교육감기 타기 대회, 시장기 대회 등에서 우승을 하는 등 태권도 선수로서의 재질을 마음껏 보여왔다.

현재 부산 영남중학교 3학년에서 재학중인 형 재성군과 해동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동생 재완군은 소년체전 합숙훈련 때에도 같이 운동을 하였고 평소에는 각 학교에서 따로 운동을 한다.

제일 어려웠던 경기를 묻자, 형



쌍둥이 형제 나란히 입상

재성군은 두 번째 대전한 경기도의 나병수 선수를 꺾었다. 상대가 같은 원발괘이 선수라서... 또 결승에서는 전북의 정용진 선수가 앞발 썰트발을 자주 사용해서 무척 애를 먹었다며 환하게 웃는다.

코치 박창용 사범은 「재성군을중 1 때부터 지도했고, 동생 재완군은 소년체전 합숙훈련 지도를 했다」며, 「두 형제는 차분하면서도 늘 명량해 합숙시 훈련단 분위기가 좋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협동심이 강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어머니 김달연 여사는 「우선 태권도를 통해 건강하게 자라주고 고맙다」고 전제하고 부모가 자식을 키우고 싶은대로만 키울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스스로 하겠다고 태권도를 열심히 하는 걸 보니 대견스럽다고 말해 열심히 뒷바라지 하는 어머니의 자상함을 엿볼 수 있었다.

고교 진학 후에도 태권도 수련을 계속할은 물론 훌륭한 체육 지도자가 되기 위해 공부도 열심히 하겠다는 두 형제. 부산 태권도의 싱싱한 꽃봉오리를 보듯 태권도인 모두가 대견스럽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소년체전에서 금·은으로 나란히 입상한 재성·재완군과 어머니.

한영체육관 북해도지부와 자매결연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소재)



시안 게임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국제교류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86년 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15년의 역사를 가진 한영체육관(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소재)은 개인 도장으로서의 국내 최초로 기술 교류를 위해 일본북해도지부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현재 일본태권도 북해도지부장으로 있는 佐野公彦은 지난 85년 10월 대한 태권도협회를 방문, 한국의 역사있는 도경추천을 의뢰한 결과

서울시협회 추천으로 한영체육관과의 자매결연 의사를 표했다.

태권도를 얼마나 아는가 하는 질문에 佐野公彦지부장은 『日本은 가라데의 본고장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가라데를 해왔으나 삿보로 영사한 분이 태권도를 하는 것을 보고 매력을 느꼈고, 또 부인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에 자주 와서 볼 기회가 있었다』고 자신하면서 『특

히 86아시안 게임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것에 더욱 관심을 갖고 삿보로에 태권도를 보급할 것을 결심했다』고 굳은 의지를 표현했다.

그 후 북해도 의회 의원인 木本由孝씨를 단장으로 하여 삿보로시 의원인 八田信之씨를 부단장, 佐野公彦 지부장 및 임원 13명 등 모두 16명이 내한하여 여장을 풀고 다음 날 간부 3명을 수행하여 서울시 태권도협회 임운규 회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임회장은 『태권도의 불모지인 삿보로에 태권도를 보급하는 데 있어 우리측에서 신경써야 하는데 이렇게 직접 방문한 것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앞으로 태권도 보급에 언제라도 최선을 다하여 협조하겠다』고 격려하며 방문기념 배지와 페난트를 증정했다.

그 후 전임원 16명은 한영체육관을 방문했는데, 이곳에서는 15년 전부터 배워 온 단원들의 수련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었다.

이를 지켜 본 단장 및 지부장은 日本가라데와 비슷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태권도사범을 일본에 초청하여 태권도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곧 시범단 초청을 하겠다는 예정을 세우고 6일 오전 11시 출국했다.

「남아메리카 게임」에 정식종목 채택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회의에서

지난 주 서울에서 개최된 제 5 차 세계 올림픽 연합회 (ANOC) 분과위원회 중의 하나인 남미지역 13개국 국가올림픽 위원회 (NOC) 대표회의에서 「남아메리카 게임」에 태권도를 정식 경기 종목으로 채택하도록 결정된 사실이 남아메리카 게임 회장

이며, 알켄틴 국가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인 안토니오 로드리구즈 (Antonio Rodriguez) 씨로부터 세계태권도 연맹 김운용 총재에게로 전해왔다.

동(同) 「남아메리카 게임」은 브라질, 파라과이, 우르과이, 알켄틴, 칠

레, 볼리비아, 페루, 에쿠아도르, 콜롬비아, 수리남, 베네주엘라, 파나마, 가이아나 등 13개국이 회원국으로 되어 있으며, 이번 대회는 오는 86년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무리」 창간

연세대 태권도부 회보

연세대학교의 교육이념은 기독교 정신에서 출발하여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광범정치한 응용 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공헌할 지도적 인격을 도야함을 목적으로 삼는다.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교육의 구현으로써 「진리와 자유」를 교훈으로 세워 모든 교육의 목적과 방침을 국가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에 두고 항상 이상과 현실을 직시하는 독수리를 표상으로 미래를 향하여 정진하고 있다.

30여 년을 연세의 역사와 같이한 태권도부는 언제나 승리 (Victory)



를 추구하며 정당하게 최선을 다해 싸워 승리를 쟁취하는 것을 기본 자세로, 육체적 싸움에서, 공부에서, 또 사람에서도 결코 승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오늘도 열심히 심신을 연마하고 있다.

또한, 부훈을 『완성된 신체, 영민

한 지성, 굳건한 우애』로 설정, 전 부원은 물론 선후배의 유대를 공고히 하며 대학 태권도 발전에 선구자가 되고자 정진을 하고 있다.

연세의 상징은 독수리이다. 기쁨이 시리도록 푸른 하늘을 비상하며, 이상을 추구하는 독수리의 멋진 모습은 언제나 젊은 연세인의 가슴을 설레이게 한다.

독수리는 언제나 하늘에 머물러 있지 않고 땅으로 돌아온다. 즉 이상에 파묻혀 하늘 저편으로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현실을 직시하고 언젠가는 현실로 돌아오는 바람직한 지성인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태권도인에게는 독수리의 그 날씬 동작이 또 다른 의미를 주고 있다.

조국 대한민국을 알리기 위한 교육으로 승패를 의식하지 않고 출전시켰다고 말하며 재일동포 2~3세의 한국관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재일동포

김정수 (헤비급) 선수 함명진 (미들급)

제15회 소년체육대회에 日本정천궁원중학교에 다니는 재일동포의 태권도 선수단이 한종관 코치와 같이 경기에 참가하였다.

부형으로 같이 참가한 김정수 선수의 할아버지 김정옥(金晶玉)씨는 손자에게 조국 대한민국을 알리기 위한 교육으로 승패를 의식하지 않고 출전시켰다고 말하며 재일동포 2~3세의 한국관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 안타까움을 표시하였다.

제주도 해상호텔 경영주이자 재단법인 성균관 유도회(儒道會)司儀委員長이며, 일본 대판에서 丸榮衣料株式会社를 경영하는 김정옥씨의 愛國心은 개인주의가 극대화된 현실에서 머리숙여 지는 일이다.

소년체전에 참가한 두 선수의 성격은 그리 좋지 않으나 계속 참가하여 조국에 대한 사랑을 배우도록 하겠다는 할아버지의 뜻에 부응하는 손자로 성장하기를 기대해 본다.



◀ 왼쪽부터 함명진, 코치의 김정수, 함명진선수, 김정수의 조부.

진리의 샘



이
세상은
모두
무대(舞臺)요,
모든
남녀는
배우에
지나지
않는다.

셰익스피어

수 십편의 희곡을 쓴 셰익스피어다운 말이다. 그는 세상을 연극의 무대에 비유했고, 개인을 무대에서 연극을 하는 배우에 비유했다.

그러나, 인생과 연극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인생은 되풀이나 연습이 없기 때문이다.

연극은 잘못하면 몇 번이라도 되풀이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생에는 준비와 연습이 불가능하다. 모두가 일회적(一回的)이다. 그날 그날이 한 번 뿐이다.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다시 살아 볼 수는 없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엄숙성(嚴肅性)과 심각성(深刻性)을 만난다. 연극은 하나의 허구(虛構)다. 그러나 인생은 결코 허구가 아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각자 어떤 역할(役割)을 맡는다. 주역(主役)을 맡는 이도 있고 조역(助役)을 맡는 이도 있다. 어려운 역을 맡는 이도 있고 쉬운 역을 맡는 이도 있다. 연극에서는 마음대로 역을 바꿀 수가 있다. 어제는 왕자(王子)의 역할을 하고 오늘은 거지의 역을 맡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연극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역을 바꿀 수가 없다. 좋고 싫음의 여부로 인생을 선택할 수는 없는 것이다. 힘들어도 감당해야 되고 괴로워도 견디어야 한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자기가 맡은 역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나의 정성을 다하고 나의 능력을 다하여 내가 맡은 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이다. 불평을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비겁한 배우가 되지 말고, 용감한 배우가 되는 것이다.

서투르게 하지 말고 훌륭하게 하는 것이다.

인생의 명배우(名俳優)가 되는 것이다.

명연기(名演技)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 완산고등학교 1학년 전교생 태권도시연

완산고등학교

校技를 태권도로

전주 완산고등학교
전주시 평화동 1가480번지



교장/임병식



지도교사/김범원

발자취

- 1980. 3.
 - 태권도 전교생 교기화
 - 1학년 8~1 (풍세)
 - 2학년 유급자
 - 활동시간: 특별활동시간
- 1985. 3.
 - 선수창단(1, 2, 3차선발) 10명선발
 - 주요실적은 전북대회에서 3~4회 종합우승.
 - 1. 지사배 2. 회장기
 - 3. 교육감배 4. 전국체전 3명선발
 - 선수육성: 이영기사범
 - 학생지도: 점금수관장
 -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자신감의 고취.

완산 고등학교는 창학이념을 조국과 민족에 이바지하는 동량의 육성으로 설정하고 큰 사명감을 가지고 육성하며 명실상부한 진리의 전

당으로 오늘의 반석위에 섰다. 완산 고등학교에 병설된 완산 중학교와 완산 여자 상업 고등학교의 학생수를 합하면 4,500여 명이 되며 이들이 지르는 함성은 우렁차고 씩씩하여 이들의 앞날에 펼쳐질 내일의 조국에 대한 소망스런 기대감으로 우리들 가슴은 꿈에 부른다.

학교 생활목표는 「창의, 성실, 협동」이며, 완산 고등학교 학원이 꿈꾸는 인간상은 긍정적인 삶의 태도로 생산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과 타인에게 성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임병식 교장 선생님은 모든 준거 집단을 육성하며 특히 전인 교육이야말로 참다운 교육 입국의 청경임을 피력하면서 「지·정·의」 교육에 중점을 두고 학교 운영에 임하고 있다. 대 상아탑다운 풍모를 완산 평원에 세워 24개학급, 1500명 건학이 달고 학문을 연마하며 교직원 60여명과 더불어 기계높은 밝은 미래에 찬가를 부른다.

완산의 태권도는 학교의 교기로써 특별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개인 건강과 체력육성에 기여



◆ 코치/이영기·선수/9명과함께◆

하며 학생들은 태권도를 통하여 남
아의 기개와 우리 나라 고유전통무
술을 배우려 수련하는 데 큰 자부
심과 용기를 가지고 임하고 있다.
더욱 태권도의 중요성을 알고 1, 2
학년 1000여 명 전 학생을 유급자
로 만들기 위해 수련을 하며, 1학
년 때는 1~8장 물세를 완전히 배
우며 2학년 때는 겨루기와 방어, 공
격 등 응용기술을 수련한다.

지도교사 김범원 선생님과 정금
수 전주 풍남체육관 관장께서 학생
들의 기능 발달을 위해 힘써주고
계신다. 이에 따라서 85학년도에는
태권도부를 창단하여 선수들을 1,
2, 3차 선발과정을 통하여 선수 10
명을 선발하였으며 특히 이영기 사
범은 선수들을 육성하는 데 직접참
여 하며 34년이라는 풍부한 경험을
지닌 정통 태권도인으로서 선수들
과 같이 기숙사 생활을 하며 아침
수련 시간에도 직접 참여한다.

오전 5시부터 7시 30분까지는 완
산철봉 등반에 함께 참여하고 또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학교 태권
도 도장에서 수련을 했는데, 그 결

과 전북권에서 3~4회 종합우승을
했으며 전국제전 선발에도 3명의
선수가 선발되었다.

태권도는 체력단련 외에 극기력,
인내심, 자신감 등을 배양할 수 있
어 오늘날 학생들이 빠지기쉬운 무
기력, 자기편의주의, 의타심 등을
극복하고 강인한 정신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운동으로서 86,88의 국
가 양대제전에 임하는 이 시점에서
완산의 거목적인 태권도 육성은 국

가 체육 시책에 일익을 담당할 것
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깊이 생각해 보면, 지도하지
는 두 분 선생님의 각고의 노력결
과 이제 완산 태권도부는 영광의 나
래를 펼쳐나갈 것이며 오늘도 과학
적이고 치밀하게 짜여진 훈련계획
운영의 청사진을 바라보며 태권도
를 통한 나라 사랑과 인류 복지에
기여하고자 마음을 새롭게 다듬어
본다.



◆ 태권도 선수들의 활동시간◆

체육관 운영에 이론과도 적극 활용



부산 수영체육관 관장
한 성 욱

1. 나의 길 태권도의 길

『글쎄, 내가 어떻게 해서 이 길을 걷게 되었을까?』

태권도를 향한 나의 한길 인생을 회상하는데 있어 새삼 노출시켜 보는 의문 중의 하나다.

아름다운 나는 튼나는 대로 내가 가고 있는 길에 대한 확신을 찾은 작업에 몰두할 만큼 진지함 속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소신있고 유능한 「나」를 귀중하게 선사할 수 있는 그 날을 위해 나는 하루도 게으른 나날을 보낼 수는 없었다. 아니, 보다 적극적으로는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고 자신할 수 없이 채찍질해 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나는 지금의 나의 길에 대해 한치의 후회도 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는 길도 많다.

우주만물이 그러하고 인간의 마음이 그러한데 어찌 사람의 길길이 다르지 않겠는가.

내가 도장에 들어가 사범 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한 것은 70년 6월, 당시 이채룡 관장이 운영하던 연산체육관에서였다. 나를 그곳 연산체육관으로 가게 해 주신 분은 당시 문현체육관의 박영수 관장님이었다. 박영수 관장님은 3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부일체육관 성백규 관장님의 가장 뛰어난 제자로 주목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

나는 독립한 날인 1980년 1월 2일 까지 10년의 세월을 변함없이 한 곳만을 지켜왔으며, 바로 그것이 오늘 결실을 맺게한 열쇠였다고 믿는다.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

과 노력으로 관원을 늘리고 알찬 지도를 하는데 결코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었다.

처음 3년 정도는 눈과 귀를 막고 지도했다고나 할까? 내가 처음으로 사범생활을 시작했으니 아무래도 수양이 더욱 필요하고 경륜을 쌓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우선 수련생활 꾸짖는 일부터 삼가했다. 꾸짖음도 매도 내가 지도자로서 훌륭한 능력이 있을 때 행해야 교육으로 연결되지 그렇지 못하면 역효과를 자아내기 때문이다.

그 길다면 긴 세월 동안의 그 많은 이야기를 어찌 이 지면에 다 담을 수 있겠는가.

새벽부 1명을 위해 새벽 5시에 집에서 나와, 혼자 있는 도장에 기름태우기가 아까와 몸뚱이로 열을 만들었던 기억 등 힘들었던 기억들이 유난히 많았던 것 같다.

정말 나처럼 일의 양이 많아 가슴의 통증을 느껴본 태권도 지도자가 있다면 진정 그 사람과 이야기라도 나뉘고 싶다. 신병이 주는 통증이 아닌 지극히 건강한 상태에서 지도에 몰두하다 느낀 통증을 말이다.

나는 항상 생각했다.

지도자는 열심히 하다 그 자리에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해내야 한다고.

이 말에는 조금도 꾸밈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해 둔다.

따라서 나의 열과 성은 관원 부모님들 사이에서 항상 화제의 대상이 되었고 결국은 부모님들의 태권도에 대한 인식도 변모되기 시작했다. 심지어 선전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더운 여름철은 물론 추운 겨울철에도 한달에 20~30명 이상이 새로 입관하는 등 그야말로 문전성

시를 이루었다.

관장님이 나를 일꾼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나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다.

이렇듯 회비가 수 없이 엇갈렸던 나의 사범생활 경험을 근래의 젊은 태권도 지도자들과 견주어 볼 때 지극히 애정어린 충고를 던지고 싶다.

요즘은 너무 쉽게 도장을 차리고 운영하는 새로운 관장들이 간혹 있는 것으로 안다. 오랜 경험에서 쌓아 올린 지도 철학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바람직한 무예를 창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고, 이 글이 그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재료가 될 수만 있다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있겠는가.

한 우물을 파라는 옛 말이 있듯이 나는 한 우물을 꿰으며, 그러기에 나는 물을 보았고 물을 얻었다. 이것이 젊은 태권도 지도자에게 주고 싶은 말이다.

뿐만 아니라, 나의 머리 속에는 항상 더 무엇을 갈망하게 되었고 보다 발전적인 지도와 운영에 획기적인 힘을 발휘할 수 없을까 하는 일념으로 가득차 있다.

그러한 취지에서 나는 일차적으로 이론과 교육을 설정하고 그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2. 이론과 교육의 동기와 필요성

80년에 접어들면서 이론과 교육에 심혈을 쏟았다. 그러나 막상 과도를 만들려고 보니 자료가 없었다. 태권도 품새 책 하나만을 들고 내가 뜻하는 이론과 교육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한계인가.

기존의 것들을 그대로 옮기는 작업만도 대단한데, 혼자 힘으로 자



료수집, 분류, 연구에서 제작까지 전담해야 했으니 말이다.

좀더 이론적인 체계를 세워주기 위해 과도를 많이 제작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것은 當爲다. 특히 태권도 지도자라면 모두가 가져야 할 자발적인 표현이어야 한다.

더욱 연구해야만 유능한 지도자 위치에 설 수 있고, 그레아만 수련생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다는 열의가 항상 나의 가슴 속에 불타고 있었다.

그런 신념만이 우리 사회에서 태권도 지도자들을 명실공히 「문무 겸비의 이상적 지도자」로 부상시킬 수 있다고 자신한다. 그런 반면, 이는 나의 지나친 기우랄 수도 있지 않을까?

나보다 애착과 보람을 함께 구가하며 살아가는 태권도 지도자 또한 많을테니까...

무엇보다도 미래의 태권도를 위해 묵묵히 일하는 자세와 노력하는 마음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나는 5년간에 걸쳐 각종 이론과 교육을 사무실이 꽉 차도록 만드는 데 주력했다. 완성된 많은 과도 속에 앉아 있

노라면, 말할 수 없이 포근함을 느끼고 아무리 바라보아도 결코 지루하지가 않다.

제작과정 중의 갖가지 고초가 함축되어 있기에 더욱 애착이 간다. 글씨를 잘써야하고 시각적으로 잘된 그림을 그려야만 배우는 사람의 시선과 흥미(의욕)를 끌 수 있고, 나아가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기에 쉬운 작업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나 혼자 힘으로 마쳤다는 사실에 특히 자부심과 보람을 만끽한다. 운동시간 중 시간을 쪼개어 만든 결실이기도 더욱 다...

3. 이론과 교육의 장점

1) 품새, 겨루기와 일상 수련과정에서의 컨테이너에서 새로운 의욕을 갖게 할 수 있다.

2) 지도자가 항상 연구에 몰두하고 의욕을 잃지 않게 된다.

3) 한 번 배운 것이라도 체계있게 반복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4) 입관 시 학부모의 인식을 새롭게 한다.

현장탐방

- 5) 관원 스스로 복습할 수 있다.
- 6) 오래 다녀 실기를 익힌 유단자에게 이론교육 주입을 확대시켜 보다 노력하게 한다.
- 7) 같은 내용이라도 크게 태도와 함으로써 교육적인 효과가 크며, 여러 명을 함께 교육시키는데 큰힘이 된다.

8) 각종 태도 내용을 필기시험에 의해 평가할 수 있다.

9) 감독기관인 교육구청과 관련 부모님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성의를 표할 수 있다.

10) 도강 환경정리에도 도움이 된다.

11) 바쁜 일정으로 직접 운동지도를 못하는 관장도 태도를 사용, 주 1~2회의 교육을 시킬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좋은 점을 분석, 열거해 보았다. 가령 내가 80%의 효과라고 있다면 다른 곳에서는 90의 효과도 그 이상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우리는 이제 교육과 운영에 티끌만큼이라도 효과 있는 일이 있다면, 과감히 실천해야 하리라 강조하고 싶다.

4. 이론태도의 종류와 주요 내용 소개.

① 태권도 이론(역사편) - 태권도 교본을 토대로 삼국시대부터 고려, 이조 정조 14년 이덕무의「무예도보통지」까지의 변천 과정을 설명하고, 해방 후의 태권도 보급실태와 40여 개의 관에서 9개 관으로의 정비와 관동합에 이르기까지의 각종태권도 대회 및 대한태권도협회,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에 관한「어제와 오늘」을 수록하였다.

② 태권도 이론(주먹 발 서기. 기



◆이미 제작된 태도는 교육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본편) - 우선 주먹의 종류 24가지를 그림과 함께 실고, 주먹 쥐는 법과 해당 공격부위를 설명했으며 발 다리의 부위의 명칭도 함께 수록했다.

덧붙여 「서기」의 종류와 설명, 기본 자세 등을 설명했다.

③ 태권도 이론(겨루기편) - 이단원은 품세편으로 하는 것이 좋겠으나 협회의 품세책이 있으므로 겨루기 편으로 바꿨다. 「겨루기」의 기본인 3보, 2보, 1보 겨루기와 겨루기 시의 주의사항 등을 수록했다.

④ 예의 규범 - 도장에서의 예의 규범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예의가 일단 몸에 배이게 되면 실불리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된다. 운동을 해서 힘이생기면 자칫 힘을 믿기 쉬운데, 그것을 자제하는 힘은 곧 예의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체육관 내에서의 예의와 도복 바로 입기 및 도복 관리법」에서 「천축간의 칭호」에 이르기까지 생활에 필요한 예의 규범을 사례별로 구분했다. 보다 구체적인 규범을 제공하고자 특별한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⑤ 스포츠역사 - 고대에서 현대까지 스포츠의 시대별 변천사를 제시하고, 스포츠 맨립과 각종 경기 대회를 소개했다.

⑥ 한국 스포츠사 - 삼국~고려~

조선시대에서 현대스포츠까지 마라톤과 함께 실고, 국내 주요대회의 역사와 경기종목 및 경기 운영을 설명했다. 특히 「한국 스포츠의 뿌리를 찾아서」를 기획, 주목을 끌었다.

⑦ 일반스포츠 상식백과 - 일반스포츠에 관한 상식과 건강, 전염병 및 예방 상식 등을 수록했다.

⑧ 올림픽 백과 - 「고대 올림픽의 발생과 근대 올림픽의 부활」 및 「스포츠 서울의 올림픽 3천년 신문 내용 모음집」 등 올림픽 전반의 상식이 열거되어 있다.

⑨ 경기규칙 - 대한태권도협회의 경기규칙을 그대로 태도화했다. 꼭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 관원도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주로 경고사항과 감점사항에 역점을 두었는데, 가능하다면 관원들로 하여금 암기하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⑩ 응급처치법 - 응급처치법은 전문분야의 병원이 가까우면 문제될 것이 없으나, 병원이 멀고 시간이 긴박할 때는 큰 효과를 본다. 전문가에게로의 자문이 허락된다면 좀더 광범위하게 제작할 수 있을 것이다.

⑪ 호신교본 - 각종 호신술을 그림과 함께 순서별로 제작했다. 그러나 사람의 동작을 그림으로 일일이 나타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12 **반공교육** — 반공교육은 항상 흥미있게 듣는 만큼 교육효과가 크다. 따라서 책도교육 외에 시청 공보실로부터 반공영화도 상영, 교육한다.

13 **영양학** — 요즘 입관 동기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밥을 잘 먹지 않아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식습관을 고쳐주려는 부모님들의 의도로 입관하는 것인데, 음식을 왜 먹어야 하며 어떤 음식에 어떤 영양소가 들어 있는지 인식시킬 필요가 있어 제작했다.

14 **생활지도** —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길로 치닫는 이 시점에서 생활지도 교육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모든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만 잘 지도한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듯, 모든 도장에서 관원 모두를 잘 지도해 나가면 적어도 태권도를 익힌 관원 만큼은 큰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으리라 기대하며 관심을 쏟았다.

크게 가정교육과 학교생활지도도 구분하여 정서교육, 인격형성, 장애회합 선택 교육의 필요성 등에 역점을 두었다.

15 **단련기구** — 도장에서의 단련기구 설치는 필연적이나 아쉬운 공간 여건으로 설치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보다 넓은 장소에서 내가 구상하고 있는 단련기구를 설치하면 하루에 3백 여명을 혼자서 충분히 지도할 수 있으리라.

단련 기구를 만드는 법에서 사용하는 법까지 상세한 설명을 이 단원에 실었다.

16 **청백리 교훈** — 청렴결백한 공직자 상은 밝고 바른 태권도 정신

과 일맥상통한다고 본다. 미래의 청렴한 공직자가 될 수련생에게 어릴 때부터 옛 조상들의 청렴한 정신을 심어주는 것도 뜻 있는 교육이 될 것이다.

- 좌의정 고불 맹사성
- 상우당 허충
- 三馬 태수 송흥
- 영의정 이준경
- 풍기 군수 윤석보
- 대사헌 기건
- 노극청과 현덕수
- 패의 기사 함유일
- 아은 길재

그 의 청렴한 공직자의 사례를 모아 청백리 교훈 책도를 크게 늘릴 계획이다.

5. 지도자의 마음가짐과 교육지침서

나의 도장 운영 경험을 통해 지도자로서의 행동 지침을 정리했다. 이론적으로는 누구나 아는 사항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실천하느냐 하는 문제일 것이다.

지도자로서의 올바른 국가관과 사명감 외에 몇 가지를 제시해놓았다.

- 사범이 관원에게 지켜야 할 기본 조건 (41가지)
- 사범이 관원 부모님께 지켜야 할 기본 요건 (21가지)
- 사범이 관장에게 지켜야 할 기본 요건 (6가지)
- 사범 자신이 행해야 할 기본요건 (13가지)
- 관장이 사범에게 지켜야 할 기본 요건 (5가지)
- 관원이 중단하는 이유 (15가지)
- 입관을 하게되는 이유 (12가지)
- 입관을 하지않는 이유 (18가지)

○선배가 후배에게 지켜야 할 기본 요건 (5가지)

○후배가 선배에게 지켜야 할 기본 요건 (5가지)

지도자와 수련생 간의 관계를 끊임없이 지속할 수 있는 내 고유의 철학을 가장 쉽게 표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도자」는 어제 잘 지도했기에 오늘도 잘 지도하고, 오늘도 잘 지도했기에 내일도 잘 지도할 것이다.

둘째, 「관원」은 어제 잘 배웠기에 오늘도 잘 배우고, 오늘도 잘 배웠기에 내일도 잘 배울 것이다.

누구든 노력만 한다면, 이만한 재도를 못 만들겠는가. 나는 이 기회를 통해서 전국 각지의 태권도지도자들 간에 숨어있을 지도방법을 개발, 교환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럼으로써 태권도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한 확고한 디딤돌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내가 제작한 이론책도와 도장 운영방침이 저 해운대 백사장의 수 많은 모래알 중 한 알의 가치밖에 없을 지언정 그것이 다른 분들의 도장 운영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기만 한다면 나는 기꺼이 이 순간에 만족할 것이다.

나에게 굳이 좌우명을 묻는다면,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 노력하는 마음가짐」, 바로 이것이다.

끝으로 나에게 소망이 있다면 「태권도 지도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과정 지침서」를 나름대로 만들어보고 싶은 것이다. 만일 그것이 꿈대로 만들어진다면 나의 체육관에 비치되어 태권도 지도자로서의 나의 인생을 더욱 빛내주게 되리라 확신한다.



◆지성체육관장 김경찬

국가대표의 산실

지성체육관

(도봉구미아 8 동소재)

지금까지 여러 체육관을 다녀 보았다. 외형적으로는 사무실 벽마다 상장, 메달 등 기념품이 즐비하고 내적으로는 한 가지 목표를 특정적으로 세우며 진실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보통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요즘은 체육관 운영방식이 차츰 변모되고 있음을 발견한다. 즉, 유단자를 하나 둘 탄생시키는 일에 주력한 종래의 본원적 범주에서 탈피하여 광범위한 대외활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그 새로운 활동이란 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경로잔치나 유치부 잔치등이 포함된다.

서울의 모처에, 앞서 말한 유능한 태권도인 배출과 대외활동을 병행 운영하고 있는 체육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문을 노크했다.

도봉구 미아 8동에 위치한 지성체육관. 국가대표 선수 3명을 배출했을 뿐 아니라, 미아 8동 일대의 노인들을 위해 경로잔치를 베푸는 등 통상적으로 운영되는 많은 체육관과 비교해 볼 때 다소 이색적이다. 박봉권선수(제 7회 세계대회우승,

86아시아 게임 대표), 김영주 선수(제 2회 월드컵 게임 우승, 제 7회 아시아대회 준우승), 양대승 선수(제 1회 월드컵대회 대표) 등이 김경찬 관장의 세심한 지도에 힘 입어 「국가대표」라는 정상에 도달한 얼굴들이다.

지성체육관을 소개하는 데 있어 기자는 크게 두 맥을 가를 수 있었다. 세 명의 국가대표 선수를 탄생시킨 「영광」과 그 영광을 나약한 노인들에게 베풀면서 또 다시 느끼는 「보람」으로...

『지금은 국가대표인 박봉권, 김영주, 양대승 선수가 선수부에 몸담으면서 피나는 훈련을 쏟아 영광의 자리로 돌아오기까지의 시간과 정열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것』이라고 김경찬 관장은 회고한다. 그들을 10여년전인 국민학교 시절부터 지도하면서 무엇보다도 「뿌리가 튼튼해야 큰 나무로 자란다」는 신념을 지켜나갔다고 자신한다.

예의 범절과 정신력 수련을 특히 중점 지도하면서도 체력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다



◆수련생 선수부의 어린시절

른 경기의 국가대표 훈련장을 찾아 다니며 태권도에 필요한 것을 도입하고 체육서적을 수 없이 뒤적이는 것이야말로 결실함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표현이 아닐까? 또한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동네에서도 사랑받는 체육관이 되고자 노력한 흔적은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우선 모든 일에 몸가짐을 조심하며 태권도인으로서의 자세를 흐트리지 않으며 동네 유지와의 유대를 위해 방위협의회, 청소년 선도위원회 등의 활동을 해 오고있다. 또한 수련생과 동네 어린이들의 경로 호친교육을 위해 매년 가을, 마을 경로잔치를 베풀어 가족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왔다. 뿐만 아니라 동네에 태권도의 새로운 인식을 심고, 나아가 각 지역의 태권도 저변확대를 위해 지난 80년부터 「충·호기쟁탈 우수지구 초청 태권대회」를 열고 지난 85년까지 6년간 유치부에서 대학, 일반부 전반에 걸쳐 열면 호응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국기원 등지에서 실시하는 대규모 대회에는 출전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역친선 대회를 통해 참여를 높이고자 한 것이다. 아난계 아니라 매년 7백 내지 8백에 달하는 놀라운 인원이 운집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고초 따위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겠다 여겨진다. 이러한 노력의 결정(結晶)이 「10년」을 만든 것일까? 지성체육관 10개의 성상(星象)이 흐르는 동안 배출된 유단자는 5백여명, 입관자는 1천 2백여명이며 현재는 80여명의 수련생이 가르침을 받고 있다.

지난 80년에는 단 7명의 정예 인원이 있었다.

서울시협회가 발족되면서 그 해



◆300여명 초대 경로잔치



◆86아시아게임대표 박봉권



◆1 회월드컵대회대표 양대승



◆2 회월드게임대표 김영주

에 개최한 제1회 서울시 협회장기 대회에서 일선체육관으로서의 최초로 우승기를 안았고 3회 대회에서도 또한 우승을 차지했던 것은 결코 우연한 기회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태권도의 인식을 새롭게 심는 것은 물론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오직 외길을 걸으며 후배양성에 정열을 쏟고 있는 모습에서 신선함을 느꼈다. 지성체육관을 영원히 키우면서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한 가지 부탁을 곁들인다.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각 체육관의 관장들도 도복을

입고 손수 지도에 나선다면 반드시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리라고」.

오늘도 1인 5역으로 동분서주하며 지도에 열중하는 김경찬 관장은 사범 없이 직접 도복을 입고 가르치며 심판활동, 마을활동, 체육관운영, 선수 뒷바라지, 국기원에 관련된 일 등 갖은 일을 가리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미 나 개인이라는 영역을 초월한 듯하다.

처음 체육관을 들어섰을 때 그 노력의 결실을 대변하듯 트로피 등의 결실체들이 의연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문을 나서면서 다시 돌아본 것은 바로 그 노력의 자취들이었다.

태권도경기의 머리 (頭) 부위 상해예방

대한태권도협회 총무부장/ 李 鳳

- I. 연구의 개요
- II. 안전도와 관련된 권고사항
 - 1. 경기규정
 - 2. 용구
- III. 머리 부위의 구조
- IV. 태권도경기의 머리부위 상해가능성
 - 1. 심각한 상해
 - 2. 만성적 상해
- V. 태권도 발차기 공격의 위험수준
- VI. 머리보호대(헤드기어) 착용
 - 1. 필요성
 - 2. 권장하는 머리보호대의 구조

주 이 글은 미국 올림픽 위원회(U.S.O.C)의 위촉을 받은 「후렌치 앤더슨」 박사(의학: W. French Anderson, M.D.)의 연구결과를 번역한 것이다. 최근 「헤드기어」(머리 보호대)의 착용을 경기규정에 추가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해서 우리 종주국의 태권도 가족은 물론 해외의 사범 여러분에게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 전문을 번역하여 실는다.

경기력 향상과 선수보호 및 용구 개발의 과학적인 접근에 조그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I. 연구의 개요

태권도 경기는 급속히 세계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특히, 87년 「팬·아메리카 게임」과 88서울올림픽에 채택된 태권도는 경기장에서나 T.V화면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수 백만명이 관람할 것이다.

이렇게 태권도 경기를 보는 관중들은 태권도 경기의 임원·선수에 비해 의식할 여지없이 많을 것이다. 이에 따라, 태권도 경기 규정과 경기 용구에 있어 최적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대두될 것이다. 물론, 태권도계는 이런 안정성의 문제에 대해 오랜 기간동안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

AAU(미국 아마추어 경기연맹 연합회 = 미체육회) 산하 태권도 연맹의 「의무 및 안전교육 분과 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AAU산하 경기 및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는 이미 팔·다리 보호대 착용을 경기 규정에 명기하고 있다.

헨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 6회 세계태권도 선수권 대회에서는 긴 시간 동안 잠재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줄 수 있는 정강이의 상해가 여러번 발견되었기 때문에 다리 보호대의 착용이 처음으로 요청된 것이다.

한편, 몇몇 선수들은 정강이 상해로 81년에 개최된 제 1회 월드 게임에서도 거의 매일 치료받은 바 있었다.

지난 2년간 의무 및 안전 교육분과 위원회는 「태권도 경기의 머리부위 상해 가능성」을 검토해왔다.

이 검토·연구에는 다음 4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태권도 발차술의 머리(얼굴) 공격으로 인한 심각한 상해의 유발 가능성 분석(육안 관찰 및 비디오 영상 분석에 의거).

둘째, 최근 미국내 및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의 머리 상해 연구.

셋째, 관련 문헌 조사.

넷째, 미국 올림픽 위원회가 후원하는 권위있는 의료 팀에 의한 「아마추어 복싱」의 머리손상 연구(연구 결과를 태권도에 확대 적용)

II. 안전도와 관련된 권고사항

위에 열거한 네 가지 검토 사항에 기초하여, 태권도 경기의 안전 및 용구에 관련된 두 가지 권고사항을 제의하고자 한다.

1. 경기 규정에 관한 사항

현재의 규정에 따라 얼굴의 득점부위에 대한 완벽한 발차기 공격에 의해 1득점을 얻는 방식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과도한 힘을 쏟은 공격에는 그 정도에 따라서 경고 또는 1점 감점을 주거나 또는 실격패로 처리하는 등의 벌칙을 가할 것을 권고한다.

이와 유사한 경기 규정은 이미 AAU의 「주니어 올림픽」 대회에서 채택하고 있다.

2. 용구 관련사항

우리는 단단한 마룻 바닥에서 벌어지는 태권도 경기에는 머리 보호대(헤드기어)를 필수적인 경기 용구로 권한다.

머리 보호대의 착용 목적은 우선, 탄력성이 없는 바닥에 넘어짐으로써 입게 되는 두부손상(頭部損傷)을 방지하는 데 있다. 두 번째 목적은 관자놀이 부위를 직접적인 발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있다.

만일, 우리가 권장하는 경기 규정(얼굴에 대한 과도한 공격시 벌칙을 가하는 형태)의 개정이 승인된다면 머리 보호대는 유연한 바닥에서 열리는 경기에서는 단지 선택 사항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권고 사항의 근거가 어떤 정보의 논의에서 비롯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Ⅲ. 머리 부위의 구조

머리(두개골)는 외부로부터 뇌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두개골과 안면 부위의 뼈는 앞, 뒤, 위로부터의 충격을 충분히 흡수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안면 뼈는 원상 회복이 즉시 가능하도록 접히게 된 수 많은 관절들로 덮여 있어 고속주행 차량 충돌사고 같은 강한 충격에도 뇌 손상을 방지하는 것이다.

또한, 이마 뼈는 나무 동등이나 벽돌을 격파할 정도로 강하다. 그렇다고 해서 격파시의 충격으로부터 발생하는 만성적 상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두개골의 천정 부분은 위에서나 뒤로부터의 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목부분의 척추(경추)는 머리의 상단방향으로 끊어치는 가격에는 쉽게 충격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못볼 경기에서의 돌진시에 종종 나타나는 것이다.

— 관자노리는 가장 상처받기 쉽다.—

이 부위는 오직 얇은 한 층의 뼈로 덮여 있어서 충격에 약하다. 게다가 뇌동맥이 이 얇은 뼈 아래로 지나고 있다. 관자노리 뼈가 파열되면 그로 인해 뇌동맥을 쉽게 찢을 수 있다. 뇌동맥이 충격을 받거나 파열 되는 경우 관자노리에 대한 어떤 날카로운 가격도 잠재적으로 치명적 상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특히 아메리칸 풋볼, 럭비, 축구와 같은 거친 접촉을 하는 스포츠에서 빈번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사고가 날 경우 선수는 쓰러져서 잠시동안 의식을 잃기는 하지만 곧 「완전하게」 회복된다.

좀더 자세히 예를 들어보면, 종종 부상 당했던 선수는 게임에 다시 임하기도 한다. 그러나 몇 시간 후, 뇌동맥을 흐르는 피는 뇌로 들어가「에피듀랄 헤마토마」(뇌출혈)를 일으키고 그 선수는 응급 조치 없이는 곧 사망하게 되는 것이다. 불행히도 머리 부상을 당했던 선수는 잠자는 동안에 종종 경기 중의 상해로 말미암은 심각한 위험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사망하기도 한다.

Ⅳ. 태권도경기의 머리부위 상해 가능성

1. 심각한 상해

머리의 발공격으로 인한 작은 상해는 통상 발생한다. 타박상, 코피가 나거나 입술이 터지거나 이가 빠지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런 종류의 상해는 다른 접촉성 경기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것이다. 이보다 중한 부상으로는 코뼈나 턱뼈의 골절, 혹은 망막 파열 등이 있다.

물론 이러한 상해 발생율을 최소화하는 조치는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뇌출혈을 유발하는 관자노리의 손상과 같은 치명적인 상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여야만 한다.

—다행스럽게도 태권도의 차기 공격은 이런 치명적 상해를 유발하지는 않았다.—

다만, 치명적 상해의 발생율은 앞서 말한 두 가지 권유—경기 규정의 개정이나 머리 보호대의 착용—를 적용할 때 「0%」에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2. 만성적 상해

이 문제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영역이다. 우리는 머리에 대한 강한 가격이 그 당시에는 미미한 불편을 유발하는 정도에 그칠지라도 그 결과는 항구적인 뇌손상의 적은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신하는 것이다.

머리부위에 대한 각각의 가격은 그저 적은 충격에 지나지 않을 지라도 종합적인 영향은 누적적이고 회복될 수 없다는 개인성을 분명 갖고 있다. 이러한 결론은 동물의 신경학적 연구, 이를테면 뇌진탕이 발생되지 않을 정도의 머리 가격의 누적적 영향이나 「프로·복서」의 경우에 나타나는 장기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신경 손상증세(즉, 복싱 선수의 「만성 진행성 뇌질환」 같이 잘 알려진)같은 연구 결과에 기초한 것이다.

태권도 선수들은 복싱 선수들처럼 선수 경력에 비례하여 많은 횟수의 머리가격을 맞거나 충격을 받는 위험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는 만성질환에 대비해야만 하

고 태권도 경기에서는 이런 상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당한 모든 조치들을 강구해야만 할 것이다.

오랫 동안 지나치게 많은 머리 가격을 맞게 된다면 그 영향은 몇달 못가서 확실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

뇌는 두개골 안쪽에서 부드러운 「티슈」 같은 조직 형태로 매달려 있다. 머리의 어느 부분에든지 강한 충격이 도달되면 뇌는 두개골 안에서 앞뒤로 쏠리게 된다. 뇌로 향하는 혈관은 두개골의 접합 부분에 걸려 찢겨지고 출혈을 하게 된다. 게다가 뇌세포는 두개골 안쪽에서 서로 강하게 부딪치고 뼈에까지 부딪쳐 소멸된다.

뇌의 「쿠션」 작용은 가벼운 외상에는 아무런 충격도 입지 않고 흡수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오직 잠시 의식을 잃도록 하기에는 충분하지만 「늑·아웃」 되지는 않을 정도의 효과적인 가격만이 충격을 준다.

어떤 뇌신경 학자들은 귀가 멍멍할 정도의 가격은 적은 뇌손상을 발생시킨다고 보고 있다. 이런 가격의 누적적인 피해는 결국 그 한계 시점에 가서는 「편치」에 취한 상태를 나타나게 하며 기억력 감퇴나 언어 장애를 유발하게 된다.

U.S.O.C.의 「태스크 포스」(복싱 선수의 뇌질환 연구에 참가한 전문가들)는 「아마·복싱」선수들에게 있어 만성 뇌질환의 발생 여부를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미미한 뇌진탕을 수반하는 뇌손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실험이나 연구에 이르고 있지는 않다. 다만 타당성이 매우 높은 의문 중의 하나는 그러한 뇌손상이 발견되지 않을 만큼 미미하다면 왜 그것을 걱정하는가?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여러 번에 걸친 머리 강타를 지나치게 오랫동안 맞게되면 그 누적 효과는 몇달이 지날 때까지 결코 외관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프루·복서」의 경우에는 뇌신경계의 손상이나 심각한 징후가 「링」을 떠난 후 몇 달, 심지어 몇 년 후에야 나타나는 것이 기정사실로 알려져 있다. 우리는 이 보고자가 저것 경고를 불러 일으키지 않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태권도 경기에서는 아직까지 어떤 선수들에게서도 뇌손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또 뇌손상의 가능

성 역시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우리는 다만 반복되는 머리 충격으로부터 오는 준뇌진탕성 뇌손상의 가능성을 태권도 가족들에게 일깨우기만을 바란다.

앞서 설명한 우리의 권장 사항은 태권도 경기에서도 있을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우려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이다.

V. 태권도발차기 공격의 위험수준

—발차기 공격의 위험도는 다음 몇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① 발차기 동작에 쏟은 힘의 총량.

② 목표에 달은 발의 공격부위.

③ 맞는 부위

다행스럽게도 경기 조건하에서의 태권도 발공격에 기인된 상해는 거의 없다. 왜냐하면 몸통부위의 차기 공격은 몸통 호구에 의해 많이 몸통화 되며 머리 부위의 차기 공격은 몇 가지 요인에 의해 완화된다. 그 하나는 얼굴을 향해 높게 찰 때에는 인체 기능학적으로 저항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옆구리를 향한 열차기는 가공할 힘을 갖게 되지만 머리부분으로 발차기 목표 각도가 높아지면 차는 힘의 대부분은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머리부위의 후려차기나 뛰어차기의 경우는 치명적인 힘을 발휘하는 인체 기계의 지레작용을 갖게 된다. 뛰어차기의 경우는 이의 관찰이나 방어가 용이하다. 그러나 후려차기의 경우는 대단히 위험하다.

얼굴 공격에 많이 사용되는 발의 앞, 뒤꿈치의 바닥부분을 사용하는 앞차기나 뒤차기, 열차기 또는 뒤꿈치 바깥부분으로 시도하는 반달차기나 후려차기 등은 가공할 힘을 줌은 공격부위에 집중시켜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다. 사실상 앞, 뒤 발꿈치는 방어에도 보통 사용된다.

5「센티미터」 이상 두께의 나무판을 부술 수 있는 어떤 기술도 만일 관자노리 부위에 맞게 되면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발바닥이나 발바닥으로 차게 되는 후려차기나 다른 발차기의 경우는 찬 힘이 넓은 부위로 분산되어 위험이 감소된다.

태권도 경기에서의 얼굴차기 공격은 대부분 발차 락이 밖을 향하는 형태로 발등이나 발바닥을 사용하게 되며 발꿈치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이다. 급소인 관자노리라 해도 역시 발등이나 발바닥으로 찬다면 뇌동맥이 관통하는 부위의 골절상을 유발할 정도의 충분한 힘을 발휘하지는 못한다. 이런 결론은 경기 장면의 영상 분석에 의해 얻은 것이다.

VI. 머리보호대(헤드기어) 착용

1. 필요성

태권도 경기의 안전성에 관한 이런 관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머리 보호대의 착용으로 관자노리를 보호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관자노리 골절상의 우려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고려사항은 경기에서 몸을 구부리는 자세를 선수가 취할 때 치명적인 머리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경기규정개정에 관한 권장은 얼굴 공격에 대한 어떤 불필요한 힘의 사용도 저지하려는 데 그 중요성이 있다. **—넘어지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태권도 선수들에게 가장 위험도가 높은 머리 부상은 놀랍게도 넘어지는 동작에서 기인한다.

최근 미국내, 「팬·암」 및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의 머리 부상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얼굴이나 머리를 차이거나 또는 그로 인해 뒤로 넘어졌을 때 선수가 기절하거나 중심을 잃은 경우처럼 정당한 기술에서 발생하는 어떤 의식불명 사고도 딱딱한 나무바닥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쳐 일어나는 것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5'피트 떨어진 곳에서, 뺨에 반대후려차기를 맞은 선수를 관찰한 적이 있었다. 그 선수의 눈과 얼굴 표정으로 보아 그가 의식이 분명한 것을 알아 볼 수 있었지만 그는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다. 그 선수는 넘어져 머리를 마루바닥에 부딪치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몇 분 동안 의식을 잃었었다. 이 상해는 머리를 마루에 부딪쳐서 발생한 것이지 결코 발차기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물론 그 선수는 곧 완전히 회복 되었지만, 그 선수 머리가 마루에 부딪치면서 미미하지만 영

구적인 뇌손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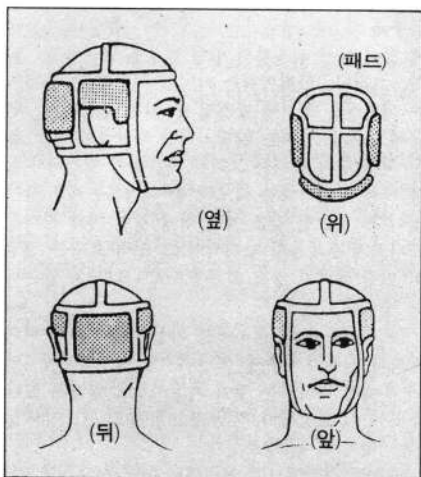
최근의 선수권 대회에서는 넘어지는 데 따르는 머리 충격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머리 보호대의 착용이야말로 이런 명백한 위험에 대한 필요한 예방책인 것이다.

머리 보호대의 첫번째 이점은 마루에 넘어질 때 생기는 날카로운 충격으로부터 두개골의 뒷부분과 옆부분을 보호하는 데 있다.

두번째 이익은 관자노리 부위의 골절상을 발차기로부터 막아내는 것이다. 머리 보호대는 아마도 부드럽게 포장된 「링」이나 「매트」 또는 「카페트」가 깔린 마루에서 벌어지는 경기에서는 굳이 강제규정으로 필요치는 않을 것이다.

2. 권장하는 머리 보호대의 구조

우리는 고무처럼 유연한 재질로 만들어 한 가지 규격으로 누구나 착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가벼운 「패드」를 달고 뺨에 착 달라 붙는 것을 권유한다. (그림 참조) 「패드」는 머리 뒷부분과 관자노리 부위만 부착하면 된다. 물론 머리 보호대는 가볍고 착용이 간편해야 하며 생산가측면에서는 저렴하고 태권도 선수의 수요에 적합하도록 제조해야 할 것이다.



(그림 : 머리 보호대 설계)

청소년 지도자로서 권도사범의 역할』



서울YMCA / 林 光 振
사회開發部長

부모가 아무리 재산을 축적해도 그것을 이어받아 관리할 자손이 똑똑하지 못하면 재산을 애써 모아 자손에게 남겨주는 것은 하나의 허사로 돌아가 버리기 쉽다. 이것은 비단 가정에서의 일만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 전체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경제가 성장하고 산업이 발전되어도 제2의 국민인 청소년을 바로 키우지 못하면 기성세대의 시대가 지나가고 청소년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었을 때 나라와 사회는 어렵게 되고 불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나라와 개인의 앞날을 생각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청소년의 바른 지도와 육성에 관심을 두어야 함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청소년 지도의 중요성을 논하고 강조하기에 앞서 주의하여야 할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사

람들은 청소년 지도라고 하면 흔히 탈선하고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는 이른바 문제 청소년을 다루고 지도하는 협의의 의미로만 생각한다. 물론 문제 청소년을 지도하고 선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다수의 일반 청소년들이 바른 가치관을 갖고 영지체(Spirit, Mind, Body)가 조화된 전인적(全人的) 인격의 소지자가 되게끔 지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더우기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권위주의적인 가정과 입시중심 교육의 학교의 울타리 속에 살고있으며 그 울타리 밖으로 한 걸음만 나가면 사회와 유리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것은 자칫 청소년에대한 무관심으로 오인되기 쉽다. 그들의 교외생활을 위한 조건들이 전혀 교육적으로 조직되거나 체계화되어 있지 않으며 아무런 교육적 시설이나 프로그램도 제공되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가정과 학교의 울타리 밖에는 그들의 또래집단(Peer Group)과 비교육적으로 오염된 사회환경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사회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절실하게 요청되고있는 청소년 지도를 누가 맡을 것인가? 엄밀히 말하면 사회의 모든 분야가 직접 간접으로 청소년 지도와 관련이 있고 모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여가를 이용해서 찾아오고 있는 태권도장의 사범들 역시 사회의 한 분야에 지도자로서 청소년을 선도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태권도란 손과 발을 이용해서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거나 상대에게 타격을 주는 호신술이다. 그러므로 태권도의 모든 동작은 자아(自我) 방위 본능을 기본으로 하여 수련과정에서 따라 소극적인 동작에서 적극적인 동작의 형태로 발전하게 되는데 궁극적으로 자아를 극복하고 대아(大我)의 경지에 도달하는 정신을 함양하고 지덕체(智德體)의 인간완성을 목표로 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태권도의 사범은 자기 보존을 위한 투기술(鬪技術)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도의, 도덕이나 정신자세에 대해서도 남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다. 더우기 사범이란 문자 그대로 남의 스승이 되는 모범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을 지도 선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청소년 지도자로서 태권도 사범의 역할과 자세는 무엇인가?

첫째로, 태권도 사범은 우선적으로 청소년 층이 갖는 기본적인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이들에 대한 명백한 이해없이 올바른 지도방법이 도출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현대사회에 있어 청소년 층의 사회적 특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오늘의 젊은이들은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지적으로 성숙했고 의식이 계발되었으며 심리상태역시 섬세해졌다. 게다가 그들이 살고 있는 산업사회는 고도로 복잡한 사회이다. 특히 우리 나라 젊은이들은 아이덴티티(Identity)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가치전도의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② 현대의 청소년들은 과거와는 달리 가정으로부터 유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이나 의지를 가정이나 부모에게서 구하지 않고 사회, 특히 친구들로부터 구하고 있으며,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고 있다.

③ 청소년 층은 성인 층과는 다른 독자적이고 독자적인 문화, 이른바 「청소년 문화」를 나름대로 형성하고 있는데, 이 문화는 반항적이고 시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태권도 사범은 체육관 주위에서 가끔 볼 수 있는 청소년 일탈에 대해서도 그 행동적 특성을 주지해야 하는데 그 세가지 경향은 다음과 같다.

① 그들은 흥분, 전율, 자극 등을 구하고 그러한 상태로 인도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비행 청소년들은 모험지향적 생활을 하고 있다. 그들은 위험에 굽히지 않는 태도를 사람들에게 과시한다.

비행적인 생활습관은 흥분, 자극 모험이 따르는 생활형식으로써 필연적으로 위법적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② 일탈적 청소년들은 노동의 세계에서 성공한다는 생각을 경멸하는 경향이 있다. 성실하게 일을 하고 노력 분투하여 승진하려는 진취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목적없이 생활하거나 안일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일시에 성공한다는 몽상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노동을 경멸한다고 해서 금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③ 일탈적 청소년은 공격적 행동을 하기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행동은 그들이 사회에서 소외당한 존재라는 사실을 반증이라도 하듯이 감행한다. 구두의 표현이나 신체에 의한 공격은 의사표시 수단으로 주위에 자주 있는 일인대 공격은 특히 그들의 정의와 증오의 표시로써 상대방에게 손상을 주고 보복하려는 충동을 표시하는 데 사용된다. 이처럼 청소년 지도자로서 태권도 사범은 우선적으로 청소년의 사회적 특성과 그들의 일탈 경향을 잘 알아야 하겠다.

둘째로 태권도 사범들은 청소년을 잘 지도할 수 있다는 확신 또는 적극적인 태도와 함께 청소년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청소년을 육성보호하

는 일은 태권도 사범이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데 그 까닭은 태권도 도장이 실제로 청소년들에게는 학교 교육 보다 가까운 사회집단적 환경속에 있기에 보다 나은 인간형성지향의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청소년을 지도하는 태권도 사범의 태권도에 대해 로저스(C. R. Rogers)의 이론을 참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생각할 수 있다.

① 청소년을 인간적으로 접촉할 것.

② 감정이입(感情移入 : 관조의 목적 대상인 자연의 조화나 인간의 감정에 들어 그것과 같은 상태에 이름) 적으로 이해할 것.

③ 청소년을 무조건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해 줄 것.

④ 이와 같이 인간적인 이해와 태도로써 접하고 있다는 것을 청소년들이 인지(認知)하도록 할 것.

또한 청소년 지도자는 단순한 기능인으로서만이 아니라 청소년 활동 현장에서 청소년들과 일체감을 조성하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미국의 어느 전문가는, 청소년 지도자는 청소년들로부터 우리들 중의 한 사람(One of us), 우리들 중에 뛰어난 사람(Best of us), 우리 모두를 위한 사람(Most of us)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청소년들에게 이런 태도와 함께 청소년 지도자들은 옳은 가치관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참된 '아이덴티티'를 제시해 줄 수 있고 나아가서는 앞날의 비전까지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즉 오늘의 청소년 지도자로서의 사범은 가치, 윤리, 인간, 문화, 역사에 대해서도 상당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겠다.

셋째로, 태권도 사범은 생활자로서 모델(模型)을 제시해야 한다.

청소년 지도자는 다방면에 걸친 풍부한 지식 뿐 아니라 언행을 비롯한 생활 전반에 걸쳐 청소년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

지도자 스스로 생활자로서의 모델을 청소년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지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절대적인 원칙이다.

이규환 교수(이화여대)의 지적처럼 대중적 산업 사회의 생활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고 비인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막상 청소년의 생활적 모형이 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다. 이러한 경우일수록 청소년 지도자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은 신뢰하고 존경할만한 인물을 모델로 하여 자기 자신을 형성해 간다. 따라서 지도자의 태도, 가치관, 생활방식, 정서적 표현 등은 교육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더우기 모델이 될 수 있는 인물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보다는 어떠한 행동을 실제로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청소년을 지도하는 데 있어 보다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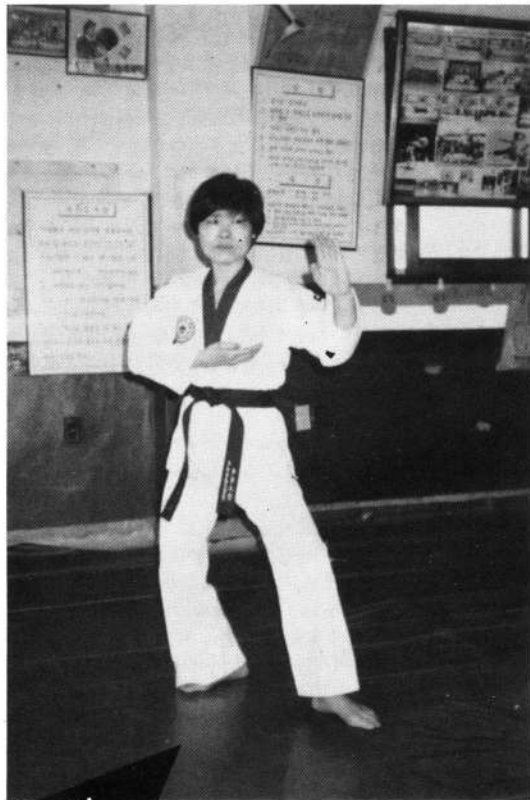
그들은 지도적 인물의 평상시 행동 또는 생활방식을 모델로 해서 인격형성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소년 지도자는 사회적 관심이 많고 사회 정의감이 강하며 동포와 인류를 위한 봉사정신이 투철해야 한다. 말이 앞서면서 실제행동이 말과 일치하지 않을 때에 청소년들은 혼란에 빠지기 쉽다.

청소년 지도자로서 태권도 사범은 이밖에도 청소년에게 자발성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던가, 청소년 지도력을 배양한다던가, 프로그램 조직자(Program Organizer)가 되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시각과 입장에 따라서 청소년 지도자는 인간화의 역할, 사회화의 역할, 민주화의 역할, 문제 해결의 동참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단지 청소년 지도자로서 태권도 사범은 청소년을 잘 알아야 하고 청소년 지도에 대한 태도와 신념이 있어야 하며 생활로써 그들에게 본을 보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 지도자로서 태권도 사범은 전문적 청소년 지도자와 함께 일하는 자원적 지도력의 하나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나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한 문제는 전문지도력과 함께 긴밀한 협동적 작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재삼 강조하는 바이다.



나의 수련기

대구시 대덕도장 이 수 금 (38세)

修身과 修心을 다지던 나날들

30세 되던 해, 우연히 뒷다리가 당기고 양 어깨가 무겁고 아파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다. 약물 치료를 해 봤지만 임시효과에 불과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승님의 권유로 요가를 시작했다. 1년간 양 했는데 양 어깨는 많이 가벼워졌고 밤에는 잠도 잘 오는 것 같았다. 이 때 비로소 운동은 어떠한 약물에도 비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뒤로 몇년은 건강하게 잘지냈다. 그러나 웬지 다리가 당기는 것은 근본치료가 어려웠다. 온갖 약을 다 써봤지만 역시 임시효과에 불과했다. 결국 먼 거리는 걸지 못하고 가까운 거리에도 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다.

이렇게 고심하고 있던 중, 문득 운동을 하면 완치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태권도가 뭔지도 모르면서 우연히 도장에 찾아간 것이 첫 인연이 되었다.

처음 도장에 갔을 때, 그 날따라 수련생이 많았다. 흰 도복을 입고 수련하는 모습들이 내 눈에는 마치 그 옛날 화랑의 모습으로 보였다.

태권도는 우리나라의 國技이며,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수련할 수 있는 운동이라며 섹션한 모습으로 國技 태권도를 소개하는 사범님의 말씀을 듣고 아픈 다리를 치료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다음 날로 입관을 하고 며칠 후에 흰 도복을 입었다. 난생 처음 입어 보는 옷이라 마음이 황홀했다. 게다가

가 우리의 무예인 태권도를 내가지적 접 수련해 본다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티 없이 맑은 눈동자, 친진난만한 어린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수련을 하다보면, 어느새 나도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모든 시름 다 잊고 심신이 쾌활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매 묻지 않은 깨끗한 마음이란 그 무엇에도 비할 수 없는 값진 것임을 새삼 느꼈다.

관장님의 따뜻한 보살핌과 사범님의 자상하고 엄격한 지도아래 나의 수련단계는 날로 향상되었고 하루 하루 새로운 기쁨으로 운동물하게 되었다. 백띠, 노랑띠 시절에는 철 없는 유치원생처럼 지냈다. 녹띠 때에는 동작 하나 하나에 신경을 쓸 줄도 알았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모범상으로 메달도 한 번 받았다. 청띠 때에는 너무 지나치게 한 탓인지 힘이 들고 피로해서 많은 애로가 뒤따랐다.

관장 훈시 중에 文武를 겸비하라는 내용이 있다. 나는 모든 면에서 부족해 文武를 겸비하기 보다는 체력단련만을 겨우 하고 있는 형편이다. 간신히 흉터를 허리에 매게 되었다. 흉터를 매고부터는 나도모르게 자세에 중심이 잡히고 동작 하나 하나에 자신감이 생겼다. 어떠한 상대가 와도 이길것 같은, 전에 느껴보지 못한 마음의 힘이였다.

얼마 안 있으면 유단자가 된다는 꿈! 그런 꿈 속에 하루 하루를 보내다 보니 먼 거리를 걸어도 다리에 큰 부담이 없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승단심사를 보고 며칠 후에 검은 띠를 매었다. 막상 검은 띠를 매고 보니 부풀었던 유단자의 꿈보다는 오히려 어깨가 무거워지는 책임감을 느꼈다. 나이 든 탓인지 노력부족인지 유단자로서의 발차기라든지 모든 면에 부족한 점이 많았다. 관장으로부터 단증을 수여받았다. 유단자가 되었다고 해서 나라의 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지만 정말 나에게겐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1년 동안 쌓은 온갖 노력과 정성이 담겨져 있는 단증이다. 1년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몸소 체험했다. 누가 만약 태권도에 대해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금덩어리가 보배인 줄은 세상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불에 넣어 녹이지 않으면 보배의 값어치를 나타낼 수 없다. 그리고 쇳덩이도 마찬가지로. 불에 넣어 녹이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구를 만들 수 없듯이 사람도 마찬가지다. 갈고 닦고 배우고 단련하고 실천하는 데서 인격이 완성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운동부족으로 생기는 질환이 그들의 70%를 차지한다고 한다. 나도 그 중 한사람이다.

內功(修身)도 중요하지만 外功(修身)도 배울 수 없다. 어느 운동보다도 태권도는 內外功을 동시에 닦을 수 있다고 본다.

· 집이 허물어지면 사람이 살수 없듯이 사람의 몸도 집과 마찬가지다. 낡고 허물어지기 전에 고치고 돌봄으로 해서 몸의 주인인 마음이 편

안히 좌절할 수 있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 태권도 동작에 대하여 내 나름대로 느낀점을 말하고 싶다. 주춤서 몸통지르기는 양 어깨에 힘이 생기는 동시에 담, 놀란 피, 열 등 나쁜 물질들이 땀으로 순환되어 군살이 빠지고 유연해져서 가볍게 움직일 수 있고 얼굴이 시원해지고 땀이 나기 시작하는데 몸의 균형이 잡힌다. 여러 가지 발차기는 허리가 유연해지는 동시에 허벅지의 군살이 빠지게 된다. 체중의 증감이 거의 없고 항상 생동감이 넘친다.

그 외에도 많은 동작들이 있다. 이러한 동작들을 꾸준히 수련하다 보면 손가락 끝에서부터 발가락 끝까지 무서운 힘이 생기는 것을 내 나름대로 느껴보았다. 뿐만 아니라 인내심이 강해지고 하단전에 힘이 생기며 담이 커진다.

그래서 그럴까? 우리 도장 학생들은 언제나 밝고 명랑하며 의젓한 풍위를 갖추고 있는 것 같다. 체력을 적절하게 단련하다 보면, 세포 하나 하나가 새롭게 조직되어 건강은 물론이고 不可思議한 초능력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86, 88 큰 대회로 인해 태권도가 세계만방에 자랑스런 스포츠로 인정받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자랑스럽고 보람 있는 시절이었다고 생각한다.

태권도는 멋진 스포츠라고 이제 는 누구에게나 몇몇이 말할 수 있다.

나의 수련기

- 동양체육관 -

창원시 내동국민학교 6-2/ 박 재 현



나의 앞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나타나다해도
나는 얼마든지 이겨 낼
자신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다시
한 번 태어난다 해도
태권도를 꼭 배울 것이다.

나와 태권도는 이제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 태권도가 나를 불러들인 것은 1985년 3월22일이었다.

내가 태권도장을 다니게 된 동기는 인내심, 판단력, 자신감이 부족해서였다. 흰띠를 처음 매고다닐 때는 부끄럼과 창피 때문에 한 때는 포기할까 하고 망설이기까지 했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나는 태권도를 배우는 기본 때문인지 부끄럼과 창피도 없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수련한 결과 무급에서 두 급을 뛰는 영광을 안았다.

내가 이렇게 두 급을 뛴 것은 그냥 무의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더욱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흥떠가 되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인내심도 길러졌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높이 뛰거나 물구나무 서기를 할 때면 다른 아이는 잘 하는데 나만 뒤졌었다. 내가 높이뛰기나 물구나무 서기를 못했던 가장 큰 원인은 실력부족 못지 않게 자신감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태권도를 배우고 난 후부터는 자신감이 생겨 높이뛰기와 물구나무 서기 뿐만 아니라 내가 제일 못하던 철봉도 훨씬 잘 하게 되었다. 또 나는 아침 운동을 충실히 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도장에서 인내심을 기르는 운동도 익혔기 때문에 요즘에는 매일 아침 운동을 한다. 또 가끔 두 가지 좋은 일이 생기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던 나였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도 생겼다. 이 밖에도 태권도가 나에게 준 도움은 수 없이 많다.

어머니께서도 내가 태권도 배운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하신다. 그것은 내가 공부를 더 잘하게 되고 오락실에 가는 일도 줄어들면서 더욱 착한학생이 되었기 때문이다. 도장에서는 사실 오락실 가는 일을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나는 매일 가져 시피하던 오락실도 요즘에는 거의 가지 않고 있다.

또 4학년 때까지만 해도 공부를 그리 잘하지 못했는데 태권도를 배우고서부터는 매일 평균 90점을 넘게 되었다. 5학년 때는 4번이나 연속 1등을

어머니께서도 내가 태권도 배운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하신다. 그것은 내가 공부할 더 잘하게 되고 오락실에 가는 일도 줄어들면서 더욱 착한 학생이 되기 때문이다.

도장에서는 사실 오락실 가는 일을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나는 매일가 다시피하던 오락실도 요즘에는 거의 가지 않고 있다.

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 뿐일까? 하루하루 발표력도 길러졌다. 학급 어린이 회의나 전교 어린이 회의를 할 때면 나는 자리만 지키고 있었으나 지금은 나혼자 진행 하다가 시외 발표를 하고 있다.

그 동안 나는 잔병을 자주 앓았고 감기도 많이 걸렸다. 그러나 태권도를 배우 후 부터는 감기는 물론 잔병도 한 번 안 걸렸다. 이렇게 태권도가 나에게 준 것은 수 없이 많다.

태권도는 우리 나라의 독특한 무예로서 삼국시대부터 이미 널리 행하여 졌었다고 한다. 신라 시대에는 화랑도의 무술로 발전하였고, 이것은 다시 고려의 무예로 이어져 왔다고 배웠다.

그러나 본래에는 태권도가 아니라 「태껸」이라고 불리었다고 한다. 태권도는 한 마디로 몸을 단련하는 훌륭한 운동이다.

나는 태권도에서 몸을 단련하는 것만 배운 것이 아니라 태권도의 건전한 정신과 그리고 엄격한 예절교육도 배운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나는 인사도 잘하는 어린이가 되었다.

태권도가 과학적인 체제 아래 우리 나라의 국기(國技)가 되어 국력배양에 이바지하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태권도는 이제 86아시아 게임의 정식 종목이 되었고 88올림픽에는 시범 종목이 되었다. 이런 운동을 배우고 있는 나는 항상 자랑스럽다.

작년 가을 운동회날 나는 도장에 다니는 친구들

그 동안 나는 잔병을 자주 앓았고 감기도 많이 걸렸다. 그러나 태권도를 배우 후 부터는 감기는 물론 잔병도 한번 안 걸렸다. 이렇게 태권도가 나에게 준 것은 수 없이 많다.

과 시범을 보인 일이 있었다. 그 때 나는 흥뽀였다. 시범을 보인 후 어머니께서 잘 했다고 칭찬해주셨다. 그리고 나에게 잊을 수 없는 날은 1986년 3월 23일과 5월 1일이었다. 3월 23일날은 승품 심사를 응시하러 갔는데 그 때 나는 무척 떨려있었다. 내 차례가 다가오자 가슴이 두근 두근 거렸다.

그러나 마음을 가라 앉히고 열심히 한 탓일까? 5월 1일 발표하는 날 나는 합격하였다는 사범님의 말씀에 내 마음은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러나 「유단자가 되면서부터 진짜 태권도를 배우는 것이다。」라는 사범님의 말씀을 되새겨 보면서 자만심을 갖지 않고 스스로 연구하고 계발하면서 열심히 수련하겠다고 나는 굳게 다짐했다.

이제 나의 실력도 많이 늘었다. 사실 내가 무급이었을 때 심사에 나가면 무척 겁을 많이 먹고 긴장을 많이했었다. 앞에는 심사위원이 자리잡고 옆에는 학부형이 있어서 그런지 연습 때보다 잘 못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급을 뒀 것을 생각하면 그 때의 감격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이제는 아무리 심사를 보아도 잘 견딜 수 있겠다. 나의 앞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나타난다해도 나는 얼마든지 이겨 낼 자신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다시 한 번 태어난다 해도 태권도를 꼭 배울 것이다.

나는 지금 열심히 뛰고 있다.

나의 친구인 태권도를 향해.....

태권가족

이 향원





할아버지, 그게 아녀요.



차 례

스포츠 상해를 극복하자 (IV)



김 영 선
대한도협회 편집분과위원

감 수

- 태능 외과병원 박 병일 원장
- 연세대학교 김 중훈, 고 흥환 교수

I. 머 릿 말

II. 스포츠 외상의 처치법

1. 스포츠 외상의 응급처치
2. 손상부위 판별법
3. 완치될 때까지의 시간
4.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할 경우

III. 증상에 따른 처치

1. 골 절
2. 탈 구
3. 근·건달열
4. 염 좌
5. 좌 상(타박상)

IV. 보조치료법

1. 물리치료법
2. 테이핑법
3. 붕대사용법

V. 스포츠에로의 복귀

1. 재활의 원칙
2. 재활 프로그램
3. 치료 중 경기 출전문제

VI. 맺 음 말

IV. 보조 치료법

1. 물리치료법

10종 경기의 일본 대표 선수였고 은퇴 후 일본에서 유일한 근육 의학 연구소를 차린 곤노요시오(紺野義雄)씨는 그가 창안한 물리치료법으로 많은 대표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제 3회 동경 아시안 게임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유중국의 육상선수 양전광(楊傳廣)씨가 부상에 의해 10종경기 후반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의 독특한 물리치료법을 받고 나자 오히려 종전 기록을 초과하면서 금메달을 따내기도 하였다. 이처럼 적절한 물리치료는 경우에 따라 큰 효과를 발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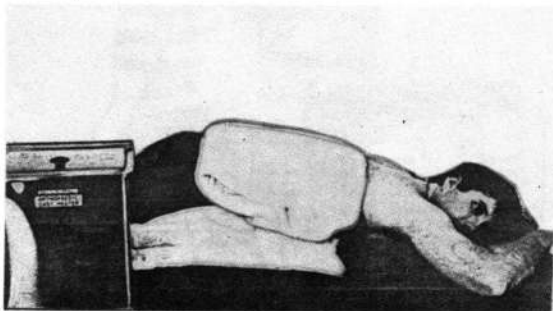
근래에 우리 나라에서도 스포츠 의학의 후원에 힘입어, 상해 선수를 치료하는 것까지 과학적인 치료법과 수술법이 사용되고 있다. 이 중 신체 연조직 부상을 치료하는 데는 약물요법, 외과적 수술요법 등이 있으나 물리치료법은 급성 또는 만성이 된 연조직(Soft tissue)부상에 특히 유효한 치료가 된다.

물리치료에는 크게 열, 전기, 마사지요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물리치료 양식을 사진과 함께 간단히 소개해 본다.

열 치료법

신체의 일부를 냉각시키거나 덥게 하거나 해서 염증이나 충혈을 낮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치료법이다. 열은, 열을 가지고 있는 물질인 열원에서 환부에 직접 전달되며 접촉, 환류, 방사 등 3가지 방법에 의존한다. 흔히 사용되는 냉·온찜질과 부상한 부위에 얼음이나 냉습포를 하는 한랭치료는 경기 중 급성 부상 때의 치료 뿐 아니라 회복기에도 많이 쓰여지는 치료법이다.

열치료의 종류로서는 냉습포, 온습포(Hot-Moist pack), 냉온 목욕법, 얼음 마사지, 얼음찜질(Ice-pack), 한랭 스프레이 등을 들 수 있다.



※ 손상된 신체의 연조직을 치료하는데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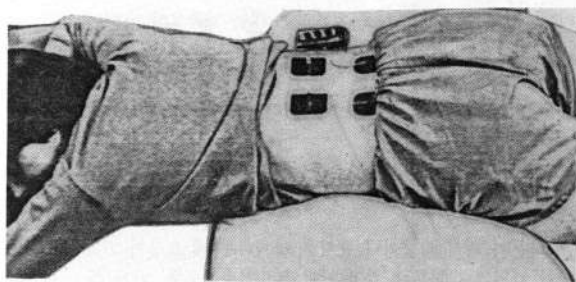
그림 11. 슬개건에 얼음 마사지를 하는 모습

그림 10. 열치료 기계인 Hydrocollator

전기요법

전자가 도체를 따라 흐르는 것을 전류라고 하는 데 이러한 전기 에너지를 치료에 쓰는 이유는 온열 효과, 전류자극 효과, 화학적 또는 이온 효과를 얻기 때문이다. 치료에는 대개 저전압전류가 사용되며 직류와 저주파전류가 포함된다. 전류의 한쪽 끝을 환부에, 다른 한쪽은 머리, 배, 가슴, 허리 또는 다리부분에 연결시켜 전기를 통하게 한다.

전기요법의 종류로는 심부 온열치료, 전류 자극치료(Electrical stimulation), 경피전류 신경자극 치료(TENS)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스포츠 상해를 치료하는 전문의료원이나 큰 병원의 물리치료실에서 사용하며 근육, 신경치료에 효과를 나타낸다.



급·만성통증
치료를 위해
부담없이
사용하고
있다.

그림 12. 경피전류 신경자극
치료(TENS)

저주파 전류를 사용하여
운동 신경이 마비되어
근육이 움직이지 않을 때
신경재생과 근육을
자연스럽게 움직이게하여
근육이 위축되고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된다.

그림 13. 전류자극
치료기(E. S. T)



마사아지 요법

시술자가 간편하고 현저한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마사아지 요법은 특별한 치료법이 아닐 정도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 더욱 이 요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스포츠에서는 피로회복을 위해 피로한 부위에 영양을 주고 피로물질 등의 병적산물을 배출함으로써 근육과 관절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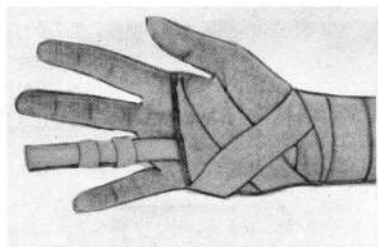
드럽게 하고 동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치료술로 실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근육의 과로로 인한 근육통, 과로성인 통증에 효력을 발휘하며 그 밖에도 염좌나 쥐가 난데 대해 마사이가 실시되기도 한다. 시술시 특히 주의할 점은 염좌와 같은 외상을 받은 초기에는 피부내의 출혈을 반드시 동반케 되므로 환부를 마사이지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상해 후 일정 시간이 지난뒤 회복기에 그 치료를 촉진시키는 한 수단으로 쓰이며 안티푸라민 같은 점질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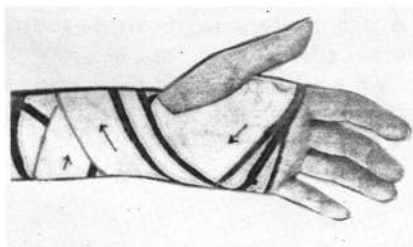
효과로서는 신진대사의 항진, 근육의 이완, 신경에 대한 진통과 진정작용 등이 있다.

2. 테이핑법

54호 예방편에서 상해예방의 테이핑을 알아본 바 있다. 테이핑은 상해의 응급처치와 재발방지 및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 된다. 의료용 반창고 또는 신축성 점착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관절 또는 근육 등을 보강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미식축구 경기를 중심으로 하여 미국에서 개발된 것으로 잘 알아두면 유용한 방법이다. 근래에 한국에서도 테이핑을 활용하는 스포츠 지도자가 늘어나고 있다.



A. 손가락의 테이핑



B. 손목의 테이핑



C. 발의 테이핑



D. 어깨의 테이핑

그림 14. 신체 각 부위의 테이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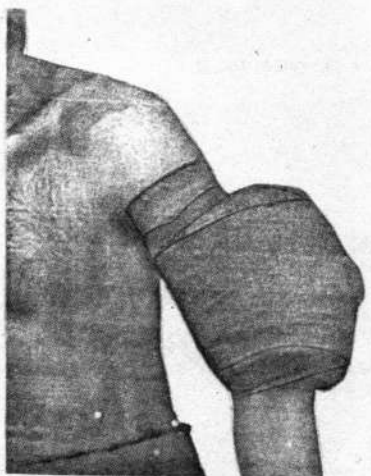
사용 목적에 따라

- 치료용—정형외과의 분야에서 반창고 고정법으로 사용되어 온 방법으로 늑골 골절의 고정, 족관절 염좌에 대한 법 등이 있다. 응급처치적 테이핑도 이 범위에 속한다.
- 보호용—상해치료 후에 미처 완치되지 않은 시기, 또는 치유되었으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어느 부분을 보호하는 테이핑법.
- 예방용—조금도 다치지 않았으나 미리 테이핑을 함으로써 상해를 예방하려는 방법.
주의사항으로는 올바른 진단, 혈행장애, 신경, 근육, 건, 피부 부위의 장애가 있고 사용에는 특별한 지식이 요구되므로 아래의 테이핑 전문서적을 참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스포츠 장애의 테이핑법, 동양문화사.
○ 스포츠 상해의 예방과 처치 테이핑, 스포츠 코리아.

3. 봉대 사용법

스포츠 사회에 널리 이용되는 탄력봉대는 압박 및 지혈(응급처치시), 얼음 주머니(Ice pack)의 보쌈, 관절 및 근육체의 보호, 고정(관절운동 제한과 근·골고정) 등을 위한 스포츠맨의 필수품이기도 하다.

사용 목적과 신체부위에 따라 봉대의 크기와 탄력정도가 조정되며 일반적으로 2인치에서 6인치의 폭이 사용된다. 이 중 6인치 봉대가 가장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데, 그 이유는 얼음 주머니, 찢질제 뿐 아니라 넓은 면적의 환부를 덮어서 감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완부



대퇴부

그림 15. 얼음주머니를 싸서 봉대로 감은 모습



상해부위 압박을
위해 바깥 복사뼈
주위에 말굽 모양의
패드(pad)를 대고
그 위에 봉대를
감는다.

그림 16. 발목염좌시 봉대를 감는 모습

혈행을 좋게 하기 위해
거드랑이에 패드를
댄다.
등 뒤에는
X모양으로 감는다.



그림 17. 쇄골 골절시 봉대법

탄력봉대를 사용할 때 다음 기본원칙에 준해야 한다.

- 신체분절 전체를 고정시킬 것. (예—대퇴부 손상시 무릎에서 살까지 감는다.)
- 감는 폭은 앞에 감은 봉대의 반이 덜이도록 하여 감아나간다.
- 감은 부위가 똑 같은 탄력이 되도록 한다.
- 큰 압박이나 견고성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근육을 최대한으로 신전시킨 상태에서, 적은 압박의 경우에는 근육의 신전이 덜 한 상태에서 봉대를 감는다.
- 봉대는 움직이기 편한 정도로 알맞게 감겨져야 한다. 환부가 지나치게 조이게 되면 극도의 근육압박과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킨다.
- 더럽혀진 봉대는 따뜻한 물에 비누로 늘어나지 않도록 살살 세탁해야 하며 공기가 잘 통하는 그늘진 곳에서 건조되어야 한다.

V. 스포츠에로의 복귀

1. 재활의 원칙

스포츠맨의 치료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가능한 한 하루라도 빨리 통증이나 기능장애의 증상을 없애고 원상태로 되돌아 가는 것이다. 또한 선수가 팀에 다시 복귀하였을 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복기의 치료, 즉 재활(rehabilitation)이 역시 중요하게 된다.

스포츠 상해로 인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은 기간 중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운동선수가 열흘이나

보름동안 운동을 중단하게 되면 골질(骨質), 관절, 근육, 힘줄 등의 운동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다. 때문에 종합체력의 감퇴를 예방하려면 다친 부위 및 이와 직접 연관되는 신체부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운동종목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운동을 실시해야 한다.

발목관절 염좌인 경우, 국소는 안정상태로 유지되어야 하지만 팔, 허리 등은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정을 취할 필요는 전혀 없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단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재활은 상해를 입은 그 순간, 부상부위의 치료와 동시에 시작되어야 하며 그 기간 중 소속 팀과의 긴밀한 연락유지와 치료기간과 회복 진행상태를 아는 것이 좋다. 아울러 재활 트레이닝에 병행하여 물리치료법, 봉대 및 테이핑법 등의 보조치료가 적절히 뒤 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부상한 경기자의 재활은 급성치료와 동시에 시작한다. 발목이 꺾였을 때, 얼음치료, 압박, 흰부를 높게하는 치료(ICE)와 동시에 관절에 대한 운동치료를 시작한다.

그림 18. 급성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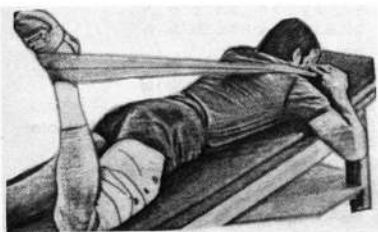
2. 재활 프로그램 (Rehabilitation program)

상해발생 직후 일어난 격렬한 반응이 사라져 가고 조기 회복이 시작됐을 때, 재활 프로그램은 근력, 지구력, 유연성, 속도와 근육 운동의 조정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운동의 최적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부상 경기자를 위한 재활 프로그램은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개별적인 프로그램을 설정하여야 한다. 어떤 운동을 어떤 방법으로, 몇 번 지속해야 하는지, 또한 장기계획 설정 등을 말한다.

회복기의 트레이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염두에 두어 운동 프로그램을 작성 하도록한다.

- 1) 상해 종류와 정도, 치료기간, 회복 진행상태에 따라 프로그램을 짠다.
- 2) 가벼운 부상자는 강한 운동을 짧은 시간에, 부상이 심한 경우에는 아주 경하거나 중간 정도의 강도로 시작하여 점차 강한 운동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 3) 장해 부위에 영향을 적게 하면서 전신의 컨디션 조절을 시작한다. 운동 중 불편하고 통증이 있더라도 이를 참고 운동을 계속하는 것은 절대 금지하여야 한다.
- 4) 전날의 재활 상태에 준하여 점진적으로 훈련시간과 강도를 높인다.
- 5) 만일 관절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시켜 놓았으면 먼저 심장과 맥관조절을 위한 적절한 운동을 행하며 부상 주변 근육은 관절을 움직이지 않고 근육의 장력(張力) 또는 긴장도를 증가시키는 등척성 운동(等尺性運動)* 을 주로 한다.

- 6) 관절고정을 푼 후에는 관절을 아프지 않게 서서히 움직이게 하는 단계적 운동을 시행한다.
- 7) 관절이 움직이고 탄력성도 돌아오면 저항을 점점 증가시켜 운동량을 증가시킨다. 또 관절운동이 아직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 일지라도 운동 한도 내에서 가벼운 저항을 주어 관절을 움직일 수 있는 정도까지 스피드를 높여 운동하면 효과적이다.
- 8) 근육의 힘이 생기게 되면 운동량을 높이고 속도와 지구력을 위한 서킷트 훈련으로 들어간다.
- 9) 최종단계로 부상자의 전문 운동종목 기술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상처부위에 얼음주머니를 대고 탄력붕대로 압박한 다음 바로 가벼운 스트레칭을 실시한다. 이 때, 스트레칭을 강하게 하거나 통증을 일으키게 해서는 안 된다. 매 시간당 20분씩은 반드시 붕대를 풀어서 안정을 취한다.

그림19. 대퇴부 타박상의 재활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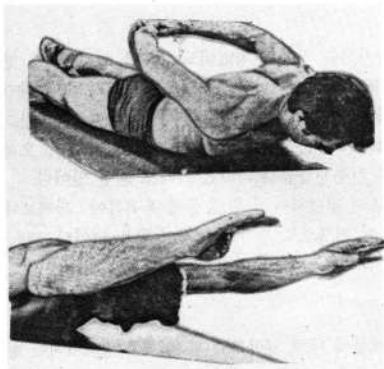


그림20. 어깨부위 재활운동의 예



이 경사판은 비복근, 가지미근(평근), 아킬레스 건 등의 재활을 위한 스트레칭에 유용하다.

그림21. 경사판이용(slant board)

*—동척성운동(等尺性運動, Isometric exercise)이란 근육의 길이에 변화가 없이 똑 같은 상태에서의 운동을 말하는 데, 즉 관절이 굴곡하거나 편다거나 하는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벽을 밀 때와 같이 어떤 고정된 저항력에 반발한 정적인 근육수축이다. 관절을 석고붕대(기브스)로 고정했거나 또는 부목 등을 대어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근력증강을 위한 유일한 운동방식이다.



관절이 고정된 중량에 저항하여 일정범위에서 움직이는 운동. 동적 운동으로서 일반 기구나 중량운동이 이에 속하며 근력강화에 효과적이다. 델롬(Delorme) 씨의 단계적 저항운동이 널리 알려져 있다.

그림22. 등장성운동(等張性運動, Isotonic exercise)

3. 치료 중 경기 출전문제

원래 치료 중인 선수는 완치될 때까지 경기출전을 삼가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무리를 하여서라도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가 적지 않다. 물론 부상과 회복 정도가 고려되어 의사의 지시에 따라 결정하기도 하지만 진통제나 국소 마취제를 투약하여서라도 아픈 몸을 이끌고 끝끝내 경기에 참석하는 완고한 선수들이 있다. 요행히 경기에서 운과 투지가 발휘되어 좋은 성적을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그로인해 증상이 악화되어 슬럼프에 빠져 급기야는 선수생활을 포기하는 사례도 흔한 일이다.

치료 중에는 만사를 걸쳐 놓고 회복과 재활 프로그램에 전념하여 차후 운동에 복귀하여 과거보다 손색없는 컨디션을 가질 수 있는 와신상담(臥薪嘗膽)의 기간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VI. 맺 음 말

지금까지 4회에 걸쳐 스포츠 상해의 예방, 치료, 재활에 대해 알아보았다. 실제로 상해처치에 필요한 사항들을 우리가 생활하는 현장에서 쓰여질 수 있도록 알기쉽게 편집해 보았다.

의학 지식이 심히 부족한 필자로서 뜻만 가지고, 폭넓은 심오한 스포츠 의학을 다루는 자체가 무리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러나 감수를 맡아주신 박 병일 원장님, 연세대 교수님의 각별한 도움으로 그 점은 다행히 보완 될 수 있었다.

글의 성격상 깊이 있는 내용이 되지 못하였던 것은 독자들의 꾸준한 관심에 의해 해결되리라 생각하며 끝으로 이 글을 쓰게된 동기가 결실을 보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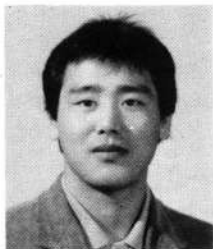
- 김 석 련 : 태권도 경기의 외상에 관한 비교고찰, 명지대학원 석사논문, 1983.
무도스포츠 태권도, 유림사, 1984.
- 김 종 훈 : 인체구조학, 교학연구사, 1984.
건강교육, 교학연구사, 1985.
- 박 병 일 역 : 스포츠 적성과 스포츠 상해, 스포츠과학연구소, 1983.
- 오 영 모 역 : 구급처치의 이론과 실제, 명지출판사, 1981.
- 오 정 회 : 스포츠 재활의학, 월간체육, 198~206호, 1985.
- 윤 석 오 : 농구 선수의 스포츠 상해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4.
- 이 광 호 : 스포츠 의학 시리즈, 월간체육 198~207호, 1985.
- 이 규 문 : 스포츠 외상의 발생 빈도와 그 예방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 논문집, 1983.
- 이 금 세 : 코우치 교본 3 스포츠 의학, 스포츠과학연구소, 1983.
스포츠 의학, 스포츠과학연구소, 1983.
- 장 재 이 : 태권도 선수의 외상에 관한 조사연구, 태권도지 44호, 1983.
- 정 찬 모 : 스포츠 시리즈 태권도, 동양문화사, 1985.
- 조 감 하 외 : 운동 훈련 중의 외상, 대한의학협회지 제 7권 10호, 1978.
- 하 권 익 외 : 한국 배구 선수들의 부상발생 요인과 예방대책에 대한 임상적연구, 스포츠 과학연구 보고서, 1982.
- 의학서 편찬위원회 : 현대 생활의학전서 응급처치편, 선문출판사, 1978.
- 佐藤 宏 : 스포츠 障害, 杏林書院, 1973.
- 田中 昇 : 図説 救急処置, 新思潮社, 1972.
- 清川 誠一 : 図説 스포츠 傷害と処置, 新思潮社, 1974.
- Arthur, E. Elison : Athletic Training And Sports Medicine, American Academy of Orthopaedic Surgeons, 1984.
- Daniel, N. Kulund : The injured athlete, J. B. UPPINCOTT, 1982.
- Don H. O'donoghue : Treatment of injuries to athletes, Saunders, 1976.
- Robert, G. Cantu : Exercise injuries, S. W. P 1983.
- Steven, Roy : Sports Medicine, Prentice Hall INC, 1983.

■ 논문소개

「태권도 경기의 특점 기술에 관한 연구」

지난 제 7 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기간중에 관심있는 사람들의 연구논문 중에서 「태권도 경기의 특점 기술에 관한 연구」로 김명수(한대 예체능대강사), 나호성(대학원생)의 각 국가대표 선수들이 시합에서 사용된 특점 기술의 유형을 조사 분석한 연구는 앞으로의 태권도경기 기술개발을 위하여 바람직한 논문으로 생각된다.

태권도 國內學術研究論文의 分類에 관한 研究



한국중고태권도연맹대표시범단장
대한태권도협회 편집위원 김 석 련

目 次

- I. 序 論
 1. 研究의 必要性
 2. 研究의 目的
- II. 研究 方法
 1. 研究對象
 2. 研究범위
 3. 研究方法
- III. 結果 및 考察
 1. 연도별 분류
 2. 연구지별 분류
 3. 대학별 분류
 4. 연구 분야별 분류
- IV. 結論 및 提言
 1. 結 論
 2. 提 言

- 參 考 文 獻
■ 부 록 I · II

表 · 圖 目 次

- (表-1) 태권도 학술 논문의 연도별 연구지별 수집 편수
- (表-2) 대학별 연도별 체육학 석사 학위논문 수집 편수
- (表-3) 대학별 연도별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수집 편수
- (表-4) 연구분야별 연도별수집편수
- (圖-1) 연도별 태권도논문수집편수
- (圖-2) 연구지별 논문 수집편수
- (圖-3) 분야별 논문 수집편수
- (圖-4) 1980년대 전후의 분야별 논문 편수 비교

I. 序 論

1. 研究의 必要性

東邦의 해뜨는 나라 神秘한 宇宙의 靈氣를 제일먼저 받아 白衣의 民族 단전에 힘을 불어 넣어 주는 영원한 자랑이요, 文化의 유산인 民族 固有의 武芸 태권도는 世界 속의 宗主國이란 世界史에 길이 빛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武란 원래 창(戈)을 멈춘다(止)는 뜻에서 생긴 말이며, 이것은 곧 平和를 의미하기도 한다. 태권도는 平和를 사랑하는 우리 民族의 歷史와 함께 고난을 거듭하면서 그 맥을 이어와 1971년 대통령의 휘호(국기 태권도)를 하사 받은 뒤부터 급격한 發展을 이루어 오늘날 世界的인 스포츠로 發展하게 된 것이다.¹⁾

1972년 국기원이 개원되고 73년 W. T. F. (세계 태권도 연맹)가 창설되면서부터 대한 태권도 협회의 임원과 관계자들의 끊임없는 연구 노력으로 그 동안 많은 學文的 研究가 계속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태권도가 學文으로서의 체계를 조금씩 갖추어 나가기 시작한 것은 1971년 4월15일에 제1호 태권도지가 대한 태권도 협회로부터 발행된 이후라고 할 수 있으며, 그 후에 각 대학원의 체육학 석사 과정에서 태권도에 관한 研究가 활발해져 많은 研究者들의 論文이 發表되었으나 오늘날 그 일부가 학술지나 월간지에 發表되고 있을 뿐 그 나머지는 사라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스포츠 科學化라는 世界的인 思潮에 발맞추어 태권도 分野에도 研究 분위기가 조성되어 체계적인 연구를 거듭하여 宗主國의 면모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本 研究者는 1945년대부터 1985년 12월 사이에 國內에서 發表된 태권도의 모든분야에 關한 學術 研究論文을 총망라 수집하여, 분류 조사함으로써 宗主國인 우리 나라의 태권도 學文 研究의 變遷 과정과 분야별 영역을 밝힘으로써 태권도 연구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2. 研究 目的

本 研究의 目的은 1945년대부터 1985년 12월까지의 태권도에 관계되는 모든 分野의 學術 研究 論文을 수

1) 김석련: 무도 스포츠태권도(서울: 유림사, 1983. P 31)

집하여 연도별, 분야별, 대학별로 분류 조사하여 그 실태를 파악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태권도에 관계되는 실무자나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함에 있다.

II. 研究 方法

1. 研究對象

本 研究은 태권도에 관계되는 모든 분야의 學術研究 論文을 조사함에 있어 전국에서 발간되는 體育관계 전문지 및 각 大學 學位論文, 研究 論文集, 스포츠 과학 연구 보고서, 체육지, 태권도지 등에 발표된 研究 論文 총 151편을 수집한 것을 對象으로 하였다.

2. 연구범위

1) 本 研究은 1945년대부터 1985년 12월까지의 태권도에 관계되는 모든 분야의 학술 연구 논문을 조사하였다.

2) 태권도 관계 문헌 고찰은 국회 도서관의 「한국 박사 및 석사 학위 논문 총목표집 1~15집」(1945~1983년),²⁾ 태권도지 1호~55호(1971~1985),³⁾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인 서희경의 「한국 체육 관계문헌 해제목록」(1945~1970), 1976,⁴⁾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인 「한국 체육학 연구 논문의 내용별 분류에 관한 연구」(1930~1978), 1980,⁵⁾ 「학술 논문 기사색인」(1948~1982),⁶⁾ 공주사범대학 도서관, 1984 동아출판사 발행 「한국 논저 해제 목록집」(1974,⁷⁾ 을 대상으로 해서 수집하였다.

3) 수집한 논문의 대상은 태권도에 관하여 연구의 필요성, 목적, 연구방법, 결과 및 결론의 順에 의한 학술적인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자기 의견을 적은 논문으로 하였다.

3. 연구방법

本 研究方法은 태권도에 관한 학술연구 논문을 수집

하여 연도별, 연구지별, 대학별로 조사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도별 분류: 수집된 논문 제목을 연도별로 차례로 분류하여 시대적 변천과 그 특성을 조사하였다.

2) 연구지별 분류: 연구지별 분류는 체육에 관계되는 전문지 및 논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그 내용은 태권도지, 한국체육학회지, 스포츠과학 연구보고서, 월간체육지, 체육학 석사논문집, 교육대학원 석사논문집, 각 대학논문집, 학술발표회 논문집, 기타의 9가지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3) 대학별 분류: 수집된 논문 제목을 각 대학별 연도별로 체육 석사학위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4) 연구 분야별 분류: 분야별 분류는 태권도의 분류에 관한 참고 서적이 없으므로 해서 수집된 학술연구 논문들을 체육학 측면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하였으며, 수집하지 못한 논문의 일부는 제목만으로 분류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분류 범위에 중복되는 논문은 본 연구자가 가장 타당하다고 보는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분류 방법으로는 체육학 분류법에 谷村辰巳의 「체육학 연구 문헌 분류목록」⁸⁾ (제 1권)과 이철범의 「남자 체육학과 교육과정 전공 과목의 비교 연구」⁹⁾ 를 참고로 해서 아래와 같이 그 범위를 설정하고 분류하였다.

① 태권도사의 측면: 태권도가 인류의 생활과 사회에 대한 역사 記述과 연구 방법이 현재에 이른 발전에 내용을 학문적 입장에서 관찰하고 연구하는 역사 이론에 관하여 연구 고찰한 논문으로 하였다.

② 태권도 사회학적 측면: 태권도에 관한 사실적 문제점을 사회학적 측면에서 연구 분석하여 태권도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연구한 논문으로 아래와 같은 범위를 두고 분류하였다.

〈가정체육, 산업체육, 상업체육, 사회적 발달, 행동적성, 교우관계, 운동의욕, 생활실태, 환경, 레크리에

2) 국회도서관: 한국박사및 석사학위논문 총목표집, 1~15집(1945~1983).

3)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지, 1~55호(1971~1985).

4) 서희경: 한국 체육관계문헌 해제목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76.

5) 정락희: 한국 체육학 연구 논문의 내용별 분류에 관한연구, (1930~1978), 석사학위논문, 경희대 대학원, 1980.

6) 공주사범대학 도서관: 학술논문 기사색인(1948~1982), 1984.

7) 동아출판사: 한국 논저 해제 목록집, 1974.

8) 谷村辰巳: 체육학 연구문헌 분류목록 제 1권, 동경不昧堂출판사, 昭和45年(1970), PP 3~11, 582~593.

9) 이철범: 남자 체육학과 교육과정 전공과목의 비교연구, 한국체육학회지, 한국체육학회, 1974, 제 9호, PP 99~110.

에이선, 매스콤, 사회학적 연구)

③ 태권도 심리학적 측면: 태권도의 경기나 수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수의 의식과 행동의 정신 현상에 관하여 연구 분석한 논문으로 다음과 같은 범위를 두고 분류하였다.

(동기유발, 욕구, 성격, 인간관계, 태도, 운동학습, 시청각, 적응, 스트레스, 카운셀링, 정신기능, 정신활동, 정신건강도, 심신상관, 체면)

④ 태권도의 의학적 측면: 태권도가 인류의 평화와 건강과 자아방위 본능을 위해서 인간 스스로가 본능적인 욕구에 의해서 자발적인 수련을 함에 있어 인체의 발달 및 보전상 합리적인 신체 관리와 운동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건강의 유지와 증진을 위해 태권도 수련에 따르는 모든 장애나 상해 및 질병에 관하여 연구한 논문으로 다음과 같은 범위를 두고 분류하였다.

(보전위생, 피로도, 임상계, 흉문계, 심폐기능, 심전도, 근전도, 해부학, 에너지, 생리계, 체중감량, 생리현상에 관계되는 골격계, 근육계, 신경계, 호흡계, 뇌생리계)

⑤ 태권도 역학적 측면: 태권도에 관한 모든 동작을 연구 대상으로 해서 분석 또는 해석함으로써 그 안에서 보편적인 법칙을 유출하려는 학문으로 물리학에서 역학적인 법칙을 기본으로 하여 운동학적으로 분석하려는 분야를 역학적인 측면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범위를 두고 분류하였다.

(병진운동, 회전운동, 중력, 관성력, 가속도, 속도, 정확도, 반사신경, 중심이동, 골격자세, 지각계통, 공중자세, 원심력, 운동근력, 관절각도)

⑥ 측정 평가에 관한 논문: 태권도 수련이나 경기에 있어서 신체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 및 영양과 피로도에 관한 측면을 표준화된 척도(도구·방법)에 의해서 관찰한 결과를 객관성 있게 수량화 하여 밝힘으로써 수련자에게 발전적이며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인가를 이론적으로 연구한 논문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각종측정, 신체계측, 통계, 지수, 신체적성검사, 운동적성검사, 숙련테스트, 스텝테스트, 운동능력 측정, 발차기실태, 자세측정, 동작측정)

⑦ 태권도 관리학적 측면: 태권도의 경기나 수련활동이 적절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져 바람직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활동 전반에 관계되는 제조건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문제점을 학문적 이론으로 제시하여 정립한 논문으로 그 범위는 아래와 같다.

(체육관 사용관리, 경기장관리, 선수생활관리, 운동시설, 운동용구, 운동기구, 질서, 규율에 대한 관리, 행정관리, 안전관리, 정책관리)

⑧ 태권도 체력(트레이닝 포함)적 측면: 태권도의 수련이나 경기 중에 필요한 신체 능력에 관하여 연구 분석하여 인체의 형태나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육, 발달 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연구 논문으로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체격조건, 체중, 체력, 운동능력, 운동기능, 평행성, 근력, 순발력, 지구력, 민첩성, 조정력, 배근력, 약력, 근지구력, 유연성, 교차성, 위밍업, 트레이닝(서킷, 웨이트, 인터벌), 운동강도)

⑨ 태권도 교육학적 측면: 태권도 경기나 수련 방법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것을 과학적 교육적 학문적으로 연구하여 그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논문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지도, 지도법, 학습평가, 학습과정, 학습효과, 학습지도, 집단지도, 학습지도, 심판교육, 연습법, 운동형태지도, 일관교육)

⑩ 태권도 기술적인 측면: 태권도의 기초적인 기술과 경기 및 발차기를 중심으로한 경기 기술에 있어서 과학을 응용하여 태권도의 수련이나 경기에 유용하게 개변하여 이치에 맞도록 이론적 학문으로 체계화하여 정립한 논문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손기술, 발기술, 경기기술, 경기내용, 경기유형)

⑪ 기타: 앞에서 분류한 10개 항목 이외의 연구논문.

Ⅲ. 結果 및 考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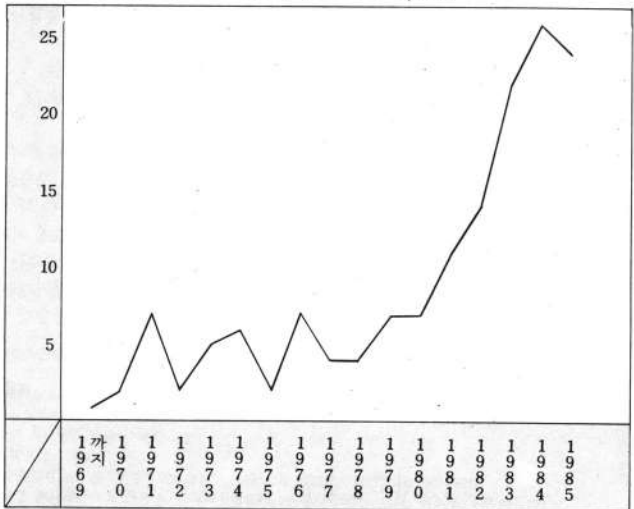
1. 연도별 분류

●〈表-1〉 태권도 학술 논문의 연도별, 연구지별 수집편수

분 류	년 도															計	%			
	1969 까지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태 권 도 지			5						1			3		1	5	3	3	21	13.9	
한국체육학회지						1									1	1	2	5	3.3	
스포츠과학연구보고서	1				1						1								4.0	
체 육 지																	2	1	6	4.0
체육학석사논문집				1		1		3	1	1	3	1	5	4	3	5	2	30	19.9	
교육학석사논문집					1	2		1		1	3	1	3	8	9	14	7	50	33.1	
각 대학 논문집		1	2	1	1	2	2	2	2	2		1	3		1	1	3	24	15.9	
학술발표논문집															3		4	7	4.6	
기 타		1			2			1				1		1				6	4.0	
計	1	2	7	2	5	6	2	7	4	4	7	7	11	14	22	26	24	151		
%	0.6	1.3	4.6	1.3	3.3	4.0	1.3	4.6	2.6	2.6	4.6	4.6	7.3	9.3	14.6	17.2	15.9		100	

연도별 분류는 〈표-1〉에서와 같이 총 151편 중 1945년에서 1969년까지 나타난 태권도에 관한 연구 논문은 1966년에 스포츠 과학 연구 보고서에서 발표된 1편(0.7%) 뿐이었으며 1970년부터는 매년 꾸준히 발표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1980년대에 접어들어 급격한 성장을 보여 1980년 7편(4.6%), 1981년 11편(7.3%), 1982년 14편(9.3%), 1983년 22편(14.6%), 1984년 26편(17.2%), 1985년 24편(15.9%) 순으로

발표되어 대체적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부터 1985년까지의 6년간에 발표된 논문이 10편(68.9%)으로 전체의 약 2/3가량을 차지하여 이 시기가 우리나라 태권도에 관한 학술 연구의 급성장을 가져온 시기라고 볼 수 있으며 85년도에 24편 밖에 수집되지 않은 것은 85년도 후기 졸업 학위논문과 기타의 논문집에 발표된 논문들이 전부 수집되지 못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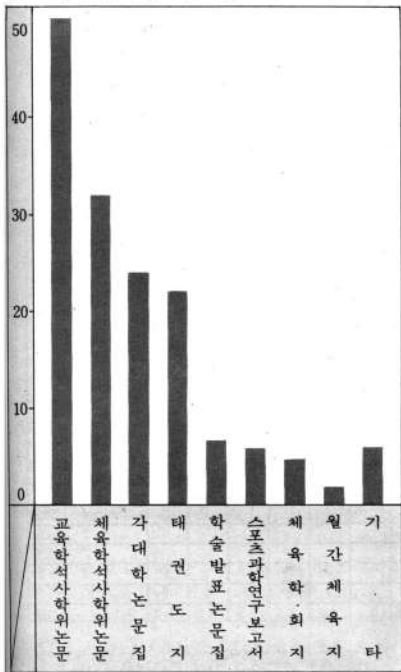


〈圖-1〉 연도별 태권도 논문 수집편수

2. 연구지별 분류

(표-1)에서의 같이 연구지별 분류는 수집한 논문 총 151편 중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50편(33.1%), 체육학 석사학위 논문 30편(19.9%), 태권도지 21편(13.9%), 각 대학 논문집 24편(15.9%), 학술발표 논문집 7편(4.6%), 스포츠 과학 연구 보고서 6편(4.0%), 기타 6편(4.0%), 한국 체육학회지 5편(3.3%), 체육지 2편(1.3%) 순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볼 때 각 대학의 대학원에서 교육학 및 체육학 석사학위 논문이 80편(53.3%)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체육지에는 가장 적은 2편(1.3%)만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圖-2) 연구지별 논문 수집편수



① 태권도지: 대한 태권도 협회에서 1971년 4월15일 제1호 태권도지를 발간하여 현재(85년 12월31일)까지

많은 연구 논문을 수록하였으나 석사학위 논문이나 기타 각 대학에서 발표된 논문들과 겹치지 않는 것만 총 21편으로 연도별로 분류하면 71년 5편(23.8%), 77년 1편(4.7%), 80년 3편(14.3%), 82년 1편(4.8%), 83년 5편(23.8%), 84년 3편(14.3%), 85년 3편(14.3%)의 순으로 나타났다.

② 한국 체육학회지: 1955년 한국 체육학회에서 「체육」이란 학술지가 발간되었으며 1969년 「한국 체육학회지」로 개칭 되면서부터 학술논문 전문지로 발간되었다. 체육학회지에 수록된 태권도 관계 논문은 총 5 편으로 1974년 1편(20%), 1983년 1편(20%), 1984년 1편(20%), 1985년 2편(40%)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③ 스포츠 과학 연구 보고서: 1964년 대한 체육회에서 제 1 권을 창간한 이후 매년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있으며 태권도에 관한 연구 논문이 스포츠 과학 연구 보고서에 수록된 것은 총 6편의 논문으로 1969년 1편(16.7%), 73년 1편(16.7%), 79년 1편(16.7%), 84년 2편(33.3%), 85년 1편(16.7%)의 연도별 순으로 나타났다.

④ 체육지: 1966년 1월 대한 체육회에서 「체육」이란 잡지가 월간지로 발간된 이후 체육에 관한 연구논문이 수록된 것은 1970년대부터이며 태권도에 관한 논문이 수록된 것은 총 2편으로 85년에 4월호와 8월호에 두편 모두가 수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⑤ 체육학 석사학위 논문집: 체육학 석사학위 논문은 1971년까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72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태권도에 관한 논문이 석사학위로 수여된 것을 선두로 해서 85년말 현재까지 총 30편으로 많은 학위논문이 발표되었으며 72년 이후 74년 1편(3.3%), 76년 3편(10.0%), 77년 1편(3.3%), 78년 1편(3.3%), 79년 3편(10.0%), 80년 1편(3.3%), 81년 5편(16.7%), 82년 4편(13.3%), 83년 3편(10.0%), 84년 5편(16.7%), 85년 2편(6.7%)의 연도별 순으로 발표 되었으며 전반적으로 볼 때 80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6년간에 걸쳐 학위로 수여된 논문이 20편으로 전체의 67%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⑥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집: 태권도에 관한 교육대학원의 석사학위 논문은 총 50편으로 연구지별로 가장 많은 태권도에 관한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1973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1편의 태권도 관계 논문이 교육학 석사학위로 수여받은 것을 선두로 해서 74년 2편(4.0%), 76년 1편(2.0%), 78년 1편(2.0%), 79년 3

편(6.0%), 80년 1편(2.0%), 81년 3편(6.0%), 82년 8편(16.0%), 83년 9편(18.0%), 84년 14편(28.0%), 85년 7편(14.0%)의 연도별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80년도 이후의 것이 42편으로 전체의 8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⑦ 각 대학 논문집: 태권도에 관한 논문을 가장 많이 발표한 경희대학교의 논문집을 비롯해서 국내 각 대학의 논문집에 총 24편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70년 1편(4.2%), 71년 2편(8.3%), 72년, 73년 각각 1편(4.2%), 74년 2편(8.3%), 75년 2편(8.3%), 76년 2편(8.3%), 77년 2편(8.3%), 80년 1편(4.2%), 81년 3편(12.5%), 83년 1편(4.2%), 84년 1편(4.2%), 85년 3편(12.5%)의 연도별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1970년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논문집에 태권도에 관한 연구 논문이 발표된 것을 필두로 해서 85년 12월 말 현재까지 매년 적은 편수나마 꾸준히 발표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⑧ 학술발표 논문집: 학술발표회 논문집은 83년 한국 대학태권도 연맹에서 주최한 제 1회 국제 대학태권도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것 중 중복된 것을 제외하고 3편을 수집하였고 85년 제 1회 세계태권도 학술발표대회에서 4편이 발표되어 모두 7편의 학술발표 논문이 수집된 것으로 나타났다.

⑨ 기타: 기타의 논문집은 70년 체육교육의 새비전이라는 교육 연구사의 교육연구지 제 3권 1호에 태권도 관계 논문이 1편 수록 된 것을 시작해서 73년 코치 아카데미 동우회지에 2편 76년 동아대학교 대학원 불교학 석사 1편, 80년 12월 명지대학 제 3회 학술연구 논문 발표 대회에서 입상한 논문이 1편, 82년 문교부정 책과제라는 책자에 1편의 연도별 순으로 나타나 총 6편의 연구 논문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3. 대학별 분류

(1) 체육학 석사학위 논문

〈表-2〉 대학별 연도별 체육학 석사학위 논문 수집 편수

연도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단국대	동국대	동아대	명지대	서울대	세종대	연세대	원광대	원남대	중앙대	조선대	한국대	한양대	합	%
1972								1									1	3.2
1973																		
1974													1				1	3.2
1975																		
1976	1					1											2	6.5
1977		1															1	3.2
1978						1											1	3.2
1979		1					1										1	4.12.9
1980					1												1	3.2
1981			1			1			1		1		1				5	16.1
1982		1				1								1			1	4.12.9
1983							1									1	2	6.5
1984			1	1	1	2						2					7	22.6
1985									1					1			2	6.5
합	1	3	2	2	4	4	2	1	1	1	1	2	2	1	1	3	31	
%	3.2	9.7	6.5	6.5	12.9	12.9	6.5	3.2	3.2	3.2	3.2	6.5	6.5	3.2	3.2	9.7		100

〈표-2〉와 같이 대학별 연도별 체육학 석사학위 논문이 발표되어 수집된 편수는 총 31편으로 72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1편의 태권도 관계논문이 석사학위

로 수여된 것을 비롯하여 74년 중앙대학교 1편(3.2%), 76년 경북대학교와 동아대학교에서 각각 1편(3.2%)씩 2편(6.5%), 77년 경희대학교 1편(3.2%), 78년 동아대

학교 1편(3.2%), 79년 경희대학교, 동국대학교, 명지대학교, 한양대학교에서 각각 1편(3.2%)씩 4편(12.9%) 80년 단국대학교 1편(3.2%), 81년 고려대학교, 동국대학교, 세종대학교, 원광대학교, 중앙대학교에서 각각 1편(3.2%)씩 5편(16.1%), 82년 경희대학교, 동국대학교,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에서 각각 1편(3.2%)씩 4편(12.9%), 83년 명지대학교, 한양대학교에서 각각

1편(3.2%)씩 2편(6.5%), 84년 고려대학교, 단국대학교, 동국대학교에서 각각 1편(3.2%)씩 3편(9.7%)이고 동아대학교, 전남대학교가 각각 2편(6.5%)씩 4편(12.9%)으로 모두 7편(22.6%)이고 85년에는 후반기 학위 논문이 수집되지 않아 연세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에서 각각 1편(3.2%)씩 2편(6.5%)으로 나타났다.

(2)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表-3〉 대학별 연도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수집 편수

대학교 년 도	건국대	경남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부산대	서울대	연세대	전남대	조선대	중앙대	충남대	한양대	計	%
1973				1											1	2.0
1974				2											2	4.0
1975																
1976				1											1	2.0
1977																
1978								1							1	2.0
1979			1	1									1		3	6.0
1980				1											1	2.0
1981				2					1						3	6.0
1982			1	6		1									8	16.0
1983				4	1						2	1		1	9	18.0
1984	2			8			1	1			1	1			14	28.0
1985	2	1						1	3						7	14.0
計	4	1	2	26	1	1	1	3	3	1	3	2	1	1	50	
%	8.0	2.0	4.0	52.0	2.0	2.0	2.0	6.0	6.0	2.0	6.0	4.0	2.0	2.0		100

〈表-3〉에서와 같이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은 73년에 경희대 교육대학원에서 1편이 발표된 것을 선두로 현재까지 총 50편이 발표되었으며 그 후로 74년 경희대학교 2편(4.0%), 76년 경희대학교 1편(2.0%), 78년 서울대학교 1편(2.0%), 79년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 충남대학교에서 각각 1편(2.0%)씩 3편(6.0%), 80년 경희대학교 1편(2.0%), 81년 경희대학교 2편(4.0%), 전남대학교 1편(2.0%)으로 모두 3편(6.0%), 82년, 경북대학교 1편(2.0%), 경희대학교 6편(12.0%), 동국대학교 1편(2.0%)으로 모두 8편(16.0%)이 발표 되었고 83년 경희대학교 4편(8.0%), 고려대학교 1편(2.0%), 조선대학교 2편(4.0%), 중앙대학교 1편(2.0%), 한양대학교 1편(2.0%), 으로

모두 9편(18.0%)으로 나타났고 84년에는 건국대학교 2편(4.0%), 경희대학교 8편(16.0%),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조선대학교, 중앙대학교 각각 1편(2.0%)씩 4편(8.0%)으로 모두 14편(28.0%)으로 나타났으며 85년에는 경남대학교, 서울대학교가 각각 1편(4.0%), 건국대학교 2편(4.0%), 연세대학교에서 3편(6.0%)씩 7편(14.0%)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볼 때 80년도 이후에 발표된 것이 42편으로 전체의 80.0%를 차지하였으며 특이한 것은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만 발표된 것이 총 26편으로 전체의 52.0%를 나타내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체육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4. 연구분야별 분류

〈表-4〉 연구분야별 연도별 수집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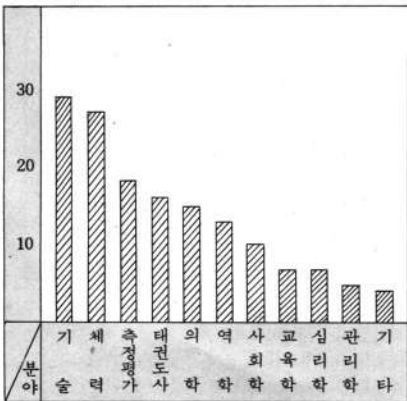
	태권도사	사회학	심리학	의학	역학	측정평가	관리학	체력 (트레이닝)	교육학	기술	기타	計	%
1969까지						1						1	0.6
1970									1		1	2	1.3
1971	2							3	1		1	7	4.6
1972	1									1		2	1.3
1973	1					1		1	1	1		5	3.3
1974	1					1		3			1	6	4.0
1975	1							1				2	1.3
1976	1		1		1	1				3		7	4.6
1977	1				2					1		4	2.6
1978			1		1		1		1			4	2.6
1979		1				3	2			1		7	4.6
1980		1		1		1		2		1	1	7	4.6
1981	1			1	2	1		3	1	2		11	7.3
1982		2	1	2	2	2		2	1	1		14	9.3
1983	1	4	1	1		3		2	1	5		22	14.6
1984	2		2	6	2	2	1	7		4		26	17.2
1985	3	2	1		3	2	1	3	1	8		24	15.9
計	16	10	7	15	13	18	5	27	7	29	4	151	
%	10.6	6.6	4.6	9.9	8.6	11.9	3.3	17.9	4.6	19.2	2.6		100

〈표-4〉에서와 같이 연구 분야별 논문수는 총151편 중 기술에 관한 연구가 29편(19.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체력 27편(17.9%), 의학 15편(9.9%), 태권도사 16편(10.6%), 측정평가 18편(11.9%), 의학 13편(8.6%), 사회학 10편(6.6%), 교육학 7편(4.6%), 심리학 7편(4.6%), 관리학 5편(3.3%), 기타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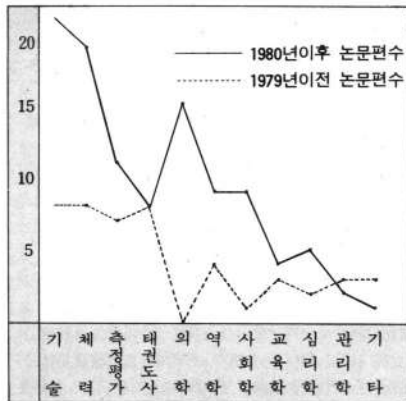
편(2.6%)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볼 때 1980년도 이후에 발표된 논문이 104편으로 전체의 68.9%를 차지하면서 대체적으로 분야별로도 고르게 발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80년도 이전에는 태권도 사적 측면과 체력 및 기술에 관한 연구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圖-3〉 분야별 논문 수집편수



〈圖-4〉 1980년대 전후의 분야별 논문 편수 비교



VI. 結論 및 提言

1. 結 論

45년대부터 85년 12월까지의 태권도에 관한 학술 연구 논문 151편을 수집하여 연도별, 연구지별, 대학별, 분야별로 조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① 연도별 태권도 관계 학술 논문의 발표 편수는 66년에 1편이 최초로 발표된 이래 70년까지 3편(2.0%), 75년까지 22편(14.6%), 80년까지 29편(19.2%), 85년 12월 현재까지 97편(64.2%)의 논문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80년 이후에 많은 논문이 발표되어 이 시기가 우리 나라의 태권도에 관한 학술 연구의 급성장을 가져온 시기가 되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② 연구지별 발표 편수는 태권도지가 21편(13.9%), 한국 체육학회지 5편(3.3%), 스포츠과학 연구보고서 6편(4.0%), 체육지 2편(1.3%), 체육학 석사논문 30편(19.9%), 교육학 석사논문 50편(33.1%), 각 대학 논문집 24편(15.9%), 학술발표 논문 7편(4.6%), 기타 6편(4.0%)의 논문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③ 대학별 태권도에 관한 석사학위 논문은 총 81편(53.6%)으로 체육학 석사학위 논문이 31편(20.5%)이고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이 50편(33.1%)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만 우리 나라 전체 대학교 학위 논문의 35.8%인 29편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④ 연구 분야별 분류는 기술에 관한 연구 논문이 29편(19.2%)으로 가장 많았으며 체력 27편(17.9%), 의학 15편(9.9%), 태권도사 16편(10.6%) 증경평가 18편(11.9%), 역학 13편(8.6%), 사회학 10편(6.6%), 교육학 7 편(4.6%), 심리학 7편(4.6%), 관리학 5 편(3.3%), 기타 4편(2.6%)의 순으로 나타났다.

2. 提 言

국내에 발표된 태권도 관계 학술 연구논문 151 편을 수집하여 조사 분석한 결론을 토대로 태권도의 학문적 정립과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한다.

① 태권도 관계 지도자나 연구자들은 계속적으로 많은 연구를 하여 학술적으로 체계적인 연구 논문을 많이 발표해야 하겠다.

② 학문적으로 어렵고 깊이 있는 태권도에 관한 심리학이나 역학 및 교육학 분야에 더욱 많은 연구 논문

이 발표되어야 하겠다.

③ 태권도에 관한 학문적 정립을 위해 태권도 관계 기관에서는 학술적으로 연구 발표할 수 있는 태권도전문 연구 기관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参 考 文 献

- 1) 김건수: 체육의학, 서울보신문화사, 1973.
- 2) 김석련: 무도·스포츠태권도, 서울, 유림사, 1983.
- 3) 라현성: 한국체육사, 서울, 교학연구사, 1981.
- 4) 민돈식: 한국체육학 연구에 관한고찰,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1976.
- 5) 선병기: 체육측정 및 평가 방법론, 고려대학교 출판부, 1981.
- 6) 윤인호: 체육심리학, 서울, 문백사, 1978.
- 7) 이금세: 키니시얼러지, 서울, 동화문화사, 1982.
- 8) 이종각: 체육스포츠사학, 서울, 경림출판사, 1975.
- 9) 정찬성: 현대 트레이닝의 이론과 실제, 서울 명지출판사, 1984.
- 10) 정행도 외 2명: 운동 행동의 심리학적 연구, 서울 명지출판사, 1981.
- 11) 조명길: 체육사회학, 서울, 형설출판사, 1981.
- 12) 국회도서관: 한국 박사및 석사학위 논문 총목록집 1~15집, (1945~1983)
- 13) 공주사범대학 도서관: 학술논문 기사색인(1948-1982), 1984.
- 14)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지 1~55호(1971~1985)
- 15) 동아출판사: 세계백과 대사전, 4·12·16·19·22·26 권, 1983.
- 16) 동아출판사: 한국 논저해제 목록집, 1974.
- 17) 서경희: 한국 체육관계 문헌 해제목록,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76.
- 18) 정락희: 한국 체육학 연구논문의 내용별 분류에 관한 연구, (1930~1978),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1980.
- 19) 이법철: 남자 체육학과 교육과정 전공과목의 비교연구, 한국 체육학회지, 한국체육학회, 1974.
- 20) 谷村辰巳: 체육학 연구문헌 분류목록, 제 1권, 동경 下駄堂출판사, 昭和45년(1970).
- 21) 스포츠과학 연구 보고서, 대한체육회(1964~1985)
- 22) 한국체육학회지
- 23) 체육, 대한체육회(1970~1985)
- 24) 제 1회 국제 태권도학술 세미나 논문집, 대학 태권도 연맹, 1983.
- 25) 제 1회 세계 태권도 학술발표 논문집, 국기원, 1985.

연구 연도별 분류

- ① 김학현: 태권도 선수의 체격 및 수장골에 대한 고찰, 스포츠과학 연구보고서 제 3권 1호, 1966.
- ② 송진경: 국민학교에서의 태권도 지도, 체육 교육의 새비전 교육 연구사 교육연구지 제 3권 11호, 1970.
- ③ 임규봉: 태권도의 기본,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논문집, 1970.
- ④ 김영수: 태권도가 체중 및 체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구 교육대학 논문집, 1971.
- ⑤ 박병주: 국민학교에 있어서 태권도 지도에 관한 연구, 태권도지 제 2호, 1971.
- ⑥ 백용기: 태권도의 과학적인 연구, 태권도지 제 1·2호, 1971.
- ⑦ 안희영: 한국 태권도의 발달과 변천, 대전 공업전문대학 논문집 제 8호, 1971.
- ⑧ 현우영: 태권도인의 체력에 관한 연구, 태권도지 제 2·3호, 1971.
- ⑨ 현우영: 태권도인과 타 경기인의 체력비교, 태권도지 제 4호, 1971.
- ⑩ 조완목: 태권도사, 태권도지, 제 1·2호, 1971.
- ⑪ 정찬모: 고대 우리나라 태권도의 발전 과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72.
- ⑫ 조현호: 태권도를 응용한 호신술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논문집, 1972.
- ⑬ 김영수: 태권도가 체위 및 체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구교육대학 논문집 제 9집, 1973.
- ⑭ 전계승: 학교 체육에 있어서 태권도 지도의 실태 조사연구, (전북내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1973.
- ⑮ 정찬모: 고구려 태권도에 관한 연구, 코치 아카데미 동우회지, 1973.
- ⑯ 정찬모: 국가 대표선수 양성을 위한 태권도 트레이닝 계획 코치 아카데미 동우회 발표 논문, 1973.
- ⑰ 현우영: 태권도 서기 자세 변화에 따른 기술의 분석, 스포츠과학 연구보고서 제 10권 1호, 1973.
- ⑱ 안희영: 태권도의 기초적 트레이닝의 방법적 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1974.
- ⑲ 김대식: 태권도 단급과 동작 시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한국 체육학회지 제 9호, 1974.
- ⑳ 김영철: 태권도의 체격적 고찰, 대구교육대학 논문집, 1974.
- ㉑ 김 철: 태권도 알차기 강화 수련을 위한 방법적 연구,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1974.
- ㉒ 정운배: 태권도의 기본기 기술의 트레이닝 및 체육 육성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1974.
- ㉓ 정찬모: 고려시대 수박씨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체육지, 1974.
- ㉔ 배남욱: 격기 태권기술의 트레이닝 및 체력육성에 대한 고찰 및 연구, 경희대학교 체육학 논문집 제 3권, 1975.
- ㉕ 조현호: 태권도의 사격 의의와 자세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논문집, 1975.
- ㉖ 박동기: 신이 태권도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 석사학위 논문, 1976.
- ㉗ 안영희: 태권도에서 팔로막는 동작의 분류에 의한 해부학적, 역학적 분석 연구, 대전공전 논문집 제 18호, 1976.
- ㉘ 이동수: 태권도 경기의 발차기 실태에 관한 조사분석, 석사학위 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1976.
- ㉙ 정찬모: 삼국시대의 태권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논총, 1976.
- ㉚ 조근중: 태권도 차기 기술 분석,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1976.
- ㉛ 지삼업: 태권도의 거투기에 있어 알차기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1976.
- ㉜ 최 실: 태권도 알차기의 기능적 효과 지도 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1976.
- ㉝ 강충식: 태권도의 알차기물 중심이로한 동작의 분류와 역학적 연구, 공주사범대학 생활과학 연구지, 1977.
- ㉞ 김형률: 태권도 경기에서 중심기가 승부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1977.
- ㉟ 안영희: 무예도 보통지의 권법에 관한 연구, 대전공업전문대학 논문집 제 20집, 1977.
- ㊱ 안희경: 인체 운동의 역학적 원리, 태권도지 제 23, 24, 25, 26호, 1977-1978.
- ㊲ 송요식: 한국 태권도의 진흥 방안에 관한 연구, (관리적인 측면에서), 석사학위 논문, 동아대 대학원, 1978.
- ㊳ 안희영: 태권도·경투·공수도 팔동작의 분류에 의한 해부학적 역학적 분석 연구, 대전공전 논문집, 제 23-1호, 1978.
- ㊴ 양동영: 태권도 차기 동작의 안정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1978.
- ㊵ 허준순: 태권도 선수의 성격 특성과 학업 성취에 관한 연구, 경남공업전문대학 논문집, 1978.
- ㊶ 김병수: 격기 종목 선수의 체력, 지능, 성격, 특성에 관한 연구(유도, 레슬링, 태권도, 권투, 역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1979.
- ㊷ 김병수·남종선: 투기 종목 선수의 체력과 성격(유도, 레슬링, 태권도, 복싱, 역도를 중심으로), 스포츠 과학 연구 보고서, 1979.
- ㊸ 박중화: 현행 태권도 경기의 실태와 그 문제성에 관한 고찰(경기 방법 및 규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1979.

- 44 박희성: 태권도 경기력이 체격, 체력, 기술에 미치는 결정요인분석, 석사학위 논문, 명지대 대학원, 1979.
- 45 이규석: 우리나라 태권도의 심사및 경기 규칙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 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1979.
- 46 이황구: 태권도 보급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서울시내 태권도 도장 수련장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1979.
- 47 하광호: 태권도의 앞차기와 돌려차기의 경기력 효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충남대 교육대학원, 1979.
- 48 김계홍: 태권도 경기의 구조론적 분석, 태권도지 제33호, 1980.
- 49 김석련: 태권도 선수의 외상에 관한 조사연구(서울시내 남자 고등학교 선수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제 3회 학술 논문발표 대회 입상논문, 1980.
- 50 류영권: 태권도 경기에서 받아차기가 승부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 교육대학원, 1980.
- 51 이황구: 사회 체육면에서 본 태권도 가치성에 관한 조사연구, 태권도지 제36호, 1980.
- 52 이황구: 족장이 순발력에 미치는 영향, 태권도지 제35호, 1980.
- 53 조근중: 태권도 수련에 의한 체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체육과학지, 1980.
- 54 최충삼: 유도선수와 태권도 선수의 근력과 순발력의 비교 연구,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 대학원, 1980.
- 55 김정지: 태권도 경기의 외상에 관한 조사연구(한국 대표선수의 우수 선수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1981.
- 56 김형목: 태권도 빗차기의 역학적 분석, 청주대학 논문집 제13호, 1981.
- 57 남중태: 태권도 공격 기술의 반응 속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1981.
- 58 류효평: 한국 태권도 발전의 사적고찰, 석사학위 논문, 건남대학교 교육대학원, 1981.
- 59 박승용: 태권도 장애물 격파 동작의 역학적분석(영상 분석 방법을 이용),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 대학원, 1981.
- 60 신상규: 태권도 수련(교육)이 유아의 성장 및 성격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세종대 대학원, 1981.
- 61 양홍모: 태권도 수련생과 비수련생의 체력및 체격(국민학교 남자 고학년울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1981.
- 62 이강희: 태권도 경기 내용에 관한 비교 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1981.
- 63 정찬성: 체급경기 우수 선수의 기조체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1981.
- 64 지삼업: 태권도의 겨루기에 있어 빗겨 서기가 승패에 미치는 영향, 부산산업대학교 논문집, 제27권, 1981.
- 65 하광호: 태권도 운동이 기조체력에 미치는 영향, 광주 경성문화대학교 논문집 제2호, 1981.
- 66 김영호: 태권도 격파 선수의 수(손)부에 대한 임상적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 대학원, 1982.
- 67 김태호: 태권도 발차기의 운동학적 분석(돌려차기와 뒷차기의 상호 연결 동작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1982.
- 68 박창덕: 태권도 경기내용에 관한 조사연구(고등학교·대학교 우수 선수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1982.
- 69 박해석: 인체의 고(股)관절 가동 능력과 태권도발차기와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동국대 교육대학원, 1982.
- 70 신우철: 태권도 선수의 체급별 체격및 체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 교육대학원, 1982.
- 71 심용운: 태권도 선수의 3분 3회 승강(昇降) 운동시의 맥박수 반응시간 피로도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 교육대학원, 1982.
- 72 장재렬: 투기 선수의 외상에 관한 조사연구(유도선수와 태권도 선수를 중심),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 교육대학원, 1982.
- 73 경길상: 태권도 훈련이 아동들의 체력변화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동국대 대학원, 1982.
- 74 정만순: 태권도 교육과정 운영실태의 분석적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 대학원, 1982.
- 75 정찬모: 태권도 정신 철학의 정립에 관한 연구, 문교부 정책 연구과제, 1982.
- 76 정찬성: 태권도 수련이 아동 신체발육에 미치는 영향, 태권도지 제40호, 1982.
- 77 최인수: 태권도 수련생의 체격및 체력요인에 대한 비교 연구, 석사학위 논문, 조선대 대학원, 1982.
- 78 최종인: 무도인의 신체적 특징에 관한 조사연구(유도, 태권도, 점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 교육대학원, 1982.
- 79 최태담: 태권도, 유도선수와 농구, 배구선수의 근력과 순발력에 관한 비교 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 교육대학원, 1982.
- 80 권영희: 기합이 근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 교육대학원, 1983.
- 81 김영수: 워밍업의 효과에 관한 연구(태권도 선수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 대학원, 1983.
- 82 김석련: 태권도 경기의 외상에 관한 비교 고찰(남고 선수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 대학원, 1983.
- 83 김정래: 태권도 지도의 일반원리 및 교수법, 태권도지 제46호, 1983.
- 84 김창규: 태권도 경기시의 에너지 소비량, 제1회 국제 태권도 학술 세미나 발표논문, 1983.

- 85 남기영 : 태권도 경기시 선제 공격이 승부에 미치는 영향(중·대학교 우수 선수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 교육대학원, 1983.
- 86 민경태 : 태권도 품세 변천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 대학원, 1983.
- 87 민경호 : 태권도 경기에 있어서 각 요인간의 상관, 제 1회 국제 태권도 학술세미나 발표 논문집, 1983.
- 88 박현중 : 여성 태권도 선수와 수련생의 실태파악 및 체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조선대 교육대학원, 1983.
- 89 이규석 : 태권도 선수의 체중 감량과 그 실태와 문제점, 태권도지 제47호, 1983.
- 90 이규형·양희중 : 태권도의 가치성(정신적, 사회적)에 관한연구(국민학생들을 중심), 태권도지 제47호, 1983.
- 91 이성진 : 한국 투기의 사적고찰(각저와 수박을 중심으로) 충남 호서대학 논문집 제 2권, 1983.
- 92 이승국 : 태권도 경기의 기술 유형에 관한 조사연구, 태권도지 제47호, 1983.
- 93 이승국 : 태권도 경기의 돌려차기 기술분석과 특징부위에 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 교육대학원, 83.
- 94 이은송 : 여성 생리현상이 태권도 선수의 체력에 미치는 영향, 태권도지 제44호, 1983.
- 95 윤정수 : 국가 태권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 교육대학원, 1983.
- 96 조근삼 : 태권도 발차기 시간과 체중및 하지장과의 상관에 관한 연구, 제 1회 국제 태권도 학술 세미나 발표 논문, 1983.
- 97 조현길 : 태권도 경기내용에 관한 조사연구(고등학교, 대학교 선수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 교육대학원, 1983.
- 98 최인수 : 태권도 수련생의 체격및 체력요인에 관한 비교 연구, 석사학위 논문, 조선대 교육대학원, 1983.
- 99 최창국·권영진 : 기합이 근력 증강에 주는 효과(태권도 선수를 중심), 한국 체육학회지 제22권 2호, 1983.
- 100 황병모 : 태권도의 관심도에 관한 조사연구(중·고등학생을 중심),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 교육대학원, 1983.
- 101 황영모 : 태권도 선수의 특성 불안, 상태불안이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 교육대학원, 1983.
- 102 강성철 : 태권도 선수의 반응 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 체육학회 생리분과 학술발표 논문 초록집, 1984.
- 103 강시후 : 투기 선수의 유연성, 민첩성, 지구력 간의 비교 연구, 석사학위 논문, 동아대 대학원, 1984.
- 104 민병호 : 태권도 앞돌려차기 기법의 각도와 이동거리및 속도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교육대학원, 84.
- 105 김길평 : 태권도 차기동작에 따른 근전도 분석, 석사학위 논문, 전남대 대학원, 1984.
- 106 김중수 : 태권도 차기동작에 따른 근전도 분석, 석사학위 논문, 전남대 대학원, 1984.
- 107 김중연 : 투기종목 선수의 체격및 체력에 관한 비교 연구(대학 선수들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 교육대학원, 1984.
- 108 김진호 : 김정래 : 태권도, 유도, 펜싱 선수의 성격 진단 연구(국가대표를 중심), 태권도지 제50호, 1984.
- 109 노상석 : 투기종목 선수의 체격및 체력에 관한 연구(전국 체육고등학교 권투, 레슬링, 유도, 태권도 선수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 교육대학원, 1984.
- 110 류호경 : 태권도 선수의 경기 전·후 심황에 대한 심리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경희대 교육대학원, 1984.
- 111 박수복 : 체격과 체력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태권도 선수를 중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 교육대학원, 1984.
- 112 박현중 : 여성 태권도 선수와 수련생의 실태파악 및 체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교육대학원, 1984.
- 113 성낙훈 : 태권도 찍어차기의 역학적 분석,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 교육대학원, 1984.
- 114 안용규 : 태권도 경기의 각 발차기 사용빈도수와 특점력에 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 대학원, 1984.
- 115 양정수 : 태권도 수련 방식에 따른 체력 변화에 대한 일연구,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 대학원, 1984.
- 116 이상봉 : 우리나라 수박(手搏)에 대한 사적 고찰, 석사학위 논문, 부산대 교육대학원, 1984.
- 117 이승국 : 태권도 경기의 스텝의 유형별 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태권도지 제48호, 1984.
- 118 이용무 : 태권도 경기의 체급별 사용 기술에 관한 빈도분석(1982~1983년까지 전국 종별 신인선수권 대회 대학부 계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건국대 교육대학원, 1984.
- 119 이재수 : 태권도 선수의 경기시 운동 강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동아대 대학원, 1984.
- 120 이종환 : 한국 수박(手搏)의 발달과정(무에도보통지 권4를 중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 교육대학원, 1984.
- 121 정만순 : 태권도 경기 판정 내용의 분석 연구, 태권도지 제51호, 1984.
- 122 정찬모 : 체급경기 선수들의 무 산소성 역력에 관한 연구, 스포츠과학 연구 보고서, 1984.
- 123 정홍구 : 태권도 뒷차기 기법의 각도, 속도및 이동 거리에 관한 연구(인전 체육전문대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 교육대학원, 1984.
- 124 진중희 : 격기종목 선수의 순발력및 민첩성에 관한 연구(태권도 선수와 복싱 선수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건국대 교육대학원, 1984.
- 125 채홍원의 2명 : 청소년기 운동 충격이 뼈대에 미치는 영향(태권도와 배구 경기를 중심), 스포츠과학 연구보고서 1984.

- ⑥ 최영렬 : 태권도 앞돌려차기의 근전도적 연구 (하지근육을 중심),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 교육대학원, 1984.
- ⑦ 최인범 : 한국 태권도의 효율적인 지도방법에 관한 연구, 경기대 논문집, 1984.
- ⑧ 강성철 : 태권도 선수의 발차기 기술동작시간과 순발력과의 상관관계에 관한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 교육대학원, 1985.
- ⑨ 강신복 : 교수학습 원리에 의한 태권도지도 방법, 제 1회 세계태권도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985.
- ⑩ 강충용 : 태권도 경기규칙 개선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 논문, 경남대 교육대학원, 1985.
- ⑪ 콧대룡 : 태권도 경기의 다목적 기술 조사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85.
- ⑫ 김근학 : 소년기 태권도의 체격 및 체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건국대 교육대학원, 1985.
- ⑬ 김명수 : 태권도 득점 기술에 관한 연구, 한국 체육학회지, 1985.
- ⑭ 김석련 : 국내 선수와 외국 선수의 태권도 경기 내용에 관한 비교 분석 연구 (제 7회 세계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중심으로), 태권도지 제55호, 1985.
- ⑮ 박천재 : 태권도의 거르기 기본 거리와 돌려차기 거리간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세대 대학원, 1985.
- ⑯ 김의영 : 여자 태권도 선수와 일반 학생의 체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건국대 교육대학원, 1985.
- ⑰ 선병기 : 태권도 수련이 어린이 성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 제 1회 세계태권도학술발표 대회 논문집, 1985.
- ⑱ 신상근·박철호 : 격기 선수의 체형 및 신체구성에 관한 연구 (태권도, 레슬링, 유도, 복싱을 중심), 한국 체육학회 운동 생리분과 학술 발표회 논문 초록집, 1985.
- ⑳ 안해규 : 태권도 경기의 발차기에 대한 라운드별 조사연구, 태권도지 제52호, 1985.
- ㉑ 안해옥 : 주춤시기 몸통 지르기에 관한 연구, 태권도지 제52호, 1985.
- ㉒ 양진방 : 해방 이후 태권도의 발전과정과 그 역사적 의의,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 교육대학원, 1985.
- ㉓ 이광호 : 태권도 경기의 체급별 사용 기술분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 교육대학원, 1985.
- ㉔ 이진화 : 한국 태권도 발달 과정에 관한 사적고찰 (조선시대 이후를 중심), 영남대 인문연구지 제 8호, 1985.
- ㉕ 장기준 : 태권도 앞차기와 찍어차기의 운동학적 분석,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 대학원, 1985.
- ㉖ 정나희 : 이승국 : 태권도 경기의 공격 유형에 따른 득점 변인과 실점 변인 분석, 한국 체육과학 논문집 제 4권 1호, 1985.
- ㉗ 정만순 : 태권도 선수들의 공간 운동 능력 향상 방안, 월간체육지 8월호, 1985.
- ㉘ 정찬모 :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 트레이닝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스포츠과학 연구보고서, 1985.
- ㉙ 최영렬 : 태권도 경기시 효율적인 거르기 자세에 관한 연구, 월간체육지 제20권 4호, 1985.
- ㉚ 최인범 : 태권도 수련이 아동들의 신체발육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 대학원 논문집, 1985.
- ㉛ 한승조 : 한국 전통사상과 태권도, 제 1회 세계 태권도 학술발표 대회 논문집, 1985.
- ㉜ 황인승 : 태권도 뒤후려차기 기술의 역학적 분석, 제 1회 세계 태권도 학술발표 대회 논문집, 1985.

부록 - II

연구 분야별 분류

● 태권도 史의 측면

- ① 안희영 : 한국 태권도의 발달과 변천, 대전 공업전문대학 논문집 제 8호, 1971.
- ② 조한욱 : 태권도史, 태권도지 제 1·2호, 1971.
- ③ 정찬모 : 고대 우리나라 태권도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 대학원, 1971.
- ④ 정찬모 : 고려시 태권에 관한 연구, 코치 아카데미 동우회지, 1973.
- ⑤ 정찬모 : 고려시대 수박회에 관한 연구, 서울대 체육지, 1974.
- ⑥ 조현호 : 태권도의 史의의의와 자세에 관한연구,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논문집, 1975.
- ⑦ 정찬모 : 삼국시대의 태권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 사범대학 논총, 1976.
- ⑧ 안영희 : 무예도 보통지의 권법에 관한 연구, 대전공업 전문대학 논문집 제20집, 1977.
- ⑨ 류호평 : 한국 태권도 발전에 史의 고찰, 석사학위 논문, 전남대 교육대학원, 1981.
- ⑩ 민경대 : 한국 태권도 몸세 변천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 대학원, 1983.
- ⑪ 이성진 : 한국 투기의 史의 고찰 (자저와 수박을 중심으로), 충남호서대학 논문집 2권, 1983.

- ⑫ 이상봉 : 우리나라 수박에 대한 史的고찰, 석사학위논문, 부산대 교육대학원, 1984.
- ⑬ 이종환 : 한국 수박의 발달과정 (무예도보통지 권 4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 교육대학원, 84.
- ⑭ 이진화 : 한국 태권도 발달과정에 관한 사적고찰(조선시대 이후를 중심으로), 영남대 인문 연구지 제 8호, 1985.
- ⑮ 양진방 : 해방 이후 한국 태권도의 발달과정과 그 역사적 의의,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 교육대학원,
- ⑯ 한승조 : 한국 전통 사상과 태권도, 제 1회 세계 태권도 학술발표 대회 논문집, 1985.

● 태권도의 사회학적 측면

- ① 이창구 : 태권도보급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서울시내 태권도장, 수련장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 교육대학원, 1979.
- ② 이창구 : 사회 체육면에서 본 태권도 가치성에 관한 조사 연구, 태권도지 제36호, 1980.
- ③ 정길상 : 태권도 훈련이 아동들의 체력변화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동국대 대학원, 1982.
- ④ 정찬성 : 태권도 수련이 아동 신체발육에 미치는 영향, 태권도지 제40호, 1982.
- ⑤ 박현종 : 여성 태권도 선수와 수련생의 실태파악및 체력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 교육대학원, 1983.
- ⑥ 윤정수 : 국기 태권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 교육대학원, 1983.
- ⑦ 이규형 · 양희중 : 태권도의 가치성(정신적, 사회적)에 관한 연구(국고생을 중심), 태권도지 제47호, 1983.
- ⑧ 황병모 : 태권도의 관심도에 관한 조사연구(중·고등학교 학생을 중심),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 교육대학원, 1983.
- ⑨ 선병기 : 태권도 수련이 어린이 성격형성에 미치는 영향, 제 1회 세계 태권도학술발표 대회 논문집, 1985.
- ⑩ 최인범 : 태권도 수련이 아동들의 신체발육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 대학원 논문집, 1985.

● 태권도의 심리학적 측면

- ① 박동기 : 선이 태권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 1976.
- ② 허중순 : 태권도 선수의 성격 특성과 학업성적에 관한연구, 경남공전 논문집, 1978.
- ③ 정찬모 : 태권도 정신 철학의 정립에 관한 연구, 문교부 정책 연구과제, 1982.
- ④ 황억모 : 태권도 선수의 특성불안, 상태불안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중대 교육대학원, 1983.
- ⑤ 김진호 : 김정래 : 태권도, 유도, 펜싱 선수의 성격 진단 연구, (국가 대표를 중심으로), 태권도지 제50호, 1984.
- ⑥ 류효경 : 태권도 선수의 경기 전·후 상황에 대한 심리적고찰,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 교육대학원, 1984.
- ⑦ 정만순 : 태권도 선수들의 공간 운동 능력 향상 방안, 체육지 8월호, 1985.

● 태권도의 의학적인 측면

- ① 김석련 : 태권도 선수의 외상에 관한 조사연구(남고생을 중심), 명지대 제 3회 학술연구논문발표 대회입상 논문, 1980.
- ② 김경지 : 태권도 선수의 외상에 관한 조사연구(한국대표 우수 선수를 중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 교육대학원, 1981.
- ③ 김영호 : 태권도 격파 선수의 수부에 대한 임상적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 대학원, 1982.
- ④ 장재렬 : 투기 선수의 외상에 관한 조사연구(유도와 태권도 선수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 교육대학원, 1982.
- ⑤ 심용운 : 태권도 선수의 3분 3회 승강 운동시의 맥박수 반응시간 피로도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 교육대학원, 1982.
- ⑥ 김석련 : 태권도 경기의 외상에 관한 비교고찰, 석사학위 논문, 명지대 대학원, 1983.
- ⑦ 김창규 : 태권도 경기의 에너지, 소비량, 제 1회 국제 태권도학술세미나 발표 논문, 1983.
- ⑧ 이규석 : 태권도 선수의 체중 감량과 그 실행과 문제점, 태권도지 제47호, 1983.
- ⑨ 이은송 : 여성 생리 현상이 태권도 선수의 체력에 미치는 영향, 태권도지 제44호, 1983.
- ⑩ 강성철 : 태권도 선수의 반응 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 체육학회 운동생리분과 학술발표회 논문 초록집, 1984.
- ⑪ 김길평 : 태권도 차기 동작에 따른 근전도 분석, 석사학위 논문, 전남대 대학원, 1984.
- ⑫ 김중수 : 태권도 차기 동작에 따른 근전도 분석, 석사학위 논문, 전남대 대학원, 1984.

- ⑬ 정찬모: 체급경기 선수들의 무산소성 역취에 관한 연구, 스포츠과학 연구보고서, 1984.
- ⑭ 채홍원 외 2명: 청소년기 운동종격이 뼈대에 미치는 영향(태권도와 배구를 중심), 스포츠과학 연구 보고서 1984.
- ⑮ 최영렬: 태권도 앞돌려 차기의 근전도적연구(하지근육을 중심),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 교육대학원, 1984.

● 태권도의 역학적 측면

- ① 안희영: 태권도에서 팔로막는 동작의 분류에 의한 해부학적분석 연구, 대건공전 논문집 제18호, 1976.
- ② 강충식: 태권도의 앞차기를 중심으로한 동작의 분류와 역학적 연구, 공주사대 생활과학 연구지, 1977.
- ③ 안창균: 인체 운동의 역학적 원리, 태권도지 제23, 24, 25, 26호, 1977~1978.
- ④ 안희영: 태권도, 공주, 공수도 팔로막는 동작의 분류에 의한 해부학적 역학적 분석연구, 대건공전 논문집, 1978.
- ⑤ 김형목: 태권도 빗차기의 역학적 분석, 청주대학 논문집, 제13호, 1981.
- ⑥ 박승용: 태권도 장애물 격파동작의 역학적 분석(영상분석 방법을 이용), 석사학위 논문, 고대 대학원, 1981.
- ⑦ 김태호: 태권도 발차기의 운동학적 분석(돌려차기의 상호 연결 동작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경북대 교육대학원, 1982.
- ⑧ 박해석: 인체의 고(股)관절 가동 능력과 태권도 발차기와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동국대 교육대학원, 1982.
- ⑨ 성낙준: 태권도 찍어 차기의 역학적 분석,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 교육대학원, 1984.
- ⑩ 정홍구: 태권도 뒷차기 기법, 각도, 속도및 이동 거리에 관한 연구(인천 체육전문대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 교육대학원, 1984.
- ⑪ 박천재: 태권도의 겨루기 기본 거리와 돌려차기 거리간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국체육대학원, 1985.
- ⑫ 장기준: 태권도 앞차기와 찍어차기의 운동학적 분석,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 대학원, 1985.
- ⑬ 황인승: 태권도 뒤후려차기 기술의 역학적 분석, 제 1회 세계 태권도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985.

● 태권도의 측정평가

- ① 김학현·최창욱: 태권도 선수의 체격 및 수장골에 대한 고찰, 스포츠과학 연구보고서 제 3권 1호, 1966.
- ② 김영수: 태권도가 체위 및 체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 대구교대 논문집, 제 9집, 1973.
- ③ 김대식: 태권도 단·급과 동작 시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한국 체육학회지, 1974.
- ④ 이동수: 태권도 경기의 발차기실태에 관한 조사분석, 석사학위 논문, 경북대 대학원, 1976.
- ⑤ 김병수: 격기종목 선수의 체력, 지능, 성격 특성에 관한연구(유도, 레슬링, 태권도, 권투, 역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 교육대학원, 1979.
- ⑥ 김병수·남종신: 무기종목 선수의 체력과 성격(유도, 레슬링, 태권도, 복싱, 역도를 중심으로), 스포츠과학 연구보고서, 1979.
- ⑦ 박희성: 태권도 경기력이 체격, 체력, 기술에 미치는 결정요인 분석, 석사학위 논문, 명지대 대학원, 1979.
- ⑧ 이황구: 축장이 순발력에 미치는 영향, 태권도지 제35호, 1980.
- ⑨ 남중태: 태권도 공격 기술의 반응 속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원광대 대학원, 1981.
- ⑩ 최인수: 태권도 수련생의 체격 및 체력 요인에 대한 비교 연구, 석사학위 논문, 조선대 대학원, 1982.
- ⑪ 최종인: 무도인의 신체적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유도·태권도·검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 교육대학원, 1982.
- ⑫ 조근중: 태권도 발차기 시간과 체중 및 하기장과의 상관에 관한 연구, 제 1회 국제 태권도 학술세미나 발표 논문, 1983.
- ⑬ 권영진: 기합이 근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 교육대학원, 1983.
- ⑭ 최창국·권영진: 기합이 근력증강에 주는 효과(태권도 선수를 중심), 한국 체육학회지 제22권 2호, 1983.
- ⑮ 권병조: 태권도 앞돌려차기 기법의 각도와 이동거리및 속도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 교육대학원, 84.
- ⑯ 박수복: 체격과 체력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태권도 선수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 교육대학원 1984.
- ⑰ 강성철: 태권도 선수의 발차기 기술동작 시간과 순발력과의 상관 관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 교육대학원, 1985.

- ⑩ 신상근·박철호: 투기 선수의 체형 및 신체구성에 관한 연구(태권도·레슬링·유도·복싱을 중심으로) 한국 체육학회 운동생리분과 학술발표회 논문 초록집, 1985.

● 태권도의 관리학적 측면

- ① 송요식: 한국 태권도의 진흥방안에 관한 연구(관리적인 측면에서), 석사학위논문, 동아대 대학원, 1978.
 ② 박중화: 현행 태권도 경기의 실태와 그 문제성에 관한 고찰(경기방법 및 규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경북대 교육대학원, 1979.
 ③ 이석규: 우리나라 태권도의 심사및 경기규칙에 관한고찰, 석사학위 논문, 동국대 대학원, 1979.
 ④ 정만순: 태권도 경기 판정 내용의 분석연구, 태권도지 제51호, 1984.
 ⑤ 강충용: 태권도 경기규칙 개선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 논문, 경남대 교육대학원, 1985.

● 태권도의 체력(트레이닝 포함)적 측면

- ① 김영수: 태권도가 체중 및 체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구교육대 논문집, 1971.
 ② 현우영: 태권도인의 체력에 관한 연구, 태권도지 제 2·3호, 1971.
 ③ 현우영: 태권도인과 타 경기인의 체력 비교, 태권도지 제 4호, 1971.
 ④ 최찬모: 국가대표 선수양성을 위한 태권도 트레이닝 계획, 코치 아카데미 동우회지, 1973.
 ⑤ 고재천: 태권도의 기초적 트레이닝의 방법적 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 교육대학원, 1974.
 ⑥ 김 철: 태권도 알차기 강화수련을 위한 방법적 연구,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 대학원, 1974.
 ⑦ 정윤배: 태권도의 기본기술의 트레이닝 및 체육 육성법에 관한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 교육대학원, 1974.
 ⑧ 배남욱: 격기종목 기술의 트레이닝 및 체력육성에 대한 고찰및 연구, 경희대 체육학 논문집 제 3권, 1975.
 ⑨ 조근중: 태권도 수련에 의한 체력에 관한연구, 한양대 체육학회지, 1980.
 ⑩ 최중삼: 유도선수와 태권도선수의 근력과 순발력 비교연구,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 대학원, 1980.
 ⑪ 양홍모: 태권도 수련생과 비 수련생의 체력및 체격 변화에 대한 비교연구(국민학교 남자 고학년층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동국대 대학원, 1981.
 ⑫ 정찬성: 체급경기 우수선수의 기초 체력에 관한연구,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 대학원, 1981.
 ⑬ 하광호: 태권도 운동이 기초체력에 미치는 영향, 광주경상전문대 논문집, 제 2호, 1981.
 ⑭ 신우철: 태권도 선수의 체급별 체격및 체력에 관한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 교육대학원, 1982.
 ⑮ 최태담: 태권도, 유도선수와 농구, 배구선수의 근력과 순발력에 관한 비교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 교육대학원, 1982.
 ⑯ 김명수: 워밍업의 효과에 관한 연구(태권도 선수를 중심),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 대학원, 1983.
 ⑰ 최인수: 태권도 수련생의 체격및 체력요인에 대한 비교연구, 석사학위 논문, 조선대 교육대학원, 1983.
 ⑱ 강시후: 투기선수의 유연성, 민첩성, 지구력간의 비교연구, 석사학위 논문, 동아대 대학원, 1984.
 ⑲ 김종연: 투기종목 선수의 체격및 체력에 관한 비교연구(대학 선수들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 교육대학원, 1984.
 ⑳ 노상석: 투기종목 선수의 체격및 체력에 관한 연구(전국 체육고등학교 권투, 레슬링, 유도, 태권도 선수들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 교육대학원, 1984.
 ㉑ 박현중: 여성 태권도 선수와 수련생의 실태과악및 체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조선대 교육대학원, 84.
 ㉒ 양정수: 태권도수련 방식에 따른 체력변화에 대한 일연구,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 대학원, 1984.
 ㉓ 이재수: 태권도 선수의 경기시 운동강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동아대 대학원, 1984.
 ㉔ 진중의: 격기종목 선수의 순발력 및 민첩성에 관한 연구(태권도 선수와 복싱선수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건국대 교육대학원, 1984.
 ㉕ 김근학: 소년기 태권도의 체격 및 체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건국대 교육대학원, 1985.
 ㉖ 김의영: 여자 태권도 선수와 일반학생의 체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건국대 교육대학원, 1985.
 ㉗ 정찬모: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 트레이닝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스포츠과학 연구보고서, 1985.

● 태권도의 교육학적 측면

- ① 송진경: 국민학교에서의 태권도지도, 체육교육의 새비전 교육연구사 교육연구지, 제 3권 11호, 1970.

- ② 박병주: 국민학교에 있어서 태권도 지도에 관한 연구, 태권도지 제 2호, 1971.
- ③ 견계승: 학교체육교육에 있어서 태권도지도의 실태조사 연구(전북내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 교육대학원, 1973.
- ④ 신상규: 태권도 수련(교육)이 유아의 성장및 성격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세종대 대학원, 1981.
- ⑤ 정만순: 태권도 교육과정 운영 실태의 분석적 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 석사학위 논문, 1982.
- ⑥ 김정래: 태권도 지도의 일반 원리및 교수법, 태권도지 제46호, 1983.
- ⑦ 강신복: 교수학습 원리에 의한 태권도지도 방법, 제 1회 태권도학술 발표대회 논문집, 1985.

● 태권도의 기술에 관한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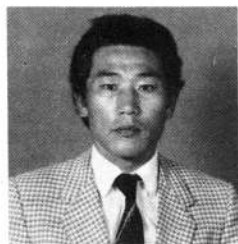
- ① 조원호: 태권도를 응용한 호신술에 관한 연구, 부산대 사범대학교 논문집, 1972.
- ② 현우영: 태권도 서기자세 변화에 따른 기술의 분석, 스포츠과학 연구보고서 제10권 1호, 1973.
- ③ 조근중: 태권도 차기 기술분석,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 대학원, 1976.
- ④ 지삼업: 태권도의 겨루기에 있어 앞차기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동아대 대학원, 1976.
- ⑤ 최 실: 태권도 앞차기의 기능적 효과 지도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 교육대학원, 1976.
- ⑥ 김형목: 태권도 경기에서 빗차기가 승부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 대학원, 1977.
- ⑦ 양동영: 태권도 차기동작의 안정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 교육대학원, 1978.
- ⑧ 하광호: 태권도에서 앞차기와 돌려차기의 경기력효과에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 교육대학원, 1979.
- ⑨ 류영권: 태권도 경기에서 반아차기가 승부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 교육대학원, 1980.
- ⑩ 이강희: 태권도경기 내용에 관한 비교 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 교육대학원, 1981.
- ⑪ 지삼업: 태권도의 겨루기에 있어 빗겨서기가 승패에 미치는 영향, 부산산업대 논문집, 제27권, 1981.
- ⑫ 박창덕: 태권도경기 내용에 관한 조사연구(고·대학교 우수 선수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 교육대학원, 1982.
- ⑬ 남기영: 태권도 경기시 선제공격이 승부에 미치는 영향(중·고·대학교 우수 선수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 교육대학원, 1983.
- ⑭ 민경호: 태권도 경기에 있어서 각 요인간의 상관, 제 1회 국제 태권도 학술세미나 발표 논문, 1983.
- ⑮ 이승국: 태권도경기의 돌려차기 기술분석과 특점부위에 관한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교육대학원, 1983.
- ⑯ 이승국: 태권도 경기의 기술유형에 관한 조사연구, 태권도지 제47호, 1983.
- ⑰ 조원길: 태권도경기 내용에 관한조사연구(고·대학교 선수를 중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 교육대학원, 1983.
- ⑱ 안용규: 태권도경기의 각 발차기 사용 빈도수와 특점력에 관한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 대학원, 1984.
- ⑲ 이승국: 태권도경기의 스태의 유형별 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태권도지 제48호, 1984.
- ⑳ 이용우: 태권도경기의 체급별 사용기술에 관한 빈도분석, 석사학위 논문, 건국대 교육대학원, 1984.
- ㉑ 최인범: 한국 태권도의 효율적인 지도방법에 관한연구, 경기대 논문집, 1984.
- ㉒ 광대룡: 태권도경기의 다득점 기술 조사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 교육대학원, 1985.
- ㉓ 김영수: 태권도 득점 기술에 관한 연구, 한국 체육학회지, 1985.
- ㉔ 김석면: 국내선수와 외국선수의 태권도경기 내용에 관한 비교분석 연구(제 7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중심으로), 태권도지 제55호, 1985.
- ㉕ 안용규: 태권도 경기의 발차기에 대한 라운드별 조사연구, 태권도지 제52호, 1985.
- ㉖ 안태욱: 주춤서기 몸동작트리에 관한 연구, 태권도지 제52호, 1985.
- ㉗ 이광호: 태권도경기의 체급별 사용기술 분석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 교육대학원, 1985.
- ㉘ 정낙희·이승국: 태권도경기의 공격유형에 따른 득점 변인과 실점 변인 분석, 한세대 체육학과 논문집, 제 4권 1호, 1985.
- ㉙ 최영렬: 태권도 경기서 효율적인 겨루기 자세에 관한연구, 월간체육지 제20권 4호, 1985.

● 기 타

- ① 임규봉: 태권도의 기본, 중앙대 사범대학 논문집, 1970.
- ② 백용기: 태권도의 과학적인 연구, 태권도지 제 1·2호, 1971.
- ③ 김영수: 태권도의 체계적 고찰, 대구교육대학 논문집, 1984.
- ④ 김계용: 태권도 경기의 구조론적 분석, 태권도지 제33호, 1980.

태권도인의 身体的特徵에 関한 調査研究

— 有段者와 無段者를 中心으로 —



관악여자상업고등학교
광운대학 체육강사 南 龍 一

I. 緒 論

一 目 次

I. 緒 論

- A. 研究의 必要性
- B. 研究의 目的
- C. 研究의 制限點

II. 研究의 方法

- A. 研究對象
- B. 研究期間 및 進行過程
- C. 測定內容 및 方法

III. 測定結果

IV. 結果 및 考察

- A. 体格測定 成績
- B. 身體充實指數 成績

V. 結論 및 提言

- A. 結 論
- B. 提 言
- * 參考文獻
- * 英文抄錄

一 表 目 次

- (表 1) 年齡分布
- (表 2) 檢査 및 測定道具
- (表 3) 有無段者의 体格檢査 成績
- (表 4) 身長·體重·座高·胸圍의 成績
- (表 5) 頸圍·腰圍·臀圍의 成績
- (表 6) 上腕圍·前腕圍의 成績
- (表 7) 大腿圍·下腿圍의 成績
- (表 8) 上肢長·下肢長의 成績

A. 研究의 必要性

태권(手搏)의 性格으로 보아 原始社會로부터 生活手段의 투기 自衛武術 또는 農耕社會의 祭禮行事의 一環으로 行하여 지던 것이 시대변천에 따라 즐기는 유희로 進歩되었고 드디어 하나의 스포츠 경기로 行하여진 것임은 의심할 바 없을 것이다.

人間은 태어나면서부터 自然的인 生活 환경에 의하여 成長發達 한다고 본다. 그러나 自然的인 活動 만으로는 人間이 追求하는 여러 가지 面에 있어 充足 시킬 수는 없다. 그런가 하면 自衛的인 身體活動에서 점차 공격적인 形態의 복잡하고 多樣한 行動으로 發展해 가면서 人類의 文化가 점차 集團化되고 社會化됨에 따라 原始的이고 單調로운 動作으로부터 그 方法과 內容이 發展을 거듭해 왔다.¹⁾

특히 人間이 가지고 있는 潛在的인 能力을 精神, 身體的인 面을 通하여 잘 나타나는 것으로 순간적으로 最大의 힘을 要求한다고 본다. 이러한 點에 착안하여 이에따라 發達되는 身體 各部位가 必要로하는 筋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앞으로써 장차 技術의 發達과 指導에 重點을 찾으려고 한다.

B. 研究의 目的

本 研究의 目的은 우리의 指導方法과 訓練이 과거의 經驗과 勝負에만 치중하고 있는 實情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身體 部位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찾아냄으로써 태권도 技術向上에 根幹이 되는 基礎體力의 육성은 물론 專門體力의 向上에 기여하고자 指導者나 경기자에게 具體的인 資料를 提供함으로써 競技力 向上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 本 研究의 目的이다.

C. 研究의 制限點

1. 身體의 特徵을 주로 外形的인 發達面에만 測定하였다.
2. 測定對象은 서울市內 13個 道場으로 하였다.
3. 調査測定한 1年以上 3年以下の 有段者와 1年以下의 無段者로 한정하였다.
4. 各 年齡은 17세에서 20세로 한정하였다.

II. 研究의 方法

A. 研究對象

本 研究의 對象은 서울市內 13個 태권도장에서 各 23名

석, 46명을 任意로 選定 測定하였고 運動經歷은 有段者가 1年以上 3年以下이고 無段者는 1年以下를 對象으로 하였다.

B. 研究期間 및 進行過程

1. 研究期間: 本 研究은 1985年 10月 1일부터 1986年 3月 30일까지 6個月間에 걸쳐 이루어졌다.
2. 研究進行過程:
 - a. 研究計劃書 作成: 85年 10月 1日~同年 10月 30日.
 - b. 文獻調査 및 資料收集: 85年 11月 1日~同年 11月 30日
 - c. 測定實施: 85年 12月 1日~同年 12月 30日
 - d. 結果分析: 86年 2月 1日~同年 2月 30日
 - e. 論文作成: 86年 3月 1日~同年 3月 30日

C. 測定內容 및 方法

1. 測定內容

本 測定對象者의 運動經歷은 1年以上 3年以下の 有段者와 1年以下の 無段者로서 17세부터 20세까지의 年齡者로 選定 測定하였다.

〈表 1〉 年齡分布

區分 및 人員	年 齡	17	18	19	20	계
有 段 者		5	7	7	4	23
無 段 者		7	8	6	2	23
計		12	15	13	6	46

이들 測定值에 對하여 대년도인들 의 身體의 特徵을 찾아내어 보았다. 調査測定 種目은 體格形態로서 身長, 體重, 胸圍, 座高, 頸圍, 腰圍, 上腕圍, 前腕圍, 大腿圍, 下腿圍, 上肢長, 下肢長을 測定하였으며 이로부터 比體重(體重/身長×100), 比胸圍(胸圍/身長×100), 比座高(座高/身長×100), Verwek指數(比體重+比胸圍), Rohrer指數(體重/身長³×100³) 等의 體格指數를 誘導하였다.

〈表 2〉 檢査 및 測定道具

區分 項目 別	使用된 道具名	數量	製 品
體	身 長	Martin式 신장계	1set T. K. K. 製
	體 重	天秤式 100kg 限度	1set 동양정밀회사제
	座 高	Martin 신장계	1set T. K. K. 製
格	胸 圍- 下 腿 圍	2m 卷 尺	1개 "
	上肢長- 下肢長	Martin式 간상계	1set "

2. 測定方法

- a. 身長: 被檢者는 身長器 助台위에 올라가서 수직봉에 身體의 軀幹인 脊椎를 대고 肩關節 部位에 힘을 빼고 양발의 椎骨 및 屈, 後頭部가 닿은 姿勢로써 양발 끝의 內角을 30°~45° 정도 벌리고 똑바로 서며 視線은 正面으로 向한다.
- b. 體重: 被檢者는 팬티만 着用하고 天秤 저울대에 오르게 하여 水平活動鉗를 移動하여 水平인 눈금을 0. 1kg 單位까지 記錄하였다.
- c. 座高: 被檢者는 座面이 水平인 의자에 무릎을 굽혀 大腿부가 의자면에 밀착되고 엉덩이가 기둥자에 깊숙이 닿도록 하며 발바닥은 마루에 밀착시킨 상태로, 하되는 마루바닥에 수직이 되게 한 다음 무릎과 고관절을 直角으로 굽혀 0. 1cm 單位까지 정확히 記錄하였다.
- d. 胸圍: 被檢者를 긴장되지 않은 解剖學的 姿勢로 서게 한 다음 檢査者는 줄자가 被檢者 背側 肩胛骨, 下段部 바로 밑과 乳頭위를 지나게 한다.
- e. 頸圍: 被檢者는 눈 높이 전면을 바라보며 머리는 자연스럽게 들고 목부위 근육의 긴장을 풀고 안정 호흡을 하도록 한 다음 줄자를 목뒤에서 약간 경사지게 한다.
- f. 腰圍: 被檢者는 上體를 이완시키고 가슴둘레 측정시와 同一하게 안정 숨쉬기의 끝 복위가 가장 줄어든 상태를 計測하여 0. 1cm 單位까지 記錄하였다.
- g. 臀圍: 被檢者를 자연스럽게 키 측정시와 같이 서게 한 다음 被檢者는 後面에서 엉덩이가 가장 많이 솟는 부분과 옆구리쪽의 대전자 바로 위쪽과 前面의 치골을 지나는 둘레에 줄자를 돌려서 0. 1cm 單位까지 記錄하였다.
- h. 上腕圍: 被檢者는 胸圍측정시처럼 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 上肢를 屈筋시킨 上腕部位 중 가장 굵은 部分을 計測하여 0. 1cm 單位까지 記錄하였다.
- i. 前腕圍: 被檢者로 하여금 어깨 높이의 水平으로 팔을 들고 손뭉 팔의 힘을 빼게 한 후 前腕장축에 對하여 直角으로 줄자를 대어 가장 굵은 部分을 計測하여 0. 1cm 單位까지 記錄하였다.
- j. 大腿圍: 被檢者는 양발을 10~15cm 정도 벌려 양쪽 발에 中心을 均等하게 해주고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한다. 檢査는 어느 한쪽 大腿에서 가장 굵은 곳을 찾아서 大腿장축에 직각이 되도록 줄자를 돌려 0. 1cm 單位까지 記錄하였다.

k. 下腿囲: 被檢者는 大腿囲 測定時와 같이 선 자세에서 10~15cm경도로 발을 벌리고 양발에 몸의 무게를 고루 주고 선다. 檢査者는 비복근 中央 가장 굵은곳을 찾아 줄자를 下腿장축에 직각이 되도록 돌려 0.1cm單位까지 記錄하였다.

l. 上肢長: 被檢者를 키 측정시와 같은 선 姿勢에서 손가락을 꼭 쥐고 넓적다리에 自然스럽게 붙이게 한 다음 양 桡骨점인 桡骨점에서 중지의 길이를 0.1cm單位까지 記錄하였다.

m. 下肢長: 被檢者는 키 측정시와 같은 선 姿勢에서 발바닥으로부터 大腿 骨頭까지의 길이를 0.1cm單位까지 記錄하였다.

Ⅲ. 測定結果

태권도의 有段者와 無段者 各23名씩 總46名을 對象으로 測定한 身體的인 面中 體格的인 特徵은 (表3)과 같으며 여기에서 誘導한 體格指數는 比体重 및 比座高 Rohrer指數는 無段者가 높았고 比胸囲와 Vereak指數는 有段者가 더 높았음을 보이고 있다.

(表3) 有·無段者의 體格檢査 成績

分 類	有 段 者	S · D	無 段 者	S · D
身 長 cm	169.48	3.547	169.56	3.825
體 重 kg	64.22	2.744	65.70	3.262
座 高 cm	86.83	2.631	86.91	2.853
胸 囲 cm	88.13	4.720	86.57	3.238
頸 囲 cm	33.87	1.328	34.04	1.341
腰 囲 cm	71.54	3.609	72.91	4.441
臀 囲 cm	87.30	3.939	88.61	4.361
上腕囲 cm	26.65	1.462	26.26	1.420
前腕囲 cm	23.74	1.420	23.39	1.425
大腿囲 cm	50.91	3.475	50.13	4.003
下腿囲 cm	35.57	2.565	34.86	2.345
上肢長 cm	73.44	2.825	73.87	2.360
下肢長 cm	79.17	2.949	79.52	3.097
比 體 重	37.89		38.75	
比 胸 囲	52.00		51.06	
比 座 高	51.23		51.26	
Vereak 指數	89.89		89.81	
Rohrer 指數	133		136	

Ⅵ. 結果 및 考察

A. 體格測定 成績

태권도 有段者와 無段者에 對한 測定結果는 (表4)에서 (表7)까지 예서보는 바와 같다.

● 標準偏差計算 例(S.D)

$$9 = \sqrt{\frac{(\sum X - M)^2 \sum fi}{\sum fi}}$$

1. 身長 有段者 S.D 計算 例

$$9 = \sqrt{\frac{(176-169.48)^2 \times 1 + (174-169.48)^2 \times 2}{23} + (172-169.48)^2 \times 3 + (170-169.48)^2 \times 7 + (168-169.48)^2 \times 6 + (164-169.48)^2 \times 2 + (162-169.48)^2 \times 2} = 3.547$$

2. 身長 無段者 S.D 計算 例

$$9 = \sqrt{\frac{(176-169.56)^2 \times 1 + (174-169.56)^2 \times 3}{23} + (172-169.56)^2 \times 3 + (170-169.56)^2 \times 6 + (168-169.56)^2 \times 6 + (164-169.56)^2 \times 1 + (162-169.56)^2 \times 3} = 3.825$$

(表4) 身長·體重·座高·胸囲의 成績

	身 長		體 重		座 高		胸 囲				
	有	無	有	無	有	無	有	無			
176	1	1	73	1	93	1	1	100	1		
174	2	3	71	1	2	91	2	3	97	1	1
172	3	3	69	1	3	89	3	3	94	2	1
170	7	6	67	3	2	87	10	7	91	3	2
168	6	6	65	6	8	85	7	6	88	7	6
164	2	1	63	7	4	83	1	2	85	5	8
162	2	3	61	5	3	81	1	1	82	4	5
M	169.48	169.56	64.22	65.70	86.83	86.91	88.13	86.57			
S.D	3.547	3.825	2.744	3.262	2.631	2.853	4.720	3.238			

1. 身長(Height Stature)

身長은 사람이 있을 때 床面에서 頭頂까지의 수직 最大距離로서 生理的 發育의 過程을 表示하는 하나의 重要な 尺度이며 体力과 밀접한 關係가 있다. 즉, 筋肉의 長短은 身長에 比例하므로 筋의 屈伸領域이 넓고, 彈性運動이나 跳躍에 有利하다. 그리고 순간적 最大作業能力이 身長에 正比例하므로 成人이 小兒보다, 男子가 女子보다 作業能力이 큰 것은 당연한 結果이다.²⁾

〈表4〉에서 보는 바와 같이 有段者의 平均身長이 169.48cm으로써 無段者의 169.56cm보다 無段者가 0.3cm가 더 크다.

2. 体重(Body Weight)

体重은 身體의 모든 部分의 發育 充實度라는 점에서 重要な 測定이다. 体重도 身長처럼 規則적으로 增加하기 때문에 유전적인 傾向이 있기는 하나 身長보다는 後天的인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³⁾

〈表4〉에서 보는 바와 같이 有段者의 平均体重이 64.22kg으로써 無段者의 65.70kg보다 有段者가 1.48kg이 더 가볍게 나타났다.

3. 座高(Sitting height)

座高는 人體 Energy의 原動力인 內臟諸機管을 포함하고 있는 體幹의 길이라는 점에서 生理學的 意味를 갖는 測定이다. 東洋人은 歐美人보다 一般으로 比座高(座高/身長×100)가 크고 女子가 男子보다 크고 小兒가 成人보다 큰 比率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⁴⁾

〈表4〉에서 보는바와 같이 有段者의 平均座高가 86.83cm로써 無段者의 86.91cm보다 0.8cm더 작게 나타났다.

4. 胸囲(Girth of chest)

胸囲는 身體의 幅育의 基本的 指標으로써 重要視된다. 특히 胸囲는 호흡기능, 순환기능을 하는데 必要的 間接적 測定項目이기도 하다. 따라서 밀접한 關係가 있는 測定이다.⁵⁾

〈表4〉에서 보는바와 같이 有段者 平均胸囲가 88.13cm로써 無段者의 86.57cm보다 有段者가 1.56cm 더 크다.

〈表5〉 頸圍·腰圍·臀圍의 成績

頸 圍	腰 圍		臀 圍			
	有	無	有	無		
36	3	3	85	1	98	1
35	5	4	80	1	95	2

34	5	6	77	2	3	92	5	5
33	7	8	74	5	7	89	4	5
32	2	2	71	9	7	86	8	6
31	1	1	68	4	2	83	3	3
30	.	.	65	2	2	80	2	1
M	33.87	34.04	71.52	72.91		87.30	88.61	
S.D	1.328	1.341	3.609	4.441		3.939	4.361	

5. 頸圍(Girth of neck)

頸圍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서 있는 상태에서 測定한 것으로 營養의 척도 및 外形의인 건강상태를 判斷하는 測定項目이다.

〈表5〉에서 보는바와 같이 有段者의 平均頸圍는 33.87cm로써 無段者의 34.04cm보다 0.17cm 더 작게 나타났다.

6. 腰圍(Girth of Waist)

腰圍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서 있을 때 허리부분 중 가장적은 部分을 測定한 것으로써 〈表6〉에서 보는바와 같이 有段者의 平均腰圍는 71.54cm로써 無段者의 72.91cm보다 無段者가 1.37cm 더 크게 나타났다.

7. 臀圍(Girth of hip)

臀圍 亦是 腰圍와 마찬가지로 흔히 使用되지 않는 測定項目이나 個人的 充實度 및 계속적인 힘을 제공해 준다.⁶⁾

〈表7〉에서 보는 바와 같이 有段者의 平均 臀圍는 87.30cm로써 無段者의 88.61cm보다 無段者가 1.31cm 더 크게 나타났다.

〈表6〉 上腕圍·前腕圍·의 成績

上 腕 圍	前 腕 圍				
	有段者	無段者	有段者	無段者	
30	1	1	27	1	1
29	2	1	26	2	1
28	3	2	25	3	2
27	5	3	24	6	5
26	7	10	23	7	9
25	4	4	22	3	3
24	1	2	21	1	2
M	26.65	26.26	23.74	23.39	
S·D	1.462	1.420	1.420	1.405	

8. 上腕囲(Girth of upper Arm)

上腕囲의 発達를 측정하는 척도이며 大腿囲와 함께 영양척도로서 重要測定 項目이다. 또한 上腕囲의 發達は 全身의 皮下脂肪의 發達과 平行되기 때문에 그代 表值로도 使用된다.⁷⁾

(表6)에서 보는 바와 같이 有段者의 平均 上腕囲는 26.65cm로서 無段者의 26.26cm보다 有段者가 0.39cm 더 크게 나타났다.

9. 前腕囲(Girth of lower Arm)

前腕囲는 上腕囲와 마찬가지로 영양 상태를 測定하는 項目으로써 運動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더구나 前腕囲의 발달은 팔의 순간적인 힘을 提供해 주는 根本的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⁸⁾ (表6)에서 보는 바와 같이 有段者의 平均 前腕囲는 23.74cm로서 無段者의 23.94cm보다 有段者가 0.35cm 더 크게 나타났다.

(表7) 大腿囲·下腿囲의 成績 (表8) 上肢長·下肢長의 成績

	大 腿 囲		下 腿 囲		上 肢 長		下 肢 長			
	有	無	有	無	有	無	有	無		
62	1	42	1	1	81	1	1	86	1	1
59	1	40	1	79	1	2	83	2	3	3
56	1	38	3	2	77	2	2	81	5	6
53	9	36	9	6	75	3	4	79	9	7
50	7	34	6	11	73	8	7	77	3	4
47	3	32	2	2	71	7	6	75	2	1
44	2	30	1	1	69	1	1	72	1	1
M	50.91	50.13	35.57	34.36	73.44	73.87	79.77	79.52		
S.D	3.475	4.003	2.567	2.365	2.825	2.360	2.969	3.007		

10. 大腿囲(Girth of Thigh)

大腿囲는 皮脂厚의 發生과 영양 척도를 測定하는데 있어서는 上腕囲 보다 오히려 좋은 尺度이다. 또 運動의 刺激에 對하여 민감한 反應을 보이는 部分이다. 즉 大腿囲가 크다는 것은 영양 관리를 효과적으로함과 同時에 신체적 刺激을 적절히 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⁹⁾

(表7)에서 보는 바와 같이 有段者의 平均 下腿囲가 35.57cm로서 無段者의 34.86cm보다 有段者가 0.71cm 더 크게 나타났다.

11. 下腿囲(Girth of Calf)

下腿囲의 發達は 영양 상태와 身體 기능과 關係하는

것으로 근의 發達과 皮下脂肪을 알기 위한 것으로서는 가장 적합한 測定項目으로써 (表7)에서 보는 바와 같이 有段者의 平均 下腿囲가 35.57cm로서 無段者의 34.86cm보다 有段者가 0.71cm 더 크게 나타났다.

12. 上肢長(Length of Upper Limb)

上肢長은 運動效果에 따라서 變動될 수 있으나 絕對의 인 것은 勿論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上肢長은 運動의 종류와 그 比例의 力學的 關係가 있다는 점에서 중요시 되어야 하는 것이다.¹⁰⁾

(表8)에서 보는 바와 같이 有段者의 平均 上肢長이 73.44cm로서 無段者의 73.87cm보다 有段者가 0.43cm 더 작게 나타났다.

13. 下肢長(Length of Lower Limb)

下肢長 "다리"를 表示하는 測定인데 이것 亦是 後天的인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서 評價된다.¹¹⁾

(表8)에서 보는 바와 같이 有段者의 平均 下肢長이 79.17cm로서 無段者의 79.52cm보다 有段者가 0.35cm 더 작게 나타났다.

B. 身體充實指數 成績

1. 比體重(體重/身長×100): 有段者의 平均 比體重이 37.89로서 無段者의 38.75보다 無段者가 0.86 더 크게 나타났다.

2. 比胸圍(胸圍/身長×100): 有段者의 平均 比胸圍가 52.00로서 無段者의 51.06보다 有段者가 0.94 더 크게 나타났다.

3. 比座高(座高/身長×100): 有段者의 平均 比座高가 51.23로서 無段者의 51.26보다 無段者가 0.03 더 크게 나타났다.

4. Vereak指數(比體重+比胸圍): 有段者의 平均 Vereak指數가 88.89로서 無段者의 89.81보다 有段者가 0.08 더 크게 나타났다.

5. Rohrer指數(體重kg/身長cm¹⁰): 유단자의 평균 Rohrer指數가 133으로 無段者의 136보다 無段者가 3 더 크게 나타났다.

V. 結論 및 提言

A. 結 論

태권도인들의 身體的인 조건을 찾아보기 위하여 有段者와 無段者에 對하여 體格을 中心으로 調査 測定하

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骨格을 이루고 있는 身長과 座高는 有段者와 無段者가 비슷하게 비례 했으나 体重은 無段者가 1.48kg 이 더 무겁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근육을 이루고 있는 胸囲는 유단자가 1.56cm가 더 크게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아 体重과 근육이 運動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았다.

2. 頸圍와 腰圍 및 臀圍는 무단자가 앞서고 있어 体重에서 무겁게 나타나 있으므로 必要치 않은 살이 腰圍와 臀圍에 있음을 現代人の 고르지 못한 姿勢가여 기서부터 시작됨을 볼 수 있어 주목할 만한 事實이다.

3. 上腕圍와 前腕圍에 있어서는 有段者가 우위에 있어 無段者 보다는 有段者의 体格이 잘 發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大腿圍와 下腿圍는 有段者가 우위에 있어 팔과 다리의 發達도 무단자 보다는 유단자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아 特異한 現象이라 하겠다.

5. 上肢長과 下肢長은 無段者가 有段者보다 조금우 위에 있어 키에 비례하고 있다.

6. 体格指數에 있어서는 比体重이 無段者가 높은반면 比胸圍는 有段者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比座高는 비슷한 現象으로써 무단자가 体重의 增加를 유발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Verveak 指數에서는 비슷한 現象을 보이고 있으나 Rohrer指數에서는 無段者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무거운 体形을 나타내고 있다.

B. 提 言

本 調查 研究에서 얻은 資料分析과 評價를 통해 보면 有段者와 無段者의 신체형태가 特異한 것을 발견하였다.

즉, 유단자가 必要로하는 身体 發達部位는 각각 차이가 있으므로 論者는 다음과 같이 提言을 한다.

1. 有段者는 技術의 발달도 重要하나 身体的인 發達을 꾀할 수 있도록 補助 運動을 좀더 必要로 해야한다.

2. 無段者도 學校 體育를 통하고 國技인 태권도 기술 발달을 습득하여 신체적 調和를 이루어야 한다.

参 考 文 献

- 1) 陸軍士官學校, 武道教本(서울:형설출판사, 1981).
- 2) 文頭柱 外 体育大學生の 体格 基礎體力 및 運動能力에 關한 調查研究, 体育學論文集(서울:경희대體育大學, 1972).
- 3) 姜東洵, 尹宗浣, "海女の 身體의 特徵에 關한 調查研究" 대림공업전문대학논문집, 1980.
- 4) 文教部, 태권도, 體育教育資料叢書, 第40卷, 서울:서울신문사출판국, 1973.
- 5) 李丙稷, 體育測定, 서울:春潮社, 1971.
- 6) 尹南植, 體育測定檢査의 實際, 서울:大光文化社, 1978.

ABSTRACT

A study of survey on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aekwon-Do players.

Yongil-Nam
Kwan-Ag Girls' Commercial
High School

This survey study through material-analysis and evaluation shows that the physical structure of body of the player having black belt (the high grade) is different from the men having-not black belt.

I suggest:

1. The black belt players had better do the extra training for the harmonious physical development.
2. The having-not black belt players also need keeping the harmonious physical development through Korean National physical training, Taekwon-Do technical development.



1982년 9월부터 태권도지에 연재해온 소설 「세컨드 윈드」의 줄거리를 정리합니다. 이 소설의 제목, 「세컨드 윈드」는 체육학 용어로서 달리기를 할 때 처음 얼마 동안을 지나면 느끼게 되는 고통—호흡곤란, 근육통, 심리적 불안감 등으로 계속 달리기 힘들—즉, 사점(死点)을 극복한 후에 자신감을 회복하고 가진 바 능력껏 달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태권도 수련생이 입문(入門) 초기의 자기 한계를 어렵사리 극복하고 유단자예의 꿈을 펼치는 도약(跳躍)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말은 4단 이상의 사범들에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사범」이라는 호칭 안에 함축되어 있는 그 몇십, 몇백 번의 사점(死点) 극복 후에도 결코 쾌적한 달리기를 쉽사리 할 수 없는 이 땅의 사범들에게 어찌면 「세컨드 윈드」는 「에스프리」를 드릴런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주관(主觀)으로, 혹은 객관(客觀)으로 분리된 이 소설의 태권도 사범 「리 현옥」은 태권도의 진정한 선배인 저 고구려의 옛 벽화 천정그림에서 호흡하는 한겨래의 숨결을 이어받을 수 많은 이 땅의 사범들 중 하나, 아니 그 모두가 지닌 속성(屬性)에서 태어난 「마네킨」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는 우리 주위에서 흔히 눈에 띄는 태권도장

의 지도자일 뿐입니다.

그는 태권도에 내재된 민족혼과 평등주의를 신봉할 뿐 아니라 권위주의나 계급의식에 침식되어가는 왜곡된 가치관에 맹렬히 저항하는 역동(力動)의 정의감에서 태권도에 열정을 바치는 사범상(像)의 한 예(例)에 지나지 않습니다.

리 현옥 사범의 부조리한 시류(時流)에 감히 맞서는 몸사위로서의 태권도는 때로 실천적 윤리를 시현(示顯)하기도 합니다.

때로, 현옥은 뛰어찰 수 없는 해와 달을 향해 비약해 보기도 합니다. 결코 승관 격파처럼 만은 아니되리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몇 번이고 도복 깃을 여미고 웅혼한 떠를 다시금 동여매는 것입니다.

필자는 지금까지 41년에 걸쳐 온 누리에 산재(散在)되어 있는 사범의 어느 날, 어느 행적—그 좌절과 희망의 불연속선—을, 꿈지 빠진 빗자루로 천정도배를 풀찰하듯듬성히도 그려왔습니다.

쓸모없는 「타일」 조각이라도 「모자이크」되어 벽화로 남듯이, 필자의 욕심은 대만주(大滿洲) 집안현 옛 우리 땅에서 숨쉬는 조상의 유필(遺筆) 속에서 활개짓하는 위대한 「선배」 태권인이 치달치는 족적을 오늘에 그리겠다는 희망한 것이었습니다.

그간의 「세컨드 윈드」가 토막난 단상(斷想)의 실 감

기였다면 이제부터 시작되는 「세컨드 윈드Ⅱ」(제 2부)는 진정한 거래혼을 21세기의 문턱에서 재현하기 위해 용트림을 시전하는 몇 사범들의 태권도 사랑을, 현옥을 통해 구전(口傳)하려는 것입니다.

분개 배어나는 주먹단련 뒤의 울혈(鬱血), 엄동의 냉수욕, 임해(臨海)에서의 기합(氣合) ………, 텅빈 주말도장의 고독과 스물거리는 욕망의 진디기를 내물기 위한 간헐적 투쟁……, 살과 피로 엮은 피조물(被造物)의 연약을 수련(修練)이라는 고로(高爐)에 담그어 풀무질하는 맹신(盲信) ………, 그리고 망야(忘我)의 「세컨드 윈드」가 아물거려서 눈 앞에 다가오는가 하면 이

욱고 환상임을 깨닫는 되풀이되는 허무연습(虛無練習) ……….

이렇게도 길게 늘어지는 반행복(反幸福)적 요인들을 한꺼번에 퍼부어도 동(東) 트이먼 주심주심 걸치고 동의 흰 도복에 검은 띠가 누려야 할 참 가치가 「세컨드 윈드Ⅱ」에서 전개될 것입니다.

그 동안의 어눌한 연작(連作)에도 긴 인내로 읽어주신 분들에게서, 장편연재 방식으로 바뀐들 “향단이 춘향 옷 입었다고 그 매무새 치장될리 없다”, 비웃을까 두렵습니다.

1986 1986. 5. 白 鴻

第一章 용마산(龍馬山) 기슭

「지프」의 뒷바퀴에 오른쪽 엄지 발가락이 깨어진 현옥이 자지러져서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이 더 걱정인듯 현옥의 입을 막았다.

옥도정기를 바르면서 어머니는 울먹이는 현옥에게 “뚝! 뚝!”하며 울지말라고 달래었다. 계여사는 남편 리건호씨가 누구보다도 눈물이 많은 사람이면서도 다른 사람 특히 말아들 현옥의 눈물에는 끔찍하리 만큼 엄격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다만 철부지 아들에게 자기 심정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대답할 뿐이었다.

봉대를 감은 오른발을 쉼뚝이면서 출근길에 인사를 하는 현옥에게 리건호씨는 “맨발로 걸어서라도 유치원에는 빠지지 말거라”는 말 뿐이었다.

그의 「지프」는 공용(公用)이었던 사용(私用)은 결코 될 수 없었다. 출근길에 자기 자식을 유치원까지 태워달라는 말은 계여사까지도 일찌기 포기한 일이었다.

현옥은 오른 발은 맨발인 채로 절뚝이며 유치원에 다녀왔다.

사나흘을 지나고는 제법 「샌들」을 신을 수 있게되어 짝인 보환이와도 보조를 맞춰 걷게 되었다.

보육교사 김수너는 “용감한 현옥의 발이 빨리 낫게 해주시오”하고 스물 한 명인 원아들과 기도했다.

현옥은 집 앞으로 난 언덕길을 넘으면서 맞은 편 동산에 하얗게 빛나는 침탑 위의 십자가와, 그 밑으로 난 내리막 오솔길 옆에서 사람들이 “성모의 샘”이라고 부르는 약수터 곁에 서서 엄마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마리아」상과 무서운 「세퍼드」가 두 마리나 있는 원장 신

부님 관사를 쳐다보면서 등 뒤로 보이는 집—항상 어머니가 손을 흔드는—과 왼편에 멀리 치솟은 관악산을 바라보는 것이 습관처럼 되었다.

현옥이 그 지점을 좋아하게 된 것은 보환이가 바로 거기서 기다려 주었기 때문이었다. 현옥은 중학교 3학년이나 되어서 그 점을 자각했지만 사실은 당시에도 알고 있었을 걸로만 생각되었다.

그 후부터 현옥에게는 세 가지 방면을 조망(眺望)해 보는 버릇이 생기지 않았는가 하는 훗날의 회상도 있었다.

현옥의 유치원행(行)이 당시에는 선택된 소수의 행운이라 할 수 밖에 없었다.

국민학교에도 열살이 넘어 보내는 소작농, 능지기, 품팔이, 머슴들네 아들, 딸이 제법 있던 때였다.

「카톨릭」의 규율과 수녀들의 헌신적인 보살핌이래서 당시로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던 여전(女專) 출신 보육선생까지로 이어지는 유아교육의 축복은, 그의 생애에서 언제나 위안을 주는 동요의 세계로 되살아 나는 귀중한 것이었다.

그가 살았던 대방동은 휴전 이후의 서울 번두리гада 부분 그랬던 것처럼 반(半) 전원의 녹향이 배어있는 동네였다.

해는 아침에 용마산(龍馬山)으로 뜨고 저녁에는 성당의 침탑 아래로 숨었다.

도시의 먼지내음과 향리의 인본 냄새가 묘하게 조화되는 동화의 후향이었다.

비 개인 이후에는 무지개가 겹으로 뜨는 관악의 능선이 현옥에게는 “이 답에 커서 무지개의 물감을 받으러 가야만 할 방문처”였다.

어머니는 중학교에 가면 수채화를 그릴 수 있다면서 그 때는 관악산 무지개 같은 물감을 사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현옥은 “보환이와 함께 물감반으러 관악산을 올라갈 것”이라며 자랑하곤 했다.

성모유치원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였다. 그 중 하나는 두 장군(將軍)의 집 앞을 통과하는 것도 있었다.

김, 이장군이었는데 아버지 리진호씨는 김장군은 “친일파 민족반역자”로 애늬군대 출신이고 이장군은 독립군 장군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현옥에게는 김장군은 보기에든 근엄한 「카이젤」 수염을 길렀다는 것만 기억났고 이장군이 걸친 동그란 검은테 안경이 재미나게 생겼다고 느낄 뿐이었다.

김장군의 아들은 리진호씨를 가끔 찾아와서 현옥에게 과자 꾸러미를 내밀곤 했다. 그래서 현옥에게는 김장군의 아들인 김아저씨가 친숙했고, 술상 앞에서 꾸짖는 아버지의 “친일파 민족 반역자”라는 호통은 그저 어른들끼리의 걱정거리로 밖에는 알지 못했다.

이장군의 집에는 담이 쌓여져 있지 않았다. 관목 울타리를 잘 정리해 키를 나란히 배열해 놓아 겨울에는 대청을 막아 놓은 유리문 사이로 단정히 앉아서 열충을 손질하거나 빈객(賓客)들과 담소하는 사이 사이에 번득이는 동그란 안경알이 비칠 지경으로 뜰안이 모두 들여다 보였다.

그 집은 항상 적막감 같은 맑은 안개가 끼어있는 것처럼 현옥은 느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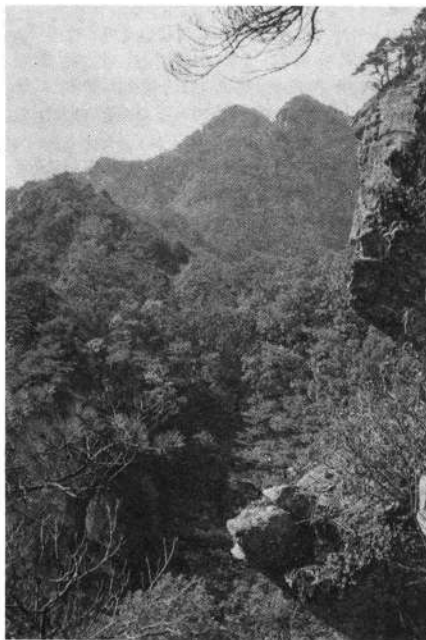
현옥의 또래들은 이장군이 김장군보다 총을 더 잘 쏘다, 이나더로 빈번히 말다툼을 했다. 리진호씨는 현옥이 물어봐도 그냥 빙긋이 웃을 뿐이었다.

“우등불”이라는 이장군의 자서전을 대학시절에 읽고 서야 아버지의 웃음을 떠올리며 현옥 역시 빙긋거렸다.

아물든 당시에는 현옥의 눈에 김장군이 이장군 보다 수염도 멋있고 집도 더 큰 것으로 비취졌다. 대어섯살 적 사내아이들에게는 누가 더 크고 힘세고 총 잘 쏘느냐는 것이 별이 몇개나 보다 더 상위 기준일 수 밖에 없었다.

별은 밤에만 그 빛을 발휘하고 또 너무도 많은 수의 별이 밤하늘에는 널려 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김장군의 집은 한 길 건너 구부락의 경진이네 사는 집보다도 더 큰 소슬대문이 있었고 그 안으로는 사람 둘 사는 집만큼 큰 개우리도 있었다. 그 안에는 송아지만한 「도벨만」이나 「세퍼드」 같이 우렁차게 짖는 개들이 꼭 차 있었다.



그 개들은 밤이면 용마산 속에 풀어져서 몰래 산 속에 밤 따라 들어가는 사람을 사정 없이 물어서 김장군 앞에 데려간다고 동네의 형들이 가르쳐 주었다.

현옥은 집에 기르는 진도개 「메리」가 김장군네 세퍼드—꼭 늑대같이 생겼다고 열집 누나가 어머니에게 얘기한—와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고 집요하게 물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고는 그런 말을 물어보지 말라고 눈을 흘겼다.

아버지에게는 쉽게 물어보지 못했지만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물어보니 아버지는 진도개가 개 중에서는 제일 용감하다고 「메리」편을 들어주었다.

현옥은 그 이튿날 보환이에게 진도개 자랑을 했다. 보환이는 김장군에게 개를 보러가자고 했다.

현옥은 겁이 났지만 대문 뜰으로 보인다는 보환이의 말에 한 번도 열린 것을 보지 못한 김장군네 대문에 가보기로 했다.

이런 현옥에게는 너무 대문은 그림 시간에 막 펼쳐

놓은 하얀 도화지 같이 크게만 보였다.

보환이가 먼저 대문 틈으로 얼굴을 붙이고 들여다보았다. 현옥이 뒤따라 눈을 가까이 갖다 대었다. 불나들이 할 때 본 창경원의 호랑이 우리처럼 철망으로 둘러싸인 방사장에는 대 여섯 마리의 커다란 개들이 인기척을 향해 짓고 있었다.

그 중 한 마리는 철망에 뛰어 오르면서 붉은 입을 벌려 악을 쓰고 있었다. 꼬리를 자르고 귀는 창 끝처럼 뾰족한 도베르만의 펼친 키는 어린 현옥에게는 철창우리 속의 도약하는 표범처럼 무섭게만 보였다.

둘은 겁에 질려서 대문 틈에 눈을 붙인 채로 울음을 터뜨렸다. 화단에는 장미며 칸나가 어우러져 있었고 꽃망울이 다 저버린 벚꽃나무들이며 회양목으로 둘러 친 정원 길이 눈물 속으로 보였지만, 철책에 갇힌 개들이며 맹수 따위가 사람을 해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알 만한 나이가 될 때까지도 현옥에게는 그날 포효하던 개들이 우짖던 김장군 정원의 아름다운 조경 따위는 기억되지 않았다.

그 날 이후, 보환이는 「메리」 따위는 김장군네 개들 중에서 제일 작은 놈에게도 이기지 못할 거라고 뼈죽 거리는 것이었다.

현옥도 내심으로는 보환이의 말이 맞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지는 진도개가 얼마나 용감한가에 대해서 옛날 이야기까지 들려 주었기 때문에 「메리」가 과연 김장군의 개보다 더 힘이 센지에 대해서는 혼란스럽게 생각되었다.

「메리」는 영특했다.

현옥도 분간 못하는 리건호씨의 차 소리를 멀리서부터 알아듣고는 가장(家長)의 퇴근을 식구들에게 알려 주는 것이었다.

리건호씨는 친구들과 술이라도 한 잔하는 날이면 으레 남은 안주라든가 뼈다귀 같은 것들을 모아 담아서 「메리」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래서 그런지 「메리」는 아버지의 귀가를 누구보다도 반겨서 제법 크게만든 동나무 집을 질질 끌고는 차 앞까지 뛰어어나가는 것이었다.

현옥이 「메리」 다음으로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것은 외사촌 익무형이었다. 익무형은 몸에 용(龍)을 그려넣어서 장작이라도 패는 날이면 벗은 옷 몸이 흡사 사자암에서 본 비천(飛天)하는 용같았다.

세상에서 아무 것도 무서운 게 없다는 익무형은 늘 선한 미남이어서 동네 누나들은 형이 이름난 용사—훈

장을 받았느냐고 현옥이 물어봐도 썩 웃기만 했다—였다고 수근거리면서 때로는 현옥에게 형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다. 현옥이 형을 좋아하는 이유는 많았다.

익무형은 칼 던지기를 잘했다. 대검을 아무렇게나 던지는 데도 삼자루 같이 가는 나무등걸에도 꽂히는 게 현옥은 신기했다.

익무형은 아버지 리건호씨에게 때로는 치도곤을 맞곤 했다.

리건호씨에게 잔뜩 꾸중을 들은 익무형에게 일하는 누나가 누렁지 그릇에 흑설탕을 뿌려 현옥에게 갖다주라는 심부름을 하곤 했다.

그 날, 익무형은 용마산 기슭으로 난 신망원길로 현옥을 무덤 태워 가뵈게 올라서서는 관악산이 잘 보이는 등성이에 앉히고 왜 야단을 맞았는 지에 대해서 설명했다.

술에 잔뜩 취해서는 김장군네 대문에다가 오줌을 싸고 바로 차고 해서 뛰어 나오는 수위 아저씨들을 두들겨 쫓았다.

현옥은 「김장군의 개들은 안 물어 봤어요?」하고 물었다.

익무형 애기로는 동네 사람들이 개들 때문에 산으로 소풍도 못가고 가을에는 밤이 산에 널려있어서 주우러 갈 수 없게 되니 알미워서 술 취한 김에 대문에 오줌을 갈겼단다.

현옥도 익무형이 잘 했다고 생각했지만 김장군의 대문에서 웅얼서 도망했다는 이야기는 차마 털어놓을 수가 없었다.

어떻게 익무형이 유도를 하는 수위 아저씨들한테 이겼느냐 물었더니, 「고모부에게 이걸 배웠지」하면서 손칼로 나무 자르는 시늉을 해 보였다. 하긴 어머니께 여사도 익무형이 싸움으로는 우리 나라에서 제일일거라고 놀리신 적이 있었다.

언젠가에도 상이 군인이아저씨라면서 다치지도 않은발에 목발을 짚고 때를 쓰는 나쁜 아저씨들 세 명을 익무형 혼자서 꼼짝 못하게 쓰러뜨리는 것을 보고는 현옥도 가르쳐 달라고 했지만 형은 「너는 의사할 거니까. 태권같은 것은 가르치지 말라고 어머니가 말했단다.」고 피했다.

익무형이 싸운 날엔 리건호씨는 심하게 야단을 쳤다. 김장군네 대문에 오줌을 싼 날에는 더 큰 소리로 꾸짖고 뽕까지 후려쳤다.

어머니는 「일제시대는 그 밑에서 잘 살고 해방 후

에도 장성까지 지낸 데에서 동네 사람 중에는 입에 풀
칠하기도 힘든 사람도 있고 가까운 신망원에는 고아들
이 우글거리는 판에 개를 몇 마리씩 키워 고기근을 먹
인다니 윈...」하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현옥에게는 이장군과 김장군 두 집의 대문과 울타리,
그리고 그들의 인상이 선연히 새겨질 만큼 대방동의 어
린시절 그들의 전쟁의 포연이 걸린 후에 휴식으로 접
어든 군인들이 많이 차지했다. 그랬어도 용마산 기슭
에서는 접동새, 삿꾸기, 부엉이, 산비둘기들의 우는소
리가 끊이지 않았고 너구리, 여우, 산토끼굴이 있었다.

또 비 온 날이면 마당의 화단에까지 미꾸라지, 송사
리들이 오르내렸다.

여름이면 쓰르라미와 매미는 방 문에 천 밤에까지 날
아와 있을 정도로 취락(聚落)들은 숲과 들과 산기슭의
일부였다.

언덕바지에 숲으로 둘러싸인 문호네 집은 찬 우물
로 이름이 났다. 아무리 더운 날에도 문호네 우물은찬
서리가 맺히는 시원한 약수를 길어 수 있었다. 두레박
으로 한참을 길어 올려야 하는 문호네 우물이 얼마나
깊은지 알아보고자 현옥이 자두 한 알을 던졌더니 한
참 있다가 「풍당」할 만큼 깊이 있는 우물이었다.

그 집 우물은 문호네 증조 할아버지가 판 이후로 아
무리 가물어도 60년 이상이나 물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여름철 밤이면 마을 할머니들이랑 아주머니들이 모
여 앉아 너무도 물이 차서 등목도 못하고 겨우 발이나
담고 앉아 차게 한 참외나 깎아먹으며 땀을 들이던
곳이다. 으레 그 곳에서는 재취를 거부한 수절과부의
목 앓이 해마다 재연되곤 했다.

그 문호네 우물도 무슨 본부가 세워진다는 공사가 시
작되면서 산을 깎고 불도저가 나무들을 밀어붙이기 시
작하고 서는 물 빛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어린 현옥이네 친구들은 산을 밀어 놓아 쌓인 흙더
미가 꼭 떠방이간의 쌀가루처럼 부드러워 뒹굴며 놀기
에 좋지만 했다.

공사가 있고부터 낮에도 들려 오던 산새 소리와 공
중을 선회하던 솔개가 뜰해졌다.

그래도 늦은 여름부터 보이는 새빨간 고추 잠자리는
동구 밖에서 아이들의 잠자리 채를 비웃듯 높이 유평
하곤 했다. 아이들은 차가 지나가면 피어오르는 먼지
나는 신작로 보다는 이상하게 끈적거리는 아스팔트 위
에서 자전거 타기가 쉬웠다. 심지어는 까만 콜타르를

동그랗게 뭉쳐서는 유리구슬 대용으로 구멍널기를 하
기도 했다.

하루 종일 공사장 「불도저」가 밀어놓은 흙 산에서 성
을 짓고는 전쟁놀이를 하다가 익무형 손에 이끌려 집
에 돌아오니 집에는 김아저씨가 다른 손님 한 분과 함
께 아버지 리건호씨와 술상을 받고 있었다.

아버지는 손님이 오시면 그 때만 해도 삼형제이던 현
옥과 동생들을 꼭 나란히 세워놓고 인사를 드리게했다.
어떤 때는 술상 옆에 앉혀놓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 날 리건호씨는 격앙되어 있다.

「아무리 자네 부친이시지만 국회의원은 안되네!」
김아저씨네 아버지 김장군에 대한 이야기라 현옥은
먼저 그 집 대문과 개장이 떠올랐다.

「지금은 과거의 잘못을 뉘우쳐서라도 자중하시고 유
영사업에만 전념해서 관용에 대해 보답해야 할 결세!」
주로 리건호씨가 얘기를 많이 했다.

김아저씨는 「구부라에 전기를 다 놓아주겠다고 그러
시지 않나!」하면서 아버지를 구술리는 투였다.

「신망원도 새로 지어 회사하겠다는!」 옆에 앉은 아
저씨가 거들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내가 이 동네에 살고있는 이
상은 어림없는 이야기일세!」 리건호씨는 나즈막히 잘
라 말했다.

「이장군도 내심 허락하신결세.」 김아저씨가 코가 쪽
 빠져 혼자만 비웃하게 증명거렸다.

「이 대통령이 나라를 망치려구 친일과 민족 반역자
들을 주위에 모아서는 권권에만 눈이 팔려 있는 게야
... 이 백성들이 모를 줄 아나?」

「이제 아버님이 사셔야 얼마나 사시겠나? 자네 좀
모르는 척만 해 주게,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해서 나도
나서는게야...」

김아저씨는 눈물까지 글썽거리면서 아버지 손을 잡
았다. 옆에 있던 현옥도 공언히 김아저씨 편을 들고있
었다.

「아들은 안될 말이네!」 딱 잘라 말하는 리건호씨였
다.

익무형은 현옥에게 김장군이 하고 싶어 한다는 국회
의원이 무언지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보니 현옥이네
집에는 무슨 의원이니, 선생이니, 장군이니, 국장이니
하는 아버지 친구들이 가끔씩 왔다.

그러나 아버지는 무슨 무슨 「동지」라고 불리는 손님
들에게 현옥이네 삼형제를 자랑했지만, 차를 타고 먹

을 걸 신고 오는 손님들에게는 현옥을 인사시키는 일이 드물었다.

익무형의 설명을 들은 현옥은 대방동에서 제일 멋진 수염을 기른 사람이 김장군이지만 그렇게 무서운 개들을 많이 키우는 할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지 공연히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현옥이네 집 건너 편 줄의 적산 가옥맨 끝에는 현옥이 또래들이 「아이노고」라고 부르는 미국 아이가 살았다. 눈이 새파랗고 코가 오목해서 꼭 뉘면 눈을감고 세우면 눈이 깜빡 떠지는 공주인형같이 예쁜 계집아이였다. 다른 아이들처럼 현옥도 「아이노고」라고 부르다가 어머니한테 호되게 꾸중을 듣고는 현옥 만큼은 꼭 「제인」이라고 부른 그 아이였다.

「제인」은 한국말을 잘 했다. 그것은 엄마가 한국사람이었기 때문이었지만 미국 사람인 제인의 아빠도 한국말을 제법 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제인」은 장난감은 많았지만 친구들은 없었다.

현옥의 친구들이 「제인」과 놀라치면 엄마들은 한결 같이 양갈보 딸하고 놀지말라고 야단이었다.

다행히도 현옥은 어머니가 별 말이 없어 그런대로 「제인」 집에 놀러 다닐 수 있었다.

보환이는 현옥이 「제인」과 노는 날이면 입을 비죽이면서 「얼레플레」를 입에 달고 다녔다. 그래서 현옥은 제인네 집에 갈 때면 뭘 수 있는 대로 보완이나 다른 친구들의 눈에 안 띠도록 하게 되었다. 사실 현옥이 「제인」네 집에 자주 놀러 간 것은 「제인」이 백설공주처럼 예쁘기도 했지만 의사놀이 장난감 세트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놀이 방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곳에서 현옥은 의젓한 의사 선생님으로 대접받고 청진기를 자랑스럽게 「제인」의 이마와 배와 등에다가 대어보기도 하고 팔 다리가 떨어진 인형의 치료 시에는 헌신적인 간호원 「제인」의 도움을 받아 수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었다.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제인」과는 뜻 밖에 빨리 헤어지게 되었다.

낮 동안에 흠투성이가 되어 놀던 현옥이 새벽녘에 난 권총 소리를 못 듣는 것은 당연했다.

아침 식사를 하고 출근 길에 나선 아버지가 「제인」의 집 앞에서 차를 멈추고 「제인」의 아빠와 말을 나누는 것을 보았다.

익무형이 나중에 이야기 한 것은 어린 현옥이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일 중의 하나가 되었다.

새벽녘에 「제인」네 집에 도둑이 들었다. 마당에 세워둔 야의 탁자 위에 놓인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훔치려고 들어온 사람이 개가 짖는 바람에 들켜 담을 넘어서 도망가다가 「제인」의 아빠가 쏜 권총에 그만 죽었다는 것이었다. 그가 짖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사람 목숨보다 중요하냐고 동네 사람들은 수근거렸으나 미군의 고등 문관인 「제인」의 아빠한테는 아무도 항의하지 못했다.

리건호씨는 그 일을 동네 사람들을 대표해서 항의했다. 「사람에게 권총 쏘는 것은 미국에 돌아가서나 하라」면서 노력하는 리건호씨의 영어가 중국에서 「OSS」훈련 중에 익힌 것을 알고 있던 「제인」의 아빠는 발발떨었다고 했다.

결국 리건호씨의 항의로 말미암아 「제인」네는 미국으로 이사를 했다.

현옥은 「제인」이 가없었다.

저렇게 총을 막 쏘는 무서운 사람이 어떻게 예쁜 「제인」의 아빠가 되었는지. 그렇지 않아도 동네 사람들과는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던 「제인」의 엄마는 이삿짐을 꾸리면서 더욱 울즈러들었다.

현옥도 어머니의 눈치를 보느라고 「제인」에게 말 한마디 못 건넸다. 그러나 어머니가 「제인」에게 선물하라는 꾸러미를 건네주자 날 듯이 「제인」을 찾았다.

어머니가 준 선물은 털실로 짠 노랑색 병어리 장갑이었다. 올 겨울에 현옥이와 함께 눈 사람을 만들라고 짠 건데 헤어지는 선물로 준다는 내용의 글이 적힌 메모지를 보면서 「제인」의 엄마는 눈물을 글썽거렸다.

그 날 저녁 현옥은 아무 말 없이 어머니가 집어 주는 김구이를 밥에 덮어 먹으면서 자꾸만 흘려지는 밥알 때문에 반 공기 넘어 남겼다.

어머니가 「제인」내일 이사 간다니까 섭섭하지? 하고 물어도 「아이노, 보완이랑 친구들 많이 있는데요 월」하고 통명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현옥은 어머니에게 숨길 비밀이 하나 생겼다. 「제인」이 「내일 아침 일찍 비행장으로 간다」면서 입술에 뽀뽀해 준 것을 현옥은 부끄러워서 어머니에게 말 못한 것이었다.

「제인」은 가지고 있는 유리구슬 중에서 제일 예쁜 것들을 골라 현옥에게 선물했다. 그 중에서 제일 예쁜 것은 바로 어린이들 사이에 「아이노고」라고 불리우는 유리구슬이었다.



제 7회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대회
참가선수단
해단식



▲선수단을 인수하고 돌아온 황호순 단장이
김운용 회장에게 단기를 반납하고 있다.



▲ 7년째의 위업을 달성하고 환영속에 개선하는 선수단.



▲ 태권도 내일의 청사진을 밝혀줄
우리 선수단.

Luis Alfonso
Cabrera Hidalgo ▶
구아테말라 국회의장
(우측) 및
구아테말라 대사
Edgas Artuer
Lopez Calvo (좌측)



국기원에 오신 손님들

◀ NBC 사장
Mr. Arthur
Watson



Cote D'ivoire ▶
체육국장
Alfred
Silue Mamago





◀ 이라크 NOC
위원 및
무술협회장
Dr. Husan
Al-Rawi

Visitors to Kuk Ki Won



폴란드 NOC
위원장 ▶
Marian Renke



◀ 폴란드 NOC
사무국장 및
Fairplay
사무총장
Jansz
Piewcicz



동서남아 순회 성인시범

• 때 : 1986. 3. 6 ~ 30.
• 곳 : 버마 · 태국 · 인도 · 파키스탄
스리랑카 · 인도네시아
일본 (7개국)



▲홍중수 단장에게 수여되는 공로패.



▲아시아의 정상을 향한 의지의 실천자들.
아시아의 태권도 취약각구를 순회하며 태권도의 진수를 보여줌으로써 KOREA를 심어준 시범단원들.



▲개회식에 참석한 제주도 도지사 및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들.



▲환영사...
정봉사 제주협회장



▲대회사...
엄문규 부회장



▲격려사...
장병구 제주도지사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실례이는 가슴으로 여기에 있다. 성년을 맞는 대회의 의미를 실려 「후회없는 나」를 만들어 보리라.

제21회 대통령하사기쟁탈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
 '86.5.15 - 18 (4일간) 제주도타권도협회



▲개회식에 참석한 제주도 도시사 및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들.



▲환영사...
정통사 제주협회장



▲대회사...
엄운규 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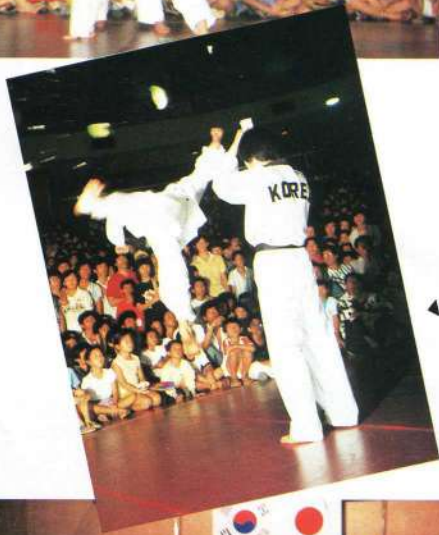
▲격려사...
장병구 제주도지사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설레이는 가슴으로 여기에 섰다. 실년을 맞는 대회의 의미를 살려 「후회없는 나」를 만들어 보리라.



◀ 관중이 쏟아내는 열기로 사기충천. 인도네시아 「그라푸단」 체육관에서 장애물 (사람신장) 넘어 열차기 시범을 멋지게 선보이는 우리 시범단.



◀ 「점프 뒤후리기」 머리 위에 놓인 아자 열매를 가르는 신기한 묘기에 관중은 박수조차 잊었다.



태권도의 ▶ 진수도 과시. 일본 동경의 제국호텔에서 태권도 기본동작을 시범 보이고 있다.

日本跆拳道協

제1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 때 : 1986. 5. 5~9 • 곳 : 경남 마산시 압덕여중 체육관



▲영광의 계단을 밟고 선 얼굴들.

단체 입상순위 • 1위 서울특별시
• 2위 전라남도
• 3위 부산직할시



▲「3분3회」의 공간을 바라보는 시선들.

전체적으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전국 선수들의 기량이 평준화 되고 있음이 입증된 본 대회에서의 성과를 더욱 고무시키듯 김운용회장 및 협회 임원들이 경기장에 앉아 진지한 시선을 그들에게 던진다.



▲「선수도…… 심판도…… 没入하는 순간」

뒤탈기 공격으로 대결을 펼치는 두 선수 못지않게 심판의 민활성이 주목되어 삼위일체의 조화를 이룬다.



◀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암담 1위에 오른 믿음직한 얼굴들
 그들은 결코 여기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이 순간부터 지금까지 쌓아온
 노력 이상으로 매진할 것임에
 틀림없다.
 높이 곳을 향하여.



▶ 흥분의 엇갈림.
 비록 2위에 머물렀지만
 그들은 최선을
 다했다. 「다시 뛰자
 그날까지 있는 힘껏
 달려라」
 도전의 눈빛이 가득하다.



◀ 「陰地에서 일하고
 陽地를 지향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대회를
 주관하여 15회를
 의미있게
 장식하는데
 큰 몫을 담당한
 경남협회 임원들.

1986년도

여자태권도 선수권대회

• 때 : 1986. 5. 22 ~ 23 • 곳 : 국기원



▲ 또 다른 시작을 약속하는 진지한 모습.

보다 나은 여성태권도를 정립하기 위해 모두들 열심히 뛰었다. 본 대회가 남긴 자취, 즉 '여성태권도의 무한한 가능성'을 거울삼아 이제 87년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 아무지면서도 과감한 연기.

남자선수 못지 않은 도전력을 가진 여자선수들의 날로 향상되는 기량. 이로써 우리 여성태권도도 내적, 외적으로 성장할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 여자선수의 저력을 과시.

1위에 입상한 선수들.
우리나라 여성태권도
발전에 디딤돌이 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춘
그들에게 가히 기대를
가져도 좋을 것 같다.



▲ 여성 태권도의 산실 청산여상.

어느 학교보다도 많은 선수들을 키워내고 있는 청산은
앞으로도 여성태권도 발전에 독보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교장·코치·그리고 선수들의 모습)



▲ 인천체고의 꿈나무들.

다시 새롭게 부상하는 인천체고 선수들
특히 이번 대회에서 두드러진 실력을 발휘해
주목을 끌었다.



◀ 이제는
도약할 단계.

무엇보다도 새로운
유망주를 탄생시켜
생명력이
강한 선수로
육성하는 길이
여성태권도의
활성화를 다지기
위한 첩경이다.